연구보고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책임연구원 최인재
공동연구원 이윤주 송민경 조윤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책임연구원_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송민경(경기대학교·교수)
조윤정(경기도교육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 b s t r a c t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성장의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앙부처의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들을 분석하고, 각종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협력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 사업은 지역별 규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가능성,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총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담당자 및 운영 위원, 지자체 및 중앙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사례 중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재단 내 산하 청소년시설들과 마을교육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과의 연계 협력 관계를 구축한 사례이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기관으로 하는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이다. 한편, 노원구의 경우 민간에서의 자생적,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민간 주도 네트워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시흥시 사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 사례이다. 이들 국내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및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과 운영과정에서의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주체, 운영방식 및 역할,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에 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지자체-교육(지원)청-협의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담인력의 배치와 조례제정, 전문 인력 양성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3개의 정책목표, 4개의 정책과제 및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청소년성장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 성장의 개념 등을 검토하였음.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고, 각종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협력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시범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시범 사업은 지역별 규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가능성,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였음.
  - GIS(지리정보체계) 분석: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의 지리적 인프라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학교, 청소년 기관 및 이용시설, 지자체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GIS 분석을 시행하였음.
  - 네트워크 분석: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의 기관, 인적 자원 간 교류 상황 및 협력망 구축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음.

- **(현장면접조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의 우수사례에 관해 현장 4곳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과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전문가의견조사)** 시범사업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담당자 및 운영위원, 지자체 및 중앙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추진체계에 관한 서면조사와 FGI를 실시함.
- **(콜로키움)**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콜로키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교육청, 지자체, 마을의 자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과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 **(워크숍 및 학술세미나)** 시범사업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한 사전 안내와 사업의 운영방안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함. 아울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 수집과 비교분석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여성가족부, 지자체 공무원과 8차에 걸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함.

3. 주요결과

1) 용어의 개념 고찰 및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중앙부처 사업 분석

- 문헌연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및 청소년성장지원 등에 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음.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운영 방식의 중요 요소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음.

● 한편,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사업 중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하였음. 검토결과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목적의 서비스를 연령이 중복되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부처 유사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사업 간 연계나 조정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국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

● 국내 사례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흥시와 노원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였음.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재단 내 산하 청소년시설들과 마을교육네트워크 중간 지원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과의 협력 사례라는 특징이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기관으로 한 지역사회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례라 할 수 있음.

● 한편, 노원구의 경우 관(官)주도의 네트워크가 아닌 민간에서의 자생적,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민간 주도 네트워크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시흥시 사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 간의 연계 협력 사례임.

● 외국사례로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활용한 교육복지사업인 PROJECT U-TURN 사업을 사례로 제시했음. 이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로 지역사회 민·관 참여 주체가 공동의 비전과 목적하에 '성과공유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는 점이 주요 시사점임.

● 일본사례의 경우 지역사회 성장지원 대상을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징적인 점은 지역별로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청소년성장지원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점임.

● 싱가포르는 총 인구 564만 명의 작은 다인종 도시국가로 특징적인 점은 교육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한 정부주도형이라는 점임. 정부의 주도하에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음.

● 핀란드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 국가로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 받고 있음. 특징적인 점은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참여활동이나 시민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앙정부,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3) 시범사업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음. 부천시, 곡성군 및 유성구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방안 마련

●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주체, 협의체 운영방식 및 역할,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에 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지자체-교육(지원)청-협의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또한 전담인력의 배치와 조례제정, 전문 인력 양성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음.

4. 정책제언

● 이상의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청소년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3개의 정책목표, 4개의 정책과제 및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비 전 : 지역과 청소년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

정책목표

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환경 조성
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 기반 마련
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법·제도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1-1.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1-2. 지자체 조례 내 협의체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명시 및 평가체계 개편 1-3.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관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설립 및 운영체계 마련	2-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범위 설정 2-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 주체 선정 2-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 및 역할 마련
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1. 지역의 인프라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3-2.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성 제고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교육청 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지원체계 강화	4-1.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4-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의사결정권 및 권한 부여 4-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

차 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9-R13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 7
1) 연구내용 ····· 7
2)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및 2019년도 연구 추진체계도 ····· 8
3. 연구방법 ····· 10
1) 문헌연구 ····· 10
2) 전문가 자문회의 ····· 10
3) 시범사업 운영 ····· 11
4) 현장면접조사 ····· 12
5) 전문가 의견조사 및 FGI(초점집단인터뷰) ····· 12
6) 기타 연구방법 ····· 12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5
1.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7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 17
2)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19
3)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와 협력적 거버넌스 ····· 20

2.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별 지역사회 연계 사업 ···· 22
1) 교육부 ···· 22
2) 보건복지부 ···· 30
3) 여성가족부 ···· 34
3.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 사업 간 연계 협력 모색 ···· 37

Ⅲ.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 ···· 43
1. 국내 사례 ···· 45
1) 성남시 사례 ···· 48
2) 아산시 사례 ···· 72
3) 노원구 사례 ···· 89
4) 시흥시 사례 ···· 107
2. 국외 사례 ···· 129
1) 미국 사례: "PROJECT U-TURN" in Philadelphia, PA ···· 129
2) 일본 사례 ···· 145
3) 싱가포르 사례 ···· 168
4) 핀란드 사례 ···· 185

Ⅳ.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 203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 205
1) 시범사업 운영 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 206
2) 시범사업 운영 지역 및 기관 특성 ···· 208
3)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 212
2. 지리정보체계(GIS)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지리적 환경 분석 ···· 218
1) 전라남도 곡성군 ···· 22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 225
3) 경기도 부천시 ···· 232
3.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사회적 환경 및 청소년 현안 이슈 ···· 238
1) 곡성군 ···· 238
2) 유성구 ···· 241
3) 부천시 ···· 245

4. 시범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추진경과 ····253
1) 곡성군 – 지역 내 청소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 ····253
2) 유성구 –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청소년 성장과 교육 네트워크 연계 ····257
3) 부천시 – 청소년 기관(재단) 중심 형태의 지역사회 연계 262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분석 ····270
1)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273
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277
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283
6. 시범사업 운영지역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례 ····289
1) 곡성군 사례– [청소년 유출 방지를 위한 농·산·어촌·소도시] ····289
2) 유성구 사례 –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교육중심 광역도시] ····291
3) 부천시 –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청소년재단이 공존하는 수도권 도시] ····298
7. 시범사업 운영지역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304
1)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304
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307
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311
8. 소결 및 시사점 ····314

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319
1. 조사개요 ····32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321
2) 조사방법 및 절차 ····322
3) 조사대상 ····323
4) 조사 내용 ····325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결과 ····330
1) 지역사회 네트워크 ····330

2)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및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방안 ····· 334
3)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 340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 346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결과 ····· 350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 ····· 350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 주체 ····· 354
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방식 ····· 357
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 ····· 359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363
1. 결론 ····· 365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 365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 368
2. 정책 제언 ····· 370

참고문헌 ····· 397

표 목차

표 Ⅰ-1 자문내용 및 일정 ····· 10
표 Ⅰ-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 12
표 Ⅰ-3 워크숍 및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 13
표 Ⅱ-1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기본 프로그램) ····· 32
표 Ⅱ-2 중앙부처 지역사회 연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비교 1 ····· 40
표 Ⅱ-3 중앙부처 지역사회 연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비교 2 ····· 41
표 Ⅲ-1 성남시에 소재한 사업체 구성 현황(2017년 12월 기준) ····· 50
표 Ⅲ-2 2018년 청바지 프로젝트 & 전문적 진로사업 추진을 위한 체험일터 현황 ····· 56
표 Ⅲ-3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체 구성 현황(2017년 12월 기준) ····· 73
표 Ⅲ-4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현황 (2018년 현재) ····· 75
표 Ⅲ-5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 참여 기관/조직별 주요 역할 -'청소년 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 77
표 Ⅲ-6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운영 현황 ····· 78
표 Ⅲ-7 노원교육복지센터의 주요사업내용 ····· 91
표 Ⅲ-8 상상이룸센터 사업내용 ····· 93
표 Ⅲ-9 노원구 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대상 사업 ····· 95
표 Ⅲ-10 시흥시진로체험센터 사업 ····· 110
표 Ⅲ-11 2018년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 ····· 111
표 Ⅲ-12 PROJECT U-TURN 연계협력 기관(Partners) (2017년 12월 기준) ····· 133
표 Ⅲ-13 기금 운영 파트너십 ····· 136
표 Ⅲ-14 히키코모리 실태 ····· 148
표 Ⅲ-15 니트 실태 ····· 149

표 Ⅲ-16 원인별 등교거부 학생(초, 중학생) 실태 ····· 151
표 Ⅲ-17 관계기관의 구성의 예 ····· 153
표 Ⅲ-18 소라에 상담자 및 지원자 내역(2015년) ····· 164
표 Ⅲ-19 소라에 지원기관의 내역 ····· 164
표 Ⅲ-20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 지역사회협력 구성기관 · 170
표 Ⅲ-21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5가지 주요활동사업 ····· 173
표 Ⅲ-22 ESU 프로그램 담당 통합서비스제공자 ····· 176
표 Ⅲ-23 유스홈 입소현황 ····· 182
표 Ⅲ-24 핀란드 정부 차원 청소년 기구 및 청소년 정책사업 ····· 192
표 Ⅲ-25 정책영역별 핀란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사업 ····· 196
표 Ⅳ-1 시범사업 기관 선정 절차 ····· 207
표 Ⅳ-2 시범사업운영지역·기관 현황 및 특징 ····· 212
표 Ⅳ-3 시범사업운영을 통한 단계별 기대효과(안) ····· 212
표 Ⅳ-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별 역할 및 기능(안) · 213
표 Ⅳ-5 시범사업 운영지역 기관 분석방법 및 내용 ····· 218
표 Ⅳ-6 곡성군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 220
표 Ⅳ-7 유성구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 225
표 Ⅳ-8 부천시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2019년 3월 기준) 233
표 Ⅳ-9 부천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현황 ····· 247
표 Ⅳ-10 시범사업 운영지역 사회적 환경 및 지역 청소년 현안 키워드 ····· 252
표 Ⅳ-11 시범사업운영지역(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 254
표 Ⅳ-12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 256
표 Ⅳ-13 시범사업운영지역(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 258
표 Ⅳ-14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 259
표 Ⅳ-15 시범사업운영지역(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 262
표 Ⅳ-16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 265
표 Ⅳ-17 시범사업운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특성과 추진경과 ····· 268
표 Ⅳ-18 ○○지역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분석 - 시간 흐름 변화 코딩(예시) ····· 271
표 Ⅳ-19 ○○지역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분석 - 상호작용 유형 코딩(예시) ····· 272
표 Ⅳ-20 유성구 청소년 관련 현안 이슈를 위한 토론 결과 ····· 293
표 Ⅳ-21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동아리 운영 현황 ····· 297
표 Ⅳ-22 시범사업 운영지역 지역사회 연계 운영사례 및 시사점 ···· 302

표 Ⅴ-1 조사방법 및 절차 ····· 322
표 Ⅴ-2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참여자 구성(A그룹) ····· 323
표 Ⅴ-3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자 구성(B, C그룹) ····· 324
표 Ⅴ-4 조사 그룹별 질문 주제 영역 ····· 326
표 Ⅴ-5 조사 그룹별 질문 구성 현황 ····· 326
표 Ⅴ-6 조사 문항내용 및 상세질문 ····· 327
표 Ⅴ-7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범위 ····· 331
표 Ⅴ-8 연계 협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사업 ····· 333
표 Ⅴ-9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 335
표 Ⅴ-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부진요인 및 개선과제 ····· 337
표 Ⅴ-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 339
표 Ⅴ-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 및 참여 주체 ····· 341
표 Ⅴ-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 방식 및 역할 ····· 343
표 Ⅴ-1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시 고려사항 ····· 345
표 Ⅴ-15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 ····· 347
표 Ⅴ-16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 349
표 Ⅵ-1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률 및 자치법규 구조 ····· 373
표 Ⅵ-2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374
표 Ⅵ-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375
표 Ⅵ-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 ····· 375
표 Ⅵ-5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394
표 Ⅵ-6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연수 과정(예시) ··· 395
표 Ⅵ-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과제 추진 계획 ····· 396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 8
그림 Ⅰ-2 2019년도 연구추진 체계도 ····· 9
그림 Ⅱ-1 네트워크 구조의 유형 ····· 20
그림 Ⅱ-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모형 ····· 23
그림 Ⅱ-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현황 변화 ····· 25
그림 Ⅱ-4 방과후학교 업무 추진 흐름도 ····· 27
그림 Ⅱ-5 진로체험 운영 체계 ····· 29
그림 Ⅱ-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 30
그림 Ⅱ-7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체계도 ····· 31
그림 Ⅱ-8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 33
그림 Ⅱ-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 위원회 체계도와 연도별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 수 ···· 35
그림 Ⅱ-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조직도 ····· 36
그림 Ⅱ-11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 37
그림 Ⅱ-12 온종일 돌봄 체계 ····· 38
그림 Ⅲ-1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시설 및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진로 활동프로그램 현황 ····· 55
그림 Ⅲ-2 판교25통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 62
그림 Ⅲ-3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형 -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 76
그림 Ⅲ-4 노원교육복지네트워크 ····· 90
그림 Ⅲ-5 상상이룸센터 현장진로체험 단계별 진행과정 ····· 94
그림 Ⅲ-6 노원교육복지네트워크 구조와 확장 ····· 101
그림 Ⅲ-7 시흥시진로네트워크 및 사업내용 ····· 114
그림 Ⅲ-8 시흥혁신교육지구를 통한 거버넌스 형성 ····· 118
그림 Ⅲ-9 시흥형 학습동아리 성장지원 시스템 ····· 122

그림 Ⅲ-10 필라델피아 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졸업률 변화 ·· 140
그림 Ⅲ-11 PROJECT U-TURN과 필라델피아 시의 고등학생 졸업률 변화 ····· 141
그림 Ⅲ-12 사업단별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율 ····· 141
그림 Ⅲ-13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 설치 추이 ····· 152
그림 Ⅲ-14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 운영 모형 ····· 154
그림 Ⅲ-15 교토시 아동청소년육성지역협의회 모델 ····· 156
그림 Ⅲ-16 군마현 고교중퇴자 지원사업 자료(지원모델, 지원맵) ·· 158
그림 Ⅲ-17 요코하마 유스트라이앵글 ····· 159
그림 Ⅲ-18 소라에 지원 체계도 ····· 161
그림 Ⅲ-19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트라이앵글 ····· 161
그림 Ⅲ-20 소라에 상담 흐름도 ····· 162
그림 Ⅲ-21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 179
그림 Ⅲ-22 청소년범죄 구속현황(명) ····· 180
그림 Ⅲ-23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명) ····· 181
그림 Ⅲ-24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명) ····· 181
그림 Ⅲ-25 핀란드 교육문화부 청소년부 ····· 188
그림 Ⅲ-26 청소년의 재정책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단체들 ···· 191
그림 Ⅲ-27 청소년 연구, 정책, 사업 간의 3중 협력구조 ····· 199
그림 Ⅳ-1 시범사업운영 일정 ····· 206
그림 Ⅳ-2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안) ····· 209
그림 Ⅳ-3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안) ····· 210
그림 Ⅳ-4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안) ····· 211
그림 Ⅳ-5 이해당사자 영향력과 참여 간의 관계 ····· 215
그림 Ⅳ-6 천안시, '행복드림체험학교'운영 ····· 217
그림 Ⅳ-7 지리정보 매핑과정 ····· 219
그림 Ⅳ-8 곡성군 지리적 현황 ····· 220
그림 Ⅳ-9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체지역 ····· 222
그림 Ⅳ-10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동북부지역 ····· 223
그림 Ⅳ-11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서부지역 ····· 224
그림 Ⅳ-12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남부지역 ····· 224
그림 Ⅳ-13 유성구 관내도 ····· 226
그림 Ⅳ-14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체지역 ····· 228
그림 Ⅳ-15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관평동 일대 ····· 229
그림 Ⅳ-16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민동 일대 ····· 229

그림 Ⅳ-17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장대동 일대 ····· 230
그림 Ⅳ-18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신성동 일대 ····· 230
그림 Ⅳ-19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원신흥동 일대 ····· 231
그림 Ⅳ-20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대정동 일대 ····· 231
그림 Ⅳ-21 부천시 행정도 ····· 233
그림 Ⅳ-22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체지역 ····· 235
그림 Ⅳ-23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오정구 일대 ····· 236
그림 Ⅳ-24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원미구 일대 ····· 237
그림 Ⅳ-25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소사구 일대 ····· 237
그림 Ⅳ-26 부천시 행정구역(행정복지센터) ····· 246
그림 Ⅳ-27 부천시 광역동 안내 ····· 246
그림 Ⅳ-28 부천시 청소년정책 개념에 따른 모형체계도 ····· 251
그림 Ⅳ-29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조 ····· 263
그림 Ⅳ-30 시범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밀집도 ····· 267
그림 Ⅳ-31 시간 흐름에 따른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 274
그림 Ⅳ-32 시범운영지역(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 276
그림 Ⅳ-33 시범운영지역(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 276
그림 Ⅳ-34 시간흐름에 따른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 280
그림 Ⅳ-35 시범운영지역(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 282
그림 Ⅳ-36 시범운영지역(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 282
그림 Ⅳ-37 시간흐름에 따른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285
그림 Ⅳ-38 시범운영지역(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 ····· 288
그림 Ⅳ-39 시범운영지역(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 288
그림 Ⅳ-40 청소년 성장박람회 조직도 ····· 290
그림 Ⅳ-4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진로교육분과 활동 ····· 291
그림 Ⅳ-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협의회 ····· 292
그림 Ⅳ-43 업무협약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 296
그림 Ⅳ-44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동아리 운영현황 ····· 297
그림 Ⅳ-45 활동프로그램 연계 사례 - 드림까치 ····· 298
그림 Ⅳ-46 청소년참여단 시장과의 대화 ····· 299
그림 Ⅳ-47 부천시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 301
그림 Ⅳ-48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 ····· 304
그림 Ⅳ-49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 ····· 306
그림 Ⅳ-50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 ····· 306
그림 Ⅳ-51 청소년 성장지원 영역과 과제 ····· 307

그림 Ⅳ-5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체계 구성 방향 ····· 308
그림 Ⅳ-53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안) ····· 309
그림 Ⅳ-54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플랫폼의 3가지 형태 ····· 310
그림 Ⅳ-55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 311
그림 Ⅳ-56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체계 ····· 312
그림 Ⅳ-57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도 ····· 313
그림 Ⅵ-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1차년도 개념도) ····· 369
그림 Ⅵ-2 정책과제 발굴 과정 및 절차 ····· 370
그림 Ⅵ-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371
그림 Ⅵ-4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용 예시(서울시) ····· 378
그림 Ⅵ-5 서울의 생활권 구분 ····· 380
그림 Ⅵ-6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 388
그림 Ⅵ-7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 389
그림 Ⅵ-8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 389
그림 Ⅵ-9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유관기관 협력사례 ····· 39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3. 연구방법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두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생태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학교 교육 시스템은 물론 청소년성장지원 체계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소위 국가 주도의 소수 엘리트 교육과 산업화 인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의 대량 양성 등 국가의 경제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18). 그러나 탈근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더욱이 낮은 출생률이 공고화 되면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미래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됨이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각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 관련 사업으로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동안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사교육의 증가와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학교 폭력 및 부적응 등 공교육 체계의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혁신운동이자 지역공동체 회복운동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1)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혁신의 실천과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시도되어온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맞물려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학교와 교육청, 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혁신교육지구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강민정, 안선영, 박동국, 2018).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을 학교로부터 지역사회 또는 마을로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마을을 학습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윤정, 김현주, 이권수, 2017). 학교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장에서 얻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학교와 마을(지역)이 함께 연계 협력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는 것에 초점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사업의 한 사례로 '다함께 돌봄'사업[2](교육부 유사사업: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이 있다. 이 사업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함께 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8). 그동안 보건복지부 내 유사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다함께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중심의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만 6세~12세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유휴공간과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돌봄,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연계협력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CYS-Net)' 사업을 들 수 있다. CYS-Net은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간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이다. 이 외에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부처들의 지원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각각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별 사업이 서로 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됨은 물론 서비스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현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지원 시스템의 미흡과 네트워크 수행기관 간의 협력 관계에 관한 체계성과 역량 부족으로 단발적인 프로그램 사업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되거나 다소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한 지역 내에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청소년 활동, 교육, 복지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구'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전달(지원)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사업 간 칸막이가 있었던 기존의 구조를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구'에서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이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로 연계·협력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이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역 중심의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의 유사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것 같이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협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의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 방향이며 이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마련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총 3개년 간 진행되는 연구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중앙 부처들의 대표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탐색하고, 지역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네트워크 사업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 3곳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가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 내 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사업 수행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사업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보다 심화·발전된 형태의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 담당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 추진체계

1) 연구내용

(1) 용어의 개념 고찰 및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중앙부처 사업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용어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분석하여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

현재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관(官)주도의 사업이나 민·관(民·官) 협력 사업들도 있고, 순수하게 민간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들과 외국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망 모델 개발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시범사업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시범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별 1개씩 총 3개 지역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역에서는 지역의 자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문헌연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사업 운영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의견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와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2)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및 2019년도 연구 추진체계도

(1) 3개년도(2019~202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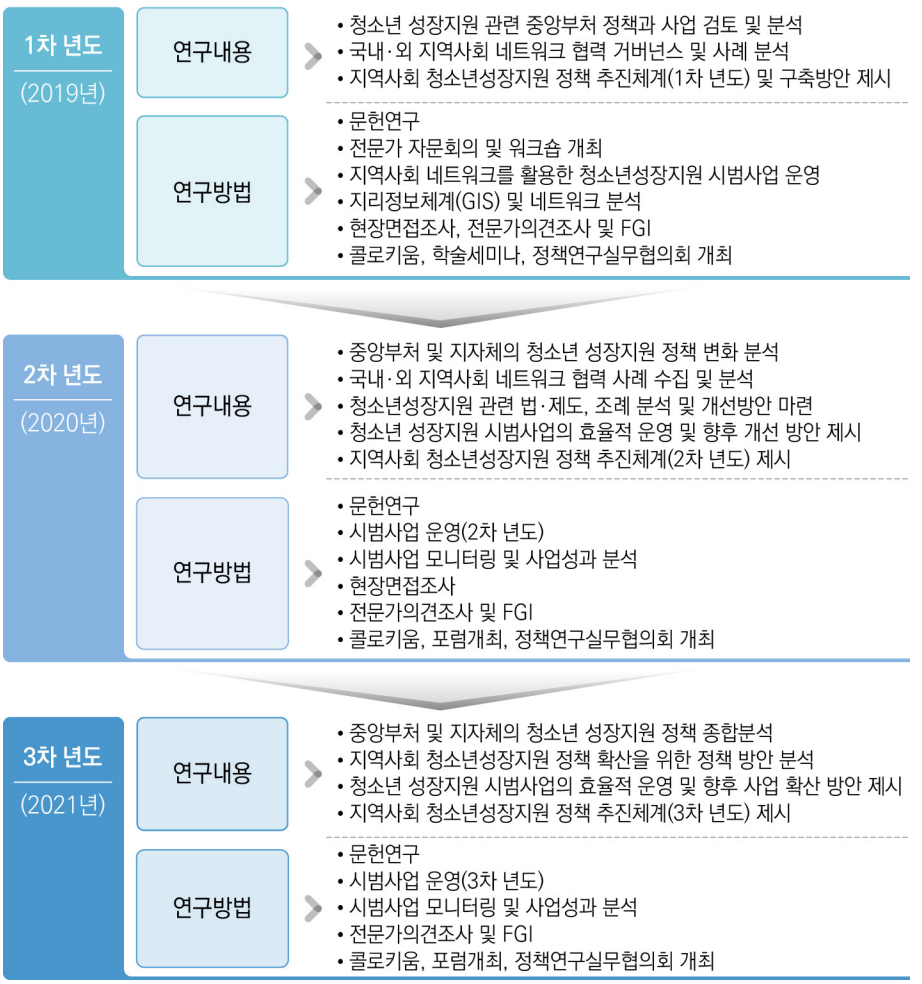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 계획

(2) 2019년도 연구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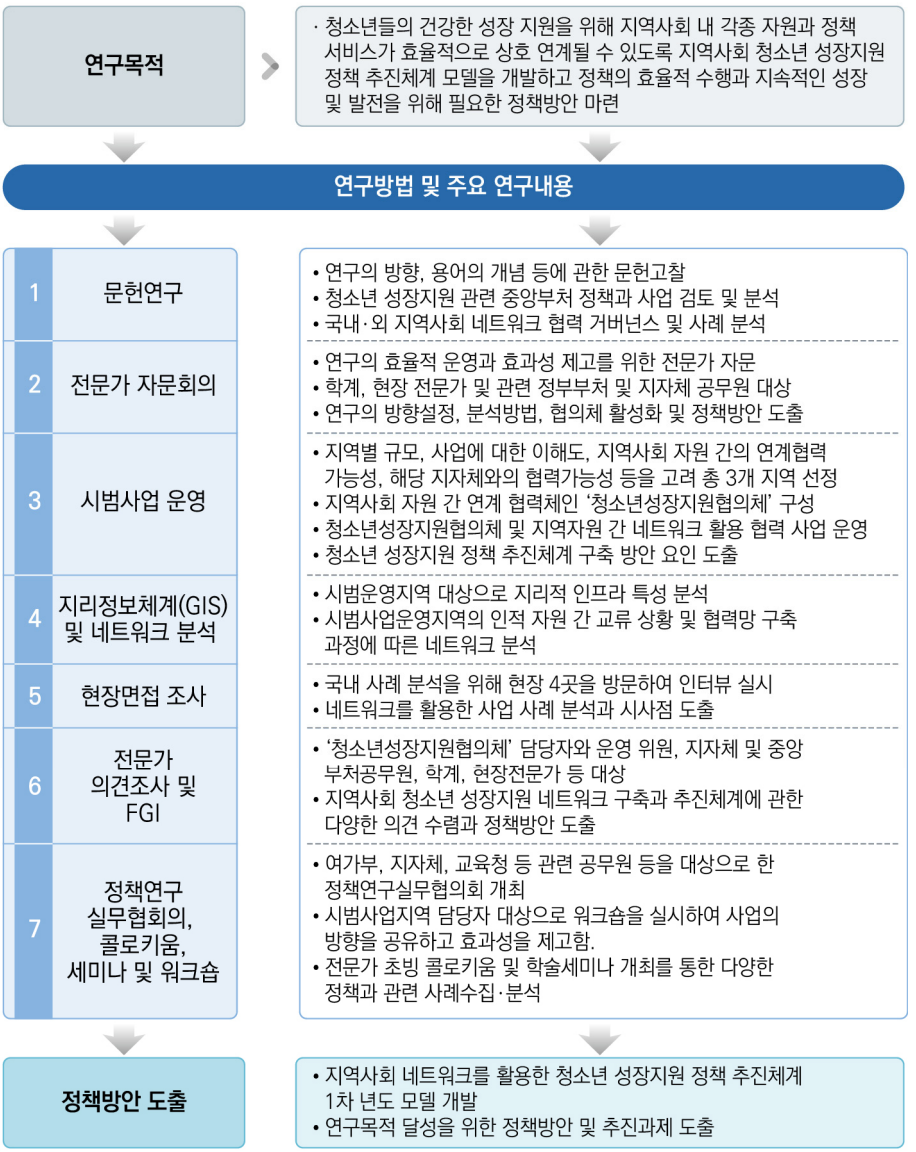


그림 I-2 2019년도 연구추진 체계도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 협력적 거버넌스, 청소년 성장의 개념 등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용어에 관해 선행연구들과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중앙 정부의 정책 및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내·외 협력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12차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계, 현장 전문가 및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 방향과 진행과정 그리고 분석방법, 협의체 활성화 방안 및 정책과제 등과 연구결과의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Ⅰ-1 자문내용 및 일정

차수	자문내용	자문진	개최 시기
1~3	연구 추진방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등	현장전문가, 학계, 공무원	1~2월
4~5	GIS분석, 연계협력 국내외 우수사례 등	현장전문가, 학계	2~3월
6~8	네트워크 분석, 협의체 활성화방안 등	관련전문가	5~6월
9~12	네트워크 우수사례, 추진체계 구축 정책방안 등	공무원, 현장전문가	7~9월

3) 시범사업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 사업은 지역별 규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협력 가능성,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지역에서는 지역 자원 간 협력체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협의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필요요인 등에 관해 구체화하였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 GIS(지리정보체계) 분석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의 지리적 인프라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학교, 청소년 기관 및 이용시설, 지자체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GIS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자체의 협조 및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도시지리정보데이터를 수집한 후, QGIS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마련에 대한 지역 환경 체계와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네트워크 분석

시범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의 기관, 인적 자원 간 교류 상황 및 협력망 구축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시범지역에 대해 데이터 수집을 한 이후, R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별 특성과 사업 수행 진행 과정에 따른 상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4) 현장면접조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의 우수사례에 관해 현장 4곳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 지역의 선정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분포와, 특성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였고,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과 본 연구의 시사점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5) 전문가의견조사 및 FGI(초점집단인터뷰)

시범사업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담당자 및 운영 위원, 지자체 및 중앙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추진체계에 관해 서면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6)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여성가족부, 지자체 공무원과의 8차에 걸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청소년성장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표 Ⅰ-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시기
1~2차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구' 구축관련 추진 계획 논의	여성가족부	1, 5월
3차	시범사업지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역사회연계 방안 논의	지자체	7월
4차	시범사업 운영 및 정책 추진 방향 협의	여가부	7월
5~6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및 운영 방안 논의	지자체	7월
7~8차	향후 시범사업 운영 및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	여가부	8, 9월

○ 콜로키움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교육청, 지자체, 마을의 자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과 사례에 관해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발표 내용을 토대로 원내외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 워크숍 및 학술세미나

시범사업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한 사전 안내와 사업의 운영방안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연구진을 포함하여 시범사업 운영 담당자 간 논의과정을 통해 사업 방향의 공유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 수집과 비교분석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술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연계협력 정책과 사례를 검토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Ⅰ-3 워크숍 및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행사명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워크숍	**1차**: 시범지역 사업 담당자 대상 안내, 시범사업 운영 방향의 공유	현장, 학계, 공무원, 시범사업 담당자 등 15명 내외	4월
	2차: 효과적 사업운영에 관해 전문가 초빙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공유	현장, 학계, 공무원, 시범사업 담당자 등 20명 내외	7월
학술 세미나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정책 및 사례	현장, 학계, 시범지역 운영진, 공무원, 청소년 등 150명 내외	7월 초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별 지역사회 연계 사업
3.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 사업 간 연계 협력 모색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3)]

1.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사회적 관계망, 기관 간 연계, 서비스 연계망, 조직간 협력, 지역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 기술, 사회관계, 지식, 신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단체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관계의 망(net)으로 유대(tie) 또는 연계(linkage)로 정의된다(이준영, 2007).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성장지원[4)]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협력체계"라 정리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네트워킹(networking)과의 구별이다. 네트워크(network)는 둘 이상의 개인 혹은 집단 간 관계의 구조적인 형태를 말하는 정태적 의미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 네트워킹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위 혹은 네트워크가 되어가는 동태적 특징을 지닌 '과정'의 의미를

3)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4) 이 연구에서 "청소년성장지원"은 청소년 기본법(제2조)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것"으로 개념화하였음.

담고 있다(손지현, 류기형, 2012).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자원들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정태적 측면뿐 아니라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지 동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이준영(2007)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여러 제공자들이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유휴 자원의 발굴과 동원을 통해 자원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넷째,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이나 정보의 교환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은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 주체들은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에 계층적 속성보다는 평면적인 구조와 특성을 이루어야 한다(Provan & Kenis, 2008).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조정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기관 성격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긴밀한 상호 교류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류기형, 류영미, 박병현, 2009).

지역사회 내 자원 간 연계를 통해 교환되는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정보의 교환, 클라이언트의 의뢰, 인적·물적 자원의 교환, 프로그램의 교류 등(박미은, 2002; 서혜미, 민소영, 2012)으로 대별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교류 내용별 협력 수준에 따라 구별된다. 즉 교류의 내용 중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 간 상호연락이나 정보의 공유 등 낮은 수준의 교류에서부터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클라이언트의 의뢰, 프로그램의 공동기획이나 시행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교류 수준까지 구분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사회계층 간 소득격차, 가정의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문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며, 촘촘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서비스를 보면, 각기 다른 욕구를 지닌 청소년들에게 개별 범주화된 서비스들은 제공되어 왔으나, 서비스 간의 단절이나 중복으로 인해 서비스 간의 역할분담이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자원 간의 유기적 관계는 자원 활용의 유용성은 물론 서비스의 수요대상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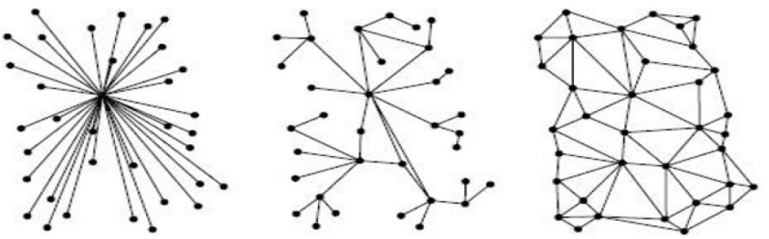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특정 행정부처의 서비스나 지역사회의 개별 기관만으로는 정책의 성과 제고와 확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일상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5] 내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서용선, 김용련, 임경수, 홍섭근, 최갑규, 최탁, 20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각종 서비스 지원 기관이나, 개인, 공공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간의 단순한 물리적인 연대 혹은 공간적인 연계 구축을 넘어서서 각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활동과 교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

5) **지역사회(Community)란**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지역에 대한 공동의식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용어로 **개인, 특정조직(지역단체, 전문기관, 비영리조직 등), 행정기관** 등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란** 행정기관 차원 뿐 아니라 민간 차원(개인-개인, 개인-집단, 집단-집단)에서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송혜승, 이명훈, 2017).

3)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와 협력적 거버넌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조는 크게 중앙집중형, 분산형, 탈중심형 네트워킹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구조 중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네트워킹은 중앙집중형 보다는 분산형 혹은 탈중심형 네트워킹이라 할 수 있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6]의 성격을 띤다.



* 출처: 서용선 외 (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그림 II-1 네트워크 구조의 유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존중의 원리(principal of reciprocity)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관리와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가관료제 중심의 위계적 거버넌스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거버넌스이다(Kooiman, 2003, 신현석 2010에서 재인용).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협치로서의 공통적 속성과 종래의 정부주도 행정체제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ive governance)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탈산업화, 탈근대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근대적 국가중심의 통치로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많아 조정(coordination), 네트워킹(networking), 협력(collaboration)을 통한 새로운 국가운영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등장하였다(신현석, 2010).

참여로 유발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가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각 과정에 있어 공동의 협력과 책임의식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거버넌스와도 차별성을 띤다(은재호, 이광희, 2009).

서순탁, 민보경(2005)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자발적이며, 수평적으로 형성되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에 대입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소년성장관련 기관 및 시설,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각 주체들이 정책의 수립과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상호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단순한 참여와 타협의 단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단계에서 관련 주체들 간에 상호 의존적 정책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경우에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파트너의 일원이 되어 주체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그만큼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네트워크 형태는 참여자들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서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자율적인 자기 방향의 설정(self-steering)과 공동의 규제(co-regulation), 공동 방향설정(co-steering), 공동지도(co-guidance), 조정(co-ordination) 등을 통해 공동의 결과(co-production)를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신현석, 2010).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시범사업은 물론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각 자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관계와 쌍방형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시행이 필요하다.

2.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별 지역사회 연계 사업

이 절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지역사회 각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이 강조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간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교육부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7)]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계층 간, 지역 간 소득격차와 교육격차 문제가 가중되어,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격차 극복과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교육복지종합대책 (1997~2002)'을 수립하여 무상의무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 등이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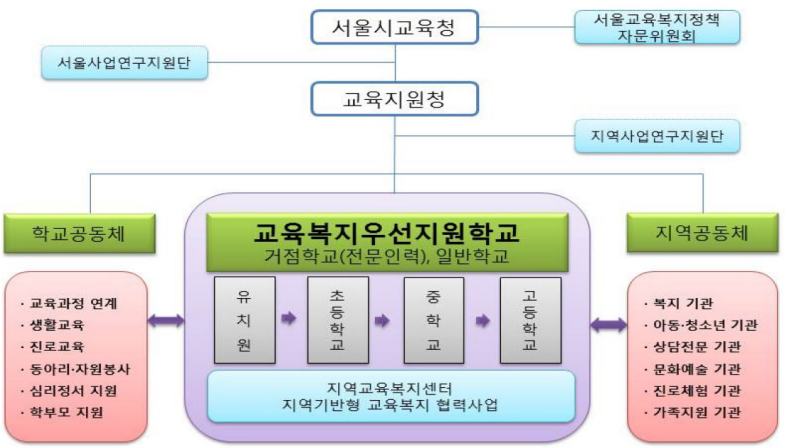
한편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 201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이하 '교복우')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청소년)들에게 교육·복지·심리·정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복우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하고, 학생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근거한다. 또한 교육부 훈령 제106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업대상 학생을 규정하고 있다.

교복우 사업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0년 12월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전까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던 사업비가 2011년부터 보통교부금 형태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이 시·도교육청[8]으로 이관되었다(김훈호, 이호준, 2018).

이 사업은 오늘날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격차해소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학교와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교사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방란, 김경애, 이은미, 김은혜, 2012). 교복우사업 지원학교는 2003년 45개교(165억원)에서 2016년에는 약 3,051개교로 확대되었다(교육부, 2014, 박주호, 송지훈, 유기웅, 이지영, 2016).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2019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

그림 II-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모형

8)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학교-자치구-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교복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과 학교,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협약(MOU)을 통해 지정한 지역이다(김기수, 2018).

혁신교육지구가 추구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의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공동선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협업 관계 속에서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을은 '방과후교육돌봄'을 나누어 맡는 분업과 협업이 강조된다(강민정, 안선영, 박동국, 2018). 이렇듯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적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학교가 지역주민들과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는 해당 지역에서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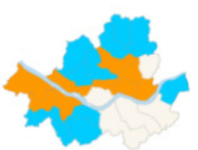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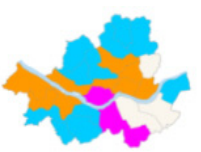
혁신교육지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강원과 충북은 행복교육지구, 전남은 무지개학교교육지구, 전북은 혁신교육특구, 인천은 교육혁신지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최초로 실시된 곳은 경기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5년의 사업기간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현재 15개 지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형혁신교육지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강동구, 강북구 등 11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개 자치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9)[9].

9) 서울시는 1단계(2015~2018)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보편화시키는 단계였다면,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는 2단계에서는 질적 성장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혁신교육지구에서 수행해야 했던 '필수과제'를 없애고 각 자치구별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자치구는 올해 평균 15억원(시 5억원, 시 교육청 5억원, 자치구 5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참여형 교육과제를 발굴·추진한다(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9).

서울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2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시범사업(구로구와 금천구)으로 지정·운영되었던 '혁신교육지구'사업과 2014년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운영되었던 '교육우선지구'사업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14.11.)을 통해 두 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목표는 1기(2015~2016년)때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이었고, 2기(2017~2018년)의 경우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조성'으로 바뀌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서울시·자치구)와 교육자치(교육청)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교와 교사가 주도하는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방과 후 마을교육, 진로·직업 교육, 청소년 자치동아리 등 각 지역별 교육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9).

2015년(11개)	2016년(20개)	2017~18년(22개)	2019년(25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 서초구, 용산구	+ **강남구, 송파구, 중랑구**

* 출처: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9).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전 자치구 확대.

그림 II-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현황 변화

(3) 초등돌봄교실[10]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초등학생 돌봄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4년 28개교를 대상으로 초등돌봄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래 명칭, 운영시간, 운영대상을 점차 확대[11]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명칭의 경우 방과후교실에서 초등돌봄교실로 변경되었고, 돌봄 대상은 초등 1~2학년 위주의 돌봄에서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운영시간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19시까지 운영되었으나 최근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학교에서는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학교)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학기 중 돌봄 교실 내 수용이 어렵거나 방학 중 시설공사 등으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마을 돌봄(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지역돌봄협의회를 지자체장 주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자체 중심의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한 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시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0) 한국교육개발원(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의 일부 내용을 요약·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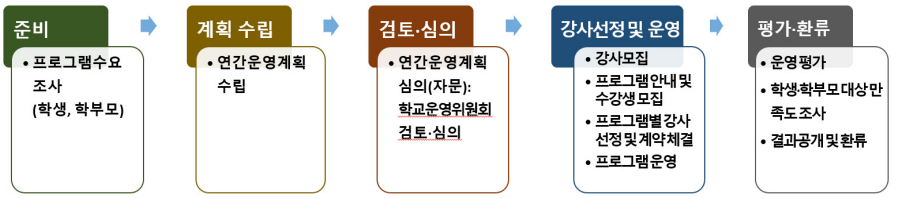
11)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 도입 및 시범운영(28개교), (운영 시간) 학기중 12:00~19:00, 방학중 08:00~19:00/ 2009년 '종일돌봄교실'(초등보육교실을 야간까지 운영) 시범운영(300개교) / 2010년 초등보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및 확대(6,200실) / 2011년~13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11년~'13년) 아침돌봄(06:30~09:00), 오후돌봄(방과 후~17:00), 저녁돌봄(17:00~22:00) / 2014년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 대상 돌봄교실 운영(10,966실) / 2015년 1~2학년 중심 돌봄교실 운영, 3학년 이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확정(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

(4) 방과후학교[12)]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 운영근거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근거한다.

운영방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개인강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13)]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휴업일, 방학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하는 경우나 농산어촌 지역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학습은 고등학교 등에서 학기 중 및 휴업 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재구성

그림 II-4 방과후학교 업무 추진 흐름도

1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일부 내용을 요약·보완하였음.
13) 학교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전(0교시)에도 운영 가능.

(5) 진로체험지원센터[14]

진로체험지원센터[15]는 자유학기제, 진로집중학년·학기제 및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책 추진에 따라 단위학교의 진로체험 수요가 급증하게 된 외적 환경과 진로교육에서 진로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설립되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교 안 체험 학습의 제한을 넘어 학교 밖의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청소년의 학습활동으로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 단위에서의 일률적인 탑다운 형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성이 강조된다. 이처럼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은 다양한 양질의 체험처 발굴,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 '꿈길'에 체험처 등록 및 승인, 체험처 배정을 요청하는 단위학교에 체험처를 배정하고 학교와 체험처 간의 요청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체험처는 일터를 개방하고 일터의 업무를 학생에게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또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진로교육법」 제20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진로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14)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의 일부 내용을 요약·보완하였음.
15) 2015년 3월 67개소에서 2017년 10월, 현재 22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위탁운영, 140, 교육(지원)청 직영, 67개, 기초지자체 직영 13개).



구분	주요역할	
지역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16년 기준, 전국 216개, 시군구별 1개)	• 체험처 발굴 · 관리 •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 자원봉사자 운영 · 관리	• 꿈길 활용 체험처-학교 매칭 • 학생, 학부모 대상 지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체험처	• 진로 체험처(일터, 모의일터 등) 제공	•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단위학교	• 체험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진로정책협의체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획 · 총괄 • 체험처 정보 제공 및 예산 지원
	지자체	• 공공기관, 기업 등의 체험처 정보 수집 및 제공 •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 행재정적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 지역사회 체험처 발굴 지원 및 정보 제공
진로체험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정책 연구 및 자료 개발 • 진로체험 상황실 및 온 · 오프라인 상담실 운영 •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지역센터, 진로체험 유관기관 컨설팅
꿈길(www.ggoomgil.go.kr)	•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관리, 체험처-학교 매칭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2017 진로체험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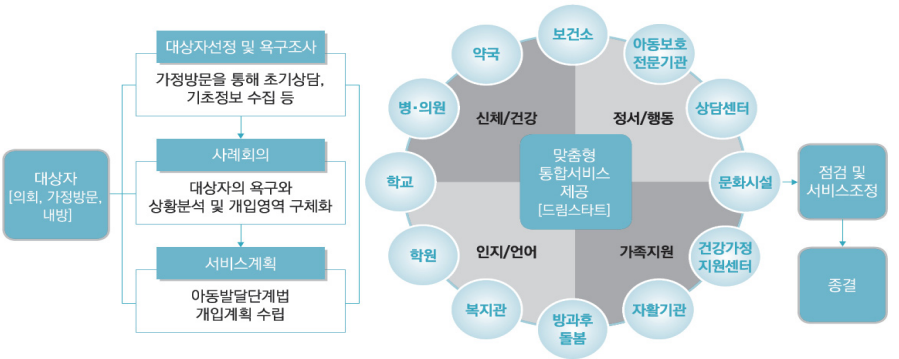
그림 II-5 진로체험 운영 체계

2) 보건복지부[16)]

보건·복지영역에서의 정책 대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대상의 중복과 함께 유사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지역사회연계협력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사업 등이 있다.

(1)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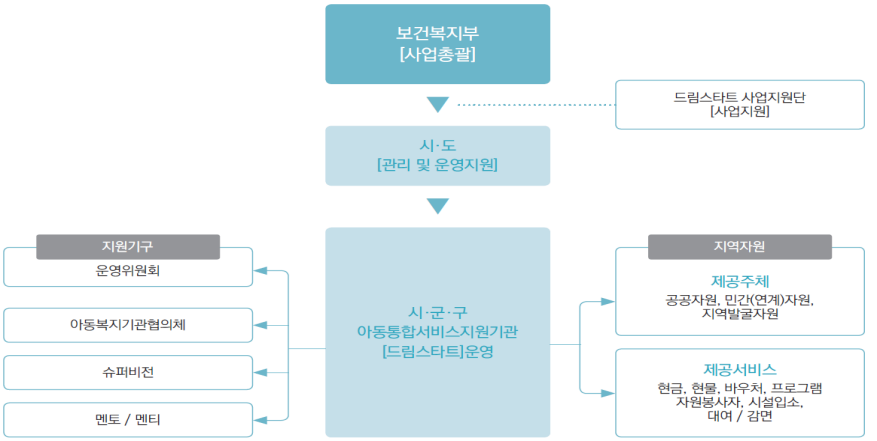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 아동 빈곤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의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백서.

그림 II-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16)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백서의 해당 내용 일부를 요약·보완하였음.



* 출처: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백서.

그림 II-7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드림스타트를 운영한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과 가정 방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역할로 추진된다.

드림스타트는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드림스타트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아동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보건복지백서, 2018).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아동에게는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고용 촉진 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자생적으로 시작된 '민간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04. 1. 29)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004년 당시 895개소(23,34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2월 기준 4,210개소(이용 아동 수: 109,926명)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안전한보호, 급식), 교육(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놀이와 오락의 제공, 정서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에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거나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장애인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맞벌이가정의 초·중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해 종사들에게 매년 일정 시간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II-1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기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지도,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교육프로그램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미술/음악/체육), 적성교육(진로/독서/요리/과학 등)
문화프로그램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정서지원	연고자 상담, 아동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행사·모임
지역사회 연계	기관홍보, 인적 연계, 기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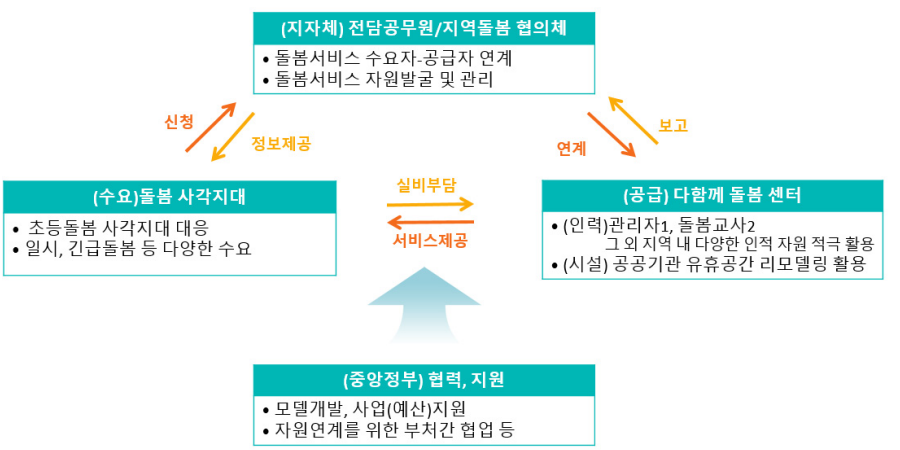
※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 다함께돌봄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돌봄서비스 확충·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사회보장기본법」제5조와 6조에 근거한다.

다함께돌봄의 지원대상은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돌봄이 필요한 6~12세 모든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은 일시·긴급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지역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150개소에 리모델링·인건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18).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그림 II-8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체계

3) 여성가족부[17)]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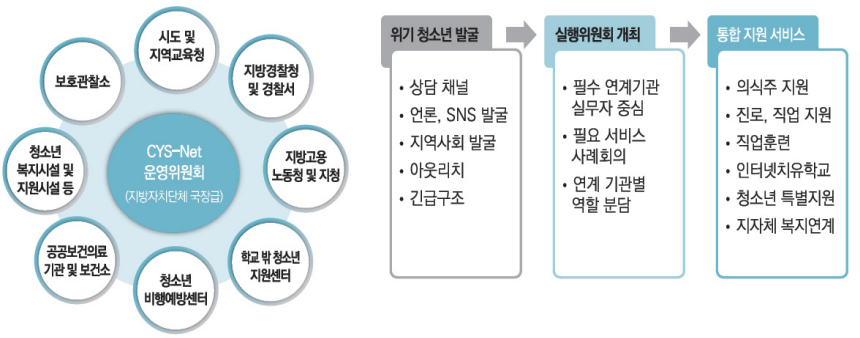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CYS-Net 이하, CYS-Net)가 있다. CYS-Net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CYS-Net의 지원대상은 청소년(9세 ~ 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위기)청소년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다 심화된 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s)'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 인터넷중독인 경우 인터넷중독치유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자 아웃리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및 긴급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17년 전국 16개 시·도 및 208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78,128명의 위기청소년에게 2,559,841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또한 CYS-Net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7) 여성가족부 (2017, 2018). 청소년백서의 해당 내용 일부를 요약·보완하였음.
18) CYS-Net 사업 명칭이 2019년 9월부터 「청소년안전망」으로 변경되어 시범사업 수행 중('19년도 1년차 연구 보고서에서는 CYS-Net으로 쓰기로 함).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CYS-Net은 2018년 4월 현재 전국 22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1388(또는 110) 전화, 사이버상담,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단위 : 건)

연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 계
2012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013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2014	1,249,266	68,958	246,078	99,013	20,317	14,391	2,487	180,879	1,881,389
2015	1,288,115	61,151	311,197	80,118	20,703	4,966	1,803	232,547	2,000,600
2016	1,363,329	80,908	352,116	105,745	9,231	9,322	1,644	400,269	2,322,564
2017	1,566,866	71,396	417,669	84,188	18,138	11,404	1,986	388,194	2,559,841

자료 : CYS-Net 통계시스템(2017).

* 출처: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그림 II-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체계도와 연도별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 수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근거한 사업으로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시설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방과 후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한다.

청소년과후아케데미는 2018년 기준 전국 260개소에서 10,265명('18년, 8월 말 기준)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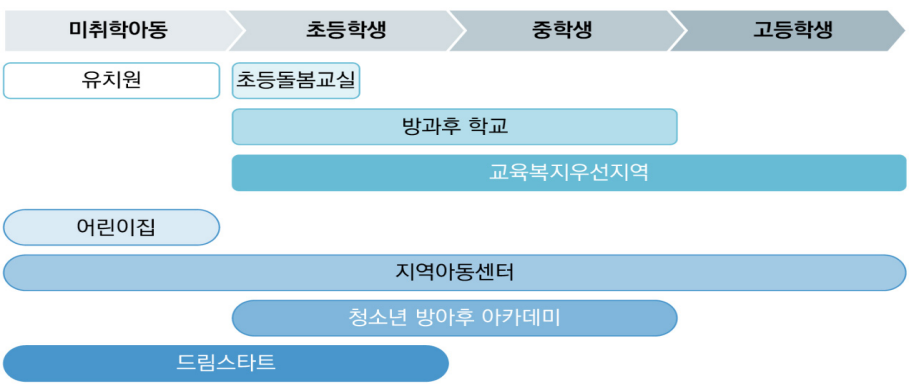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리플렛.

그림 II-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조직도

3.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처 사업 간 연계 협력 모색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돌봄과 관련된 지역사회 연계 정책이나 사업들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들 사업들은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들이 각 지역의 기관이나 시설들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다음 [그림 Ⅱ-11]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의 연령이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서비스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들 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사 정책 간의 조정과 중앙단위 부처나 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단위에서 가능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 출처: 강지원, 이세미 (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p63. 재구성

그림 Ⅱ-11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의 돌봄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봄 정책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과 연계 협력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 체계[19] 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는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모델 개발·확산, 기존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역량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7가지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 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그림 II-12 온종일 돌봄 체계

19) 온종일 돌봄 체계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설을 활용하여 교과, 특기적성, 돌봄 등 학교 안·밖 방과후돌봄 체계(교육부 보도자료, 2017.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기존 돌봄정책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예컨대, 그동안 지역 내의 돌봄사업이 여러 부처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던 것을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 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한 점, 중앙정부 위주의 돌봄사업을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범부처 간 공동추진단 및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조정과 논의의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온종일돌봄체계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은 물론 지역사회 내 각 돌봄 주체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돌봄정책 이외에 이 연구에서 다루는 "청소년성장지원"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정책은 크게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교육복지사업 포함)과, 주로 학교 밖 공간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포함)으로 대별된다. 해당 사업들을 보면 서로 다른 법적 운영 근거와 주무부처, 운영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뿐 서비스 대상이나 사업 내용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표 Ⅱ-2~3〉. 즉 서비스 간 차별성이나, 서비스 수혜의 연속성도 미흡하고,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20]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다보니, 농산어촌의 경우 인프라의 부족으로 도시에는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앙부처 관련 정책이나 사업 간 협력은 물론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각 주체 간 연계와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20)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교육부 "꿈길 사이트" 이용권한 부여 등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표 II-2 중앙부처 지역사회 연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비교 1

사업명	교육체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진로체험지원사업	Wee 사업
주무부처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운영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3-7호, 2015-7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진로교육법 제18조, 제20조	교육부 훈령 285호
주요역할 및 기능	아동 돌봄 및 보호	보충학습 특기·적성 프로그램	취약계층학생들의 교육, 문화, 심리정서, 복지 등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학교에 배정,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컨설팅, 학교와 체험처 의견 조율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3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초중고 학생**	**취약계층 초중학생** (학교지원을 통한 지원)	**초중고 학생**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학생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경우)
프로그램	예체능, 놀이, 숙제 지도, 독서활동 등	교과 및 특기적성 등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발달, 복지 프로그램 등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진로체험활동 매칭,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진로교육 연수 등	상담, 교육, 체험활동, 심리검사 등
운영주제 (장소)	학교	학교	주로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거점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교
이용자 부담	무료	자부담 저소득층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시설수 및 이용자 (지원자) 수	6,078개교/12,398실 261천명**('18년)**	11,775개교 3,371천명**('17년)**	3,051개교**('16년)**	220개소 /위탁운영, 140개 지자체 직영 13개 교육(지원)청 직영, 67개, **('17년)**	학교: Wee클래스 (6,434개)/지역교육청: Wee센터 (196개)/가정형 Wee센터(16개) 시도교육청: Wee스쿨(14개) 운영

자료: 1)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2)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백서.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표 II-3 중앙부처 지역사회 연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비교 2

사업명	보호·복지체계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	다함께돌봄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운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법 (제3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6조
주요기능	(위기)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가출, 학교 밖,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폭력 가피해, 경제적 지원 필요 청소년 등)	학습,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보호·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통합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보호·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	일시·긴급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서비스 대상	**9~24세(위기)청소년**	**초4~중3**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일부 다문화가정 등 포함)	**18세 미만 아동** *취약계층 아동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0세(임산부)~만12세** (초등학생 이하) 미만 아동 및 가족	**6~12세(초등학생)**소득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맞벌이 가정 중심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전문체험,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지원 등	돌봄 및 급식제공, 학습지도 등	신체발달, 의사소통 능력, 부모역량강화, 정서발달 등	일생생활교육, 독서지도, 놀이활동, 학습지도, 문화예술체험 등
운영주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시군구 직영 공동, 위탁 운영 (지역 내 유휴 공간, 공공시설)
이용자 부담	무료	자부담 저소득층 무료	무료	무료	자부담
시설수 및 이용자 (지원자) 수	전국 224개 178천명**('17년)**	260개소 10천명**('18년)**	4,210개소 109천명**('18년)**	97천 가구 150천명**('18년)**	'18 12개소 시작, 200개소**('19년)** **'20 400개소, '22 1,817개소 예정**

자료: 1)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2)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백서.
3) 보건복지부 (2018).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제3장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2. 국외 사례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21)]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성장지원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 선정은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는 지자체 평가결과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청소년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사례인 성남시와 아산시 사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는 시흥시 사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공동체 및 청소년 유관기간 간의 네트워크 사례인 노원구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외사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및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국내의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 국내 사례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우리사회에서 급부상한 시기는 2000년 밀레니엄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실행과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고 공동의 복리 증진을 촉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 단독으로 또는 하나의 민간조직이나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원화된 대상자의 욕구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다차원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것

21) 성남시, 아산시, 미국 사례는 송민경 교수(경기대학교)가 집필하였고, 노원구, 시흥시, 핀란드 사례는 조윤정 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일본 사례는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가 집필하였으며, 싱가포르 사례는 이정읍 교수(싱가포르국립대)가 집필하였음. 이 장의 일부 내용을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음.

이다(김준기, 이민호 2006; Agranoff & McGuire, 2001). Salamon(2002)과 Shergold(2008) 등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등장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형성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조직들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수평적,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유란희, 2018; Agrandoff, 2004; Finer, 1999; McGuire, 2003)

특히, 한국사회에서 공공행정서비스, 사회복지전달체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교육혁신지구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실행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청소년정책이나 실천현장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와 청소년시설, 지역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형 개발과 정책적·학술적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에서는 지역사회 내 조직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각 조직 및 기관 간의 관계는 자원 교환 과정에서 결정되고, 지속적인 협력과정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Klijin, 1995: 19-20; 김준기, 이민호, 2006, 재인용)고 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원 간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협력관계를 생성하기도 한다(박치성, 2006; Prusak & Cohen, 2001; Putnam, 1993).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협력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collaboration), 조정(coordination), 협동(cooperation)이 이루어지고 정보교환, 대상자 의뢰, 자원 교류, 정기모임, 공동사업이나 협의체 운영 등의 협력관계 강도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박치성, 2006; 송민경, 김주현, 이현주, 2010).

한편 기능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은 자율성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걸쳐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연계된 조직 및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운영기제(Lynn, Heinrich, & Hill, 2002)이자 방향잡기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은 청소년시설-지역교육청-지방자치단체 관계의 3축을 중심으로 교육적, 사회문화적, 정서적 서비스를 통합적이며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연계 및 자원 교환,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호혜성, 다(多) 조직 간의 상호의존적 구조, 자율성을 보장한 느슨한 연계로 가능하다. 느슨한 연계로 인해 다수의 주도적 기관이나 조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구성조직 간의 진입과 탈퇴도 자유로울 수 있다(강창현, 2002).

또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맥락적 상황과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맥락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의미하며, 상황적 조건과 맥락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효과적이다(강창현, 2002; Provan & Milward, 1995).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의 맥락적 상황과 특징을 반영하여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시설,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고 추진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일구어내는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교류나 의견교환, 친목도모나 유대형성의 초기 단계가 아닌 정규적이며 지속적으로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교류, 정기모임, 공동사업 등은 어떤 특징과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성과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성남시 사례

(1) 성남시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적 조건 및 맥락

성남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3개 구로 이루어진 도시로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구 구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972,280명(외국인 17,933명 포함)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다[22]). 이들 중에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10세~14세 43,016명, 15세~19세 52,395명, 20세~24세 63,454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전체 총 거주인구 중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는 약 16.3%(158,865명)를 차지한다[23]).

한편, 성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적 특징으로 성남시 전역에 상업지구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이 매우 다양하고 풍족하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 현재 등록된 사업체가 총 64,188개로, 수정구 14,260개, 중원구 18,089개, 분당구 31,839개로 집계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25.19%, 숙박업 및 음식점업 17.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96%, 제조업 6.62%, 교육 서비스업 6.23%, 부동산업 5.2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남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4개 중 1개는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또한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을 합하면 전통적으로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참고 〈표 1〉).

한편, 성남시에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중에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16.19%에 달하고 있어서, 대체로 3차 산업 중심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이나 임업, 어업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0.01%에 불과하여, 사실상 판교로 대표되는 테크노밸리, 최첨단산업지구가 아니더라도 성남시 전 지역에서 1차 산업군은 거의 자취를 감춘 주상복합의 고도화된 도시적인

22) 출처: http://stat.seongnam.go.kr/sn_stat/sub11.asp 2019년 8월 31일 인출.
23) 출처: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2&tblId=DT_D_BB&dbUser=NSI_IN_612 2019년 8월 31일 인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성남형 교육'이나 '성남형 교육네트워크'구축을 전략으로 이러한 지역적으로 특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모색하거나 활용한 정책적 구상이나 실행 과정 모두에서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분당구에는 지난 20여 간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구, 산업지구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풍요한 지역사회로도 손꼽힌다. 또한 2000년 이후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관련 사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제조업이나 금융업을 비롯한 상업 지구뿐만 아니라 최첨단산업의 육성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도시이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도 그 어느 도시보다 우월한 상황에 놓여있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가 이러한 다양하고 풍족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의 활성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성남시 고유의 지역 자원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로 활용하고,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확장이나 질적 향상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도 매우 강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정, 김위정, 이근영, 권순정, 김용남, 2018).

표 Ⅲ - 1 성남시에 소재한 사업체 구성 현황(2017년 12월 기준)

사업체 유형	빈도	퍼센트(%)
농업, 임업, 어업	8	0.01
제조업	4,248	6.62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25	0.0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73	0.11
건설업	2,085	3.25
도매 및 소매업	16,166	25.19
운수 및 창고업	5,802	9.04
숙박 및 음식업	11,229	17.49
정보통신업	1,517	2.36
금융 및 보험업	692	1.08
부동산업	3,365	5.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76	3.7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1,102	1.7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124	0.19
교육 서비스업	3,997	6.2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842	4.43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2,141	3.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96	9.96
총계	64,188	100.00

* 출처 :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2&tblId=DT_D_BB&dbUser=NSI_IN_612 (2019년 8월 31일 인출).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맥을 같이하여, 앞서 언급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문화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실행과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성남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과제 도출 및 청소년시설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연혁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은 1994년 12월 수정청소년수련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2000년 6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003년 12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04년 10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2008년 중원청소년수련관, 2009년 11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2010년 3월 분당판교청소년

수련관의 개관으로 이어진다.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총 6개 청소년시설을 개설하여 성남시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설 설립의 연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08년 2월에 설립되어, 2019년 현재 총 5개 청소년수련관(수정수련관, 중원수련관, 분당서현수련관, 분당정자수련관, 분당판교수련관)과 총 2개 문화의집(양지동, 은행동), 1개의 상담복지센터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시설 확충 차원에서 분당구 야탑동에 야탑청소년수련관을 2019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수정구 태평동에는 2021년까지 태평동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는 총 6개의 청소년수련관과 총 3개 문화의집, 1개 성남복지센터의 규모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수련관은 조직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운영지원팀, 청소년활동팀, 문화사업팀으로 구성된다. 또한 재단 조직 차원에서 경영지원부(경영지원팀, 회계정보팀)와 사업지원부(정책기획팀, 정책지원팀, 활동진흥팀)가 2019년 현재 5개 청소년수련관, 2개 청소년문화의집, 1개 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 수행하는 성남시 청소년정책 지원, 정책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시책사업 기획 및 시행(진로사업, 노동인권사업, CSR사업, 청년사업, 성남형 교육지원, 청소년행복의회, 차세대청소년위원회, 국제컨퍼런스 등), 현장활동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 지역 공모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수련관 및 문화의집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활동사업(참여·동아리활동, 수련·문화·교류·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연계활동 등), 복지보호사업(방과후지원활동, 장애청소년지원활동, 위기청소년지원활동, 지역사회연계활동 등), 특화사업(문화예술, 진로직업체험, 과학, 미디어, 생태환경, 지역연계 특화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어학, 문예창작, 예능 과학정보, 교양취미교실, 교육활성화 사업 등), 생활체육사업(수영, 헬스, 생활스포츠교실, 체육활성화사업 등), 국책사업(방과후아카데미, 어울림마당,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동아리활

동지원사업 등)으로 2019년 현재 총 6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운영지원팀,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부문으로는 상담지원사업(청소년전화1388, 개인상담, 학교연계상담, 상담분소 운영 등), 통합지원사업(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긴급구초 및 지원사업 등),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자립문화공간 운영, 학교부적응 청소년지원사업 등)으로 총 3개 사업부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별도 사업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단 산하로 '성남형 교육지원단'이 설립되었는데, 성남형 교육지원단은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즉, 청소년재단 내 사무국과 가장 많은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활동, 문화, 복지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성남형 교육지원단과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청소년시설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하기도 한다.

성남형 교육지원단은 2016년부터 민간위탁금을 활용하여 지역특성화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성남형 교육지원단을 통해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사업 또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내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연구 및 기획, 지역인프라 연계 체험학습,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성남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위해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사업 중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거버넌스의 특징을 성남형 청소년 진로사업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성남형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청바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소위 '성남형교육'과 연동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남형교육의 비전은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 지원'에 있으며, 정책 목표는 ①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협력모델 창출, ②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③ 교육복지를 통한 배움의 평등한 출발 실현, ④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 실현하고자 한다(조윤정 외, 2018: 22).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와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남형교육의 중점추진과제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요 방향과 목표와도 연동된다. 특히 성남형교육의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과정'운영을 꼽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진로 및 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환경, 안정 등의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배움터를 개발한다. 또한 이를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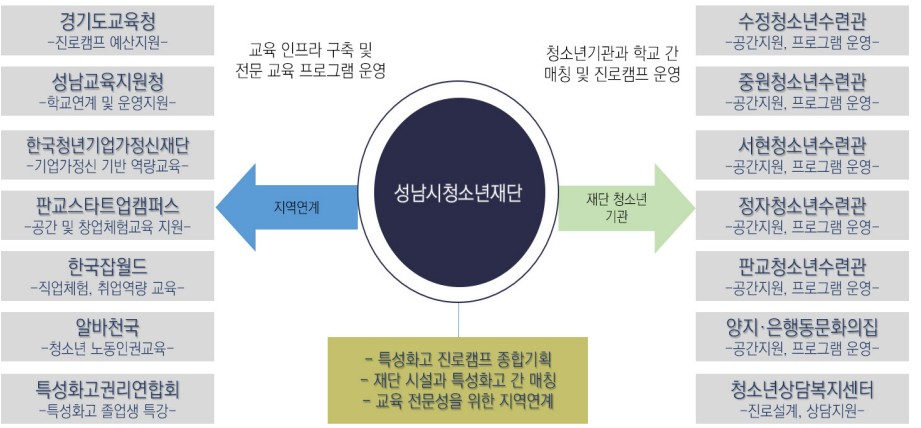
또한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지구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라는 중점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교육 지원 및 시설 공유가 가능한 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 시설의 개방화를 주요한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년제 운영 및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및 진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학교 자체로만 실행하는 한계성을 학교 및 교사를 비롯한 지자체, 학부모, 학생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필요성을 또한 인지하고 있다(조윤정 외, 2018).

성남형교육사업의 3개의 참여주체(stakeholder)인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지원단, 성남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통해 구성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성남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참여주체로서 또한 중추조직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사업은 '성남형자유학년제'지원 프로젝트와도 연계된다. 성남형자유학년제의 특성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및 시민이 가진 우수한 지역 인프라와 결집하여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성남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소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직들을 연계하여 성남형자유학년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진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청 및 학교와 직접 연계하여 재단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별로 성남형자유학년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참조 그림 Ⅲ - 1).

'청바지 프로젝트(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청소년을 위한 진로프로그램이자 직업체험활동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의 전 청소년시설별로 성남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단 차원의 고유사업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개별 청소년시설에서도 이를 연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현재, 재단 사무국 사업지원부를 중심으로 '청바지 프로젝트(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야는 총 38개에 달하며, 총 458개 기업과 연계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개별 시설별로도 진로 탐색활동 및 동아리를 진행하면서 성남형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총 15개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였다([그림 Ⅲ-1] 참조).



*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18). 성남시청소년재단 정책지원팀 중점사업 방향 내부검토 자료.

그림 Ⅲ-1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시설 및 지역자원 연계 청소년진로활동프로그램 현황

'청바지' 프로젝트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재단 내 모든 시설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진로 및 직업체험 일터 발굴을 위하여 성남형 교육지원단과 연계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청과 학교, 기업 CSR과의 청소년 진로활동 매칭, 지역 체험터 발굴 및 업무 체험, 성과 공유를 참여 조직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이다. 성과 공유를 위해 체험일터의 발굴로부터 등록, 현장 파견, 활동 내용과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한 수행한다. 이를 근거로, 우수체험일터와 함께 청바지프로젝트의 성과를 또한 공유하고 있다.

청바지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이자 특성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문화예술상점들과 연계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체험활동 위주의 청소년 진로·직업프로그램을 개발·확장하고 있는 점이다. 재단 사무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시설별로도 청소년사업과 연계한 기업 및 연계 단체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 관련 민간협회를 통해 일터를 추천하거나 발굴하기도 있다.

2018년 현재 청바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17개교 2,785명, 총 457개 체험일터, 총 308개 기업과의 업무협약, 총 202명의 체험인솔자를 양성하여 직업체험 현장에 투입되었고, 총 1,134명의 청소년들이 청바지 프로젝트를 통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 CSR과 청소년 진로활동의 매칭사업으로 2개 기업과 4개 청소년시설, 2개 고등학교에서 총 2개 사업('청소년 덕후생활', '청소년 특허 탐구생활')을 개발하여 2018년 현재 각각 청소년 368명, 176명이 참여한 바 있다. '청소년 덕후생활' 프로그램은 소외 청소년의 여가 지원을 위해 기업 CSR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청소년 특허 탐구생활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1개 법률사무소와 2개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특허과정에 대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Ⅲ - 2 2018년 청바지 프로젝트 & 전문적 진로사업 추진을 위한 체험일터 현황

사업체 분야	빈도	사업체 분야	빈도	사업체 분야	빈도
게임	6	3D프린팅	5	IT	21
경찰	4	시· 산하 기관	12	도서관	8
공공기관	28	수련시설	10	공예	34
어린이집	11	유치원	2	교육	14
금융	13	대학교	5	동물	3
스포츠	27	박물관	8	문화예술	34
법률	17	복지	25	뷰티/미용	15
자동차	6	위생/방역	6	엔지니어링	3
화학	2	산업	30	세무	2
소방	6	연구	6	우체국	1
유통/백화점	8	제과제빵	8	카페/초코	25
레스토랑	6	요식업	9	종합병원	7
보건소	3	의원	28		

(3)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Provan과 Kenis(2008)가 제시한 주도 조직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주도 조직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소수의 조직에 네트워크가 집중된 특징을 보이며, 네트워크 규모 측면에서도 중형 또는 대형의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네트워크의 주도 조직은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중심성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이주헌, 박치성, 2010: 6).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문화 관련 서비스의 양적 향상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하여 지역자원의 개발·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 산업구조 및 전략을 파악하고, 학교 교육내용과 직업현장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이석희, 김상지, 2008). 이러한 산업계와 교육계의 파트너십 구축은 지역사회 단위로 구체적인 조직화가 또한 이루어진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조직으로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 필요성과 학교 및 교육계의 진로교육, 진로 및 창업 훈련, 진로 및 직업상담 등의 사회적·교육적 욕구와 필요성을 중재하여 '산업과 교육의 접근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과 교육의 접근모델을 접목하여 지자체는 재원 마련 및 지원을 담당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역 기반 인적자원의 통합관리를 맡는 기능적 역할 분배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서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적 매커니즘을 마련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의 우리가 갖지 못하는 자원들을 지역사회에서 확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실제 진로체험의 현장들을 제공하기는 어려워요. 성남시에만 청바지사업이 400여개 기업들, 넥센, 카카오 등이 있어요."

"재단 사무국이 진로지원센터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업 풀을 구축하는 작업을 몇 년을 들여서 한 거죠. 400여개 정도를 만드는 데 4~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업 기획,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청바지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연구 개발해서 시범으로 돌려보고 300명, 700명, 2000명, 지금 3000명까지 운영하고 있어요."(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직 및 구성원 간의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신뢰에 바탕을 둔 호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 관계 및 지속적 파트너십의 형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의 형성은 상호 자원을 동원하고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으로서 갖는 권력자원의 역할 또한 큰 것으로 보여진다.

'권력자원'이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영향력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Rhodes(1996)은 권력자원으로 정당성, 권위, 재원, 정보, 조직을 들고 있다(함철호, 2015: 219). 특히, 산업체,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자체에 대한 기업의 신뢰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authority)와 공공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평가 및 평판(reputation)에 의해 형성된 상당한 권력자원에 의해서 지역사회 내 교육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적인 의사결정과 연계의 조직화가 매우 탄력적이고 수월하게 진행된 특징을 보인다.

"시설에서 지역단위로 가는 부분이 크잖아요. 재단으로 하게 되면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역 내의 인지도가 있어서 사업의 신뢰성이라든지 참여율이 확보되는 것 같아요."(성남시청소년재단 OOO)

"문화의집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찾아가서 사업을 제안하면 기업들은 전년도에 미리 결정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거절해요. 성남시의 큰 기업이나 인지도가 있는 기업은 파트너로서의 격도 보는데, 청바지가 기업이 400여개 정도가 참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사장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저희 재단의 이사장이었으니까요. 예전에 수련관 관장이나 팀장으로서 들어갔을 때와는 격이 다른 거예요. 작은 지역 단체의 회장님이나 부녀회, 건물주를 만날 때는 어렵지 않은 데 큰 기업을 만날 때는 재단이나 이사장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단화가 되면서 장점으로 봅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성남형 학습생태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사람들이나 기관들을 만날 때는 교육장님과 시장님이 같이 하는 사업에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잘 풀리고, 학교 관계도 좋은 거예요. 전에는 학교 부장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나 시국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해당 장학사를 소개해주시면, 장학사가 필요한 교장, 교감에게 연락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되게 협조가 됩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또 다른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의 특징은 매우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된 각 조직과 기관들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마치 플랫폼을 집합지점으로 각각의 레일 위에서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공동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이 네트워크의 참여조직 간의 연계와 조직화를 구축한 것이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 각 프로젝트별로 참여한 구성원들과 조직들이 다르고,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는 각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며, 평가 결과 역시 모두 공유하여 환류하는 선순환적 과정을 지닌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행위자 간의 상호이해와 권력자원을 기반으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환이 이루어진다(함철호, 2015: 219).

이것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조직이 되어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포함한 교육·복지·문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이슈화하여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참여 조직 및 기관의 확장 및 연계를 추동하고 있는 형식을 지닌다.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자율적 참여와 탈퇴, 공동목표 설정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참여 조직 모두의 성과 공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조직들 및 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높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비영리재단이지만 지자체의 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참여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비관의 참여 비율이 20% 내외로, 민(民)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구축된 특성도 지닌다.

"사무국에서 지역 네트워크로 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2009년부터 시작 했어요. 보호·복지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예산을...공모형식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지역사회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 국제교류사업도 하고, 청소년 주관 행사와 같은 것들을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지역의 전 자원들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총괄 기능은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고, 추첨, 학교 일정 개정, 기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해요. 하다보면 계속 탈락되는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을 섭외하고, 연말에 우수기관들은..시장표창이나 연말에 모여서 성과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성남시청소년재단 OOO)

더불어,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참여방식의 특징으로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 등의 규모나 유형과 상관없이 언제 참여할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어떻게 성과를 공유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동등하게 지니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수평적, 호혜적 관계에서 동등한 권한을 가진 민간 및 공공 조직이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내재한 시민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관된 체계로 조직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성남시 내 각 지역사회 나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사회의 교육·복지·문화 생태계를 조성한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여타의 지역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협의회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형식적인 민간 조직의 참여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전략과 원칙을 지닌 민간 조직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또한, 민간 조직과 공공 조직 간의 관계는 호혜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내재한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강점을 지닌다.

"다른 곳은 공공기관의 비율이 많은데,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의 비율이 20% 내외이고 이외에는 다 민간기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러 왔다고 하면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 약국이 번한데 저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많아요. 학교는 학생 수를 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성남시청소년재단 OOO)

"판교수련관에서 시설단위로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인데요. '판교25통 꿈 네트워크'는 판교수련관이 위치한 행정구역이 25통이에요. 여기에 작은 중소업체-공방, 바리스타, 요리, 교습 등 38곳과 지역의 주민센터 노인, 부녀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을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찾아내는 협의회가 있어요.....25통의 상인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기획한 협의체인데 좋은 의도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주시고, 체험이 잘 되니까 시에서 투어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동력이 있으니까 25통 축제에 성남시 사람들이 가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이런 부분은 기본 목적은 단순히 마을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자라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수 해째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굉장히 잘하는 마을사업입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2018). 성남시청소년재단 정책지원팀 중점사업 방향 내부검토자료.

그림 Ⅲ－2 판교25통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의 청소년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공유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대표되는 민간 기부채널이 구축되어 매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일정의 모금활동을 통해 개인 기부뿐만 아니라 조직 단위의 기부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마련하고, 이를 공모사업 형태로 사회복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자원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 CSR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성격이 사회복지사업이며, 보건복지부에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으로 등록한 공익재단을 통한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한동우, 2013).

이와는 달리, 청소년시설을 주축으로 형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자체의 지원 이외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나 민간자원을 공유하고 배분하는 자원공유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재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간 접촉을 강화하는 역할 역시 주도적으로 실행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에 구축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안정적 재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일련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인데,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성격이 아닌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자체 예산 확보로 여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청소년계가 당면하고 있는 관변화의 우려나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관 운영에만 근근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청바지 프로젝트는 교육 경비라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라서 시의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청바지를 계기로 지정기탁이라든가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실제로 ○○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천 5백에서 올해 3천만원을 지정 기탁해주셨고....."(성남시청소년재단 OOO)

(4) 성과 및 한계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요 성과 중에서 청소년들의 성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들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가 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입된 배경으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개발을 위하여 체험 중심, 현장 중심의 진로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현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는 여전히 학교가 보유한 자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인적·물적 자원을 각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성과공유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직업현장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적인 인력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도 교육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중등교육과정에서 또한 청소년활동의 일환으로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직업 및 교육 훈련을 연계함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 및 기업 등을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 현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현장감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의 기회를 확장한 성과를 또한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으로는 체험 직업현장을 찾기 전에는 저희가 단순히 이론적으로나 단순히 학교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었는데, 아이들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의 직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성과라고 봅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청소년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족했던 여러 한계를 지역사회에 내재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 조직화하여 성남시 지역사회만의 교육·복지·문화 생태계를 형성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시설별로 진로교육이 많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코끼리'라는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그게 시설 차원에서 몇 군데 알음알음 알던 진로 기업 관련 소상공 업체였으면 이게 재작년

재단사업으로 확장되어 '청바지'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그런 사업이 더 넓은 군으로 통합이 되면서 기업들도 아이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넓혀 주었어요. 저의 기업풀과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청바지도 하고 있어요. 청바지를 계기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청바지 말고 다른 CSR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저희 팀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됩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또 다른 주목해야 할 성과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산업체,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섹터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협력을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점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공생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의 정규과정을 잘 이해해서 취업하고 졸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성화고 진로캠프'를 신입생을 대상으로 1천 8백 명을 대상으로 저희 재단으로 와서 부탁을 하셨어요. 재단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한 달 동안 6개교 1천 8백 명을 진로캠프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학교 밖으로 이탈률이 제일 높아요. 그것도 특성화고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이 때 수련관에서 분반해서 진행하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이러한 총체적인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성과는 청소년들을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자로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청소년 자신들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또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전문직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 자신들은 지역사회 내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적자원을 구축하고 확장하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 체험활동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임파워먼트를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협업적 관계를 이끌어낸 성남시청소년재단 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 기업체, 학교 등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잠재적 참여 주체들의 성남시에 대한 기대감과 자부심, 지역 공동체의식, 효용감을 근간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도 강화시키는 결과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교육으로는 체험 직업현장을 찾기 전에는 저희가 단순히 이론적으로나 단순히 학교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었는데, 아이들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의 직업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성과라고 봅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청소년덕후생활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취미 수준을 넘어서 재능 있는 분야에 대해 선발해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재능기부하는 형식으로 하거나 고등학교의 자생 동아리 같은 경우 전문 멘토 지도자가 없다보니까 욕구는 있어서 기업과 연계해서 동아리의 컨텐츠에 맞춰서 1대 1 매칭해주는 '성인덕후단'이라고 하는 데 2학기 때는 그렇게 10개 학교에 나가게 되요." (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지역사회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사업 국제교류사업도 하고, 청소년 주관 행사와 같은 것들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 행사성 성격들의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지역의 전 자원들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양지동 같은 경우 마을 네트워크 사업을 지역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과 엮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대동이 처음 마을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양지동문화의집과 같이 하자고 해서.....처음에는 양지동문화집에서 8~9백만원을 들여서 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역에서 확보가 되고,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자 해서 지금 전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우수지역이 되었어요. 이제 자생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는 빠지고..."(성남시청소년재단 OOO)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과정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정보 교환, 대상자 의뢰, 자원 교환, 공동사업 수행 등의 네트워크 발달단계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모든 참여 조직 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 기인하기보다 단일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바지'프로젝트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역량과 재량에 의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조직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자원과 정보가 교환되며, 공동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조정과 협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총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재단 내 또는 지역 청소년시설 내에서 사업 영역별 또한 프로그램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한 조직의 규모나 협력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 이들 사업 담당자들 간의 소통이나 정보 교환, 조정은 각 청소년 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청소년재단-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면서 통합적인 수준의 서비스 연계와 성과 공유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다. 사실상, 사업별로 또한 프로그램별로 담당자들 간의 보다 긴밀하고 구체적인 소통이 더욱 필요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계점이자 당면한 과제이기도 한 청소년시설과 학교 및 교육청 간의 공유리더십 내지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 강화, 협력적 의사소통을 위한 보다 강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간의 단절성과 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공식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이주헌, 박치성, 2010).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의 연계 협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 영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만큼이나 위계적, 수직적 관계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실무자 간의 공유된 파트너십 부재가 종종 협력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가 되곤 한다. 특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모두 교사의 몫이라는 인식이나 학교 내에서만 체험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적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던 관례를 깨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나 산하 청소년시설의 실무 담당자들 역시 각급 학교의 실무자들 또는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신규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실행, 인력자원의 모집, 훈련, 활용 차원에서도 제한된 선택과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 단체 및 조직을 발굴하여 지역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학교와의 연계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접근하는 데는 벽이 높아요. 교육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입장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교사 연수로 해서 교사들이 해야한다는 주의이고, 우리는 교사들이 안하는데 저희라도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협의하기가 어려워요."(성남시청소년재단 OOO)

"교육지원단은 교장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세요.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세요. 성남형교육팀(성남시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고, 이쪽은 계속 분리해서 나가고자 했어요.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만류를 했었어요.....교육지원단 수장이 교육장과 레벨을 같이 하지 않지만 우리보다 상위기관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돌이 많아요."(성남시청소년재단 OOO)

마지막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CYS-Net과 같은 관(官)주도의 서비스 중복성이나 비포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축된 정기적인 협의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매우 느슨한 연계의 성격을 지니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발주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와 탈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항구적으로 구조화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예컨대, 만약 성남시청소년재단이 현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바지'프로젝트가 종결될 경우에 현재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민(民)주도적 성격을 지닌 매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지역 시민들의 욕구와 지역 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협력적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구축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시사점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사실상 관(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 내지 관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단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장점으로 살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부기관 내지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다수의 사례에서 형식적인 참여나 수직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유리더십 내지 의사소통의 부재,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의 필요성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곤 했었다.

이와는 달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지자체의 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함으로써 관(官)주도의 수직적인 위계관계를 강조하여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보다는, 연계된 각 부서장 또는 기관장 간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실무자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적인 의사소통과 파트너십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로는 지역사회 내 협력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참여자/참여 조직 간의 상호 신뢰 구축,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참여조직 간 공통의 성과공유 원칙이 상호 합의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 조직 내지 참여자 간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 및 자원 공유가 활성화되어야만 부서장이나 기관장 간의 공유리더십이 형성된다. 또한 실무자 간의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참여 조직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네트워크의 관리자로서 위치 선점(positioning)을 하여 지역사회에 내재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정보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조의 유연성 및 안정성,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효율성과 참여성을 향상시킴으로 성남형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한 성남시청소년재단 뿐만 아니라 참여 조직 및 참여자에게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내적·외적 정당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시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남시청소년재단의 권력자원을 활용하여 성남시에 소재한 학교, 교육기관, 기업, 사업체 등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역생태계 조성,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외적 참여자들과 조직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에서 시사점 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둘러싼 지역적 특성을 매우 잘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의 풍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조화를 이룬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남시청소년재단 주도형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성남시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모형인가를 다시 한 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3차 산업군 뿐만 아니라 첨단정보 산업단지까지 형성된 판교 지역과 같은 지역적·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가 매우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특성으로 말미암아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주도조직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성남형 청소년지역사회네트워크'라는 특정 모델로도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2) 아산시 사례

(1) 아산시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적 조건 및 맥락

아산시는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2읍 9면 6동을 관할하고 있다[24]. 2017년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는 총 인구 수는 311,453명이었으며, 이들 중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하는 10세~14세 16,869명, 15세~19세 17,576명, 20세~24세 17,576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2017년 현재 청소년이 전체 아산시에 거주하는 총 인구와 대비하여 16.7%(52,021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체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업 및 음식업 21.8%, 도매업 및 소매업 21.4%, 제조업 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사업체 유형들은 10% 내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소기업 내지 자영업 중심의 도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4.%, 교육 서비스업 4.1%,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0%로 나타나서, 공공성이 다소 짙은 교육·복지·문화 사업이 여타 사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24)출처: https://www.asan.go.kr/main/cms/?no=41
25)출처: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94&tblId=DT_69401_B000025&dbUser=NSI_IN_694)

표 Ⅲ - 3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체 구성 현황(2017년 12월 기준)

사업체 유형	빈도	퍼센트(%)
농업, 임업, 어업	36	0.2
광업	9	0.0
제조업	3,217	15.0
전기, 가스, 수도사업	11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51	0.2
건설업	687	3.2
도매 및 소매업	4,584	21.4
운수 및 창고업	1,910	8.9
숙박 및 음식업	4,655	21.8
정보통신업	89	0.4
금융 및 보험업	177	0.8
부동산업	739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22	1.5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375	1.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51	0.2
교육 서비스업	872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50	4.4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651	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99	9.3
총계	21,385	100.0

* 출처 : https://www.asan.go.kr/stat/node/?menu=040101 (2019년 8월 30일 출력)

(2)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아산시의 지역사회적 특성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연혁과 주요 사업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모두 투입되어 2010년 6월에 개관하였다. 개관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순천향대학교가 운영법인으로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2019년 현재, 기획관리부, 청소년사업부 내 청소년활동팀, 특성화사업팀, 교육문화팀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내 학교와 연계한 창의적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협력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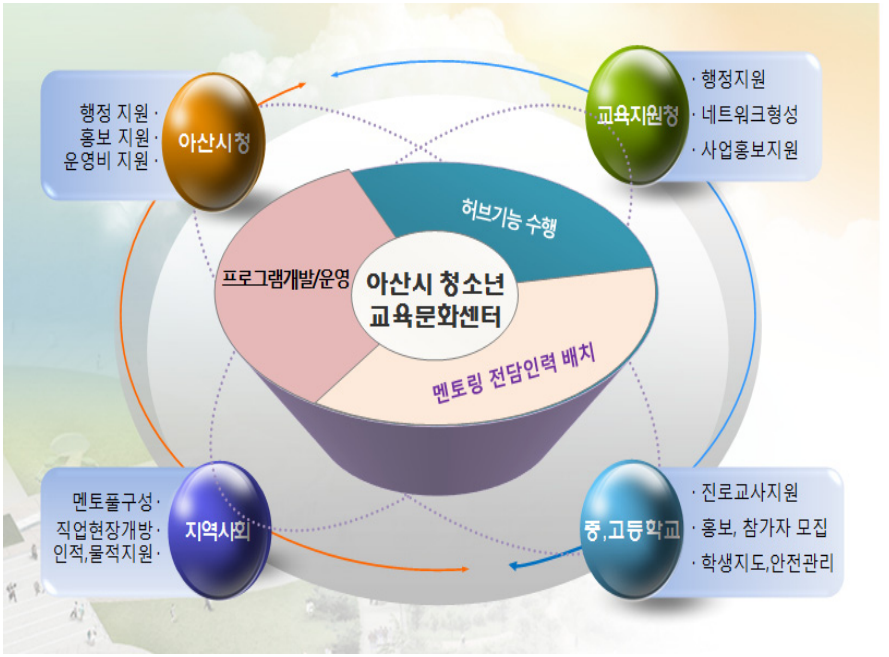
아산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 분야는 청소년 진로·직업 멘토링 및 체험활동이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아산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학교, 지역사회가 주축으로 구성된 느슨한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2018년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토요 진로상담'을 대표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학교 교육과정의 하나인 창의적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특기 개발이 이루어진다.

표 Ⅲ - 4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현황 (2018년 현재)

네트워크 사업	참여주체	주요활동
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교육청, 각급 학교, 진로교사협회, 지역사회 직업인 276명	-학교 방문 직업설명회 -직업인과의 대화 -직업 현장체험
창의적체험활동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교육청, 각급 학교, 기업 및 협동조합, 강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1인 1악기, 1인 1스포츠
진로체험지원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교육청, 각 급 학교, 관공서 및 지역 체험처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제공 -직업현장 체험 제공
휴먼서비스 네트워크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 아산문화재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문화원,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자활센터 등	-상호기관방문 및 교류 -공동사업 발굴 및 진행
토요진로상담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청소년대상 진로검사 -진로상담 등
청년협동조합 연계	협동조합 그려, 꿈이룸공작소	-프로그램 공동 운영 -청년 자치활동 기획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청소년사업부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네트워크의 허브로 아산시청의 교육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각급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교육문화 서비스의 주요한 수요자이다. 교육청은 교육사업의 위탁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와의 연계 협력을 조력하며, 학생들이 이동할 때는 차량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산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관공서, 지역 체험처를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업현장체험처를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성장을 위해 진로박람회, 진로콘서트 & 캠프,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릴레이체험버스 등 다양한 형식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휴먼서비스네트워크'라고 하여 아산문화재단,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문화원, 아산시자활센터, 아산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비영리 공공서비스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휴먼서비스네트워크는 민간조직 성격을 지니며, 상호 기관 방문이나 교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순천향대학교나 선문대학교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과 아산시민참여학교 등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참여조직으로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위하여 진로체험, 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직업 및 진로교육 및 상담 등을 실행한다. 청년협동조합이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청소년단체 등도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진행 등도 추진하였다.



* 출처: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2019). 청소년기관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자료(내부자료).

그림 Ⅲ-3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형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표 Ⅲ - 5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 참여 기관/조직별 주요 역할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기관/조직	주요 역할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사업의 허브 기능 수행(총괄 진행) -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지역 네트워크 및 사업 평가
아산교육지원청	- 사업의 행정 지원 - 지역 네트워크 구성 - 사업 홍보 지원
각급 학교	- 학생의 욕구조사 및 적성검사 실시 - 진로진학상담교사 지원 - 학생 지도 및 안전 관리 - 학생의 정보 관리 및 참가자 모집
아산시청	- 사업비 지원(진로멘토링) - 사업 행정 지원 - 사업 홍보 지원
지역사회	- 진로멘토풀 지원 - 직업현장 체험처 개방 - 인적·물적자원 지원

아산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의 대표적인 사업인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 100색'은 2013년에 시작하여, 아산시청-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네트워크의 허브와 같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멘토링사업이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3년 시작 당시에 학교연계 중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가 발표하기 이전부터 시작하였다. 서비스 대상은 14세부터 19세의 중·고등학생으로 각 급 학교뿐만 아니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11개의 직업·진로 전문분야(교육·복지, 의료·보건, 문화·예술·방송·언론, IT, 스포츠, 공공서비스, 금융·법률, 공업·공학·기술·

건설, 패션·미용, 음식·서비스, 농·축산업 등)에서 80여명의 직업전문가들이 진로멘토링에 참여하였다[26]. 프로그램의 구성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직업설명회'(강연형), 2단계 '진로콘서트'(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3단계 '직업현장체험'으로 진행된다.

2013년 시범사업 형식으로, 2014년부터 아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로멘토링사업을 실행하였다. 2015년에는 진로교육센터 '아산행복누림'을 개소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협약을 통해 진로멘토링 100인 100색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도 운영하고 있다[27]. 2018년 현재, 276명의 지역사회 직업전문가로 구성된 진로멘토단이 교육기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진로 정보, 진로체험 활동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현재, 478회를 진행하여 총 11,40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표 Ⅲ - 6 '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 100색' 운영 현황

년도	프로그램 횟수	참여자 수(청소년)
2013년	13회	1,698명
2014년	373회	9,791명
2015년	400회	11,247명
2016년	415회	11,407명
2017년	391회	10,902명
2018년	478회	11,406명

*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me2.do/xN7LC74M (2019년 8월 30일 인출); 아산시청소년문화센터 내부자료.

26) 출처: 충남넷 미디어, www.chungnam.net:8100.
27)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me2.do/xN7LC74M.

(3)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허브형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허브로 하여 아산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개관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각급 학교, 지역사회 조직들을 연계 협력하는 구심점으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 위치 선정(positioning)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산시가 어느 도시나 지역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인 지지와 정책적 방점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아산시 지역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형태와 거버넌스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아산시의 시책 중에 "청소년정책"을 특화하여 아산시 청소년정책을 실행하는 추진체계이자 전달체계로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개관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모든 운영 비전과 목표가 아산시청소년시책으로 홈페이지에 모두 탑재하고 있으며, 아산시청소년시책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사업 실적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아산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추진하는 네트워크의 방향과 목표, 연계 방식이나 수준 등은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들과 상호 연계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재 내지 학교교육과 유사한 공적인 교육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다른 시도에 있는 청소년교육시설이 다 그렇겠지만....시에서 청소년전문기관이나 인근의 대학에 발주를 줘서 했던.....그것을 순천향대학교가 맡아서 진행을 했고, 용역 결과를 지금 시장의 전임시장의 전임시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대학의 역량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대학에 맡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저희는 시에서 80%가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모든 비용을 다 달라고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겠다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사업, 교육사업이지 흔히 말하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바로 효과 나타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믿고 맡겨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다행히 시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장차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 현재를 돌아볼 때, 내가 아산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이 지금 하는 정치가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예산 배정에서는 시의회나 지역사회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가장 먼저 네트워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와 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확장되거나 전체 네트워크들이 다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 때 시의 담당부서, 교육청, 인근 지역 몇 몇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청소년진로멘토링 100인100색이나 창의적체험활동은 그런 베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허브로 구축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평생교육확장모델(이석희, 김상지, 2008)을 접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과 교육의 접근모델로 접목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직업인들의 교육기부 방식을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아산시 지자체, 교육청, 각급 학교 모두가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사업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청소년 교육활동 내지 교육사업으로 인지하면서 청소년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본 구도가 느슨한 연계를 주축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허브로 지역사회에서 이를 이슈화하고 청소년사업을 개발하면서 자유롭게 지역사회 조직 및 기관들이 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합류하거나 탈퇴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허브로 구축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정보 교환이나 자원 교류, 공동사업 등이 이루어진 참여조직 간의 협력(collaboration) 수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실행된 반면, 특정 청소년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 관계의 강도가 경험과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속적인 발전단계를 경험하거나 정기모임이나 정규성을 담보하고 있는 협의체 운영 등과 같은 협동(cooperation) 수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루어진 단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지닌 안정적인 협의체 수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느슨한 네트워크를 저희는 지향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시와 지역사회와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업이나 이슈가 떠오르면 그것을 주제로 네 기관과 주변의 단체 1~2개가 들어와서 사업을 위해서 하고, 다시 느슨한 관계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이슈가 생기면 하는.....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중점이 되어가는 부분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해쳐 모이는 식입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4) 성과 및 한계

'100인100색'진로 멘토링사업을 포함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허브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성과는 무엇보다 기존의 학교 내에서만 교사 역량을 벗어나지 못했던 진로·직업체험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제한적인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비판이나, 입시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협업이나 관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중재기관으로 각급 학교가 '열린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산시 지역사회 자체가 청소년들의 직업현장 체험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자신들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기주도성을 갖추고 자기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니까, 어울림마당을 진행할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담당자들은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지역사회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 또는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저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주니까....개중에 특별한 아이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문가와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여기를 통하면 가능합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또 다른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로 아산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풍족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교육문화 역량을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틀을 벗어나서 탈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행을 통해 교육생태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연계 기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따라주었습니다. 시에서 시골아이들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아이들이 자라는 데 평생 즐길 수 있는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도록 하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 정도는 배울 수 있도록 하자. 동아리 특기활동 하나 정도는 가입하도록 하자라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성장을 해서, 1인 1악기 1스포츠를 공약 비슷하게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시작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해, 세 해가 되면서 창의적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14~15개로 되었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단체들 모두가 지역공동체로서의 일체감과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동기도 함께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외에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점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부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은 데 봉사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진로멘토링에 들어오셔서 업장을 열고 본인의 직업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애초에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진로박람회 하나 정도였는데, 저희가 확장을 시켰던 거죠."(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역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소년시설을 허브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협의체 수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따라 구축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형태로 인해 참여 조직이나 단체가 다르다. 만약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결되면 이와 동시에 구축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시 해체될 소지가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참여한 각 조직이나 단체들의 역할 기대가 서로 다르거나 모두가 자신의 조직이나 단체들을 네트워크의 허브 기관으로 인식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네트워크를 각 기관이 만드는 것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쪽들은 꼭 자기 기관을 가운데에 놓거든요. 그리고 주변 기관이나 자원은 자기 기관의 목적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부딪히는 거죠. 때로는 중복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가운데에 있는 플랫폼 역할의 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에 신망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도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어떻게, 누가 주축으로 수행할 것인지를 단일 조직이나 소수 조직이 결정하는 중앙집중형이 아닌 탈중심적 네트워크 모델(이석지, 김상지, 2008)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탈중심적 네트워크 모델은 테마별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고,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네트워크 구축 또한 가능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 조직이나 단체,

개인 모두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모호함이 내재해 있으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성이나 호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컨대, 만약 진로멘토링 100인100색사업이 종결된다면 현재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5) 시사점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허브조직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한 시사점으로 청소년시설이나 학교의 단일 기관만의 역량이나 재량만으로 청소년들의 전인적이고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성과는 분명히 한계점에 닿아 있음을 청소년 현장에서 먼저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에 내재해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별개로 청소년시설이나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로 및 직업체험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운영방식이나 전략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이 서로 다르고, 각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욕구나 필요가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적인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혜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청소년시설-교육청/학교-지자체를 기본 축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사례이다.

"청소년이 상시로 드나드는 청소년수련관. 접근성이 강하고 예산도 자유로운, 이런 부분들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네트워크를 떠올렸습니다...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골격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조직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슨한 조직으로 꾸렸습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기관 내지는 청소년시설 중심의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가라고 처음에 물어보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대상이 청소년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업의 추진목표가 청소년의 성장·지원·활동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복귀시스템을 갖추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족합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2010년 개관할 당시부터 아산시 지자체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네트워크사업, 특성화사업 등의 일련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산 마련에 대한 부담과 재원의 다양화를 위한 고민이 커져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자금교환 네트워크에 있어서 행정기관(구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강창현, 2002).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주요한 재원은 지자체 외에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재원 소스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지자체 예산 이외에 또 다른 기금이나 재정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기업 CSR과 같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거나 미래 첨단사업이나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청년들의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의 개발이나 제공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예산 이외의 기금과 같이 비영리 민간부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 인프라를 네트워크 내에 구축하거나 자금교환 네트워크의 재원 소스를 다원화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백 몇 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10 몇 억을 들이지 않아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그 인건비가 한 달로 따지면 2백만원에 못 미치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준거죠. 기관에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6개월 교육시켰는데 더 좋은 자리가 생겼다고 가버리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에서 가져갔어요. 네트워크가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감정이 생겨서 기존의 잘 운영되던 네트워크가 조금씩 삐그덕 거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문제는 사회와 청소년의 욕구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도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1인 크리에이터의 창조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려면 최소 2~3억이 필요합니다.....어쨋든 시에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따로 기업도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데, 이런 것을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곤란한 거죠.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다시 시작을 해봐야죠."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다수의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성으로 호혜성(reciproc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느슨한 연계(loose coupling)를 들고 있다(강창현, 2002: 317).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허브로 구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이러한 호혜성, 상호의존성, 느슨한 연계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조직 간의 공유된 리더십이나 실무자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적 의사소통이 네트워크 사업 초기 당시에는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원인은 참여 조직의 부서장이나 기관장 간의 공유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했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부족한 데서

온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어쩌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 조직 간의 형식적인 참여 수준이거나 관(官)이 여전히 민(民)에 지배적인 관주(官主)형 수준으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휴먼서비스네트워크는 사조직입니다. 시초는 전임시장님 업무 보고 때 아산시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 데 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도 없고, 교류가 없다보니 사업의 중복이 일어나니, 담당자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만드신 거예요. 자금은 흐지부지 되어서 6개 기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벼운 이야기만 하는 정도에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도 상호 협조적이어야 하잖아요. 시에서 행정이 해결해줄 수 없는 수많은 부분이 있는 데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시골로 내려오면 네트워크를 사실 토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풀뿌리의식이 자라나야하지 않을까 합니다."(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OOO)

3) 노원구 사례

(1) 개요

노원구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도시화로 형성된 전형적인 도시 변두리 지역이다. 1980년대 경제 활성화로 인한 전국적인 부동산 값 상승과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대단위 서민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내 소득 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양병찬, 김지선, 부은희, 서정화, 윤은주, 2016).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현재 15.6%[28]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이고,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57%(15,462가구, 23,464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29]. 또한 서울시 전체 법정 저소득층 가정 학생 중 10.1%(9,057명)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학원가 집중과 교육열풍은 높은 특목고 진학률과 더불어 지역 내 심각한 교육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및 교육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구이며,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구이다. 노원구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지역발전특구사업으로 2007년에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18년 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또한 노원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마을학교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2013.4.11.)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 청소년 관련 사업

노원구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교육복지, 돌봄, 진로, 위기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영역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28) 중앙일보(2018.12.26.) 보도자료
29) 보건복지부(2018).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과

① 교육복지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교육복지네트워크에서는 노원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결핍으로 인해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산재한 지역기관과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망을 기반으로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적응력, 정서행동, 가족지원 영역에서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육복지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복지네트워크의 주요한 운영목적이다.



* 출처: (사)청소년과 나란히 홈페이지. http://naranhi.net/education/275. 2019.8.29. 검색.

그림 Ⅲ-4 노원교육복지네트워크

노원교육복지센터에서는 학생성장, 가족역량강화, 교육복지 기반 조성 등의 영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교육복지센터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으로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요청이 올 경우 기관과 기관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Ⅲ - 7 노원교육복지센터의 주요사업내용

학생성장	가족역량강화	교육복지 기반 조성
학교적응력향상 사업 학생정서・행동 지원사업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동아리 운영	두세대 프로그램 운영 부모 교육 기획 운영 부모 상담 및 코칭	자원발굴・인적 자원 양성 실무자 연수 교육복지 사업 연계 및 협력・조정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 출처: (사)청소년과 나란히 홈페이지. http://naranhi.net/education/275. 2019.8.29. 검색.

② 돌봄

노원구는 2014년부터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돌봄운영협의체를 공동운영하고 있고, 매년 방과후 돌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고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계하고 있다.

노원구에서 돌봄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2007년 삼성꿈장학재단 지역교육네트워크 사업으로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 센터'가 운영되면서부터였다.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를 중심으로 방과 후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노원아동방과후교실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들은 돌봄교실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이들이 방과후교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한 두 해 동안의 돌봄과 교육을 뛰어넘어 아동들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했고, 방과후 교실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고민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방과 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돌봄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되었다. 네트워크의 내부구심력은 학교, 민간공부방,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돌봄교사가 주축이 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프로젝트조정자가 네트워크 간사 역할을 담당하였다(양병찬 외, 2016).

돌봄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 협의회에서는 동별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이 모여 위기 및 방임 아동을 발굴해 돌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거나, 방과 후 돌봄 교사의 역량 제고 지원을 통한 돌봄 교실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 관, 학이 권역별로 모여 돌봄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연계를 이루고 있다.

돌봄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노원구는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방과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돌봄서비스에 더하여 독서와 문화활동을 매개로 중위소득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독서돌봄 마을학교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돌봄 마을학교는 노원구의 자체사업인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마을학교이다.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이었고,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여기에 돌봄을 결합해 보자는 담당자의 아이디어가 수용되어 독서돌봄 마을학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노원구는 2018년에 교육부와 관계부처인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선도사업은 지역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로 선정지역에 3년간(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원구는 4년간 31개소 950명 어린이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③ 진로

노원구의 진로 네트워크는 상상이룸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상이룸센터는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직업체험센터이다. 상상이룸센터에서는 진로적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요청을 반영해 체험중심 진로교육의 지속과 강화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찾고 이루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상이룸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및 진로체험

교육 실행, 3)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델링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 - 8 상상이룸센터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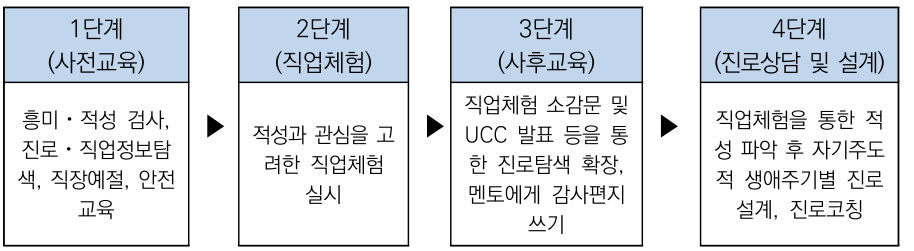
구분	내용
디지털 라이브러리 및 진로 카페 운영	문화, 체험, 일과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 시행
뮤직 스튜디오 및 제작실 운영	상상, 창의가 살아있고 이를 구조화하는 창작 연습실 운영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	개별, 집단, 일반, 저소득, 위기 등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실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터에서 미래를 긍정하고 설계하는 현장 지원 교육 강화
지역진로아카데미 개최	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인력 양성
청소년욕구조사 진로지원통합 시스템 도입	진로지원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	진로지원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출처: 상상이룸센터 블로그. https://www.sangsangirum.net/entry/%EC%82%AC%EC%97%85%EC%86%8C%EA%B0%9C?category=534141. 2019년 8월 26일 검색.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상상이룸센터 천천일상 즉 천개의 일, 천개의 상상은 청소년들의 적성과 관심을 고려하여 직업을 체험해보는 현장진로체험 사업으로 노원의 진로생태계를 구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2015년 자치구 최초로 노원구에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현재 1,107개의 직업체험처를 확보하였다.

상상이룸센터 현장진로체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흥미・적성 검서, 진로・직업정보 탐색, 직장예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적성과 관심을 고려한 직업체험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직업체험 소감문 및 UCC 발표를 통해 진로탐색을 확장한 후, 4단계에서는 직업체험을 통한 적성을 파악한 후 자기주도적으로 생애주기별 진로를 설계한다.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2018 제2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 자료 중 노원구 사례.

그림 Ⅲ-5 상상이룸센터 현장진로체험 단계별 진행과정

④ 위기청소년 지원

노원구의 위기청소년 지원네트워크는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허브센터로서 '노원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2016년 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 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기관을 노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로 통합하였다.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 및 학업중단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센터로서 위기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안과 밖을 잇는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진로・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복지센터의 비전은 '학교 안과 밖을 잇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업중단 예방,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원'이다. 추진전략에는 1)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종합상담시스템 구축, 2) 동기부여, 자발적 참여, 자기주도성 회복 우선전략, 3) 위기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전략,

4) 민관협력으로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대응 상생전략, 5) 학교 안과 밖 배움터 징검다리 교육 공간 확대전략, 6) 일상성 회복과 진로모색을 중심으로 한 교육전략 등이 포함된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위기 청소년 대상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Ⅲ-9 노원구 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대상 사업

구분	내용
사각지대 없는 상담복지	• 상담과 치료 • 1388 전화상담 • 청소년동반자 • 맞춤사례관리 • 등교 도우미 서비스 • 부모교육/부모상담
학업중단 예방	• 학교 안 밖 대안교실 • 부적응/위기예방 프로그램 • 맞춤형대안교육 프로그램 •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학습과 자립의 단계별 훈련지원	• 일상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 검정고시반, 단기학교 • 복교 및 진학지원 • 인턴십/직업훈련 • 자립자활 맞춤형지원
대안학교 운영	• 중등과정 운영 • 고등과정 운영 • 수준별 학습지원 • 진로특성화 교육편성 • 자격증 취득연계
CYS-Net 연계 강화	• CYS-Net 시스템 구축 •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위기기관 협력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 지원 전문가 양성 • 인력 및 자원풀 조성

* 출처 :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 홈페이지.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1/?sMenu=04&st=sub01. 2019년 8월 26일 검색.

(3) 거버넌스 추진체계 및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노원구에서 청소년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네트워크는 크게 교육복지 네트워크, 돌봄 네트워크, 진로 네트워크, 위기청소년지원 네트워크 등이 있다. 각각의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교육복지사업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 교육복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기관을 들 수 있다. 교육복지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학습지원, 문화・체험활동지원, 심리・정서지원, 복지지원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야간 방과후 교실, 일대일 결연 활동 및 사례관리, 진로교육을 위한 자원개발,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조원파견, 비행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여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 노원교육복지센터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의 교사가 직접 센터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요청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청에서는 센터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민관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노원의 교육복지네트워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학교 사회복지사 그룹이나 지역 문화실천가 그룹 등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노원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실천해 왔던 지역활동가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일하면서 지역과 함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민관의 관계는 사업방식의 차이와 상호 이해의 부족 등으로 갈등을 겪은 반면 노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게 되었다.

둘째, 노원구의 돌봄네트워크는 돌봄 협의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돌봄협의회는 권역별 협의회와 노원아동방과후교실협의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역별 협의회는 서울시북부교육청 주관으로 현재 8개 권역협의회(노원구・도봉구)로 운영 중이며, 59개 학교와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노원아동방과후교실협의회는 2005년부터 운영된 민간단체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청소년과 나란히를 중심으로 돌봄교실 전담강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전담교사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및 운영회의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실무자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민・관・학 3개 권역별 돌봄상황 공유,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 교사 교육 및 교사 워크숍,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다(이혜숙, 이영주, 2018).

노원구의 돌봄 네트워크의 특징은 초기에는 (사)청소년과 나란히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끌었다면 점차 운영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구성되고 전체 회의, 동별 협의회, 연구소모임이 정례화되어 협의회 참여자들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생적인 네트워크로서 정착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돌보지 않고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민·관·학이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진로 네트워크는 세미나, 진로박람회, 직업체험, 진로프로젝트 등의 진로사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확장되고 있다. 특히 노원의 진로교육네트워크는 상상이룸센터를 통해 형성, 운영되고 있는데, 상상이룸센터와 시교육청은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구청은 공간과 시설,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를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관협력 기관이다. 상상이룸센터는 노원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와 새로운 네트워크로 소통하고 있으며, 진로를 통해 지역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개의 일, 천개의 상상(천천일상) 직업체험을 통해 체험, 일과 놀이, 배움이 조화되어 '배움터-일터-삶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터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의 진로교육네트워크는 학교중심 진로교육에서 지역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진로를 중심으로 배움과 일, 그리고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는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노원청소년지원센터와, 학교밖 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기관을 통합한 것이었다. 이 중 노원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자체의 제안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민간 TF(노원나눔의집, 노원청소년수련관,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 북부교육청, 나란히센터 등)를 구성하여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위기네트워크 허브센터로서 민간인력과 지자체 파견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노원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원구의 네트워크는 민관협력 위기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을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가 민관협력의 탄탄한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CYS-Net이 내실화되고 있다. 또한 위기네트워크에서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원하면서 교육청과 구청, 그리고 민간에서 위기청소년 지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민관기관 등 세 주체가 함께 혁신교육지구사업, 학업중단숙려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동아웃리치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노원구의 위기청소년지원 네트워크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에서 민관협력 위기청소년 지원네트워크를 형성・운영하고 있다.

(4) 성과 및 한계

① 성과

노원구 청소년 관련 사업 또는 네트워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내실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활동가들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필요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관으로부터 하달된 사업이나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그와 관련하여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CYS-Net이 활성화될 수 있던 것도 이러한 기반으로부터 가능하였다.

노원구 지역활동가들은 민의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 때 "민간이 중심이 되고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노원구 청소년 사업 관련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 주도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민간의 주도성과 더불어 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노원구의 경우 관에서 아동・청소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노원구의 아동청소년 사업의 발전이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활동가 출신의 공무원 OOO은 관의 예산과 지원, **지자체장의 마인드**도 중요하며 **민간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

> **"민간이 중심축이 되어야하고, 관이 30% 지원이 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서 지원이 있어야 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 하고 지자체장의 마인드도 중요해요." (노원구청 O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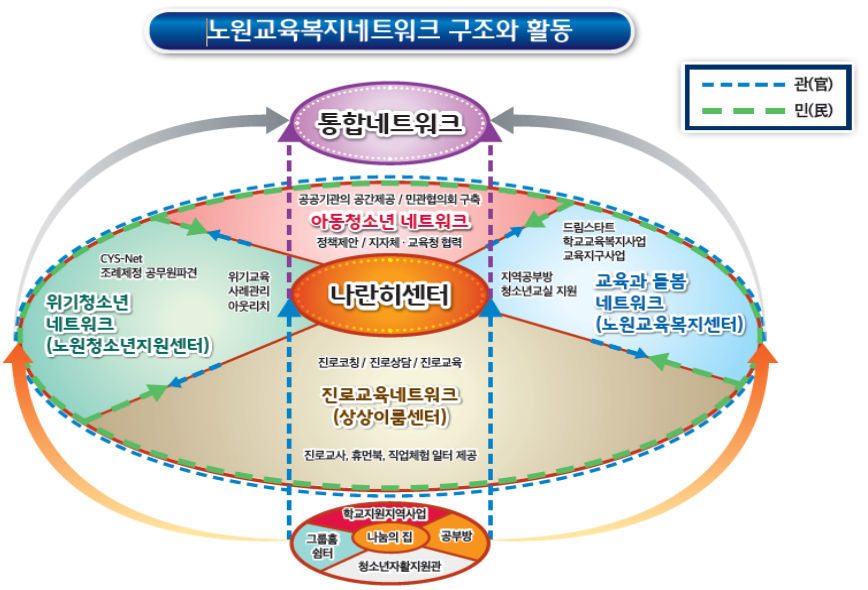
셋째,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노원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활동가들이 민간과 공공의 영역을 넘나들고 순환하면서 연계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방성과 유연성은 민관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제일 좋은 것은 시 지역 안에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는 것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 관하고도. 사실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드리면. OOO 선생님이나 상담복지센터의 OOO님이나 모두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이분들의 처음에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진로 관련해서는 상상이룸센터장하다 지금 내일이룸학교의 OOO 선생님과 같이 4명 정도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OOO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있다가 지금은 민간단체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시고 계신 거고, 저는 작년까지 지역에 있다가 다시 관에 들어온거고, 관에 한 10년 가까이 있던 OOO님은 지금 상담복지센터장을 한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순환하면서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조직도 하고, 나와서 민간 활동도 하고.. 마인드자체가 민관거버넌스에 대해서 적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노원구청 OOO)

넷째, 네트워크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교육복지, 진로, 위기청소년 지원, 돌봄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 형성된 거버넌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이다. 노원의 경우 처음에는 빈민아동을 위한 공부방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 방과후교실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돌봄 네트워크가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학교 내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배치되면서 학교와 지역기관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대안과 적용을 모색하기 위해 진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후 개별맞춤형 돌봄이 어려운 위기청소년들이 발굴되고 지역 내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민간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지역의 맥락과 상황, 시간의 흐름, 그리고 요구되는 지역적 요구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로

부터 점차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화되어 갔다. 이처럼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분화되었다는 것은 노원지역 네트워크의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복지, 돌봄, 진로, 위기청소년지원 등 분화된 4가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광역 네트워크로서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2004년에 민관협력을 위해 발족된 네트워크로서 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민관협력의 중심축으로서 교육청, 학교, 지자체와 정책협의를 하고 실현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초기에는 교육청, 지자체에 대한 정책 제안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민간 주도 교육복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협의의 주체가 되고 있다.



* 출처 : 양병찬 외 (2016). p.107 재구성.

그림 Ⅲ-6 노원교육복지네트워크 구조와 확장

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격월에 1회 정기회의를 하며 분과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되면 각각의 영역으로 전문화된 네트워크를 통합, 조정할 수 있고, 큰 틀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의 영역인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원구에는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노원구의 특징적인 면은 중앙단위에서 교육부와 여가부의 사업영역이 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학교 안의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진로체험의 경우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진로직업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의 진로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노원구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시작할 때에 관에서 사업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이 관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에서도 민간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30].

② 한계

노원지역 청소년 사업 또는 네트워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원지역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계승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계속적인 후속 세대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천가들에게 지역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활동가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재생산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시설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에서 청소년분야로 진입

30) 면담자료 내용에서 인용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원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사단법인 청소년과 나란히가 있다. 청소년과 나란히는 방과 후 공부방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돌봄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였지만 돌봄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복지, 부모교육, 진로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학교까지 연결하면서 아동청소년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 시청, 민간기관 등과 연계 및 연결의 역할을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들 간 네트워킹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청소년시설로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법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지역중심이나 네트워크 중심이 아니라 시설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분야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확장성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노원구의 청소년사업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원구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거버넌스를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지역 주민자활과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노원 나눔의 집이 1986년 설립된 이래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실천해왔던 지역의 핵심 교육실천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지역단체와 연대하면서 자생적인 민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민간에 형성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관련 사업이 이미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2003년 중앙정부가 제시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지역실천가들이 참여하면서 민과 관과의 접점이 형성되었고, 이는 민관협력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관이 주도하여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를 참여시키면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던 민간의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관과의 접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며 주도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의 자발성과 자생성, 그리고 주도성이 노원지역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도 민간영역의 참여와 자발성 및 주도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내 민간영역의 교육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에는 민간의 자생성을 길러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원구의 청소년 사업관련 네트워크가 교육복지 네트워크, 돌봄 네트워크, 진로 네트워크,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로 전문화되어 있지만 이들 네트워크가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고 연계되면서 네트워크 간 시너지 효과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진로 네트워크의 경우 청소년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 경험 기반위에 2003년부터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교육복지 사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와의 연계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진로 네트워크에는 학교지역사회전문가, 학교교사, 지역청소년기관, 교육청 프로젝트 조정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복지사업이 시작하여 학교와의 연계가 더 활발해지면서 진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게 된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 네트워크의 중추기관인 교육복지센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는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인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교육복지센터로 연락이 오면서 위기네트워크와 교육복지네트워크는 서로 연계되고 있다. 즉, 교육복지네트워크, 위기 네트워크, 진로 네트워크가 중첩되고 연계되면서 네트워크 간 효과를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였던 것은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관에서 주도하여 위로부터 네트워크를 만들기보다는 민간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간에서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원구처럼 지역에 뿌리내린 자생적인 민간조직이나 활동가가 없을 경우에는 관이 주도하되 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민간에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의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원에는 교육복지, 돌봄, 진로, 위기청소년지원 등의 전문화된 네트워크가 있고 이를 포괄하는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분화된 네트워크 외에 이를 포괄하는 광역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되면 각각의 영역으로 전문화된 네트워크를 통합, 조정할 수 있고, 큰 틀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노원구처럼 필요에 의해 자생적인 전문화된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된 후 포괄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노원의 경우에도 처음에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부터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처음에 만든 네트워크는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부터 만들었어요. 처음에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에요. 정책적인거니까. 개별의 네트워크가 잘 되고 전체가 만들어져야하는데 그냥 네트워크 하나만 만들어서는 쓸모가 없어요. 성장지원협의체도 청소년을 성장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협의체를 만들어야 잘 돌아가요. 각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돌봄 사업이든 진로 사업이든 잘되고 있는 것을 활성화하면서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는 예전에 강남구 아이들의 본드 문제가 심각해서 강남구약물협의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실한 문제였어요. 일단 절실함이 있어야 해요."(노원구청 OOO)

따라서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할 때에는 각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부터 전문화된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아이들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준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네트워크가 형성되었던 것도 방과후교실을 운영한 공부방 교사들에게 해당교실을 졸업하거나 학년을 진급하는 아동들이 '남의 아이'가 아니었고 '한 두 해 동안의 돌봄과 교육'을

뛰어넘어 '아동들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양병찬 외, 2016). 진로 네트워크가 시작될 수 있었던 출발점도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맞는 진로교육을 찾아보자'는 지역실천가들의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중심을 아이들로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찾아야 해요. 거꾸로 필요한 자원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노원구청 OOO).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중심을 청소년들에게 두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연계하는 것에서부터 네트워크 형성의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것이다.

4) 시흥시 사례

(1) 개요

시흥시는 인천광역시 동부와 인접해 있는 경기 서남부권의 도시이며, 완만한 언덕과 평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시흥시는 2019년 7월 기준 519,9780명(시흥통계, 2019)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11번째로 인구 규모가 크다. 또한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도시이며, 주민 평균 연령은 32세로 2007년 37.8세에서 10년 전에 비해 5.8세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젊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비율이 높아서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 문화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이 꼽히고 있다(희망제작소, 2014).

2017년 시흥시 사회조사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나타났는데 청소년 관련 필요정책으로 '청소년 취미, 문화 체험기회 확대' 정책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보호기반'(18.1%)과 '청소년 체육시설'(18.1%), 청소년 학습시설(17.8%), 청소년 상담창구 마련(17.6%)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수련관 1개와 청소년문화의집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흥시의 넓은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할 때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경기도, 2018). 그러나 시흥시는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로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WIKITREE, 2019.1.31.).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시는 2024년까지 청소년시설을 17개까지 늘리고 청소년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교육청-마을-학교 간 교육지원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선두적인 청소년 교육협력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시흥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내실화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혁신교육지구 시즌II 평가(백병부, 최보미, 2018)에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공동체의식, 학교수업과 지역의 연계, 지역특색교육활성화, 지역교육인프라 구축 및 학교밖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 1차년도(2016년)와 2차년도(2017년)에 비해서 3차년도(2018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은 지역공동체의식이 향상되었고, 학교수업과 지역의 연계, 지역특색교육 활성화, 지역교육인프라 구축 및 학교 밖 활동 활성화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청소년 관련 사업 및 네트워크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청소년관련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시흥의 청소년관련 사업을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관련 사업

① 청소년 사업

시흥시의 청소년사업은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과 매화청소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련관과 문화센터의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사업의 허브로서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특화사업, 청소년보호복지사업, 청소년진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 활동사업에는 청소년자치활동, 특성화동아리,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둘째, 청소년특화사업은 주로 동아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관내 청소년기관・단체 및 학교 소속 동아리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일반 청소년 동아

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동아리(스포츠, 댄스, 밴드, 사물놀이, 뮤지컬, 연극 등), 사회연구동아리(봉사, 과학탐구, 사회탐구, 진로, 토론, 미디어 등), 지역사회동아리(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소속 동아리 중심) 등 300여 개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소속감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동아리 연합활동인 MOIM(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대상으로 축제 기획단을 구성,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축제문화도 제공하고 있다. 시흥시 관내 학교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특기 및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창의적 체험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보호복지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밝은빛'을 수행하고 있다.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청소년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진로사업은 시흥시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시흥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경기도시흥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진로 전문기관으로서 생애주기별 맞춤진로활동, 자기주도 진로활동, 마을연계 진로활동, 진로플랫폼 기획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Ⅲ - 10 시흥시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구분	종류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진로활동	Do Dream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 진로교육	예비 중등청소년을 위한 자기이해 활동을 통한 진로인식 함양
	Do Dream 중등 자유학년제	실질적인 직업체험 및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유학년제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흥미 및 동기부여
	Do Dream 고등 진로 연계활동	진로멘토링을 통해 고등청소년의 진로방향 모색기회 제공
	대학생 서포터즈	취업준비 대학생에게 필요한 개인별 진로역량 및 진로전문화 강화
자기주도 진로활동	진로기자단	청소년이 관심이 높은 직업을 선택해 직접 직업인 인터뷰를 진행, 진로개발 역량강화 기회제공
	미디어 진로교육	미디어컨텐츠의 영역별 체계적인 교육제공을 통해 미디오 진로 희망 청소년의 진로설계 지원
	학과 체험	대학교 학과체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및 진로의사결정능력 강화
마을연계 진로활동	마을직업체험	진로탐색이 필요한 중등학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 내 직업 체험기회 확대
	직업인 인력풀	인적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양질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제공
	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운영	관내 체험처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운영 활성화
진로 플랫폼 기획	중등진로적성 검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청소년에게 진로 정보 제공
	진로코디네이터	진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진로 네트워크	지역사회 진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성장환경 마련

* 출처: 시흥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www.shyc2007.com/youth_policy/program_01_01.do. 2019년 8월 31일 검색.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흥시는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 I에서부터 다른 기초지자체에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다(강민정 외, 2018). 여기에서는 2018년 사업을 기준으로 시흥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흥시는 2011년 혁신교육지구 시즌 I(2011~2015년)에 참여한 데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교육지구 시즌 I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Ⅲ - 11 2018년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역특성화교육	1. 시흥창의체험학교
		2. 학교 안 체험교실
		3. PLAY, 소프트웨어
		4.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5. 학생 자치 프로젝트
		6. 마을 연계 창의적교육과정
		7. 혁신(공감)학교 운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활동 지원	8.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9.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10. 교육자원봉사 프로젝트
	지역사회 자원 공유시스템 구축	11. 함께 만드는 시흥행복교육 스토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12. 학부모 자치 프로젝트
		13. 혁신연구회·마을융합학교(연수)
		14. 희망심기
	교육협력지원센터	15.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밖 학교 운영	16. 꿈의학교
		17. 학교 중심의 마을축제

* 출처: 시흥시 내부자료(2018). 2018 시흥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다양한 사업 중 여기에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인 시흥창의체험학교, 학교 안 체험교실,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학교중심의 마을축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시흥창의체험학교

시흥창의체험학교는 시흥시의 생태, 문화, 역사, 환경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흥시 현장학습이다.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배움의 깊이를 더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원클릭시스템을 통하여 학급단위 신청을 받아 행정처리 및 차량을 지원한다. 시흥시의 학생들은 창의체험학교를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가 마을로 들어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학교 안 체험교실

시흥시가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해 학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와 마을 주민에게도 시설이 개방되어 마을 속의 체험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학교 안 체험교실의 강사비용은 시흥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어서 학생과 마을주민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다.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이 사업은 경기꿈의학교, 평생학습 마을학교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지역협력 교육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권역별 학교들이 연합하여 마을신문을 제작하고 마을축제와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 간의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신청한 학교는 탈락시키지 않고 컨설팅을 통한 계획서 조정 후 예산을 지원한다.

라.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이 사업은 시흥시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교육기관의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흥시 교육발전의 시너지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마을교육과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지역 교육기관이 학교교육과정에 맞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프로그램을 마을강사와 학교교사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학교 중심의 마을축제

시흥시의 마을축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마을축제를 추구한다. 마을축제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을과 공유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가 함께 연대하여 건강한 마을교육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기획부터 준비, 실행 등 모든 과정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 나가면서 양측 모두 주체가 되는 것이 시흥시 마을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참가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모두가 지역사회의 주인임을 실감하는 축제 그리고 학생들도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는 마을축제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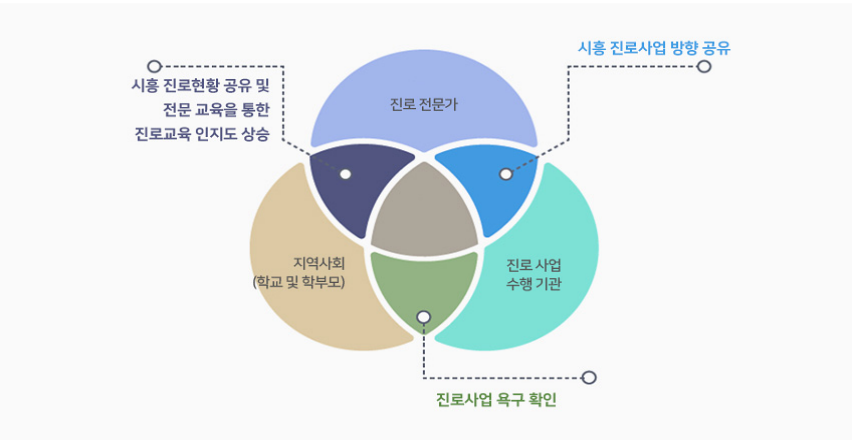
(3) 거버넌스 추진체계 및 특징

① 청소년 사업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사업 중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은 진로 네트워크, 청소년기관 간 네트워크, 매화청소년센터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그리고 청소년특화사업 중의 하나인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진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을 성장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관내 학교장, 학부모, 진로부장교사, 시흥시 진로체험지원단,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의 진로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별로 1회 모여서 시흥시 진로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진로사업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흥시에 형성되어 있는 진로 네트워크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처: 시흥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www.shyc2007.com/youth_policy/program_01_01.do. 2019년 8월 31일 검색.

그림 Ⅲ-7 시흥시진로네트워크 및 사업내용

둘째, 청소년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기관 간의 네트워크인 기관장 네트워크, 중간관리자 네트워크, 시흥시청소년활동연구모임 등이 있다. 기관장 네트워크는 청소년활동기관 기관장 간의 모임이고, 중간관리자 네트워크는 청소년활동기관,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중간관리자들의 모임이며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청소년활동연구모임은 청소년유관기관 네트워크로서 지역 청소년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동단위 문화센터인 매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돌봄이나 방과후 활동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센터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센터 주무관님께서 적극적인 스타일이어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네트워킹을 새롭게 만들었던 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분기별로 회의를 같이 하시면서 공유하고 나누고, 복지관들도 지역사업을 많이 했어요. 가장 큰 효과성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반영하고, 방과 후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해요. 한달에 2,000명이 사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무조건 저희 센터로 와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같이 들어가요.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있을 공간이 없는거에요. 아무래도 그 동네가 지역적으로 잘사는 곳이 아니어서, 맞벌이가 많아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 회의 전에 갖다드리면 거기에서 직접 주민자치에 참여자들에게 홍보지를 전달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홍보지도 갖다가 소개를 해주세요."(시흥시 매화청소년문화센터 OOO)

"관계를 맺어야지만 아는 거에요. 얼굴을 보고 만나야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되요."(시흥시 청소년수련관 OOO)

"이번에는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요구도 되게 많구요. 매화동 같은 경우는 발전 여지가 큰 곳이에요. 산업단지도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관심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매화청소년문화센터 OOO)

마지막으로 시흥시청소년동아리축제는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의 동아리소속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축제이다. 300여개 동아리 4,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동아리 특성에 맞는 부스를 운영하고 공연 등을 진행한다.

시흥의 청소년사업은 진로사업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진로사업의 경우 마을 내 직업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마을직업체험이나 진로직업 관련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직업인 인력풀 구축 사업 등이 존재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사업과 관련한 거버넌스도 탄탄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진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협력체계 네트워크 진로자문위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진행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토의와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진로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시흥시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이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참여하여 관과 민간 간의 협력체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흥시 청소년사업에서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청소년사업 관련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

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거버넌스 형성의 허브

시흥혁신교육지구 거버넌스 형성의 허브 역할을 하는 단체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이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시흥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하여 교육지원을 모색하는 교육플랫폼으로서 민관학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발굴하여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해 지역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흥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 및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장학사) 및 시 부서 담당자 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문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자원과 학교의 연계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 마을교육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을교육자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학부모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과 학교 사이의 허브체제 구축' 을 통하여, 마을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형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나. 시흥혁신교육지구를 통한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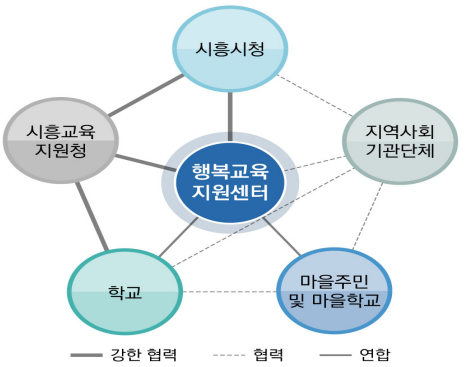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연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 있다.

우선, 시흥시 교육관련 부서와 교육지원청 장학사 전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핵심운영인력이 통합근무를 하고 있다. 시흥시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수시협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기별로 시흥시와 교육지원청의 정례협의회가 개최된다.

실무협의회의 주요역할은 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 및 협업사항 조율, 사업방향에 대한 학교연계 업무의 공유 및 추진 방향 협의,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자문, 교육협력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등이다. 이처럼 시흥시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학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마을교육자치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온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교밖 체험처와 마을교사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시흥시에서 형성된 거버넌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흥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시 직영 중간지원조직이 교육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시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마을주민 및 마을학교,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민관학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업을 통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



* 출처: 조윤정, 이병곤, 김경미, 목정연, (2016). p.106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재구성.

그림 Ⅲ-8 시흥혁신교육지구를 통한 거버넌스 형성

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형성된 거버넌스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와 시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진 지역사회 단체나 마을주민을 발굴하여,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주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교육력을 제고해준다. 또한 선정된 주체를 중심으로 풀(pool)을 구축하여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어느 한 주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관련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실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성장해간다. 이러한 지점이 시흥혁신교육지구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차별화되는 특징이며 이를 통하여 시흥시의 거버넌스 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과 및 한계

시흥시 청소년 관련 사업은 크게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사업과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청,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사업은 2018년 자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청소년 소통 및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휴카페 11개소를 발굴・운영하고 있다. 휴카페는 관내 종교시설이나 민간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학교 등과 인접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신규 개소 시 필요한 경우 현판제작, 현수막 등 홍보비와 휴카페 운영에 필요한 간식비,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동아리지원센터 '모임(MOIM)'을 주축으로 2014년 30개에서 2018년 270개로 동아리 활동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청소년 소통 및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소년사업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장 네트워크, 중간관리자 네트워크, 시흥시청소년활동연구모임 등 청소년활동기관 간에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관장 네트워크는 청소년활동기관 기관장 간의 모임이고, 중간관리자 네트워크는 청소년활동기관,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중간관리자들의 모임이며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청소년활동연구모임은 청소년유관기관 네트워크로서 지역 청소년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는 향후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활동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단위 문화센터인 매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돌봄이나 방과후 활동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센터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례는 시흥시 청소년사업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방과 후나 돌봄 등 서로의 필요에 의해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매화동이라는 작은 동단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용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할 때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시흥시청,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 학교 등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거버넌스가 형성,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공통의 비전과 목표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공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회복한다는 것인데 교육을 통하여 지역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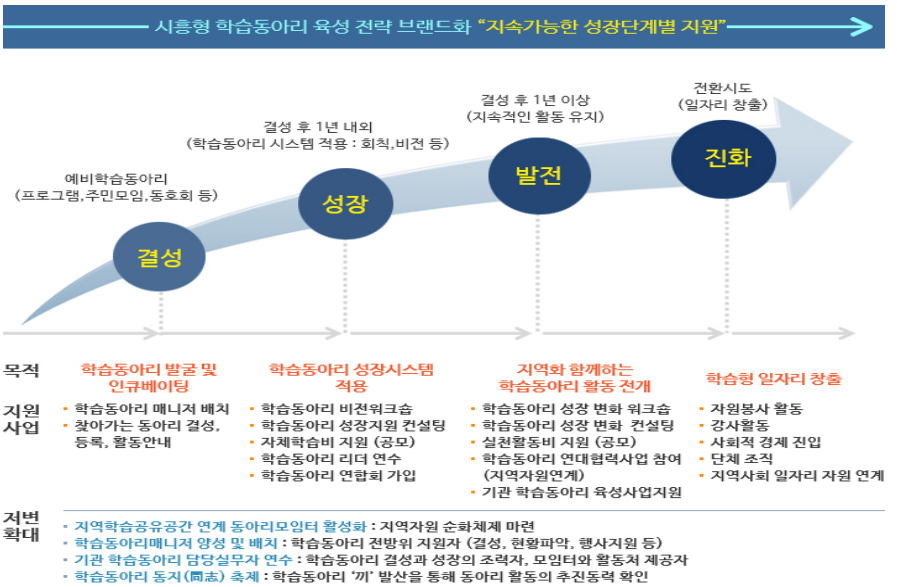
다섯째, 시흥혁신교육지구에서는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속에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였다. 예컨대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경우 담당업무가 혁신교육지구 업무와 연계될 뿐 아니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장학사님들도 한분 두 분씩 안건을 내고, 이왕 하는 거 자기네 업무와 연결해서 같이 하구요. 예를 들어 학생자치회 대토론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하자고 한다든지, 하반기 하는 축제를 같이 하자고 한다든지라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에요." (시흥시청, OOO)

여섯째, 행복교육지원센터 안에 핵심운영인력이 통합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시흥시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함께 센터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면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원하였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시흥시 평생학습과에서는 5명 이상이 모이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모든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결성, 성장, 발전, 진화 과정에 따라 성장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동아리의 유지와 지속적인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결성단계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주민모임을 통해 학습동아리를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며, 성장단계에서는 비전 워크샵, 성장지원 컨설팅, 리더연수 등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하면서 학습동아리 성장시스템을 적용한다. 결성 후 1년 이상이 되면 발전단계에 진입하는데 성장 변화워크샵과 컨설팅을 통해 기관과 지역 연계 활동으로 확장된다. 마지막 단계인 진화 단계에 접어들면 자원봉사 활동이나 강사활동 등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를 찾게 되고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게 된다.



* 출처 : 시흥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eduinfo.siheung.go.kr/new/03_educity/esd_new.jsp. 2019년 9월 1일 검색.

그림 Ⅲ-9 시흥형 학습동아리 성장지원 시스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학습의 과정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나 주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 구별짓기를 통한 차별과 배제 등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례적인 협의체 안에서 논의하는 구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으로서 인식을 깨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교안과 밖 구분, 경계를 짓는 것. 우리는 말로는 구분 없이 가야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도 공교육과 학교밖을 구분하는 형태로 바라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협의회가 같이 동반성장하는 학습모임형태가 시흥시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시청과 교육청의 장학사 행정공무원 자체가 평생학습사와 평생교육사들도 그렇구요. 칸막이가 엄청나요. 평생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정규교육과정이냐 방과후냐.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나 방과후 전문가나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부모의 역할이냐 지역주민의 역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체가 의결하는 형태는 기존 것을 잘 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들을 통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는 학습모임, 이런 인식의 틀을 깨는 작업을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흥시에서 분과체제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해요. 중간중간에 다자간의 교육이 들어가요.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공동체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정교사는 늘 학교 완결형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하고 저희도 미래교육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 필요해요."(시흥시청, OOO)

시흥시청 OOO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학교 안과 밖, 학교밖 청소년과 학교 안 학생, 청소년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공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경계 짓기 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학습을 통한 인식의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공동의 의제 설정 및 목표 공유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의 경우, 학습동아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자립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부분에서 자긍심도 키워주지만 어느 정도 역할이 있고, 자원봉사로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도적으로 인력지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을 지역이 책임진다는 체제로는 가야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공공의식함양이 같이 아카데미에 녹아들 수 있게 하구요. (중략) 5명 이상이면 평생학습과에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주구요. 5명 이상만 되고, 역량이 되고, 학교가 선택을 하면 정규교육과정에 매칭을 시켜줘요. 협동조합의 형태, 5명 이상의 팀단위의 학교공모사업 형태면 저희가 받아줘요. 그리고 학교가 그 단체를 선정해서 쓰겠다고 하면 매칭 해서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또 하고, 발전되는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더라구요. 역량이 되시면 그렇게 커나가구요. 학습동아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계속해서 개발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매칭이 안될 수 있어요. 학교에 매칭이 조건이에요." (시흥시청, OOO)

이처럼 시흥시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② 한계

시흥시 청소년 사업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또는 네트워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시흥시청소년동아리 축제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추진하는 학교중심의 마을 축제는 중복된 사업을 양측에서 진행하면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다보니,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사업을 연계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든지 마찬가진데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날짜와 프로그램 중복이 생기게 됩니다."(매화청소년문화센터, OOO)

"저희와 사업(시흥시청소년동아리 축제)과 행복지원팀(학교중심의 마을축제)과의 연계가 어려워요. 서로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시흥시청소년수련관, OOO)

둘째, 청소년수련관의 생애주기별 맞춤진로활동 중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 진로교육, 중등 자유학년제, 고등 진로 연계활동 등은 학교 연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연계 사업의 경우 혁신교육지구사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현재는 이원화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흥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로사업의 성격상 지역사회 체험처와 강사를 발굴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이미 형성해놓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진로역량 개발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학습한 내용이 자신의 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양측의 사업을 연계하였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진로 부분에서 중복이 되어 연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혁신지구사업 자체가 학교연계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 안의 사업 자체가 진로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와 겹치는 사업이 많더라구요. 저희가 활동기관이다 보니까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도 많이 하지만 방과후의 활동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에서 중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시흥시청소년수련관, OOO)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시흥시의 청소년사업 및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이를 통하여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시흥시의 경우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사업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청소년 및 교육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사업은 고유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며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축제, 진로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면서 중복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의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이들 사업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 간에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자 간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관련 주체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과후돌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혁신교육지구도 그런 협의체거든요.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협의체가 줄기가 되는 형태로 다른 협의체들이 연동이 되는 형태라서 성장지원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개별 유닛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이미 지역에는 수많은 민관학 협의체들이 있다는 점 때문에 기존의 도시 안에서 활성화된 혁신교육협의체나 줄기가 되는 협의체에 청소년수련단체들이 들어오는 형태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좋겠어요."(시흥시청, OOO)

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의 하위기관이다보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31]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소년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진로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봐요. 활동 중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활동 스케줄을 짜고, 강사진 배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정해주는 것들, 학교에 참여시켜주는 부분,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특강이나 강의식 프로그램들을 체계화시키면 혁신지구처럼 사업을 함께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매화청소년문화센터, OOO)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봐요.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교육에 접근, 저희는 활동영역에서 접근.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교육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활동영역 비슷하게 갈 수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서 방식적인 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시흥시청소년수련관, OOO)

31)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담당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팀과 청소년팀이 교육청소년과 내에서 같은 위상임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업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하며 그 지점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점차 협업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원화된 네트워크는 보다 더 큰 범위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원화된 네트워크 속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면서 공통의 의제를 설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참여하고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청소년사업을 주관하는 일련의 활동기관들이 2020년에 설립될 청소년재단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소년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은 시흥시 청소년사업 관련 네트워크에 있어서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사업을 관장하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도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경비사업이나 강사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클릭시스템[32]의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양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사업의 경우 지역을 아우르는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 실행하는 사업보다 매화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단위의 매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할 때에도 광역 단위, 또는 기관장 중심의 협의체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직급상으로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와, 지역적으로는 동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지역네트워크도 함께 구축하여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화된 영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에 포괄적인 광역 네트워크를 먼저 형성할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노원구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할 때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동 단위 네트워크를 활성화

32)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나 강사지원 사업을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하고 이들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네트워크에서 담당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팀의 경우 팀장 및 팀원들이 5~6년간 지속적으로 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중심을 잡고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다섯째, 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이 지속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책임을 관에서 지니고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있었다. 학습동아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주체들이 인식을 확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학습동아리가 '진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신뢰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할 때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할 때 참여주체가 안정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민간 참여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외 사례

1) 미국 사례: "PROJECT U-TURN" in Philadelphia, PA

(1) 개요

지역사회협력망을 활용한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PROJECT U-TURN"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에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Project U-Turn은 일종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주요 대상은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drop-out youths), 소년원과 같이 교정보호시설에 수감되어 있거나 저소득층으로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 진학이 사실상 어려운 12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 저소득층 청소년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credential)을 소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졸업을 위하여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범죄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은 학업을 다시 재기하거나 취·창업을 위한 기술 및 훈련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사회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경력 개발을 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PROJECT U-TURN은 근거기반(evidence-based) 청소년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한 사업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한 바 있다.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에 등록한 청소년들의 졸업률, 중도탈락률, 실업률을 1996년-2001년(사업 이전), 2002년-2005년(사업 이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각 지표별로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성공적인 평가 결과에 힘입어, PROJECT U-TURN 사업은 기존의 정부주도 성격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지역사회연계협력망의 확장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민·관협력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2) 추진체계/운영모델

"PROJECT U-TURN"은 프로젝트형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2017년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필라델피아 시 당국(the City of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교육청(School District of Philadelphia, SDP), 펜실베니아 보건복지부(the Pennsylvan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가 상호 연계하여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복지부가 공동 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성과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다.

초기 시범사업 당시에는 필라델리아 교육청(the School District of Philadelphia, SDP), 시청 산하 교육과(the Mayor's Office of Education, MOE), 필라델피아 시 보건복지부(the city'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가 주축을 이루었고, 총괄 운영은 필라델피아 지자체 산하 법인인 필라델피아 청소년 네트워크(the Philadelphia Youth Network, PYN)가 담당하였다.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기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특성상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필라델피아 교육청(SDP), 필라델피아 시 보건복지부(DHS), 펜실베니아 주 보건당국(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Health, DOH), 필라델피아 청소년 네트워크(PYN)는 공동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정보포탈(multi-system dataset)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다. 청소년 정보포탈에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기(예, 가족해체, 아동학대, 빈곤, 실업 등) 요인뿐만 아니라, 보건 및 위생 상황, 학교 중도탈락률을 포함한

학업 및 교육 상황, 직업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 당국(the City of Philadelphia)의 주요 역할은 "PROJECT U-TURN"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지역사회연계망 강화, 기금 모금, 성과 공유이다. 특히, 지자체의 기금 모금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시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기금 모금, 민간부문으로부터의 기금 모금을 모두 담당한다. 시장의 주요 역할은 기업사회공헌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이나 재단, 시민들에게 PROJECT U-TURN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유하여 지역사회네트워크 망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시장 직속의 교육과(Mayor's Office on Education)와 문해위원회(Mayor's Commission on Literacy)를 두어 시장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의 어려움과 교육과정 개편 등에 관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 청소년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중도이탈, 수감, 비행화하는 원인이 생활고에 있다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시 주거국(Philadelphia Housing Authority), 시 수도국(Philadelphia Water Department)과 연계 협력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교육청(SDP)은 기존의 지역교육네트워크와 연계 또는 "PROJECT U-TURN"를 위한 지역교육위원회를 창설하거나, 산재해 있는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개혁위원회(the School Reform Commission)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교육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한 교육개혁방안은 "PROJECT U-TURN"의 세부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며, 각 세부 프로그램의 실행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기관 또는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공립 중/고등학교(public middle & high schools),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s), 직업연수센터 등과의 연계협력망을 구축하고, 복지부 산하의 기존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소년원을 포함한 청소년교화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PROJECT U-TURN"의 비전과 사업 목적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011년 이후, 필라델리아 교육청(the School District of Philadelphia, SDP)은 교육청 산하 '다선형 졸업과정과(Office of Multiple Pathways of Graduation)'를 창설하여 졸업과정의 다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SDP) 산하의 학교교육개혁위원회(the School Reform Commission)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검정고시과정을 취득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 관리 및 과정 개발을 담당한다.

한편 교육청(SDP)은 비영리교육재단으로 E^3 재단(Philadelphia Work, Inc. E^3)을 설립하였다. E^3 재단은 검정고시과정(GED), 대학진학,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총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시범사업부터 전체 지역네트워크의 운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PYN과 펜실베니아 보건복지부(the Pennsylvan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와도 연계 협력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학력 이수 및 대학진학, 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부 차원의 지원 연계를 담당한다. E^3 재단은 PROJECT U-TURN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일원이며, 필라델피아지역대학(the Community College of Philadelphia)과도 긴밀한 연계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지역대학(the Community College of Philadelphia)은 PROJECT U-TURN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K-16 파트너십 직무실(the Division of Access and Community Engagement's Office of K-16 Partnerships)'을 설립하여 PROJECT U-TURN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등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홍보 및 모집, 등록, 관리 등 일련의 사업 전반을 총괄 운영한다.

펜실베니아 보건복지부(the Pennsylvan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는 "PROJECT U-TURN"의 표적대상이 저소득층 청소년이므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유와 발달 상황, 학교 등록 및 중퇴/퇴학 등의 학업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및 직업훈련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지자체 및 교육부와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PROJECT U-TURN”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를 비롯한 주정부의 공공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Youth Development Fund) 재원 활용을 담당한다.

표 Ⅲ - 12 PROJECT U-TURN 연계협력 기관(Partners) (2017년 12월 기준)

구분	관련 기관 및 위원회	주요 역할/기능
The City of Philadelphia (지자체)	• Philadelphia Youth Network* (PYNinc) • Congreso* • Mayor's Commission on Literacy • Mayor's Office on Education* • National League of Cities • Philadelphia District of • Attorney's Office • Philadelphia Housing Authority •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 청소년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정 및 졸업, 훈련 과정 개발 및 혁신 • WorkReady Philadelphia: 정부기관, 기업, 청소년기관,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청년 고용을 조력함 •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멘토링, 장학금 지원 등 • 비행, 우범 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School District of Philadelphia (SDP) (교육부문)	• the School Reform Commission • Philadelphia Works, Inc. E^3 • Center for Literacy • Re-Engagement Center(REC) • Public Citizens for Children and Youth(PCCY)* • SDP: - Opportunity Networks* - 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Office of Strategic Analytics - Office of Truancy • the Community College of Philadelphia/ the Division of Access and Community Engagement's Office of K-16 Partnerships	• Multiple Pathways to Graduation: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방법 개발 및 적용 •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 학업 이탈 또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업과정 신설 • 교정보호 청소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지원 및 연계 • 학교밖청소년의 훈련 및 취업 지원 • 수감 중인 청소년, 미혼모 등의 학업 재기, 진학, 졸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구분	관련 기관 및 위원회	주요 역할/기능
The Pennsylvan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보건복지부문)	• Education Support Center* • JEVS Human Services* • the City of Philadelph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적 성과 및 기회 안정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욕구 및 학교 적응, 진로/진학 관련한 상호(DHS & SDP) 정보 제공 및 공유 • 학교밖청소년 및 대안교육, 검정고시 과정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력 취득, 취업,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Partnerships/ Organizations (기업 사회공헌, 비영리재단, 시민단체 및 청소년관련 비영리 민간부문)	• Browns' Super Stores, Inc • United Way of Greater Philadelphia & Southern New Jersey • William Penn Foundation* • YESPhillly • YouthBuild Philly • Youth Commission • Youth United for Change • Youth/Young Adult Representatives*	• 저소득층 교육, 훈련, 취업, 자립지원 등과 관련한 해당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소년/청년 투자모델 • (Youth Investment Model) 관련한 옹호활동, 캠페인 활동 • 사업 전반 또는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연구 지원

* 출처: Ransom et al.(2014). A promise worth keeping: Advancing the High school graduation rate in Philadelphia. ; http://www.projectuturn.net/ ; https://www.pyninc.org/about (2019년 4월 13일 인출) 자료를 요약 정리함.

한편 기업사회공헌, 비영리재단, 시민단체 및 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 및 기관 등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PROJECT U-TURN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시(city)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비영리재단으로 William Penn Foundation뿐만 아니라, YESPhilly, YouthBuild Philly와 같은 청소년기관 및 청소년옹호단체도 이에 속한다. 또한 United Way of Greater Philadelphia & Southern New Jersey는 공동모금회 필라델피아 및 남부 뉴저지 지부로서 민간부문의 기금 마련 및 운영 책임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역기반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기관도 참여 파트너로 기여하고 있는데, Youth Commission, Youth United for Change, Youth/Young Adult Representatives는 청소년/청년 캠페인 또는 옹호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기금 모금이나 운영보다는 청소년/청년 이슈 및 쟁점 발굴, 욕구/요구 조사, 청소년/청년투자모델

(Youth Investment Model)에 기반 한 성과 확산 및 캠페인/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PROJECT U-TURN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PROJECT U-TURN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문은 기금 모금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PROJECT U-TURN의 시범사업 초기부터 정부주도의 사업 성격이 강했던 만큼, 정부부문의 기금 모금은 주요하다. 정부부문의 재원 또는 기금의 성격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the Federal Workforce Investment Act fund'와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Youth Development Fund'와 같은 연방정부 기금과 지자체 단위의 기금인 'District 1199C Training and Upgrading Fund', 'Philadelphia Education Fund'로 구성된다.

한편 미국사회에서 지역사회연계협력망의 근간은 민간부문의 기금 마련에서부터 시작한다. PROJECT U-TURN 사업의 초기 기금은 정부부문에서 출발했지만 여타 지역사회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의 기금 조성 및 운영이 정부부문보다는 훨씬 크고 다양하다. 또한, 시장(Mayor)의 주요 역할이 지역사회연계협력망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민간부문의 기금 조성 확장에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기금(National matching funders)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기금(Local matching funders)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 단위 기금 파트너는 비영리사회사업재단(Andrus Family Fund, Ballmer Philanthropy Group, the James Irvine Foundation, Marguerite Casey Foundation)과 금융기관의 사회공헌(Bank of America, The Prudential Foundation)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역 단위 기금파트너도 역시 비영리사회사업재단(Annie E. Casey Foundation, GSK, William M. King Foundation, Christian R. and Mary F. Lindback Foundation, Stoneleigh Foundation, William Penn Foundation, Mayor's Fund for Philadelphia, Inc.), 공동모금회(United Way of Greater Philadelphia and Southern New Jersey), 기업사회공헌(Starbuck Found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 - 13 기금 운영 파트너십

정부부문	• District 1199C Training and Upgrading Fund • Philadelphia Education Fund • 'Federal Workforce Investment Act' Fund •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Youth Development Fund	
The Social Innovation Fund in partnership (민간부문)	전국 단위 (National Matching Funders)	• Andrus Family Fund • Ballmer Philanthropy Group • Bank of America • The James Irvine Foundation • Marguerite Casey Foundation • The Prudential Foundation
	지역 단위 (Local Matching Funders)	• Annie E. Casey Foundation • GSK(Judge's Determination Award) • William M. King Foundation • Christian R. and Mary F. Lindback Foundation • Mayor's Fund for Philadelphia, Inc. • Starbucks Foundation • Stoneleigh Foundation • United Way of Greater Philadelphia and Southern New Jersey • William Penn Foundation

* 출처: http://www.projectuturn.net/ ; https://www.pyninc.org/about (2019년 4월 13일 인출) 자료를 요약

(3) 특징

PROJECT U-TURN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협력망을 활용한 일종의 교육복지투자사업이지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민관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단기형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인프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전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청년투자모델'을 정책기조로 채택한 이후, 주정부(State government)를 중심으로 단기형 프로젝트 성격의 교육복지투자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PROJECT U-TURN의 시범사업은 이러한 투자모델에 기인한 단기형 교육복지사업이 아닌 당시의 열악한 필라델피아 시에 대한 상황분석에 기인한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한 당시의 상황은 필라델피아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절반의 청소년이 공립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학력에 미달하거나 중도탈락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의 늪에 놓여있었다. 빈곤의 악순환의 최초 시발점이 저학력 내지 고등학교 중도탈락에 있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 습득조차도 불가능한 청소년의 문해능력(literacy)에 대해 시민들의 교육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발한 사업은 교육인프라 자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만의 고유과제가 아닌 전 지역사회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연계협력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사회 교육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역교육청,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발달 및 교육/훈련,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PROJECT U-TURN 사업성과를 모두 동일하게 공유하고 상호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각기 다른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PROJECT U-TURN 사업성과는 고등학교(K-12) 졸업률, 재진학률, 중도탈락률, 취업률, 대학 진학률이다. 이들 사업성과는 단편적으로 보기에 지역교육청의 성과로만 볼 수 있지만, 교육문제가

단순히 교육과정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정부부문의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교육청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기업사회공헌, 비영리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공동의 사업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정규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또한 실시한다.

한편 미국사회에서 기존에 실행된 지역사회협력망을 활용한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추진주체는 주로 민간부문이 우세했다는 점인데 반하여, PROJECT U-TURN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민·관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정부부문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 산하 '국'이나 '과'를 설치하거나, 민간운영이긴 하지만 '재단'이나 '센터'를 설치하여 매우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점과 시장(Mayor)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미국적인 사업 성격이라기 보다는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투자모델(Youth Investment Model) 사업의 성격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부문의 기금 모금 및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 출연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욕구 반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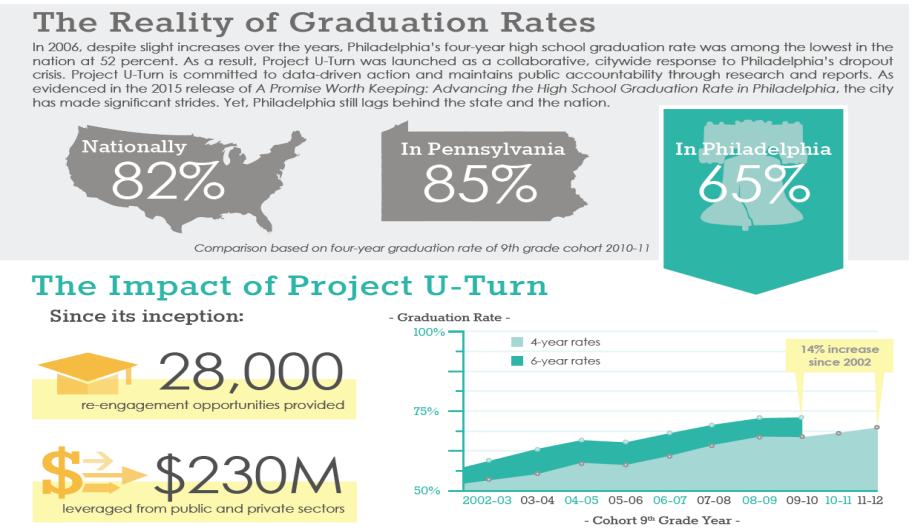
(4)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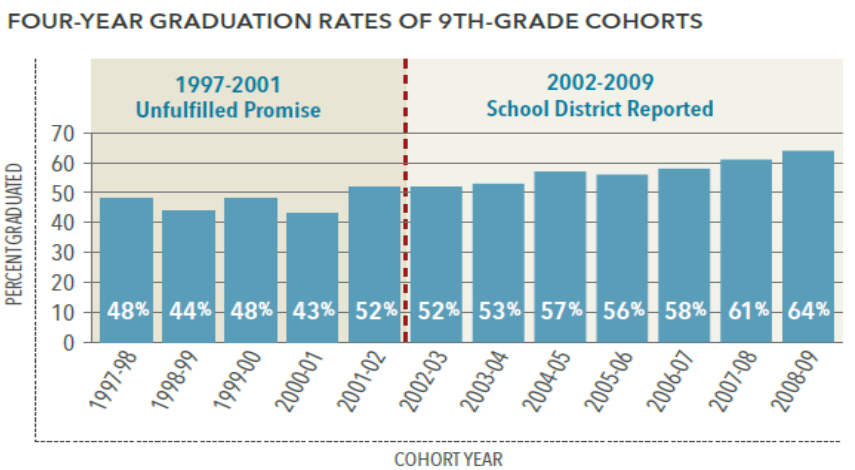
PROJECT U-TURN의 성과지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K-12) 졸업률, 재 진학률, 중도탈락률, 취업률, 대학 진학률이다. 이 중에서 고등학교(K-12) 졸업률, 재 진학률, 중도탈락률이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Ⅲ-11]에서는 1997-1998년 이후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졸업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이후 PROJECT U-TURN 사업을 통해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졸업률 변화와 전국 평균, 펜실베니아 주 평균 졸업률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1-02년 PROJECT U-TURN을 착수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필라델피아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졸업률은

52%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2001년 이후, PROJECT U-TURN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률을 높임으로써 2005-06년에는 59%, 2010-11에는 6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펜실베니아 주 전체 평균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 졸업률인 8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그림 Ⅲ-12]에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PROJECT U-TURN의 민간부문의 확대와 지역연계망의 강화를 통해 나타난 성과로서 고등학교 졸업률의 증가폭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PROJECT U-TURN를 실행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꾸준히 고등학교 졸업률이 상승하였으며, 2018-19에는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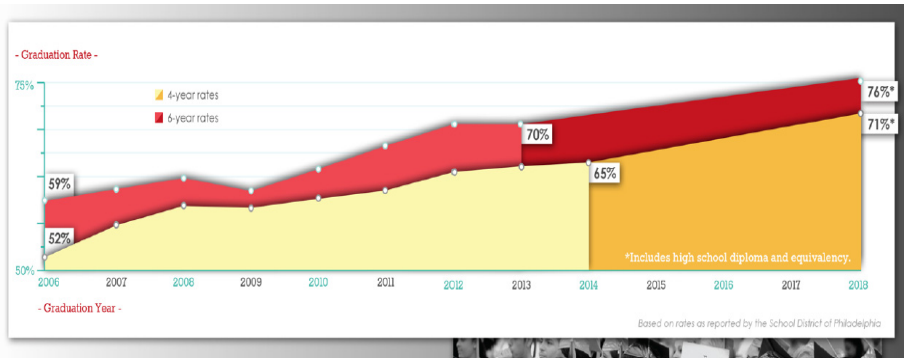
[그림 Ⅲ-11]과 [그림 Ⅲ-12]를 통해 본 고등학생들의 졸업률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와 재 진학하는 비율과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고등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평균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중도탈락하는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졸업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모두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출처: Ransom et al.(2014). A promise worth keeping: Advancing the High school graduation rate in Philadelphia. p.9. http://www.projectuturn.net/ (2019년 4월 1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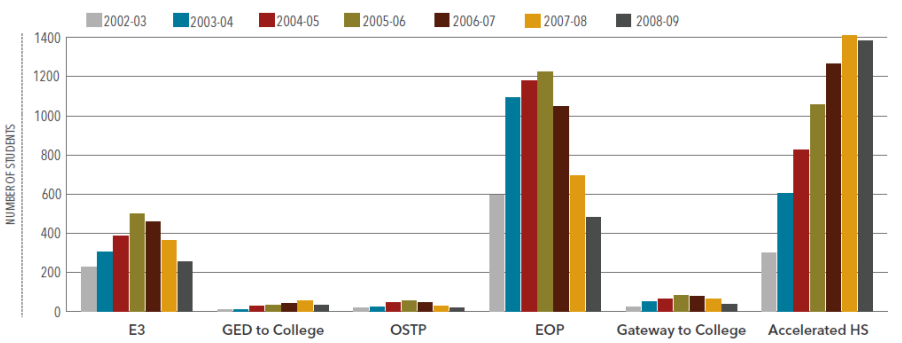
그림 Ⅲ-10 필라델피아 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졸업률 변화



* 출처: http://www.projectuturn.net/ (2019년 4월 13일 인출).

그림 Ⅲ-11 PROJECT U-TURN과 필라델피아 시의 고등학생 졸업률 변화

한편, 고등학생의 졸업률 뿐만 아니라 PROJECT U-TURN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단별로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율도 사업성과로서 포함시키고 있다([그림 Ⅲ-12] 참조).



* 출처: Ransom et al.(2014). A promise worth keeping: Advancing the High school graduation rate in Philadelphia. p.15.

그림 Ⅲ-12 사업단별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율

(5) 시사점

PROJECT U-TURN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지역사회협력망을 활용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사업 구상과 교육인프라 구축 및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최초의 시범사업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인 관계망 구축 및 성과 확산에 힘입어 민간부문과의 연계 확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크의 중심을 지역교육청에만 두지 않고 지자체, 지역교육청, 보건복지부가 한 부처처럼 청소년의 발달, 교육,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다시 각 전문 부처 및 과에 전달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지역교육청 내 과별로 진행되는 사업조차도 상호 연계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정책기조와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인데,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연계망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사업의 성과를 부처별로 인정하기 보다는 성과공유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즉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률의 상승이 교육청 고유의 성과만이 아닌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의 성과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면서 이를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과 단체, 기업 모두의 성과로도 인정하고 환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형식의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 및 전략적 기획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확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공유, 정규적인 사업 평가와 환류가 PROJECT U-TURN 사업의 홍보 전략이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PROJECT U-TURN을 추진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시장(Mayor)은 필라델피아 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졸업률 향상이 시장 자신의 공약 중의 하나이자 성과로 홍보한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장(Mayor)을 주축으로 교육, 기업, 지역사회

리더들과 함께 'GradNation Community Summit'을 개최하여 지역사회협력연계망을 강화하기도 한다. 더욱이, 필라델피아 보건복지부(DHS)의 성과지표로서 고등학생들의 졸업률 향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PYN (Philadelphia Youth Network)은 연방기금의 하나인 '청소년 창업가 기금(Youth Entrepreneurship Fund)'을 2017년에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연계망 주체들의 실질적인 성과 공유와 인정으로 인해 PROJECT U-TURN를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교육인프라로 성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협력망을 활용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교육복지투자사업이나 드림스타트, CYS-Net 등을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다. PROJECT U-TURN 사업과 비교하여 이러한 지역사회협력망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명확한 성과지표의 개발이나 적용이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사업 비전과 성과공유도 역시 미비한 편이다. 이로 인해 각 부처별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지라도 사업 비전과 성과지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서로 다름으로 인해 성과공유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공동의 비전과 성과공유가 희박할수록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의 결과만을 추구함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계망 주체들 간의 각자도생의 성과목표를 추구할 가능성도 높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사점은 PROJECT U-TURN 사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 각 추진주체들의 역할과 참여방식 등을 평가, 개선, 환류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research)와 평가(evaluation)를 수행함으로써 근거기반 정책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2014년도에 사업단과는 별도의 연구단인 'PolicyLab'을 구성하여 200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성과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PolicyLab 역시 PROJECT U-TURN 사업단에 속하지만, 연구 평가만을 위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과 존스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소속의 박사급 연구진을 구성하여 평가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2년~3년을 주기로 사업단과 별도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성과 중심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사회 역시 각 사업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에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많고, 아직까지는 사업의 투입 중심의 평가(예, 예산 규모, 인력 규모 등)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PROJECT U-TURN 사업은 각 사업단과 관계없는 별개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투입 중심의 평가 결과가 아닌 공유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실행과 환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일본 사례

(1) 개요

일본에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은 아동·청소년육성지원법(子ども·若者育成推進法)이 제정된 2009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니트, 은둔형외톨이 그리고 등교거부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내각부(内閣府)가 아닌 개별 중앙부서에서 지원해왔다. 예를 들어,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 은둔형외톨이), 니트(ニート) 지원은 주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등교거부 및 학교중도탈락자 지원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 담당해왔다. 이들 부서들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산하기관, 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개별 부서를 통한 지원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소년 지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각부(2013)는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고 개인 또는 단일 기관만의 접근으로는 문제해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각부는 오사카(大阪府)의 지역취업지원사업(地域就労支援事業), 미에현(三重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참여기관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속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서비스의 지원 방향이 참여 청소년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현재 일본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은둔형외톨이, 니트, 등교거부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지원협의회에 운영방식, 역할,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밖에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위기 청소년 실태

일본에서는 위기 청소년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둔형둔형외톨이,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교거부(不登校) 청소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사회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이라 칭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책에 대해 고심해왔다.[33]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호전으로 인해 니트의 수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히키코모리와 등교거부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이다. 내각부(2011)의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히키코모리 및 등교거부 문제는 20대를 거쳐 30, 4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① 히키코모리 실태

정신과 의사이자 청소년 정신병리 전문가로 알려진 츠쿠바대학(筑波大学)의 사이토(斎藤)교수(2000)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히키코모리는

33) 출처: https://medicalnote.jp/doctors/150714-000001-XVXTOP (검색일: 2019년 6월 13일)

DSM-Ⅲ의 진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Social Withdrawal' 의 일본어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최근에는 사회적 히키코모리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적 이라는 표현은 생략하고 히키코모리란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이토교수에 따르면, 청소년 히키코모리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초중학교생의 등교거부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히키코모리를 10대에서 시작하여 20대 후반까지 문제가 지속되며, 6개월 이상 집에만 있으면서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를 히키코모리라고 정의한다. 최근에는 30~40대까지 연령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는 히키코모리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 직원을 포함한 취업, 가정밖에서의 교류 및 놀이)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해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35] 내각부의 조사(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2009)[36]에 따르면, 15-39세 청소년 가운데 1.79%가 히키코모리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단위로 추계했을 때 69.6만명에 달한다.[37] 동 조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 상태가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직장생활 부적응(23.7%), 질병(23.7%)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구직활동 실패(20.3%), 등교거부(11.9%), 인간관계(11.9%)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히키코모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출처: https://medicalnote.jp/doctors/150714-000001-XVXTOP (검색일: 2019년 6월 13일)
35) 출처: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84842.pdf (검색일: 2019년 6월 16일)
36) 조사시점은 2010년이며, 일본 전국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표본수는 5,000명, 이 가운데 유효회수율은 65.7%(3,287명)이다.
37) 출처: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6honpen/b1_04_02.html (검색일: 2019년 6월 16일).

표 Ⅲ - 14 히키코모리 실태

	유효 수에 차지하는 비율(%)	전국 추계 수(만명)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근처의 편의점 등에는 간다.	0.40	15.3	협의적 의미의 히키코모리 23.6만명
자기방에서는 나가지만, 집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0.09	3.5	
자기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0.12	4.7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취미활동 시에만 외출을 한다.	1.19	준(準)히키코모리 46.0만명	
합 계	1.79	광의적 의미의 히키코모리 69.6만명	

* 출처: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pdf/kosshi.pdf

② 니트 청소년 실태

니트(ニート)란 용어는 영어의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를 일본어 가타카나로 표기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후생노동성의 공식 자료에서도 1995년부터 니트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무업자(無業者)란 용어와 혼용하고 있다. NEET가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면, 일본에서 무업자는 '가사와 통학(通学)을 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15-34세) 무업자수는 1995년 5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다, 2017년 이후에는 7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각부(2018)의 아동청소년백서(平成30年度版 子供·若者白書)에 따르면, 15-29세 청년무업자수는 2002년 47만명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 양호한 고용상황의 영향도 있지만, 청소년인구의 감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통계청의 자료(취업구조기본조사, 就業構造基本調査)[38]에 따르면, 무업자가 된 이유는 질병 또는 부상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없거나, 취직할 능력이 없어서가 11.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38) 출처: http://www.stat.go.jp/data/shugyou/2017/index.html (검색일: 2019년 6월 15일)

표 Ⅲ - 15 니트 실태

(단위: 만명)

연령 /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1995	9	13	12	11	10	55
1996	9	12	10	9	10	50
1997	9	12	11	10	10	52
1998	9	13	13	11	10	56
1999	9	15	13	11	10	58
2000	9	12	13	10	10	54
2001	8	13	15	13	11	60
2002	12	17	18	17	15	79
2003	11	16	18	18	15	78
2004	10	18	19	18	17	82
2005	9	16	20	19	17	81
2006	10	17	18	18	18	81
2007	9	16	18	18	19	80
2008	9	16	18	19	20	82
2009	10	16	18	18	21	83
2010	9	15	17	17	21	79
2011	9	15	18	19	20	81
2012	9	16	18	18	21	82
2013	9	14	17	18	20	78
2014	8	13	16	18	20	75
2015	8	13	17	17	19	74
2016	9	14	16	19	20	78
2017	7	14	15	17	18	71
2018	7	14	15	17	18	71

* 출처: http://www.stat.go.jp/data/roudou/sokuhou/nen/dt/index.html

③ 등교거부(不登校) 실태

문부과학성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등교거부 학생의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등교거부 학생을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요인 및 배경으로 인해 등교를 하지 않거나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연간 30일 이상 결석한 이들로 정의하고 있다. 단, 이들 가운데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결석하는 이들은 제외하고 있다.[39] 조사 초기인 1991년 시점에는 등교거부학생 수(초중학생)가 7만 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10만 명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문부과학성의 조사[40]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초중학교 등교거부자수는 144,301명으로 전년도의 133,683명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등교거부자수의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1.5% 수준이다.

등교거부의 원인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문제(30.8%)가 등교거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지메를 제외한 친구관계를 둘러싼 문제(28.2%), 학업 부진(21.8%) 등의 이유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는 2018년 등교거부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등교거부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가 '교실 전체의 불쾌한 분위기'를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6%가 '학교 공부에 대한 고민', 22%가 '교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고민', 21%가 '이지메 경험' 등의 이유로 들고 있다.[42] 일본재단(日本財団)은 등교거부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등교거부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침에 못 일어나서'(59.5%), '피곤해서'(58%), '학교에 가려고 하면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52.9%) 등의 이유로 인해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

39) 출처: http://www.mext.go.jp/a_menu/shotou/futoukou/03070701/002.pdf (검색일: 2019년 6월 15일)
40) 출처 http://www.mext.go.jp/b_menu/houdou/30/10/__icsFiles/afieldfile/2018/10/25/1410392_1.pdf (검색일: 2019년 6월 15일)
41) 출처: http://www.mext.go.jp/b_menu/houdou/30/10/__icsFiles/afieldfile/2018/10/25/1410392_2.pdf (검색일: 2019년 6월 15일)
42) 출처: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527/k10011931001000.html(검색일: 2019년 6월 15일)
43) 출처: https://www.nippon-foundation.or.jp/app/uploads/2019/01/new_inf_201811212_01.pdf(검색일: 2019년 6월 15일)

표 Ⅲ - 16 원인별 등교거부 학생(초, 중학생) 실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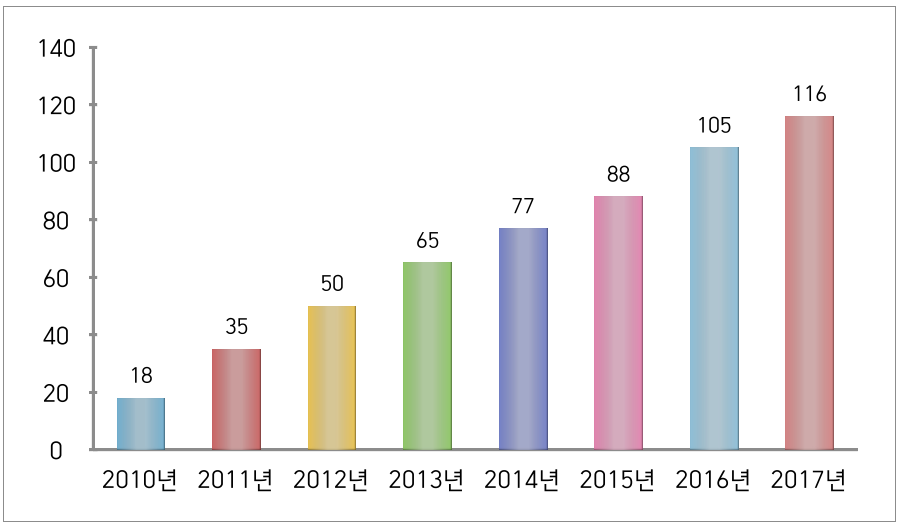
구분	재적 학생수	이유별 장기결석자수								
		질병	경제적 이유	등교거부				기타		합계
					90일 이상 결석자	출석일수가 10일이하인 자	출석일수가 0일인 자		등교거부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자	
국립	71,095	144	2	514	289	51	19	40	15	700
		20.6%	0.3%	73.4%	41.3%	7.3%	2.7%	5.7%	2.1%	100.0%
		0.2%	0.0%	0.7%	0.4%	0.1%	0.0%	0.1%	0.0%	1.0%
공립	9,429,394	43,431	17	139,027	81,140	15,627	5,087	27,038	7,836	209,513
		20.7%	0.0%	66.4%	38.7%	7.5%	2.4%	12.9%	3.7%	100.0%
		0.5%	0.0%	1.5%	0.9%	0.2%	0.1%	0.3%	0.1%	2.2%
사립	320,362	1,787	8	4,490	2,562	396	131	542	153	6,827
		26.2%	0.1%	65.8%	37.5%	5.8%	1.9%	7.9%	2.2%	100.0%
		0.6%	0.0%	1.4%	0.8%	0.1%	0.0%	0.2%	0.0%	2.1%
합계	9,820,851	45,362	27	14,431	83,991	16,074	5,237	27,620	8004	217,040
		20.9%	0.0%	66.4%	38.7%	7.4%	2.4%	12.7%	3.7%	100%
		0.5%	0.0%	1.5%	0.9%	0.2%	0.1%	0.3%	0.1%	2.2%

* 출처: http://www.mext.go.jp/b_menu/houdou/30/10/__icsFiles/afieldfile/2018/10/25/1410392_2.pdf

(3)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

①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 19조 1항은 지자체에 대하여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회는 2010년에 18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7년 현재 116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각부는 2017년부터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설치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4]



* 출처: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8gaiyou/s3.html

그림 Ⅲ-13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 설치 추이

44) 내각부(2018), pp. 86-87.

② 지원대상, 설치 및 운영 방침

가.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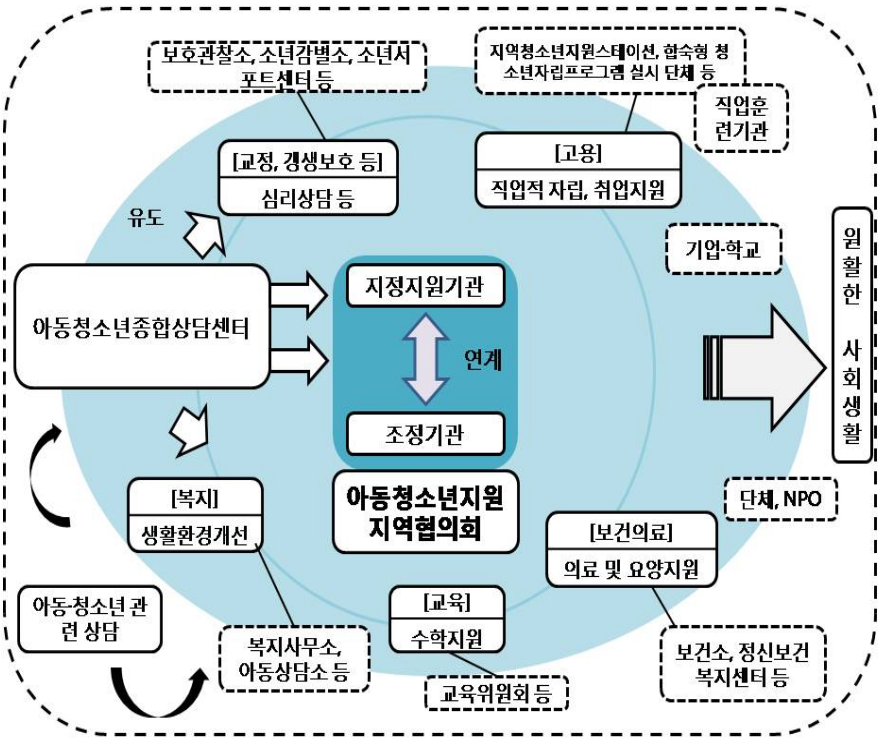
협의회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들은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다(아동청소년 육성추진법 제 15조 제1항). 따라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히키코모리 또는 니트 청소년뿐만 아니라 등교거부 청소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협의회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30세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나. 설치주체 및 구성원

협의회의 설치주체는 지방자치법 제1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통상로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이며, 특별지방공공단체인 특별구나 지방공공단체 조합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의 명칭은 반드시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가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의거해서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표 Ⅲ - 17 관계기관의 구성의 예

분야	단체	개인
교육	교육위원회, 교육센터, 학교(대학 포함)	교장, 기타 교원,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
복지	복지사무소(가정아동상담실 포함) 사회복지시설, 아동상담소, 발달장애자지원센터,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보육사, 가정상담원, 민생위원, 아동위원, 사회복지사
보건, 의료	정신보건복지센터, 보건소, 시정촌보건센터, 병원, 진료소, 심리상담소	의사, 간호사, 보건사, 심리직정신보건복지사
교정, 갱생보호 등	보호관찰소, 소년감별소, 소년서포트센터	보호사
고용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 합숙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공공직업안정소, 직업훈련기관, 잡카페	커리어 컨설턴트
종합상담 등	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NPO 등	소년보도위원



* 출처: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9gaiyou/s3.html (검색일: 2019년 8월 8일)

그림 Ⅲ-14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 운영 모형

협의회를 설치할 경우 「조정기관(調整機関)」과 「지정지원기관(指定支援機関)」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도 설치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기관(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21조)은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운영상의 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정조정기관(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22조)은 공적 기관과 연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조언 또는 지도, 의료 서비스, 생활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밖에 지원에 필요한 실천적, 전문적 정보의 제공, 협의회 전반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제13조)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관계기관의 소개와 그 밖의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전을 실시하는 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 센터의 설치 취지는 폭넓은 분야에 걸친 청소년들 문제에 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상담의 1차적인 창구가 되어 스스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역 내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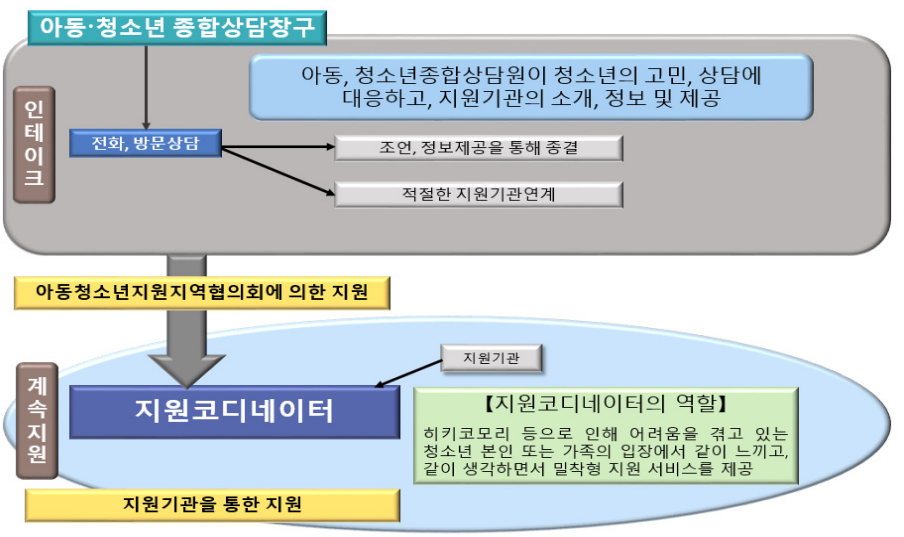
① 교토시(京都市) 사례[45]

교토시에서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따라 2010년 「교토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京都市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를 설치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종합상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히키코모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아동청소년종합상담창구에서는 연간 500건을 넘는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 방문상담으로 통한 사정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언 또는 지원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히키코모리에 이르게 된 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대해서는 복수의 지원기관이 연계를 통하여 본인 및 가족의 입장에서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교토시에서는 협의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기관인 공익재단법인 '교토시유스서비스협회(京都市ユースサービス協会)'에 동반자형, 보호형 지원을

45) 출처: 내각부(2018), pp. 87-91.

실시하는 「지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였다. 지원코디네이터 운영은 교토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연간 100건 정도의 개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명시된 조정기관인 교토시육성추진과(京都市育成推進課)와 지정지관인 교토시유스서비스협회에서는 매월 사례공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반자형, 보호형 지원을 실시하는 신규 사례 및 상황변화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교토시의 보건, 복지, 교육 등 관계부서가 참가하는 담당자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각 관계부서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토시는 2017년 4월 교육, 복지, 의료 등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행정을 통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육성국(子ども若者はぐくみ局)」을 창설하였다.



* 출처: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095938.html (검색일: 2019년 8월 8일).

그림 Ⅲ-15 교토시 아동청소년육성지역협의회 모델

한편 교토시는 지역에서 상담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생위원, 아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기관에도 청소년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기관과의 연계 하에 잠재화된 히키코모리 청소년 지원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잠재화된 히키코모리의 발굴 및 요구파악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종합상담창구, 지원코디네이터 등의 역할을 소개한 아동청소년상담안내서를 매년 작성하여, 지역 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교토시내의 고등학교 교사용 안내서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② 군마현(群馬県) 사례[46]

문부과학성은 고교중퇴자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취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고졸중퇴자 졸업자격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명칭은 「학습을 통한 스텝업지원촉진사업(学びを通じたステップアップ支援促進事業)」으로,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며, 사업비의 규모는 건당 약 360만엔(약 4천만원)이다.[47] 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위원회, 학교,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공공직업안정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교중퇴자 등을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시키거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을 통해 이루어진다.[48]

군마현은 이 사업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육성지원지역협의회」와 연계하고 고교중퇴자에 대한 재학습지원을 위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협의회에는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상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해당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희망내용에 따라 세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6) 출처: 내각부(2018), pp. 25-26.
47) 출처: http://www.mext.go.jp/b_menu/boshu/detail/1414266.htm (검색일: 2019년 6월 24일).
48) 출처: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koubo/icsFiles/afieldfile/2019/03/12/1414269_01_1.pdf (검색일: 2019년 6월 24일).

군마현은 지역 내 고등학교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고등학교를 중도 퇴학할 시에 협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을지 여부를 청소년 본인에게 확인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청소년 관련 정보가 협의회 사무국에 전달된다. 협의회 사무국은 본인의 희망 내용에 따라 취업희망자는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등 취업지원기관으로, 고등학교 편입학,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 등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은 재학습지원기관으로 연결해준다. 또한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며, 본인의 희망내용에 따라 재학습지원 또는 취업지원으로 연결하게 된다.

군마현에서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전단지, QR코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홍보자료도 청소년용, 보호자용, 학교 교사용으로 제작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청소년 본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처해진 상황, 희망내용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마현은 2018년부터 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중학교 졸업자 가운데 미진학자,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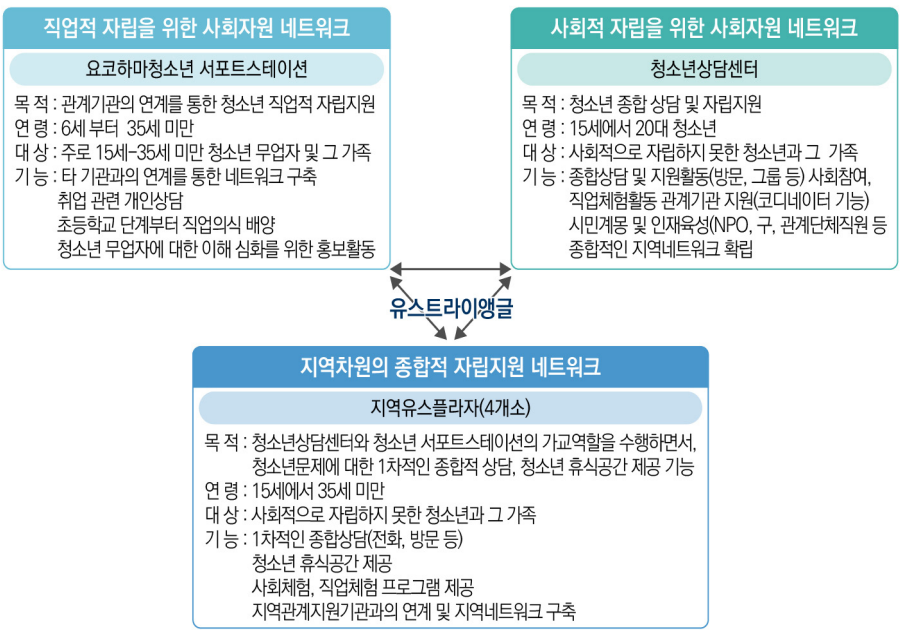


*출처: https://smilelife.pref.gunma.jp/pc/pdf/support_guide.pdf.

그림 Ⅲ-16 군마현 고교중퇴자 지원사업 자료(지원모델, 지원맵)

③ 요코하마시(横浜市)사례

요코하마시는 2008년부터 전문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관점에서 「유스트라이앵글 프로젝트(ユーストライアングル・プロジェクト)」를 실시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청소년 등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청소년상담센터(1963년 개설)」와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요코하마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2006년 12월 개설)」이 연계하여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실시하였던 것이 출발점이었다, 이들 두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로 2007년 10월 「지역 유스플라자(地域ユースプラザ)」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 출처: https://www.myilw.co.jp/publication/myilw/pdf/myilw_no75_feature_3.pdf(横浜市都市経営調査, 広域行政課 調査季報 横浜政策力 Vol. 162 (2008. 3)).

그림 Ⅲ-17 요코하마 유스트라이앵글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및 지역유스플라자의 3개 상담기관을 연계하여 청소년무업자 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세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정보, 프로그램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한 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요코하마시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함과 더불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청소년자립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2008년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그 성과를 토대로 2009년부터는 「E-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49]

또한 요코하마시의 청소년상담기관들은 지역의 대학, 전문학교, 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주체와 협동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체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50]

④ 오키나와현(沖縄県) 사례[51]

오키나와현은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따라 2013년에 오키나와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沖縄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 이하 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오키나와현 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오키나와아동청소년미래상담플라자, '소라에 sorae')」를 개소하였다. 협의회는 2017년 3월 현재 교육, 복지, 보건 및 의료, 교정 및 갱생보호, 고용, 비영리법인(NPO)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에서는 소라에 개설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연간 평균 4,0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

49) 출처: https://www8.cao.go.jp/youth/kenkyu/h19-2/html/4_2_7.html (검색일: 2019년 6월 26일).
50) 출처: https://hamatoriumlab.hatenadiary.org/ (검색일: 2019년 6월 26일).
51) 출처: 내각부(2017), pp. 7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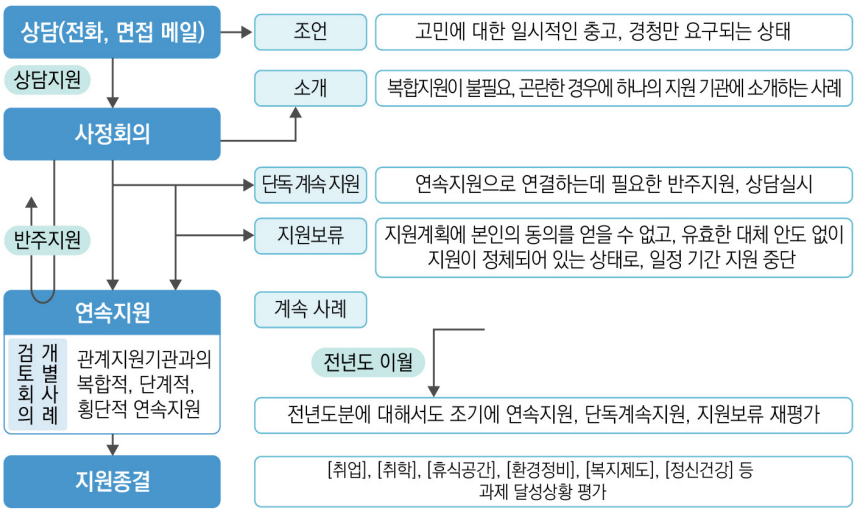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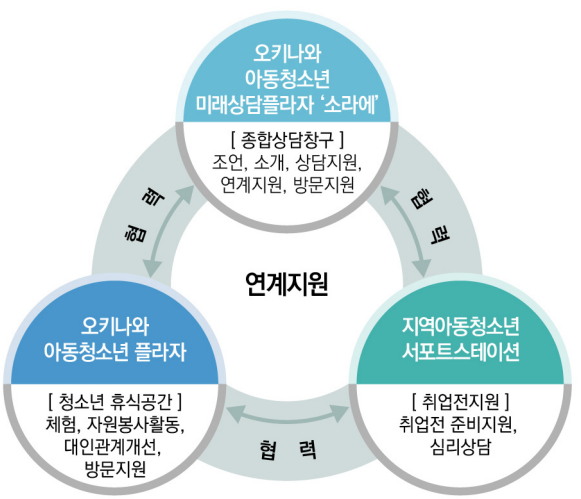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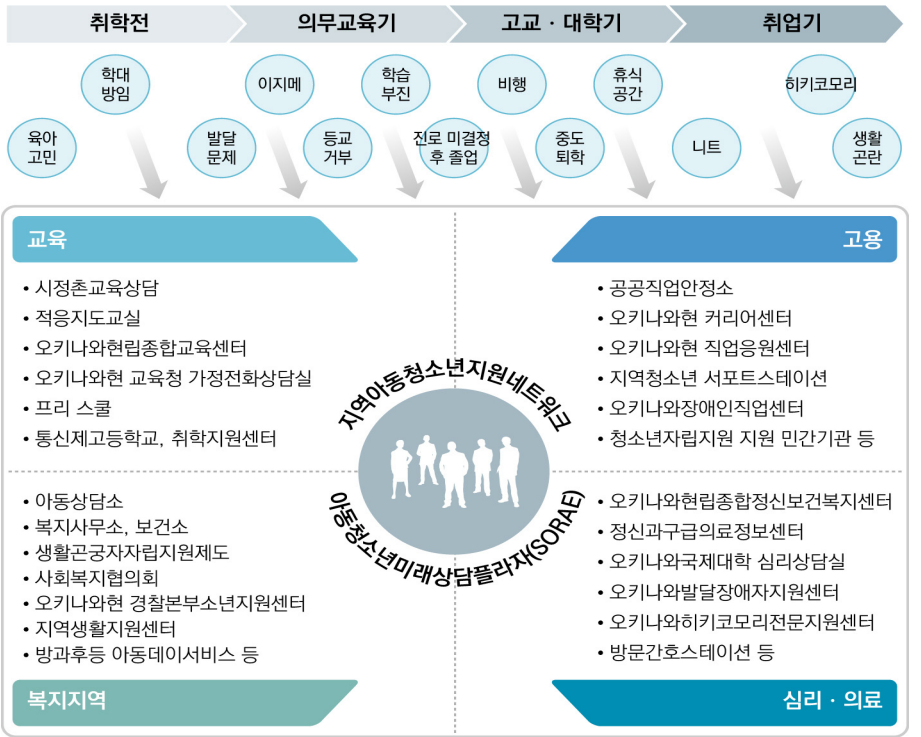


그림 Ⅲ-18 소라에 지원 체계도



* 출처 : http://www.sorae.okinawa/?p=1048 (검색일: 2019년 8월 7일)

그림 Ⅲ-19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트라이앵글



* 출처 :http://www.sorae.okinawa/wp-content/uploads/soraemap4/25845-CAYSN_OKINAWA/html5.html#page=15 (검색일: 2019년 8월 7일)

그림 Ⅲ-20 소라에 상담 흐름도

소라에는 협의회의 지정지원기관에 해당하며, 대표자회의, 실무자회의 등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회의 구성원,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체계구축을 위하여 강연,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라에는 0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사, 정신보건복지사, 산업카운슬러, 커리어 컨설턴트 등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수차례 정도로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는 사례를 접수한 상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는 초기상담(intake)에서 사정회의(모든 구성원이 참여)를 거쳐 단독 계속지원,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상담내용에 따라 담당상담원을 지정하기도 한다. 담당상담원을 지원한 이후에도 사정회의에서 사례의 진척과정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는 임상심리사에게 진로 지원이 필요한 내담자의 경우에는 진로 전문 상담원과 임상심리사가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등 내담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수시로 각 상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담원을 배정하고 있다.

소라에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용률은 어머니, 본인, 지원기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하는 지원기관에서는 교육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소라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간 20-30건 정도의 연수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 여름방학 전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모든 청소년에게 소라에 주지(周知)카드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소라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교육기관 등을 통해 소라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오랜 상담의 경험을 통해 상담내용을 면밀하게 기록하고, 상담내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상담원을 배치함으로써 상담원의 부담을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상담내용에 대해서 기록카드에 기록된 항목별로 정의를 세분화하고, 사례의 상태를 꼼꼼하게 분류함으로써 사례내용에 대해 직원들 간의 공유를 원활하게 하였다.

지원성과에 있어서는 취업 연결, 등교거부 등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취학 지원 기관으로의 연결, 환경개선 등 사회적 자립을 위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등 프로세스에 관한 지표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

표 Ⅲ - 18 소라에 상담자 및 지원자 내역(2015년)

상담자 내역	명	%
엄마	224	31.5
본인	178	25.1
지원기관	172	24.2
가족	37	5.2
기타	99	13.9
합계	710	100.0

* 출처: 内閣府(2017), 子ども·若者白書, p. 77.

표 Ⅲ - 19 소라에 지원기관의 내역

지원기관명	%
고등학교	19.8
아동, 복지관계기관	14.0
취업지원기관	11.0
교육위원회, 교육사무소, 적응지원교실 등	11.0
학교사회복지사, 초중어시스턴트 상담원 등	8.7
특별지원학교	7.0
초등학교	5.8
행정기관 외	4.7
의료기관	4.7
대학, 전문학교	0.6
기타	10.5
합계	100.0

* 출처: http://www.sorae.okinawa/?p=907.

한편, 오키나와현에서는 2015년 이후 매년 「오키나와현 아동·청소년 2기관연락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본 연락회의에는 오키나와현 아동청소년 미래상담플라자(소라에), 지역아동청소년플라자 그리고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다. 연락회의의 구성목적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 니트,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소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각도로 사정(査定)하여, 현내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지역청소년서포트스테이션은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오키나와현 내에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커리어카운슬러 등에 의한 상담을 주된 업무이지만, 오키나와현이 별도로 사회적응촉진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자의 지원, 교통지원,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생의 단기집중특별훈련, 오키나와현 직업기초훈련 등 일정기간 집중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플라자는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 등교거부, 실업 그리고 히키코모리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⑹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 성장지원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성장지원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특히 히키코모리, 니트, 등교 거부 청소년들을 중점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지원대상 청소년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의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니트 청소년은 감소 또는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히키코모리 청소년은 약 70만명으로 이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이 은둔형 상태가 장기화,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방치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위기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개념이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히키코모리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여럿이 보내는 시간보다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면대면 소통보다는 스마트폰 등과 같이 매체를 경유한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히키코모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재 히키코모리 청소년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성장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 따라 지역별로 설치된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 사례를 발굴하기 보다는 사례에 대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히키코모리 청소년들은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을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서 히키코모리 청소년을 발굴함과 더불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킹 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단위에서 청소년기관, 시설과 청소년 관련 부서간의 연석회의 및 연락회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토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 부서만의 행정적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청소년관계자 및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통합기구가 존재하지만, 지역사회의 경우는 행정적 권한이 제한적인 청소년육성위원회 이외에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사례의 발굴과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관계자 및 행정부서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오키나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사 및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CYS-Net의 경우는 관공서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싱가포르 사례

(1) 개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총인구 564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로,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및 기타 아시아출신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52] 1인당 GDP가 약 5만8천불로 자유경제체계를 기반으로 한 금융경제 강국이지만, 교육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은 강력한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년 성장과 발전이 미래의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주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그리고 문화·지역사회·청소년부(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MCSS)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규교육과정과 직업훈련을, 사회가족개발부는 청소년복지와 위기청소년문제를, 그리고 문화·지역사회·청소년부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스포츠 및 리더십 개발을 주로 담당한다. 각 부처마다 주요한 업무가 특화되어 있지만, 일찍부터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현안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다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부처 간의 네트워킹을 중요시 하였다.

싱가포르는 아동청소년법(1993)에서 청소년을 14-16세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청소년협의회는 청년을 15-35세로 정의한다.[53] 현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청소년 성장 및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이미 1990년 후반부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이미 여러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기관, 학교, 학부모들이 유기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52) 출처: https://www.population.sg/population-trends/demographics (2019년 5월 1일 인출).
53) 출처: http://www.youthpolicy.org/pdfs/factsheets/singapore.pdf (2019년 5월 1일 인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Recidivism: NCPR)의 추진체계와 운영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인 Enhanced STEP-UP(ESU)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과 확대방안에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 추진체계 및 운영모델

① 설립목적 및 연혁

여러 정부부처들이 역기능가족, 청소년비행 및 약물남용과 같은 주요현안을 상호논의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역기능가족·청소년비행·약물남용 상호부처 협력위원회(Inter-Ministry Committee on Dysfunctional Families, Juvenile Delinquency and Drug Abuse: IMC)를 1994년에 설립하였다. 본 협력위원회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들의 상호협력전략(multi-agency approach)을 형성하기 위하여, 둘째, 청소년범죄나 비행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척도개발을 위하여, 셋째,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넷째, 청소년의 가치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나 비행의 위험이 높은 학업중단 또는 자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역기능가족·청소년비행·약물남용 상호부처 협력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1995년 청소년 범죄 상호부처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는 2007년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Youth Guidance and Rehabilitation: NYGR)[54]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청소년비행 관련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본 위원회는 협력기관들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기존의 개입프로그램 평가검토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를 줄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기관들과 협력한다. 둘째, 위기청소년문제와 프로그램 효율성에 대한 융합 연구를 선도한다. 셋째, 기관들 간에 편리하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시스템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기관들, 자선단체들,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한다.

2018년 4월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를 재편하여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NCPR)[55]가 구성되었고,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위기아동청소년 및 범죄자로 확대되었다.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는 범죄 및 재범 예방과 재소자들의 교정을 강화를 목적으로 아래의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표 Ⅲ - 20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 지역사회협력 구성기관

• 문화·지역사회·청소년부(MCCY)	• 싱가포르약물중독예방위원회(NCADA)
• 교육부(MOE)	• 싱가포르사회서비스위원회(NCSS)
• 보건부(MOH)	• 싱가포르범죄예방위원회(NCPC)
• 공공안전부(MHA)	• 싱가포르청소년위원회(NYC)
• 사회가족개발부(MSF)	• 자조집단(SHG)
• 법률자문단(AGC)	• 정부의회위원회(GPC)
• 법원	• 의회구성원
• 가족정의법원(FJC)	• 중앙청소년지도국(CYGO-MSF)
• 정신보건원(IMH)	• 정책개발국(PDD-MHA)

* 출처: https://www.msf.gov.sg/NCPR/About-Us (2019년 7월 15일 인출).

54) 출처: https://msf.gov.sg/NYGR (2019년 5월 20일 인출).
55) 출처: https://www.msf.gov.sg/NCPR (2019 7월 15일 인출).

②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본 장에서는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 소속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4개의 정부부처(사회가족개발부, 교육부, 보건부, 공공안전부)와 부처 안에 소속된 3개의 산하기관(중앙마약단속국, 싱가포르경찰청, 싱가포르교도소) 및 2개의 위원회(싱가포르사회서비스위원회, 싱가포르범죄예방위원회), 법원, 교육기관들과 복지를 위한 자조집단들로 구성되어있다.

○ 중앙정부부처

사회가족개발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서비스위원회와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중앙청소년지도국(Central Youth Guidance Office: CYGO)은 사회가족개발부에 소속되어 있다. 교육부로서 싱가포르의 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실행을 담당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한편, 보건부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공 헬스케이시스템을 관리한다. 특히 공공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달 협력망들 - National University Health System(NUHS), National Healthcare Group(NHG) 그리고 Singapore Health Services(SHS)이 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안전부는 국가의 공공안전, 행정안전망, 이민과 국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공공안전부는 7개의 관련부서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3개 부서 - 중앙마약단속국(Central Narcotics Bureau: CNB), 싱가포르 경찰청(Singapore Police Force: SPF), 그리고 싱가포르 교도소(Si

ngapore Prison Service: SPS) – 가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위원회인 싱가포르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NCPC)도 소속되어 있다.

○ 중앙청소년지도국

특히 중앙청소년지도국(Central Youth Guidance Office: CYGO)은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사회가족개발부에 소속되어 있다. 본 사무국은 사회가족개발부, 교육부 그리고 공공안전부로부터 위임된 상호부처 간 복합적 조직의 성격을 띠며, 공공안전부의 정책개발국과 더불어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의 주요한 합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통합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2~21세 위기청소년, 청소년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청소년관련단체, 그리고 사회서비스기관과 지역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통합사무국으로의 역할 담당하고 있다.

③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12~21세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장개발,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정부기관과 지역사회 조직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주요활동사업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초기개입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첫 비행행동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청소년 아웃리치 및 지원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예방전략 강화 영역이다. 잠재적인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이 실시되고 있다. 셋째, 재활 영역은 소년범이 사회로 성공적으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제도적 재활방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Singapore Boy's Home와 Singapore Girls' Home, 교정훈련센터, 보호감호 및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가족강화 영역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훈련 및 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관들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활동영역, 주요역할 및 구체적 프로그램은 〈표 Ⅲ-21〉과 같다.

표 Ⅲ - 21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5가지 주요활동사업

주요활동영역	주요역할/기능	구체적 프로그램
초기개입	청소년의 첫 비행행동이 발생했을 때 제공되는 프로그램	• Enhanced STEP-UP • Youth GO! Programme • Sports and Arts (SPAR) Framework • Youth-At-Risk Engagement (YARE) Framework • Youth Information System • Beyond Parental Control • Prison Visits • Pre-Court Diversionary Programmes • Guidance Programme • Enhanced Streetwise Programme (ESWP) • Youth Enhanced Supervision (YES) Scheme • Family Court Conferences • Project HEAL
예방전략강화	잠재적인 비행행동을 감소하기 위하여 캠페인, 프로그램, 또는 다른 방법들을 실행	• 캠페인 및 교육활동: 캠페인, 로드쇼, 전시, 공개강의 • 기관간의 협업: 다른정부부처와 청소년 데이터 공유 • 부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강화 및 카운슬링 • 학교프로그램: 학교기반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서비스, 활동계획, 학교내 비행문제 측정

주요활동영역	주요역할/기능	구체적 프로그램
재활	소년범이 사회로 재진입할수 있도록 지역사회재활과 시설재활	• 아동청소년 제도적 재활 -Singapore Boy's Home -Singapore Girls' Home • 교정훈련센터(RTC) 구금: 14세-21세 소년범 • 보호감호 및 지역사회재활서비스
가족강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지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 지원	•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서비스센터, 자조복지기관, 풀뿌리조직, 지역사회클럽,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구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자원지원과 홍보를 정부에서 지원
지역사회기관 지원	공공기관들과 지역사회기관 지원	• 자조복지기관-Charities Capability Fund • 청소년 및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서비스협회 훈련프로그램

* 출처: https://www.msf.gov.sg/NYGR/Our-Programmes (2019년 6월 20일 인출) 자료를 요약 정리함.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례: Enhanced STEP-UP(ESU)

① 프로그램 특징

ESU는 학교 중퇴의 위험에 처한 학생과 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가족개발부에 의해 창안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총 9개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합서비스제공자(Integrated Service Providers: ISP)로 선정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역량강화프로그램이다.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12개월 동안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카운슬링 및 학업지속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추가로 12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SU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업기술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자격기준

ESU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1세 미만의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 결석률이 20% 이상인 교육부 승인 학교 또는 기술학교(ITE) 학생, 타임아웃 프로그램(위험에 처한 학생들에게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식 수업에서 떠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사회가족개발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 명령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 학교

학교는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통합서비스제공자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는 학생의 거주지에 가까운 통합서비스제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ESU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 등과 같은 더 많은 지원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ESU 참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 부모나 법적후견인에게 알릴 수 있다. ESU 참여를 위한 추천 이전에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후 학교는 학교 연락담당자, 학생, 부모/법정후견인 및 ISP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만나게 되는 예비모임 일정과 ESU 추천에 관하여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예비모임에서 학교와 ISP 담당 사회복지사는 공동으로 ESU 정보를 공유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 지역사회기관 (가족서비스센터, 민간사회서비스기관)

ESU에 적합한 사례의 학생을 발견하게 된 지역사회기관은 해당 청소년의 학교와 함께 청소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역사회기관은 그 청소년을 ESU에게 추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제적된 경우 지역사회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기관은 ESU 담당 사회복지사, 청소년과 부모/법정후견인들이 참여해야 할 예비 모임을 준비할 수 있다.

○ 부모/법정후견인

자녀가 여전히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학교에 연락하여 통합서비스제공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제적된 경우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통합서비스제공자에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③ 사회가족개발부 승인 통합서비스제공자

ESU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가족개발부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리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총 9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합서비스제공자로 임명하였다.

표 Ⅲ - 22 ESU 프로그램 담당 통합서비스제공자

HDB 분류	지역	통합서비스제공자
Bukit Merah, Central, Kallang, Rocher, Novena, Toa Payoh, Bishan	1	Singapore Children's Society
Ang Mo Kio, Yishun	2	AMKFSC - Youth Infinity @ Ang Mo Kio
SEmbawang, Woodlands	3	Care Corner CROSSROAD Youth Centre
Bedok, Geylang Serai, Marine Parade	4	Youth Guidance Outreach Services
Tampines, Pasir Ris, Punggo	5	AMKFSC - Youth Infinity @ Punggol
Sengkang, Hougang, Serangoon	6	SHIN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Hougang)
Bukit Batok, Bukit Panjang, Choa Chu Kang	7	Fei Yue Community Services
Jurong East, Clementi, Queenstown, Bukit Timah	8	SHIN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Clementi)
Jurong West	9	Lakeside Family Services

* 출처: https://www.msf.gov.sg/policies/Children-and-Youth/Pages/Integrated-Service-Providers-(ISP)-for-MSF-funded-Youth-At-Risk-Programmes.aspx (2019년 7월 28일 인출).

④ 지역사회연계협력 서비스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청소년들 속에서 사회적 삶과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카운슬링, 가족 개입, 그룹 작업 또는 생활기술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ISP 담당 사회복지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협력한다.

(4) 싱가포르 청소년 지역사회 성장지원 협력망의 특징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청소년 예방과 관리를 주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주체가 대부분 민간부분이 우세한 것에 비해, 싱가포르의 경우는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정부기관, 위원회, 교육기관, 복지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처럼 청소년 비행과 범죄예방 및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안의 특수성과 예민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연계기관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미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경우에는 업무분장, 책임과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상호기관 간에 업무 비효율성과 모호성을 최대한 배제하려하였다. 여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부처 간에 또는 기관 간에 역할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사회가족개발부 소속 중앙청소년지도국이 주축이 되어 다른 기관들과의 상호협력 아래 정보공유,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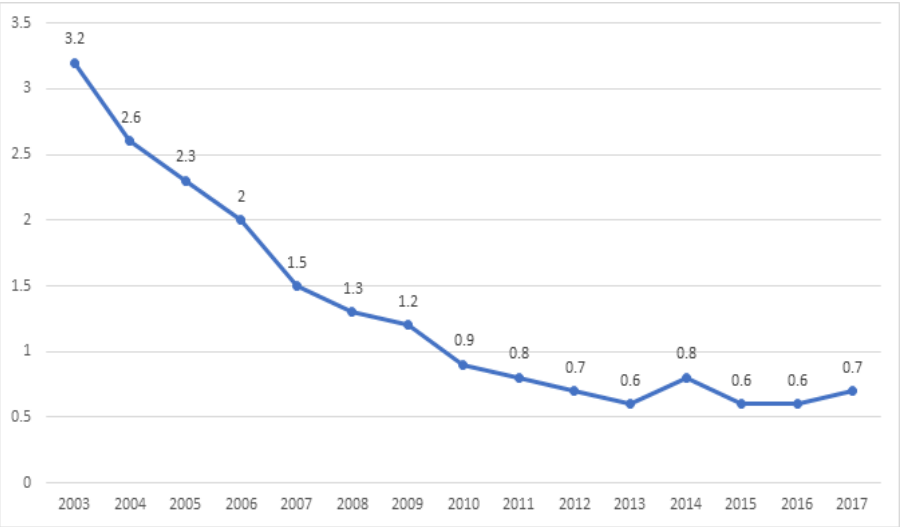
관련 보도 및 스케줄 등을 관리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범죄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재활을 위하여 설립된, Singapore Boy's Home과 Singapore Girls' Home은 사회가족개발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재활훈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학교 중퇴의 위험에 처한 학생과 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Enhanced STEP-UP(ESU)은 사회가족개발부에 의해 창안된 프로그램이지만, 부처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9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서비스제공자(ISP)로 임명하여 기관들이 운영한다.

셋째, 싱가포르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정부부처간의 연계, 부처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역사회 및 민간의 청소년기관 간에 각각의 역할들이 지속적인 상호협력 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성과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운영이후 다양한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들이 직간접으로 활발히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본장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청소년범죄 구속현황,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 유스홈 입소현황을 성과지표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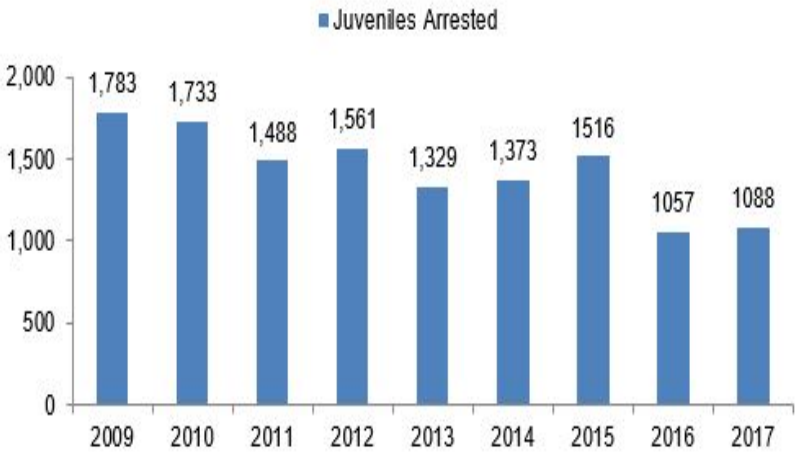
[그림 Ⅲ-21]에서는 2003~2017년 기간 동안의 싱가포르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고등학교 탈락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탈락률은 2010년 이후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고등학교 탈락률은 0.6-0.7%로 전체 코호트 중 1%미만의 학생만이 중도 탈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Data Gov SG (2019년 8월 30일 인출).

그림 Ⅲ-21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그림 Ⅲ-22]에서는 2009-2017년 동안의 싱가포르 청소년범죄 구속현황을 보여준다. 2009년 1,783명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었고, 이 현상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6년에는 1,057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활동 이후 다양한 위기청소년 관리, 청소년범죄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과 재활서비스들 통해서 청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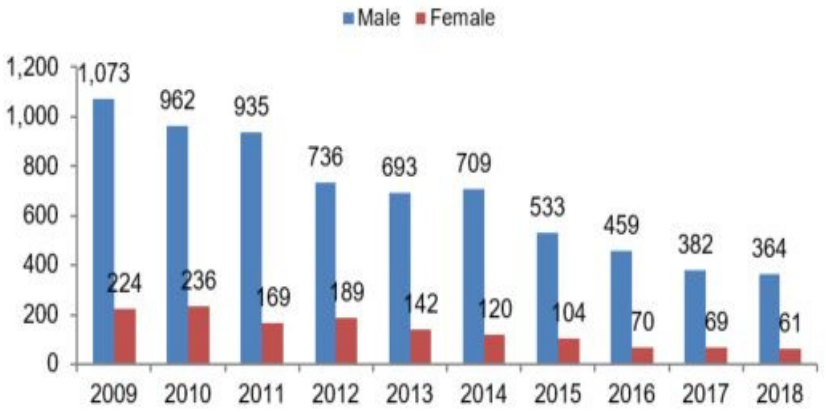


* 출처: 공공안전부(Ministry of Home Affairs),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Juvenile-Delinquents-Juveniles-Arrested.aspx(2019년 7월 1일 인출).

그림 Ⅲ-22 청소년범죄 구속현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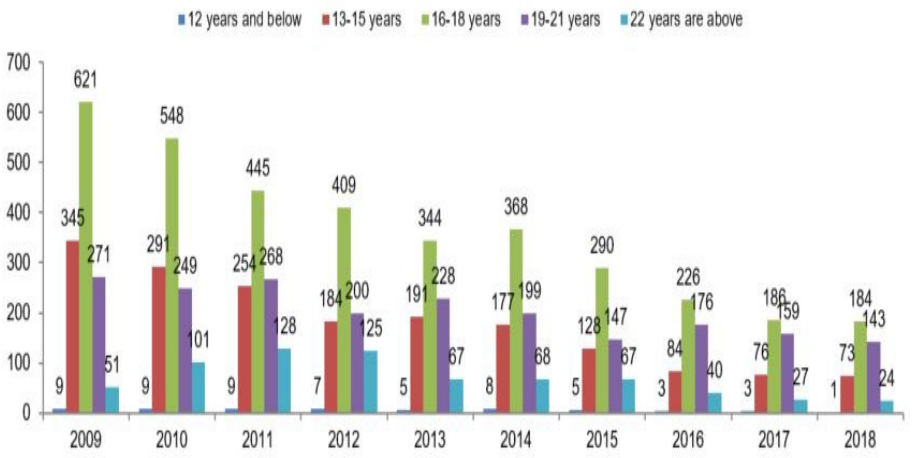
[그림 Ⅲ-23]과 [그림 Ⅲ-24]에서는 2009-2018년 동안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소 입소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는 2009년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8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2009년 1,073명에서 2018년 364명으로 약 66%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2009년 224명에서 2018년 61명을 기록하여 약 73% 감소하였다.

연령에 따른 추세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16-18세 청소년 621명이 보호감호를 위해 입소하였는데, 2018년 184명으로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Probation-New-Orders.aspx (2019년 7월 1일 인출).

그림 Ⅲ-23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명)



* 출처: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Probation-New-Orders.aspx (2019년 7월 1일 인출).

그림 Ⅲ-24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명)

마지막으로 〈표 Ⅲ-23〉에서는 유스홈 입소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2-2018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유스홈 입소는 2012-2016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2017-2018년에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 - 23 유스홈 입소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oy's Home	소년범	176	233	224	194	130	84	80
	비소년범	8	14	12	19	21	14	26
	합계	184	247	236	213	151	98	106
Girls' Home	소년범	29	45	33	29	26	13	12
	비소년범	35	49	53	52	68	30	40
	합계	64	94	86	81	94	43	52
총합		248	341	322	294	245	141	158

* 출처: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MSF-Youth-Homes-New-Admissions.aspx (2019년 7월 1일 인출).

결론적으로, 성과지표로 보여준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청소년범죄 구속현황,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 유스홈 입소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가 운영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위기청소년에게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감소하고,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싱가포르 지역사회협력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싱가포르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청소년주도형이 아니라

정부주도형이다. Top-down형태의 정부주도형 정책시스템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본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주도형 성장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스포츠 및 청소년 여가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활동 및 봉사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싱가포르에 비해 청소년 관련 문제와 청소년들의 니즈(needs)가 보다 다양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주도형과는 달리 청소년 참여형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입안 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협력체계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기관들의 유기적인 상호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학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정기적인 연합모임이 중요하다. 연합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서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지원 사례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및 피드백 등을 공유함으로써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해진다. ESU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가족개발부 공무원, 사회복지사, 학교, 학부모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프로그램 실적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 그리고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속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경우, 중앙청소년지도국을 두어, 위기청소년, 청소년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청소년관련단체, 그리고 사회서비스기관과 지역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통합사무국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중앙사무국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력망이 보다 유기적으로 지속 발전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기관,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체 형태의 모임을 구성하여 보다 통합적인 형태의 협력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형태로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없어서 정부기관간의 협력과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 아래, 지방정부행정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고, 청소년교육과 청소년문제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아래에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추진에 앞서,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개념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사회를 지방정부단위로 정할 것인지, 지리학적인 지역개념인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작은 공동체나 마을단위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덧붙여 한국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가족중심 가치관이 우선하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정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핀란드 사례

(1) 개요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교육을 비롯한 기본 사회 서비스를 모든 시민, 특히 후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 모델은 사회자본의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이는 교육 성취를 위한 사회 환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핀란드는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더 평등한 사회에서 교육제도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믿고 있으며, 복지, 평등, 경쟁력을 교육을 바꾸는 3대 사회자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핀란드는 모든 사람이 우수한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와 형평성을 강조하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내었다(Salberg, 2016). 핀란드에서는 소득불평등 수준과 아동 빈곤율이 낮고 학생들에게 대한 학교차원의 적절한 복지를 지원했을 때 학생들의 교수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 급식,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조기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Salberg, 2016).

핀란드에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지대하며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복지와 웰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OECD에서 발표한 학생웰빙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 학생들이 삶에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학생은 45%로 OECD 평균인 34%를 훨씬 상회하였다. 또한 49개 조사국 중 상위인 5위에 해당되었다(Yle, 2017. 04.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2017. 05. 04.에서 재인용). 그러나 복지와 웰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되고 있다. 핀란드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Elisa가 15~17세의 핀란드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15%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60%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약한 정도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Yle, 2017. 04.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2017. 05. 04.에서 재인용). 이처럼 타인에게 배척이나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들은 정신적인 상처를 받게 되며 소외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아이들의 복지와 웰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문화활동 및 시민활동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동체성을 느끼고 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구"라는 청소년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문화활동 및 시민활동 기회를 부여해 주는 일이 청소년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가 되고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사례는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청소년 성장을 위한 혁신지구 모델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핀란드 청소년 정책과 사업의 개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핀란드의 청소년사업(youth work)은 초기 독립공화국 시대(1917~44년)을 지나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함께 야기된 인구구조의 급변에 맞추어 이 세대의 교육, 훈련, 복지 및 사회배치 등 사회정책에 몰두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영역의 한 분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0~70년대에 들어서 핀란드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계획화, 평등주의, 부분적으로 중앙집중화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들어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범주와 사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기존의 교육적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사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는 교육과 여가활용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청소년의 생활여건과 기회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이광호, 2008). 이에 따라 청소년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단체나 이익집단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보다 포괄적, 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되는데 특히 청소년의 생활조건 및 성장환경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다각적으로 모색되면서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의 위치와 권리 등이 강조되고 사회적 참여가 추진되며 학교교육 중심체제에서 지역사회 교육중심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최윤진, 1998).

한편 청소년법령도 제정되면서 청소년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1972년에 처음으로 청소년사업법(Youth Work Act)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 법령 명칭을 청소년법(Youth Act)으로 바꾸면서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체계와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2006년 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이전까지는 국가 차원이나 지역 혹은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정부 중 몇 군데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면, 이후에는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 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이광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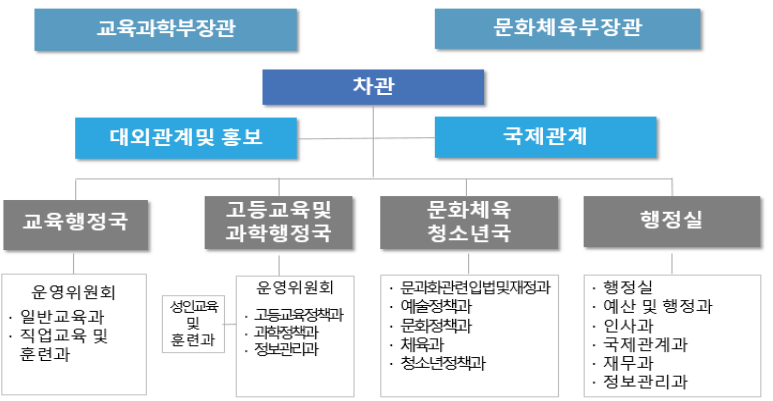
2006년 청소년법 개정 후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목표를 청소년 성장과 자립지원 및 시민성 함양과 임파워먼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사업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핀란드에서 국가 차원과 지자체 차원으로 청소년 사업체계를 구분하고 양자 간에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핀란드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

핀란드 청소년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를 국가 차원과 지자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국가 차원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 담당조직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는 교육문화부로 두 명의 장관 중 문화체육부 장관이 청소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중 문화체육청소년국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Ⅲ-25]참조).



* 출처: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12). Youth Work Youth Policy in Finland. 내부자료(미간행).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2012)에서 재인용 및 수정.

그림 Ⅲ-25 핀란드 교육문화부 청소년부

교육문화부 내에는 청소년활동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공공정책을 실행하는 공공조직이 있다. 청소년 사업 및 정책과 관련된 공공조직으로는 중앙의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국,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자문조직인 청소년활동자문위원회(NUORA, The 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와 청소년단체 보조금 위원회(YOSC, Youth Organization Subsidy Committee)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교육문화부의 핵심동반자로서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고 핀란드 국제교류센터와 국가청소년센터가 있다.

이러한 공공조직 이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사업 시민활동단체로서 청소년 봉사단체, 핀란드 청소년 연합협력기구인 알리안씨(Allianssi), 청소년 정보 및 상담센터, 핀란드 청소년연구회 및 청소년연구 네트워크 등이 있다. [그림 Ⅲ-26]는 청소년의 재정 책정에 따라 구분해 놓은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단체들이다.

가.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공공조직

○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청소년 업무는 문화부 청소년 정책부서에서 담당하고 교육문화부는 상임위원회인 국가 청소년분과 자문위원회(NUORA)와 청소년단체 보조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입법과 연구 및 조사, 예산을 담당하며 복권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여 4년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청소년활동 자문위원회(NUORA, 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

청소년 활동 자문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청소년육성과 정책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청소년정책개발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실행된 프로그램의 연간 평가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또한 연간 청소년지표를 통해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 미래의 기대와 사회의 영향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다. 청소년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고용률, 교육, 주거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매년 점검, 심의, 평가한다.

○ 청소년 단체 보조금 위원회(Youth Organization Subsidy Committee)

청소년단체 보조금 위원회는 청소년기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서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들로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는 상근직으로 구성되는데, 주 업무는 국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봉사(사업)단체에 재량적 전환 할당금에 대한 연간 제안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일원은 청소년기관의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로 상근직이다. 위원회는 정당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학생기구, 청소년이익단체, 청소년문화와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청소년 종교 활동단체, 10대 이전의 아동단체, 청소년활동봉사단체들에 할당금을 지원한다.

○ 교육문화부의 일반교육분과

교육문화부의 핵심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들이 공동으로 하는 일들은 학교의 방과 후 활동, 청소년의 미디어와 민주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

○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중등, 성인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개발과 집행을 담당하고 교육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토대로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들을 개발한다. 교육, 훈련에 대한 자료수집, 국제벤치마킹, 평가를 담당한다.

○ 핀란드 국제교류센터(CIMO)

유럽연합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과 외국청소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양한 EU 프로그램과 국제청소년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교류, 훈련,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국가 청소년 센터(National Youth Center)

자연환경 안에서 환경교육, 캠프, 생태학교 등을 제공하는 사회청소년사업 전문기관이다. 핀란드 내 10여 군데 있는데, 소유는 지자체이며 재정지원은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만들고 청소년 담당자들을 위한 훈련준비, 지자체와의 공동마케팅 등을 수행한다.



* 출처: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2006). Youth Work & Youth Policy – Fact Sheet.(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2에서 재인용 및 수정).

그림 Ⅲ-26 청소년의 재정책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단체들

표 Ⅲ - 24 핀란드 정부 차원 청소년 기구 및 청소년 정책사업

구분	정책영역	청소년 사업
1	교육문화부	• 청소년사업은 문화부에서 담당 • 청소년관련 입법, 연구, 조사, 예산 • 4년 마다 아동, 청소년 위한 국가정책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활동 자문위원회 (NUORA)	• 청소년정책개발 프로그램 주도 • 실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평가서 정부에 제출, • 각종 청소년 지표조사 생산 • 청소년 고용율,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자료구축, 점검, 심의, 평가
3	청소년 단체 보조위원회(YOSC)	• 청소년 보조금 보조 • 국가청소년단체 및 봉사단체들에 재량적 전환할당금 제안서 제출
4	일반교육분과	•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하며, 지자체를 통해 정책추진 • 방과 후 활동, 청소년미디어와 민주주의 교육,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행
5	국가교육 위원회 (FNEB)	• 고등교육을 제외한 초중등교육 및 성인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개발 및 집행 • 교육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토대로 교육목표, 내용, 방법 등 개발 • 국가핵심교육과정 및 자격제 입안 및 승인 • 지자체와 학교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침 수립(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후 활동은 국가핵심교육과정 사항임)
6	국제교류센터 (CIMO)	• 유아부터 성인 대상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 활동 • 교육, 직업훈련, 직업(일자리) 등에 대한 교류 지원
7	국가청소년 센터 (National Youth Center)	•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의 정부 간 프로그램 지원 • 환경, 생태, 캠프 등 청소년사업 전문기관으로 기능

* 출처: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2006). Youth Work & Youth Policy – Fact Sheet.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2에서 재인용 및 수정).

나. 청소년사업 관련 시민활동단체 및 연구기관

핀란드에서는 자원단체 성격의 청소년단체들이 시민사회 발전과 청소년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사업 관련 시민활동단체로는 핀란드 청소년 연합협력기구인 알리안씨(Allianssi), 국가청소년센터, 청소년 정보 및 상담센터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기관으로 핀란드 청소년연구회 및 청소년연구 네트워크 등이 있다.

○ 알리안씨(Allianssi) 핀란드 청소년 연합협력기구

알리안씨는 핀란드 청소년 단체들의 총괄적인 협력기구로서 핀란드 청소년 연합단체이다. 핀란드 청소년 단체들을 회원으로 포함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청소년 연구회와 청소년 연구네트워크와 협력하며 단체를 지원한다.

알리안씨는 청소년 정보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연구도서관과 청소년정보 안내소 및 청소년활동지도자를 위한 웹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잡지를 출간하며, 유럽청소년 포럼 등 국제협력 활동을 참여하면서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 국가청소년센터(National Youth Center)

국가청소년센터에서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캠프나 자연체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도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캠프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센터는 주로 지자체나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며 교육문화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https://minedu.fi/en/national-youth-centres. 2019년 5월 16일 검색).

○ 청소년 정보 및 상담센터(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Center)

청소년 정보 및 상담센터는 핀란드어로 나침반에 해당되는 꼼파시(Kompassi)로 불리고 있으며 29세 미만 청소년, 가족 및 청소년지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상담과 가이던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꼼파시는 1982년부터 헬싱키시에서 청소년에게 정보제공과 상담이 청소년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설치를 검토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청소년의 성, 여가, 건강과 가정문제 등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으나 근래에는 주거, 훈련, 학교공부, 직장과 봉사활동 등과 같은 과제뿐만 아니라 해외유학, 여행, 사회 안전, 환경문제, 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꼼파시는 전화, 인터넷이나 메일 등을 통해 최신 정보와 상담을 무상으로 상시 제공한다(이광호, 2008).

○ 핀란드 청소년연구회 및 청소년연구 네트워크

핀란드 청소년연구회는 교육부의 청소년 분과와 연계하여 1988년에 설립되었고 1999년에 청소년 연구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소년 연구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게 되었고 청소년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청소년 연구의 주제도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청소년의 취미와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청소년의 가치와 주변화, 다문화 및 시민의식, 사회적 참여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Verschelden et al., 2009).

청소년연구 네트워크는 청소년활동 자문위원회(NUORA)와 함께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청소년의 삶의 조건에 대해 기술하는 연감을 발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와 청소년 정책영역

핀란드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 기획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실행한다. 즉 청소년정책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핀란드에는 15개의 큰 도시를 포함하여 336개의 지자체가 있다. 2009년 현재 지자체의 전체 공공비용은 329억 유로에 이르며 1억5천 유로인 대략 0.6%가 청소년활동에 할당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에 전달되는 재정은 교육과 훈련, 보건, 스포츠, 문화, 아동복지,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지자체 예산의 35~45%에 이른다.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지자체는 12곳이나 청소년 위원회가 따로 없는 다른 지역 당국은 스포츠, 문화, 교육, 여가, 복지문제와 함께 공동 위원회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사업을 통해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영역을 살펴보면 〈표 Ⅲ-24〉와 같다(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2).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의 핵심사항은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과 사회적 권한부여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예방활동,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 워크숍 서비스, 이민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이다. 또한 청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의 교육안내,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여가 기회, 정보와 상담 서비스, 청소년 협회와 단체들을 위한 지원,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 다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환경교육, 청소년 워크숍 서비스 등을 목표활동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Finland National Youth Act 72/2006).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사업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방과후 클럽과 청소년 작업장이다.

가. 방과 후 클럽

〈표 Ⅲ-25〉의 내용과 같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사업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방과 후 클럽이다.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교육과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핀란드 청소년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방과 후 활동은 학년별로 구분하여 1~2학년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협조와 법에 의해 운영되고, 3~9학년의 방과 후 클럽은 교육부 자체 부서와 주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저학년(1~2학년)의 방과 후 활동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정부가 다른 공적 혹은 사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9학년 방과 후 클럽은 주 지방정부의 스포츠와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주로 운영하는데 스포츠 당국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활동을 진흥하는데 반해, 청소년 당국에서는 문화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이광호, 2008).

나. 청소년 작업장

청소년 작업장은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노동부와 연계하여 청소년 취업과 직업교육 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청소년작업장은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지방정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작업장은 의미 있는 발전을 하여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공공부분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청소년작업장 활동은 교육서비스, 사회서비스, 노동행정과 청소년서비스 등 4개 부분이 공동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임파워먼트에 기여하고 있다(이광호, 2008).

표 Ⅲ - 25 정책영역별 핀란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사업

정책영역	청소년 사업
청소년 교육	청소년의 교육안내, 청소년의 환경교육
청소년 방과 후 클럽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 여가 활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여가 기회, 정보와 상담 서비스, 청소년 협회와 단체지원
청소년 작업장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들을 위하여 직업훈련과 노동실습 청소년 작업장(Youth Workshop) 서비스
국제활동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활동
청소년 참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통한 시민성 함양, 사회적 권한부여
사회통합	이민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위기청소년지원	약물중독예방활동

* 출처: Finland National Youth Act(72/2006).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2012)에서 재인용 및 수정.

(4) 특징 및 성과

핀란드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특징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에 있어서 핀란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The National Youth Work and Youth Policy Programme, VANUPO)은 국가 차원에서 매 4년마다 수립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삶의 환경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정부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17).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으로서 국가차원에서 명시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청소년 사업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할당할 때에도 VANUPO 이행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핀란드는 청소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행정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17).

둘째, 핀란드 청소년 행정 조직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그리고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청소년기관 간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적절히 분배되어 상호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최윤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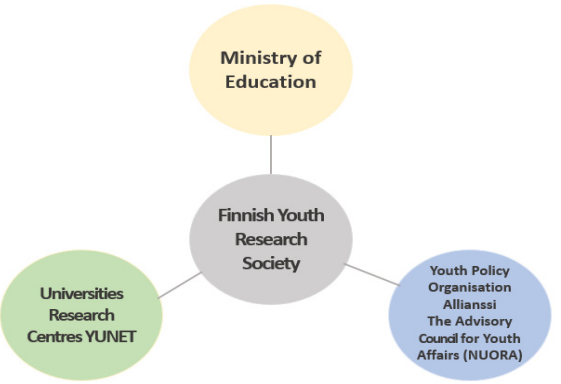
중앙정부인 교육문화부에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사업의 발전에 대해 관할하고 있으며 다른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사업 및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수행목표를 채택하여 중앙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방향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이행해야 할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및 사업방향에 맞추어 청소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 청소년 생활전반에 관한 면밀한 진단과 연구에 기초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정책 마련과 집행은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청소년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주로 할당된 예산을 각 지방정부 및 단체, 위원회, 연구소 등에 배분하여

지원하고, 각 자치단체들의 집행과정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감독·관리보다는 지원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핀란드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의제설정 및 정책 형성과정에 행정공무원, 전문가, 청소년의 세 부류의 집단의 관점과 견해가 항상 고려되어 종합적인 청소년 사업이 개발된다. 즉, 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제기되면 연구전문가들의 비판을 듣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청소년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된다. 이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최윤진, 1998).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은 연구기관과 정책 기관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하여 선순환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Verschelden et al., 2009).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조직 중 전문가집단 중의 하나로 핀란드청소년연구회를 들 수 있다. 핀란드청소년연구회는 1988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며 청소년활동 자문위원회(NUORA)와 함께 연간평가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구기관에서도 교육문화부의 핵심부서인 청소년활동 자문위원회와 함께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는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연구기관과 정책기관 그리고 청소년 사업 간의 3중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정책 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있다([그림 Ⅲ-27] 참조).



* 출처: Verschelden, G., Coussee, F., Van de Walle, Tineke., & Williamson, H. (2009). The History of Youth Work in Europe: Relevance for today's youth work policy.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그림 Ⅲ-27 청소년 연구, 정책, 사업 간의 3중 협력구조

(5)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핀란드의 청소년사업과 정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초기에는 교육과 여가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포괄적, 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되었다. 즉 교육과 여가활용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청소년의 생활여건과 기회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의 위치와 권리 등이 강조되고 사회 참여활동이나 시민활동 등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로 현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현재의 '시민'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을 어떤 주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통해 청소년이 시민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을 시민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경우 시민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터전은 결국 청소년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일 수밖에 없다. 핀란드에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시민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교육 중심체제에서

지역사회 교육중심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시민적 주체로 뿌리내리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핀란드 청소년 행정 조직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그리고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연계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청소년기관 간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적절히 분배되어 상호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지방정부나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래의 흐름이라고 할 때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여가부)의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연관된 다른 중앙부처와 연계·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에서 수립한 청소년정책을 집행하고 이행하여야 할 지자체, 민간기관 및 지역사회와도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은 연구기관과 정책 기관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하여 선순환 효과를 만들고 있다. 즉 청소년 연구, 정책, 사업 간의 3중 협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청소년연구회나 핀란드 청소년연구 네트워크, 대학 등과 함께 연구를 통해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자문기관인 청소년활동 자문위원회와도 협업을 통해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적인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를 거버넌스를 통해 구축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기관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와 실천 간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청소년작업장(Youth Workshop)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목표를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지원과 시민성 함양이라고 볼 때

청소년들이 도전하고 싶어 하는 주제나 아이디어를 작업장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실험결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작업장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성장을 위한 혁신지구를 추진할 때 고용노동부도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임파워먼트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2. 지리정보체계(GIS)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지리적 환경 분석
3.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사회적 환경 및 청소년 현안 이슈
4. 시범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 구성 및 추진경과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분석
6. 시범사업 운영지역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례
7. 시범사업 운영지역 청소년성장 지원 추진체계
8. 소결 및 시사점

Ⅳ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56]

1. 시범사업 운영 개요

본 시범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각 자원들의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중앙정부 정책 사업의 매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한다. 협의체에 속한 기관 주체들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주체 간의 상호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이 때 진행되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서비스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네트워크와의 소통능력도 요구된다.

한편 본 시범사업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협의체는 지역사회 일반 다수 청소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YS-Net, 지역돌봄위원회 등 기존의 협의체나 위원회가 위기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중심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본 시범사업에서는 청소년 활동, 교육, 복지 등 청소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을 띤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56) 시범사업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총괄 운영하였고, 이윤주 연구위원과 이유정 연구사업운영원이 실무담당을 하였음. 2절의 GIS분석과 5절의 네트워크 분석은 김상현 초청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하였음. 이 장은 2절과 5절의 분석결과와 시범사업 기관의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윤주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이 장의 전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1) 시범사업 운영 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먼저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주체로서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지원과 연계협력 가능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 청소년기관 및 시설, 각종 청소년 협의회 및 위원회,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중요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시범사업 운영 기관의 선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운영역량(조직 및 현황, 사업실적, 규모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이해도 등), 시범사업 수행능력,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과의 연계 협력 가능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간의 연계 협력 구축방안 및 가능성, 시범사업 관리(예산편성 및 인력운영 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최종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운영의 전체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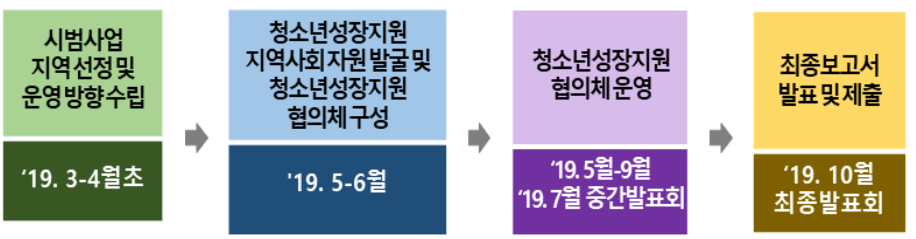


그림 Ⅳ-1 시범사업운영 일정

전문가자문회의 및 연구진 논의를 통해 설정한 1차년도 시범사업에서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및 사례 발굴,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망 구축,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안) 마련이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담당할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담당자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거나 MOU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시범사업 운영 기관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와 지역 청소년기관 및 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업 선정 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8개 기관이 지원하였다. 다음 단계로 접수된 8개 기관에 대해 서면평가(1차)와 제안서평가(2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곳의 시범사업운영지역 거점기관(전남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경기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에서의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의 동안 시행되었다. 시범운영사업 기관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Ⅳ-1 시범사업 기관 선정 절차

구분	일정	내용
시범사업운영 기관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제출	2019.03.20-03.29	신청자격: 사업운영 주관기관(시설)은 청소년관련 기관(시설)으로 시·군·구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 지자체 등과 본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예정)한 기관(시설)
서면평가(1차)	2019.04.02	접수된 8개 기관에 대한 심의위원 서면평가
서면평가(1차)결과 발표	2019.04.02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제안서평가(2차)	2019.04.05	지원기관 담당자 PPT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최종결과 발표	2019.04.08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 시범사업 운영 지역 및 기관 특성

본 연구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남 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 세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관기관 역할을 담당한 기관은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선정되었다. 세 기관 중 두 기관은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은 백석대학교가 각각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한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경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재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세 곳이 선정됨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역 규모를 바탕으로 인구분포와 사회 환경적 특성 뿐 아니라 기관 운영형태에 따른 차이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선정된 세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기관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1)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남 곡성군의 경우, 인구는 2019년 4월말 기준, 29,830명이다. 이 중 9세~24세 청소년은 4,190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인프라 현황을 보면 학교의 경우, 2005년 농어촌적정규모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28개교에서 15개교로 감소하였다(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또한 청소년 기관·시설의 경우, 곡성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옥과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들이 북동부 지역인 곡성읍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공공교통시설 기반이 열악하여 지역 청소년이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편, 곡성군은 현재 지역소멸위험지수(0.229)가 높은 지역으로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선 만큼 청소년들의 타 지역으로 유출 방지와 인근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2019년부터 곡성군청은 청소년 담당업무 부서를 복지과에서 '미래혁신과'로 변경함으로서 청소년 지원 정책을 복지적 관점에서 종합적 지원 정책을 위한 통합적 관점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곡성군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곡성군미래협력교육센터'를 개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토대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의 운영을 통해 소규모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기관과 마을 단위 지역 주민협의회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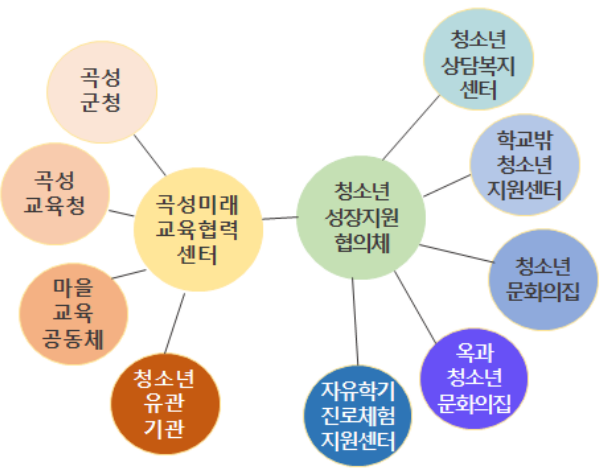


그림 Ⅳ-2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대전시는 전체인구 1,487,605명 가운데 청소년인구가 349,802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전국 청소년 인구 비율이 약 18%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유성구 관내 학교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는 39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7개교로 총 77개교가 입지하고 있다.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의 경우,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 유스호스텔,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유성구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협의회와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네트워크, 지도자 네트워크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도 상당히 잘 이루어진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 관련 시설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로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과의 협력은 다소 미흡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청소년 시설 기관 뿐 아니라 교육, 복지, 돌봄, 활동의 타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관내에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영역과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도 고려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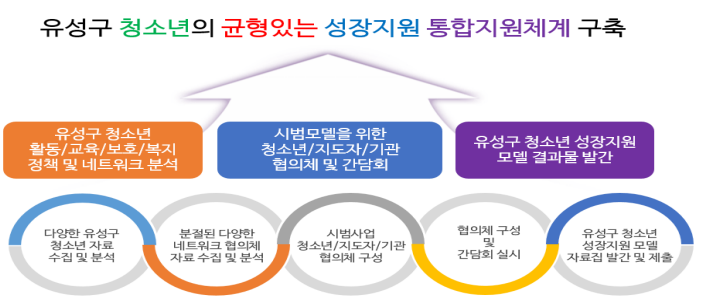


그림 Ⅳ-3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안)

(3) [경기도 부천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역 단위의 지역사회 내 청소년·청년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청소년관련 협의기구에 다수의 지원단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천시는 시 차원에서 다수의 활동, 상담, 보호·복지 영역의 기관이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부천시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 협력하여 청소년 주류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스 거버넌스 청소년 부천에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활동, 상담 및 복지 영역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천시 관내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학교 및 돌봄 영역과도 연계하여 영역 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 필요성에 많은 기관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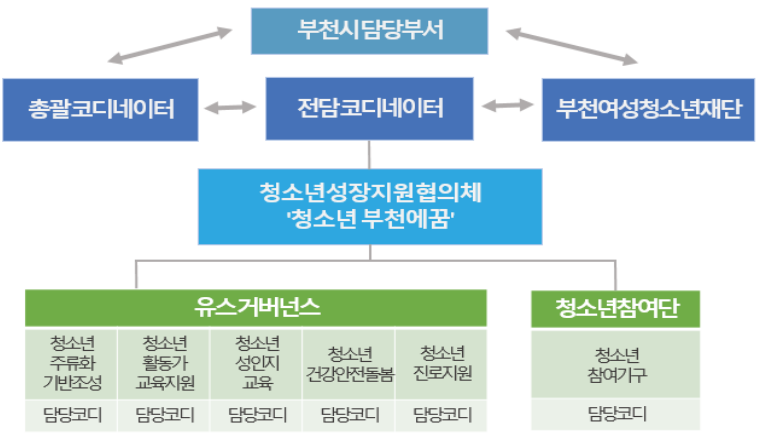


그림 Ⅳ-4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안)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세 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운영을 진행하면서 시·군·구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플랫폼 역할을 위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때 협의체 형태는 기존의 부처 사업에 따라 영역별로 시행된 협의회나 위원회 형태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협력망으로서 지역 단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Ⅳ-2 시범사업운영지역·기관 현황 및 특징

지역	기관명	현황 및 특징
곡성군	곡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 극대화(학교 통폐합,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양적 감소) · 곡성군청 내 청소년 지원부서 명칭 변경(복지과→미래혁신과) · 곡성군미래협력교육센터 개소를 통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지원 시도 (2019.3.~)
유성구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인구 수 전국 평균(18%) 대비 35%로 다수의 청소년이 지역에 분포 ·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사업을 시도함으로서 지자체와 청소년시설과의 연계사업을 시도
부천시	부천여성청소년 재단	· 타 시도에 비해 청소년·청년주도 단체 및 위원회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유스거버넌스 청소년 부천에꿈' 사업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더불어 여성청소년재단을 주축으로 한 연계사업 시도

3)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운영을 통해 구축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Ⅳ-3 시범사업운영을 통한 단계별 기대효과(안)

단계	기대효과
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주체 역할·기능 부여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체 간 정보 및 사례 공유를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
3	수평적 의사결정 참여 확산을 위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플랫폼 기능 강화
4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사업 운영 시 간(間)영역적 연계 협력 가능

(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주체 역할·기능 부여

먼저 네트워크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협의체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기관 특성에 따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속 기관들이 단순히 참석만 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기관의 정체성에 따라 역할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기능이 발휘되면서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기존의 지역단위의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일회성으로 진행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기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협의체 내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협의체 참여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범사업운영을 통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에게 각 기구 특성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협의체 참여를 통해 지역 전체 뿐 아니라 기관에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Ⅳ-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별 역할 및 기능(안)

해당기관	역할·기능
청소년수련관	·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재구성 및 운영 ·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해 정책수요자로서의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
청소년문화의집	·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해 정책수요자로서의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일반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상담 채널로서의 기능 확산
학교	·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 ·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	· 「지역교육협의회」운영 · 지역화 교육과정 개발·보급 · 지역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체험학습터 인증 · 교육공동체 담당자 역량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지자체 협력) · 각종 센터의 통합형 지원센터 운영

기초지자체	· 교육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조례 및 제도 정비 ·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 교육협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교육지원청과 협력) ·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지원 · 지역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 밖 학교 운영지원 · 예산 확보 및 지원
도교육청	· 사업총괄기획(사업추진위원회 운영) · 지자체와 MOU추진 · 행·재정 지원 · 지역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 교육주체 간담회 운영
지역사회	· 주민주도 지역교육 네트워크(공동체) 구축 · 교육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 강화 · 지역의 교육적 자원 발굴 및 인프라 구축 참여 · 지역교육 거버넌스 참여

* 출처: 김용련, 이동배, 서정원, (2016). 세종시 ·교육혁신지구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공동체 연구센터, p.34.재구성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간 정보 및 사례 공유를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 확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 기관(시설),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NGO/NPO 등의 민간단체, 기업, 학부모,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였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협의체 내에서 기관의 정체성에 따라 역할을 선정하게 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현황 및 문제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기존에는 특정 영역 기관 담당자 간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반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영역 간 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협력이 가능해진다. 특히 학교 담당자가 협의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 대한 축적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영역에서도 각 영역별 담당자들을 통해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당 청소년이 사회로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3) 수평적 의사결정 참여 확산을 위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는 상당수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위원회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시설도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구성 분포를 볼 때 소수의 지역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공통된 목표와 목적 설정을 위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뚜렷한 공동목표와 목적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간의 소통이 부족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



* 출처: Nancy & Pierre(2004). Governance and Multi-stakeholder Process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4.

그림 Ⅳ-5 이해당사자 영향력과 참여 간의 관계

더불어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양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관 담당자들의 입장과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써의 역할도 필요하다. 단순히 협의체에 가입되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영역의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지역사회 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 및 시설, 혹은 운영주체 및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수평적으로 수렴하고, 각 기관 운영주체의 영향력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플랫폼 역할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4)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사업 운영 시 간(間)영역적 연계 협력 가능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서는 현재 부처별, 영역별로 분절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정책사업 간의 영역 간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협의체 내 역할기능 부여, 정보공유를 통한 수평적 소통 플랫폼 마련, 청소년문제 사례 발굴 및 해결 협력도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정책사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시설 및 기관, 마을교육공동체,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협력하는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천안시가 주최하고 천안교육지원청, 신촌초등학교,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협력하여 운영한 '행복드림체험학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 시설 및 기관에 와서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교 내에 수련관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마을과 함께하는 행복드림체험학교 모습. 충남 천안시 제공.

* 출처: 동양뉴스통신, 2019.1.13. http://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326. 2019.5.20. 인출.

그림 Ⅳ-6 천안시, '행복드림체험학교'운영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 역사탐방, 과학관 견학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협의적인 단위의 연계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지방자치 중심의 청소년 정책사업의 범위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지리정보체계(GIS)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지리적 환경 분석

시범사업 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세 지역(전라남도 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을 중심으로 지리정보체계(GIS)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GIS 분석을 통해서 공공데이터 및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작성한 지역별 자원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역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의 위치 분포 현황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분포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협의체 내 기관 특성에 따라 협력 유형과 연계 방향을 살펴보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참여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협의체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Ⅳ-5 시범사업 운영지역 기관 분석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분석내용
1. 지리정보체계 (GIS) 분석	1) 시범사업 운영지역(전남 곡성군,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지리적 특성 파악
	2)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의 위치 파악 및 밀집도 분석
2. 네트워크 분석	1)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시간 흐름에 따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변화 분석
	2)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유형 패턴 분석

최종 선정된 지역의 지리적 환경 및 기본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해당 지역 내 학교, 청소년 기관, 지자체 관공서,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GIS 분석을 시행하였다. 해당 지자체의 협조 및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도시지리정보 데이터를 수집한 후, R프로그램과 Q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운영지역에 대한 지역의 지리적 환경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세 지역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지 파악 및 밀집도 분석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분석단계라 볼 수 있다.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 분석은 먼저 각 지역 내의 기관 분포를 시각화 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속성, 주소, 협의체 참여 여부로, 이상의 데이터를 매핑 하는 것이 분석의 1단계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각 시설의 주소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데이터 변환에는 국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KAKAO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하였다.



그림 Ⅳ-7 지리정보 매핑과정

1)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곡성군은 1개 읍과 10개 면, 125개 법정리와 272개의 행정리, 49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인구는 29,830('19, 4월 기준) 명이며, 청소년 인구는 4,19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 분석에 따라 기관 중심으로 동북부(곡성읍), 서부(옥과면), 남부(죽곡면, 석곡면)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분포를 살펴보았다. 곡성군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현황과 해당 기관들의 위치데이터를 토대로 공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 곡성군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기준	합계 (개소)	수련관	상담복지 센터	문화의집	지역아동 센터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2019.08	26	0	1	2	7	8	3	4	1



* 출처: 두산백과.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WT.ac=search. 2019.5.22. 인출.

그림 Ⅳ-8 곡성군 지리적 현황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은 상담복지센터 1개소, 문화의집 2개소가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소규모 지역에 속한다. 곡성군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주로 곡성읍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곡성군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면 곡성읍을 중심으로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한 북부 지역에 청소년 기관 및 시설도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학교는 동북부와 서부, 남부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북동부 지역에는 곡성중앙초등학교, 고달초등학교, 곡성중학교, 곡성고등학교, 곡성조리과학고등학교가 있다. 서부에는 삼기초등학교, 입면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옥과초등학교, 옥과중학교, 옥과고등학교가 위치한다. 남부 지역에는 죽곡초등학교, 석곡초등학교, 석곡중학교, 한울고등학교 총 4개교가 있다. 학교의 경우 지역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통·폐합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 숫자 또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곡성군의 경우 지역에 따른 기관 시설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내 교통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 통학버스가 운행 중이다. 한편, 곡성군 내 버스 운영 시간표를 살펴보면 버스가 오후 6시를 전후로 운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곡성읍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교밖청소년이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서부와 남부지역 청소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 지원 차량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한계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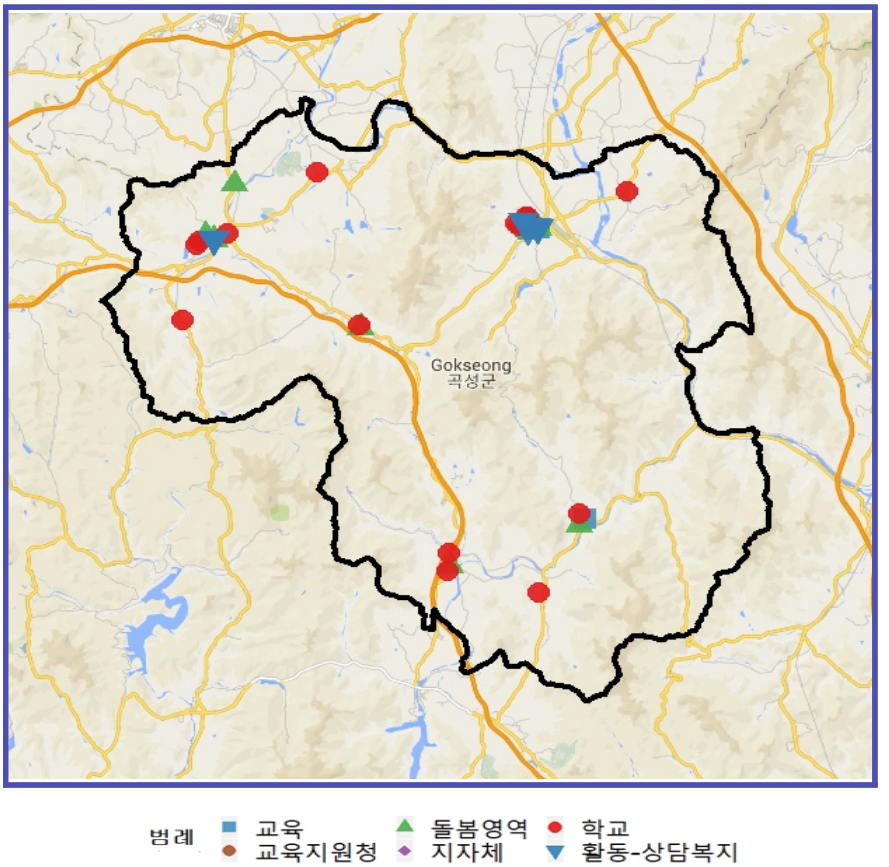


그림 Ⅳ-9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체지역[57)]

57) 범례에 제시된 청소년기관 및 시설분포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이하 동일).
•지자체: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활동-상담복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카페 등
•학교: 초·중·고 **•교육:** 외국어체험지원센터,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돌봄영역:**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음은 곡성군 지역을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지리정보체계(GIS)분석에 따라 권역 구분을 하였으며 동북부, 서부, 남부권 영역을 기준으로 관내 위치한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기관 및 시설 등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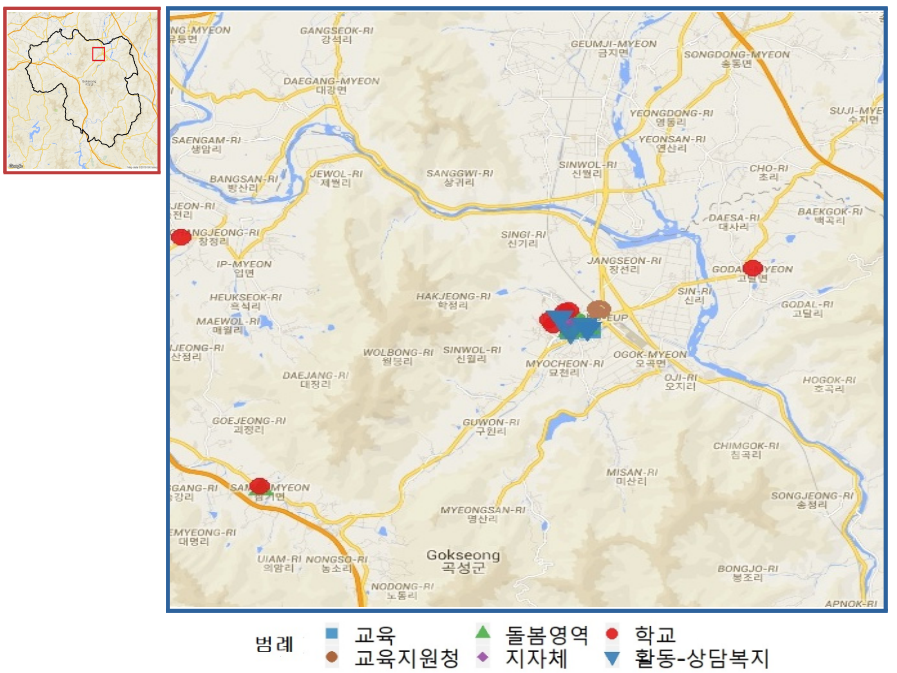


그림 Ⅳ-10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동북부지역



그림 Ⅳ-11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서부지역



그림 Ⅳ-12 곡성군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남부지역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11개의 행정동(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 분석에 따라 기관 중심으로 관평동, 전민동, 장대동, 신성동, 원신흥동, 대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분포를 살펴보았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 전체 인구 1,487,605명 가운데 청소년 인구가 349,802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인구수가 많다.

유성구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현황과 해당 기관들의 위치데이터를 토대로 공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가 각 1개소씩,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있다. 학교는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7개가 분포되어 있다. 전체 청소년(9~24세) 인구밀도가 대전광역시 내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만큼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유형도 다양하고 학교 수도 상당히 많이 분포한다.

표 Ⅳ-7 유성구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기준	합계(개소)	수련관	수련원	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유스호스텔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58]	청소년관련단체
2019.08	26	1	1	1	1	1	1	1	1	22	39	21	17	4

58) 유성구 관내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9개교, 자율고등학교 1개교, 특수목적고등학교 3개교, 특성화고등학교 4개교가 분포하고 있다.



* 출처: 유성구청 홈페이지 http://www.yuseong.go.kr/?page_id=11586 2019.10.20. 인출.

그림 Ⅳ-13 유성구 관내도

기관 유형에 따른 지리 분포를 보면 유성구청은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인접한 서구에 위치하고 있어 두 기관은 지역 경계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이는 활동영역에 소속된 기관과 학교 또한 유성구와 서구 인접 영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유성구 관내에는 유성구 청소년수련관과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 유스호스텔이 인접해 있고,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은 서구에 청소년위캔센터는 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물리적인 지역 경계는 유성구와 서구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생활권 측면에서 보면 유성구 동부와 서구의 서부 지역권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교육지원청도 서구에 위치한 만큼 행정 권역과 별도로 생활권 차원에서는 유성구 중부와 서구 동부 지역 간

청소년 기관 시설간의 교류가 빈번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인접한 위치에 분포한 기관들 간에는 고유 영역을 넘나들며 프로그램 협력이나 인적·물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연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유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유성구 평생학습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 등의 기관 과 단체는 유성구 내에 존재하며 이 기관들의 경우 유성구 청소년수련관과 장대 청소년문화의집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연계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단체인 행복네트워크는 지역적인 근접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협력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편, 다수의 청소년 기관과 시설이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돌봄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유성구 북부 지역에도 위치하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분포 범위가 넓게 퍼져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 만큼 학교는 지역 내 상당수 존재할 뿐 아니라 학교 분포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밀집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유성구 경계를 기준으로 동부권역에 북부와 남부에 걸쳐 학교권역이 띠를 이루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교가 중부권역 서구와의 경계에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활동영역에 포함되는 청소년 기관 및 시설과 학교의 거리가 가까워 두 기관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성구의 또 다른 특·장점으로는 상담복지기관과 활동영역 기관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내에서 물적·인적 자원교류 및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물리적 거리에 따른 부담감이 적어 타 지역에 비해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권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고루 분포되어 있어 이는 학교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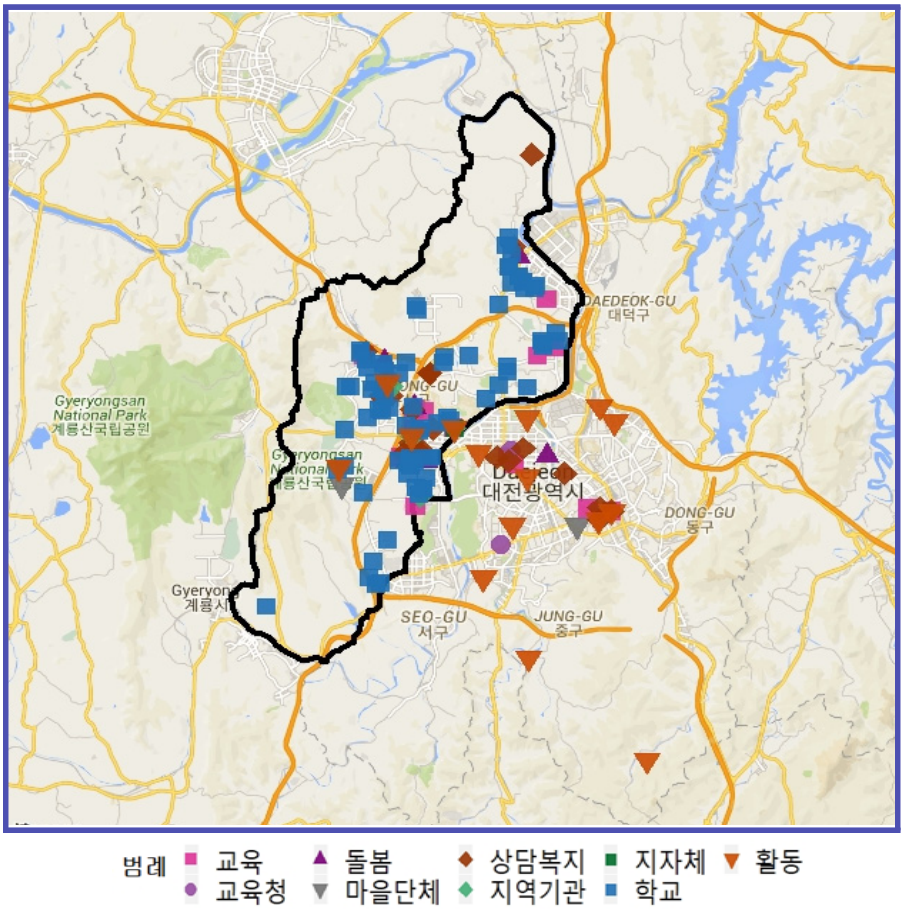


그림 Ⅳ-14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체지역

다음은 유성구 지역을 여섯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지리정보체계(GIS)분석에 따라 권역 구분을 하였으며 관평동, 전민동, 장대동, 신성동, 원신흥동, 대정동 부근 영역에 기초하여 관내 위치한 지자체, 교육지원청, 유성구의회, 학교, 청소년기관 및 시설, 마을 단체 등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5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관평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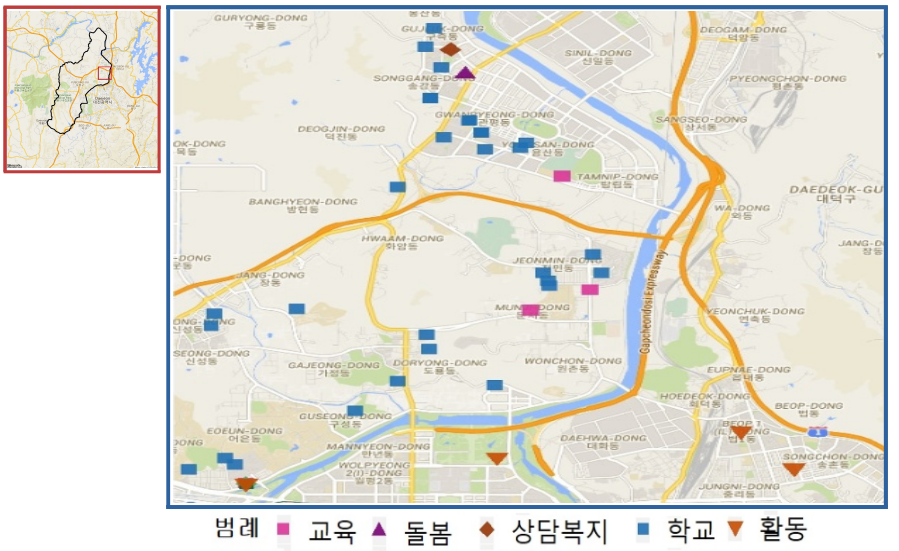


그림 Ⅳ-16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민동 일대



그림 Ⅳ-17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장대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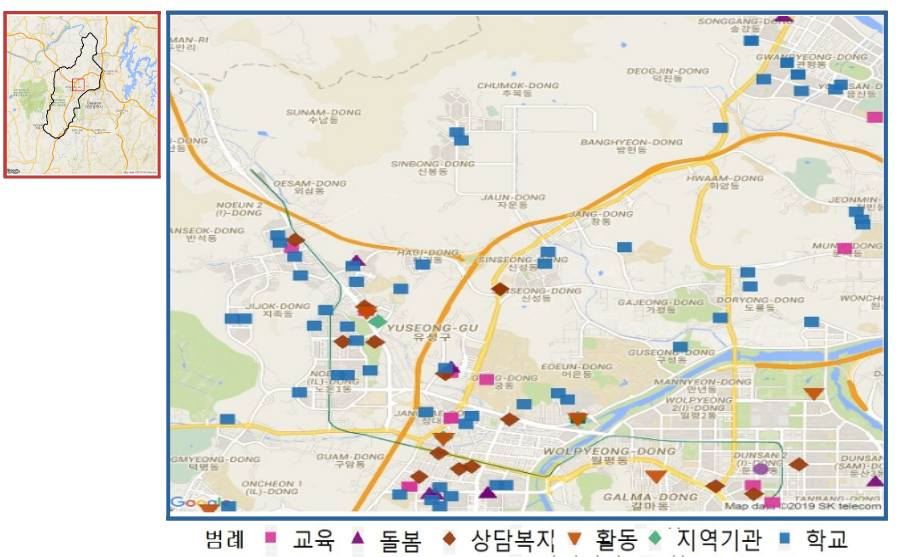


그림 Ⅳ-18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신성동 일대



그림 Ⅳ-19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원신흥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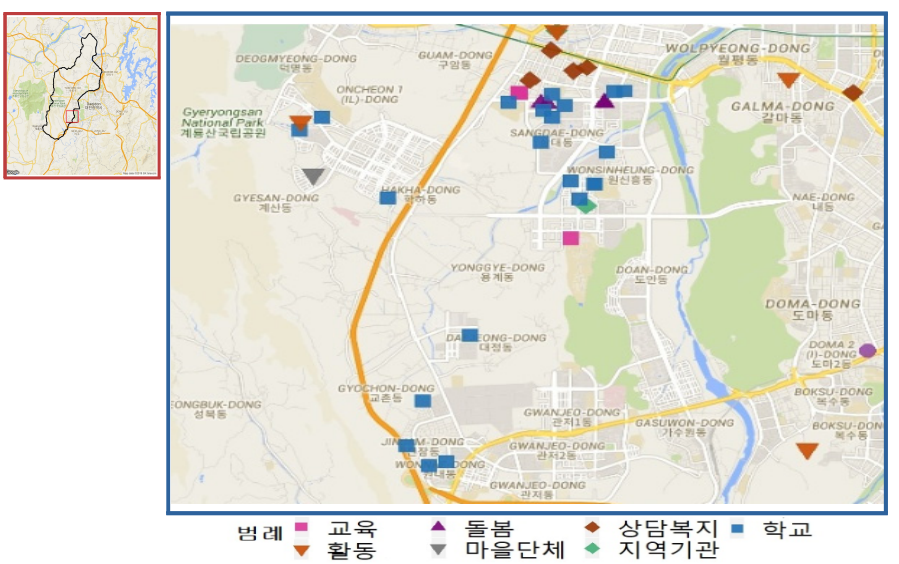


그림 Ⅳ-20 유성구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대정동 일대

3)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있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부천시는 기존의 3개구로 구분되던 행정체계가 2019년 변화되어 10개의 동, 708개의 통, 5,093개의 반으로 구역이 설정되었다. 10개의 동(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에는 전체 836,751명이 거주하며 이 중 청소년(9~24세) 인구는 145,273명이고,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9~18세) 인구는 85,825명으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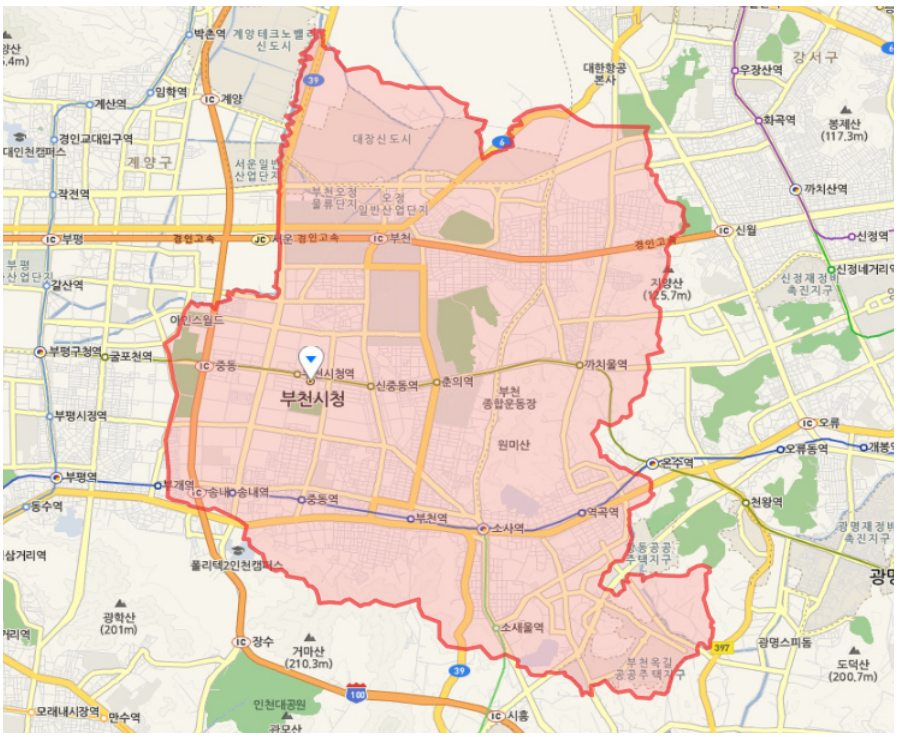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 분석에 따라 기관 중심으로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분포를 살펴보았다. 부천시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현황과 해당 기관들의 위치 데이터를 토대로 공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3개소, 여성청소년센터 1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가 각 2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각 1개소씩 존재한다. 학교는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28개교, 특수학교는 5개교가 분포되어 있다.

전체 청소년(9~24세) 인구수는 145,273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수가 많은 지역인 만큼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유형도 다양하고 학교 수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천시를 관통하는 지역 간 도로교통망을 기준으로 시가지가 3등분되어 있어 지역 간 혹은 생활권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접한 권역이 아닌 경우 청소년들의 이동범위가 한정되는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 Ⅳ-8 부천시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 현황

기준	합계 (개소)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법률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청소년관련단체
2019.03	228	3	3	1	1	2	1	64	1	64	33	28	5	19



* 출처: 네이버지도 https://v4.map.naver.com/?query=%EB%B6%80%EC%B2%9C%EC%8B%9C 2019.10.9. 인출.

그림 Ⅳ-21 부천시 행정도

기관유형에 따른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부천시청, 교육지원청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인접한 거리 내에 분포하고 있어 세 기관 주체 간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활동영역에 속한 기관들의 경우 학교 분포와 유사한 패턴으로 부천시 전역에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접근성이 좋다. 또한 청소년카페도 북부와 남부 지역에 각 한 개씩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도 갖춰져 있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로 중부 지역인 원미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부천시에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나 성문화센터, 일시·단기 청소년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기관들이 오정구나 소사구에도 분포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물리적 거리에 방해받지 않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지원이나 이동식 센터 운영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숫자도 많고 유형도 다양하지만 부천 지역 내 청소년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수의 추가 증설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천시는 관내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인 중동과 상동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천시청과 부천시교육지원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모두 신시가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천시 전체 권역을 중심으로 볼 때 서부권 신시가지 영역에 관련 기관과 시설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추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부천시 전체 권역을 기준으로 일반 다수의 청소년들이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확인해 볼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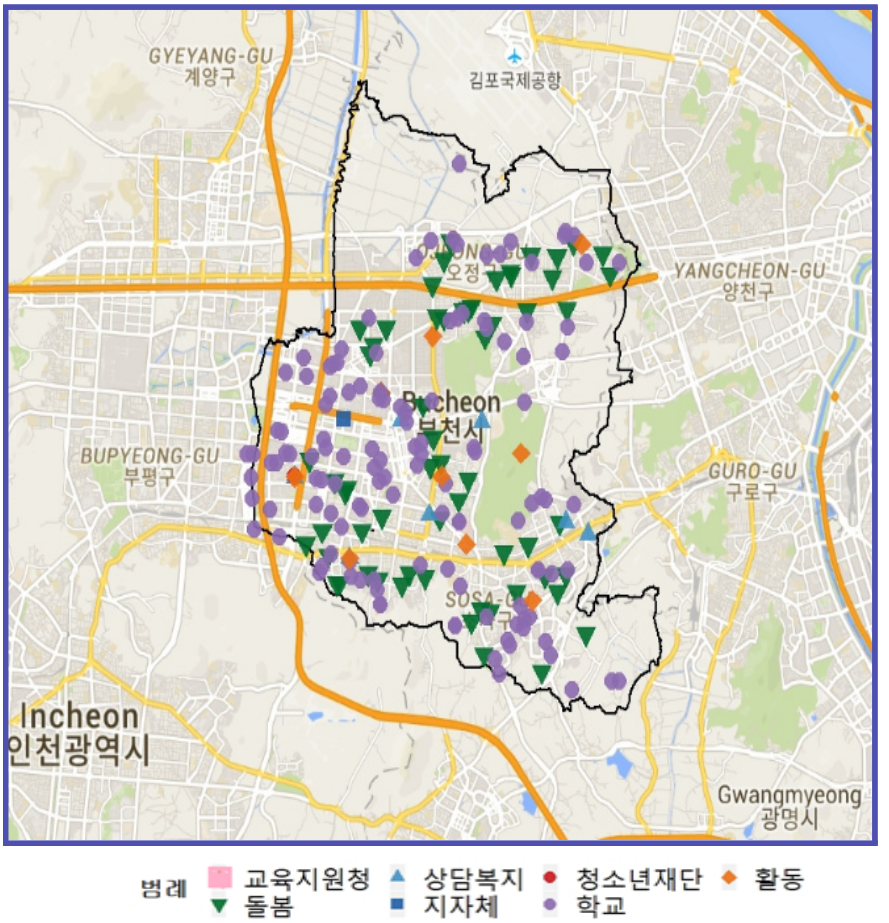


그림 Ⅳ-22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전체지역

다음은 부천시를 세 개의 권역(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지리정보체계(GIS)분석에 따라 세 개로 권역 구분을 하였으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따라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의 순으로 관내 위치한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재단, 학교, 청소년기관 및 시설 등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의 경우 행정구역상 특이사항은 기존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행정권역이 세 개구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기준으로 10개의 광역동을 신설하여 시-구-동 의 3단계 행정체제를 시-동 2단계로 개편하였다.

기존에는 남북으로 구분된 구 체계 기준에서 오정동, 성곡동, 부천동 일부, 신중동, 상동, 중동, 심곡동, 대산동, 소사본동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부천시교육청도 행정동 변경에 따라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초·중학교 통학구역 및 배정구역 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행정동에 따른 기관 개편이 진행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기존에 운영 체계에 기반하여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학교 등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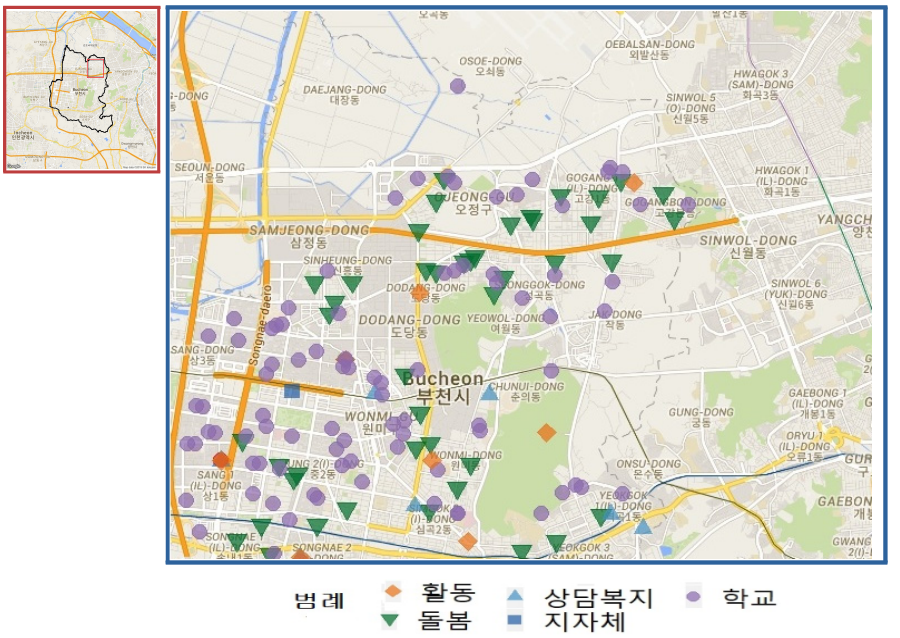


그림 Ⅳ-23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오정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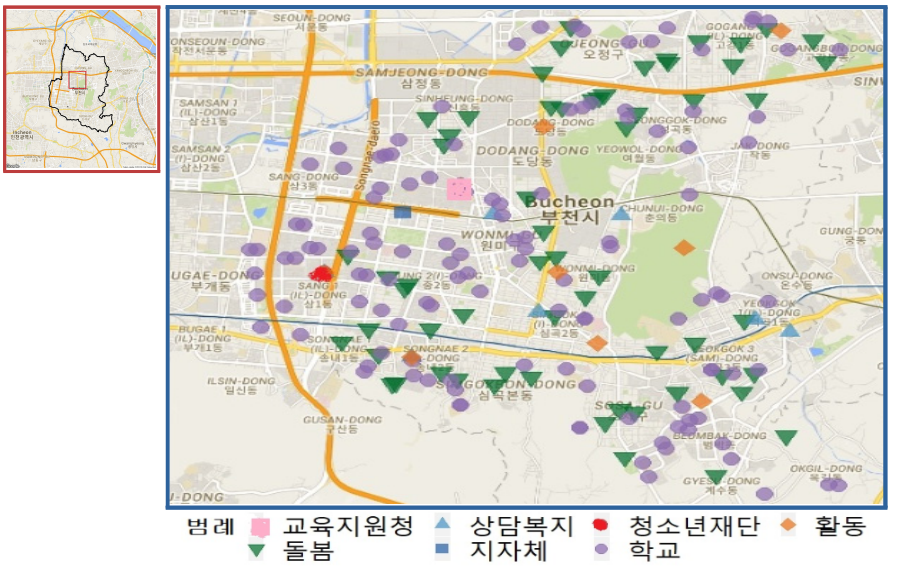


그림 Ⅳ-24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원미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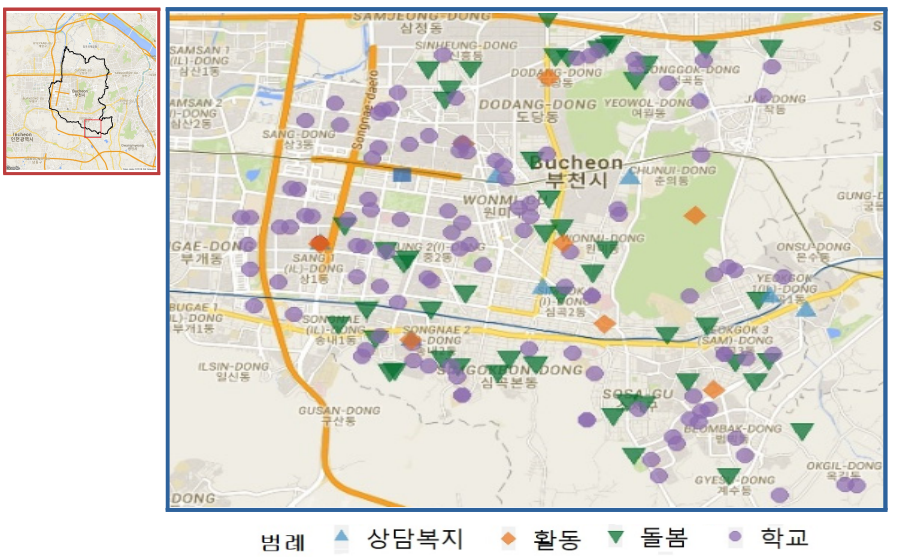


그림 Ⅳ-25 부천시 청소년기관 및 시설 분포- 소사구 일대

3.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사회적 환경 및 청소년 현안 이슈

1) 곡성군

(1) 사회적 환경

곡성군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가운데 구례군 다음으로 인구가 적다. 이는 학교 현장과도 연관이 있다. 2005년 농어촌적정규모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존 28개 학교에서 15개 학교로 조정되었다. 2019년 9월 기준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공립, 사립, 공립대안, 특성화고)가 남아 있다. 3개 중학교를 중심으로 3개 권역(곡성읍, 옥과, 석곡)으로 구조화되어 면단위 학교에서 읍 권역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8년에 실시한 곡성군 청소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손가정에 속하는 청소년 비율이 높다. 또한 가정 유형을 살펴보면 한부모만 동거(9.2%), 계부 또는 계모와 동거(2.3%), 조부모만 동거(3.1%) 등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비율(9.6%)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성군은 3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특색 있는 경제·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아동·청소년의 꿈이 실현될 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도시 교육의 모방이 아닌 곡성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모색해 숲을 활용한 창의교육을 토대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2) 곡성군 청소년 관련 이슈 및 현안

곡성군 청소년 관련 이슈 현안 요약
• 진로직업체험의 확장판: 청소년성장박람회
- 청소년진로직업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성장지원 박람회 정례화 추진
- 청소년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곡성군 내에서 진로 직업을 모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자치
- 청소년 자기주도적 성장지원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방안 모색
• 청소년 자립을 위한 창업과 사회적 경제활동 프로그램 준비
- 청소년 자립 기반의 창업, 사회적 경제 활동 체험 프로그램 진행 및 활성화 노력

먼저 곡성군의 청소년관련 주요 정책 이슈는 지역청소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곡성군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형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에서는 1차년도에 '청소년성장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진로·직업체험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지역 기관과 주민들 다수가 동의 하였다. 이에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의 1차년도 과업 목표로 청소년성장박람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곡성군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기관, 학부모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로 곡성군은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곡성군은 도심지역에 비해 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곡성군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경제적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창업과 사회적 경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나의 예로, 학교 밖 청소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에서도 창업동아리를 구성하고 컨설팅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실제 경제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요리와 관련한 식문화 전반에 대한 생산 활동으로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명 쉐프와 함께 하는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실천적인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세 번째는 곡성군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지역 현안으로 선정하였다. 관내 중학교 3개교(곡성중, 석곡중, 옥과중)를 중심으로 487명의 학생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자기주도캠프를 통해 지자체 내 청소년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참여예산제 등과 같이 청소년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 이슈나 정책, 예산 운영 등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함양하는데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곡성군은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2) 유성구

(1) 사회적 환경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대전시 전체 인구 1,487,605명 중 349,802명(35%)으로 5개구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신도시이다(2019.02. 기준). 전국 기준, 청소년 인구(9~24세)가 18% 인 것을 감안할 때 유성구는 청소년 비율이 30%를 상회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볼 때 청소년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유성구에는 대학교 9개교가 있으며, 17개교의 고등학교와 21개교의 중학교, 39개교의 초등학교가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청소년특화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등으로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시설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행정조직 측면에서 유성구청은 마을자치과, 교육과학과, 문화관광과 3개의 부서를 포함하는 자치혁신본부라는 신설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2019년 3월 기준). 주로 청소년 및 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과를 마을자치와 문화관광과 함께 연계한 것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네트워크에 기반 한 협치를 강조한 조직 개편으로 볼 수 있다.

유성구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활동시설 네트워크,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하는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유성구행복네트워크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연합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회, 중고교 학생회 연합회,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등 청소년 주도로 운영되는 청소년 네트워크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많이 위치하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가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득수준 기준으로 볼 때 중산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유성구

청소년들은 학교 뿐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성구의 특성에 맞게 마을교육의 경험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을 받는 편에 속한다.

(2) 유성구 청소년 관련 이슈 및 현안

유성구 청소년 이슈 키워드에 따른 현안 요약
• 청소년자치
- 학교 자치활동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마을교육 거버넌스 구성
- 청소년 자치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 공유
-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를 소개하는 e-map이 담긴 어플리케이션 제작
• 여가·문화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 청소년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접근 방안 모색
• 진로
- 유성구 내 인적·물적 자원 인프라 정보 수집 및 공유 – 사람책 구성,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진로·직업체험교육 방안 마련
- 지역사회 진로체험 공간 확보 및 재능기부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 학교와 지역사회(마을)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구성
• 학교교육
- 학교 공간 개방을 통해 마을과 협력하는 교육방안 구축
- 아침식사, 간식, 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서비스 마련
- 방과후 돌봄, 방과후 활동 지원
• 환경·복지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 공간 마련 확대
-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관리를 위한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구축
• 교통·안전
-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귀가차량 공유 및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고민
- 청소년 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연계 확대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버스 운영 지원 및 노선 변경 방안
-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상황에 따른 체험형 안전교육 방안 마련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이슈에 관심이 높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이슈(청소년자치, 여가·문화, 진로, 학교교육, 환경·교통, 복지·안전)의 청소년 현안을 지정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자치활동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자치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로 다루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른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할인제, 청소년 문화의 날 등의 정책 제안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마을) 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자체 단위로 시행하는 관련지식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사람책 또는 휴먼 라이브러리 적용 방안과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진로·직업체험 교육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도 이루어졌다.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식사, 간식, 급식 등을 통한 식문화 개선 방안과 방과후 돌봄, 방과후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환경·복지 영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 지원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청소년 발굴을 우선시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의 필요성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교통·안전 영역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고, 청소년 기관·시설이 주로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학교나 청소년 기관·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강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체험형으로 전환하여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성구는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인구가 많은 만큼 그에 따라 청소년 이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산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대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교육 전반 영역에 관심이 높고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진로·진학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성구 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청년 세대 연계와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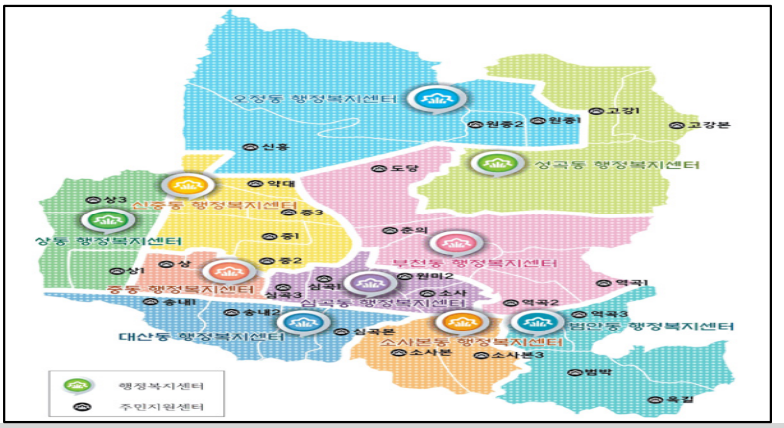
3) 부천시

(1) 사회적 환경

부천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사이에서 베드타운의 성격을 지닌다. 신시가지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나 정주의식이 약하여 빈번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지역발달 과정에 따라서 중·상동 중심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공공주택 지구로 조성된 옥길지구 등으로 지역 특성이 발생하여 생활 격차 또한 존재한다.

부천의 총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836,751명으로 인구 밀도는 16,270명/km^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유소년 인구 부양비도 23.1%로 전국 평균인 22.8%보다 높다. 청소년 인구 또한 (9세~24세) 총 141,142명으로 남자는 72,679명(1.5%) 여자는 68,463명(48.5%), 청소년보호인구(9세~19세)는 83,239명(10.0%)의 비율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천시의 행정구역은 기존 3개구(원미, 소사, 오정)를 기준에서 2016년 7월에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3개의 구청을 대신하여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부천시는 2019년 7월 조직개편을 공포하여 본청 1실 5국 42과 188팀으로 개편을 시행하였다. 청소년담당부서는 아동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다. 기존 여성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부서를 개편하면서 아동친화도시조성, 청소년정책 개발 및 지원, 청년정책 종합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청소년전담관을 지정되어 전담관이 3년간 지속적으로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광역동 단위에서는 마을자치과, 민원위생과, 희망복지과(지역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생활안전과, 친환경과 5개과로 운영된다.



* 출처: 부천시 광명동 소식 제3호, 부천시 자치행정과.

그림 Ⅳ-26 부천시 행정구역(행정복지센터)

이와 같은 행정체제의 변화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도 맞물려 기존의 고정된 영역에 한정된 업무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융합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 출처: 부천시 자치행정과. (2019). 부천시 광명동 소식 제3호,

그림 Ⅳ-27 부천시 광역동 안내

부천시 관내 학교는 총 133개교로 초등학교 64개,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28개,

기타특수학교 5개와 4년제 종합대학 2개와 2년제 전문대학 2개가 있다. 청소년기관 및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쉼터 2개소, 전국최초 청소년법률지원센터 1개소 총 10개의 청소년 전담기관이 7개의 광역동에 분포되어 있다.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교육과 청소년기관 및 시설 인프라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청소년재단 형태로 청소년기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표 Ⅳ-9 부천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현황

구분	기관명	비 고
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재단출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재단출연
	소사청소년수련관	재단출연
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재단 수탁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YMCA위탁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재단출연(청소년카페 2개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미센터, 소사센터, 오정센터)	재단출연(3개 센터운영)
청소년쉼터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	여자쉼터_모퉁이/가톨릭단체 성심수도회 위탁
	부천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_별사탕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위탁
전문기관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세상을품은아이들 위탁
기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재단출연

부천시가 다른 지역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기존 청소년 네트워크 및 청소년 기관·시설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 지도자 네트워크는 청소년전담시설 중심 직무에 따라 청소년시설 기관장 회의와 청소년시설 중간관리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 실무자 네트워크, 자치조직(동아리) 실무자 네트워크, 거리청소

년네트워크,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네트워크, 노동인권 네트워크, 청소년 참정권 네트워크, 청소년연합축제 운영 네트워크,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준비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내 현안이나 행사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관련 네트워크가 유동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과 관련한 영역으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햇살 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6개 지역에 아동청소년 실무자 네트워크가 있으며, 교육복지 운영 학교, 복지관,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상담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이 운영 중에 있다.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평생교육, 사회적 경제, 고용, 보육, 자원봉사 등 전 분야를 망라한 협의체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의료기관, 상담시설, 청소년시설, 경찰서, 보건소 고용지원센터 등을 망라한 연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혁신교육포럼은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 관계자, 학부모, 지역교육활동가 대상 마을과 지역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모색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 도시, 교통, 경제, 복지, 교육, 여성과 청소년, 시민실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천의 의제를 만들고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천시는 지역사회 단위로 활동하는 협의체·위원회 네트워크 및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인 푸른모임은 2007년부터 지속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토대로 현장중심의 정책개발을 하는데 일조하였다. 2013년부터는 푸른모임 정책연구회와 청소년 전문가가 결합하여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5년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됨에 따라 해당 역할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청소년기관 중심으로 청소년생활실태조사 TFT를 구성하여 청소년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청소년의제개발 워크숍을 통해 지역과 공통의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현장 및 학계 전문과와 더불어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청소년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행정가 중심의 청소년 정책수립이 아닌 지역주민이 정책수립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천시는 재단형태로 존재하는 청소년기관 네트워크와 더불어 기존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공기관 과의 연계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청소년 정책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통된 목표와 목적의식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이슈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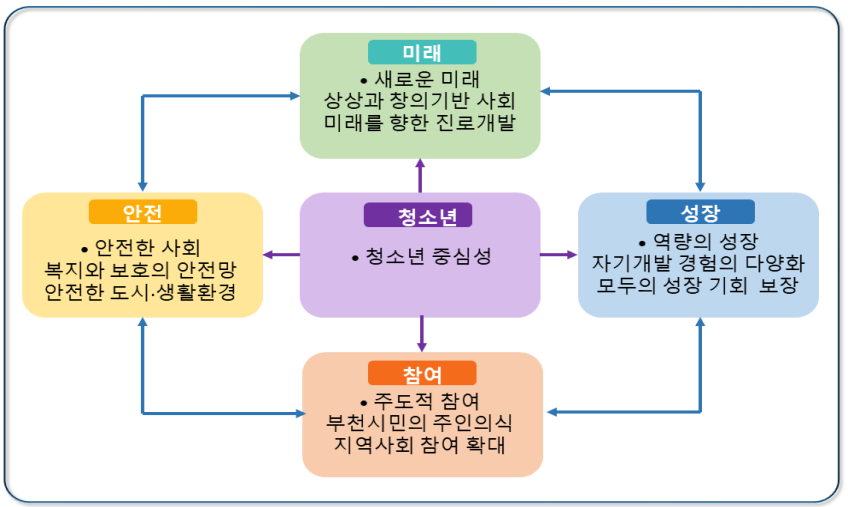
부천시 청소년 이슈 키워드에 따른 현안 요약	
부천시 청소년 환경실태	• 안전·환경 -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보다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 관계형성 - 가정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수준은 높은 반면에 지역사회 인적 관계망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연계 사업이나 프로그램 마련 • 건강·교육·여가환경 - 성별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 교육, 여가 등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모색 중 • 삶의 만족(웰빙) - 성별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청소년 복지지원 방안의 재탐색을 시도 • 참여환경 -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부천시 청소년 정책 현안 목표	•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성 - 부천시 청소년 대상의 중장기 차원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 부천시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에 따라 시민의식 함양도 동시에 요구 • 생활환경 만족도 증진 -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마련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 이슈 키워드에 따른 현안 요약	
	생활환경 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청소년 진로역량 지원 - 청소년의 진로역량 개발에 있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고, 다수의 청소년이 각자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이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행복 마을지표 개발 연구[59]에서 원 도심 지역에 맞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제시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도심 중심으로 청소년 삶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유해환경제거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역주민 의식조사, 청소년 안전마을 지도 제작, 청소년이 변화시키는 마을참여연구소, 친화마을 만들기 토론회 등 '청소년친화마을 만들기'위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조성사업을 하였다.

향후 부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지원정책개발,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타인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보건 및 안전 환경 개선과 바람직한 양성평등 의식교육, 낮은 경제적 여건 가정에 대한 부천시 차원의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 청소년관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17년 청소년생활실태조사로 청소년 생활실태의 변화양태를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청소년지도자 의견조사, 의제개발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으로 결과를 통해 부천시 청소년정책을 발굴하였다.

59) 반기완, 이상화, 양승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행복 마을지표 개발연구(원미동을 중심으로)(2016)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출처: 김정주, 김혁진(2017). 부천시 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p.206.

그림 Ⅳ-28 부천시 청소년정책 개념에 따른 모형체계도

이를 통해 부천시 청소년정책 개념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부천시가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청소년 주류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부천시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에 대한 목표를 "청소년정책의 주체이자 주인의식을 가진 부천시민으로서 청소년이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위해와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변화를 위한 상상과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자신과 부천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를 위한 모든 자원의 지원과의 연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 '참여', '성장', '미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시범사업 운영 지역(곡성군, 유성구, 부천시)의 사회적 환경과 지역 청소년 관련 이슈 키워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0 시범사업 운영지역 사회적 환경 및 지역 청소년 현안 키워드

시범사업 운영지역 사회적 환경 및 지역 청소년 현안 키워드 요약		
지역	**사회적 환경**	**지역 청소년 현안 키워드**
곡성군	• 고령화, 인구소멸지역 당면함 • 구조적 결손가정 아동·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과 학교부적응 문제 발생 • 지자체 중심으로 곡성군 특성에 맞는 성장지원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센터설립 • 청소년 성장을 위해 마을 전체가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	• 진로직업체험의 확장판-청소년 성장박람회 • 자기주도적 성장과 청소년자치 • 청소년 자립을 위한 창업과 사회적 경제활동
유성구	• 대전광역시 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며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신도시 • 청소년 비율(30%)이 높고 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 많음 • 중산층이 상당수 분포하고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 높음 • 청소년 기관 및 시설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존재함	• 청소년자치 • 여가·문화 • 진로·진학 • 학교교육 • 환경·복지 • 교통·안전
부천시	• 서울시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많아 베드타운의 성격을 지님 • 오랫동안 정주하기보다는 타지역으로의 거주이동비율이 높음 • 경기도 내 인구 비율이 높고 청소년인구 또한 상대적으로 높음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내 지역 생활 격차가 나타남 • 기존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지역단위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작동함	• 안전환경 • 관계형성 • 건강·보건·교육·놀이/여가환경 • 참여환경 •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의식 • 생활환경 만족도 증진 • 청소년 진로역량 지원 • 청소년 맞춤형 지원서비스

4. 시범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추진경과

1) 곡성군 - 지역 내 청소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

곡성군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팀을 신설하였고,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청소년과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 12월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 3월에 개소한 미래교육협력센터에는 곡성군청과 곡성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모두가 행복한 곡성교육'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르게 성장하는 창의 교육, 꿈을 실현하는 진로 교육, 안전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온 마을이 배움터 · 마을교육공동체, 곡성이 좋아서 들어오는 농촌 유학이라는 5가지의 전략 목표를 토대로 진행 중이다. 곡성군은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교육 수요자 대상의 요구에 맞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곡성군은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발굴을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 유관기관의 현황과 타 기관 교류협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존에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통합 모델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청소년 성장 지원' 추진 체계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공유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기관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기초협의체 실무진을 구성하여 5~6회의 회의를 거쳐 논의를 구체화시켰다. 지자체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꾀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청소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킹하고 연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등),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결속을 위한 구체적 과업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박람회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표 Ⅳ-11 시범사업운영지역(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연번	기관유형	기관 소속	직 위
1	지자체	곡성군청	미래교육팀장
2		곡성군청	주무관
3		곡성군청	주무관
4		곡성군청	드림스타트 실무자
5	교육지원청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장
6		곡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장
7		곡성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
8	학교 (교육)	곡성고	교사
9		옥과고	교사
10		곡성중	교사
11		석곡중	교사
12		옥과중	교사
13	청소년기관·시설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4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자
15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6		곡성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7		곡성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18		곡성군학교밖청 소년지원센터	팀장
19	사회복지기관·시설	곡성군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센터장
20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21		청소년의회(옥과중)	의장
22	사단법인재단	(사)한국B.B.S. 곡성군지부	지부장
23	마을공동체	청소년민간전문가	사람책(건축가)
24		청소년민간전문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25		청소년민간전문가	마을학교연합회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하기까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곡성군청, 청소년 유관 기관이 모여 업무회의를 진행하였다. 곡성군청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목표와 조정하면서 협의체 구조와 역할에 대하여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1차년도에 시행할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과제로 '곡성청소년성장박람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성장지원단' 명칭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 이후 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단체와 관련 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회의와 매월 1회 정기협의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소년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이 성장박람회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성장박람회 때 청소년 자치부스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 운영 부스 등을 포함하여 행복 나눔존 등 12개 부스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운영 부스는 곡성군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주제로서 청소년 미래존(진로·직업), 교육존(창의·융합교육), 마을공동체존(마을학교 등 마을 네트워크 운영), 행복나눔존(청소년 주도 운영) 으로 구성하고, 오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주민 축제 요소도 추가하였다. 1차년도에는 이와 같이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중심으로 곡성군 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차년부터는 중장기적 차원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 있다.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력 있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면서 범위를 확장해 간 것은 강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짧은 시간동안에 추진이 이루어지다보니 참여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은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Ⅳ-12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회의일정 (차수)	추진 단계	회의안건	논의사항
06.26 (1차)	도입	· 곡성청소년성장박람회 목적과 방향 설정, 구성에 관한 협의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통한 참여자 의견 수렴 방식 채택)	·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청소년 중심으로 준비 운영을 하는 방안 ·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지속가능한 청소년성장지원 방안 모색 ▸ 주체별 역할 분담, 의제를 고려한 박람회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구성
07.16 (2차)		· 청소년성장박람회에 대한 기초 정보 공유 · 청소년 수요/요구조사 결과 분석 공유	· 청소년성장박람회에 대한 청소년 수요/욕구조사 결과 4개영역에 따른 성장지원존(zone) 설치 확정- 청소년미래존, 창의융합교육존, 마을공동체존, 행복나눔존 · 대학과 연계하여 고2학생 대상으로 진로·직업 멘토링 운영 계획 논의 ·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곡성형 마을학교 만들기를 통한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논의
07.31. (청소년TF)	전개	· 청소년성장박람회 준비를 위한 청소년 TF 구성원 선발 및 홍보방안 논의	· 지역 청소년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기획, 운영을 주도할 청소년 선발 방안 논의
08.14.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TFT)		· 청소년어울마당 기획 논의 · 지역사회 비영리법인 (사)B.B.S.와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 · 청소년원탁토론회 준비	· 기존 (사)B.B.S.에서 진행한 청소년가요제를 청소년성장박람회 어울마당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안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논의 · 청소년 TF구성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박람회의 의미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08.21. (3차)		· 청소년원탁토론회 형태 진행 · 곡성군 청소년대상 구체화된 논의 방향 설정	· 지역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부스 영역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결정 -부스명, 운영방식, 참여자 역할 분담, 운영 준비사항 및 예산 결정
08.28 (4차)		·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실질 운영 방 논의 · 운영, 홍보, 지역자원 연계 협력 방안 모색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행정지원, 행사운영, 홍보, 기관 연계 방식 논의 결정 ·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지역 기반 청소년 위원회, 협의체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박람회 부스 운영방안 논의
11.1	마무리	청소년성장박람회(예정)	일 시 : 2019. 11. 1. (금) 장 소 : 곡성문화체육관 및 운동장 주 최 : 곡성교육지원청 주 관 : 곡성진로체험지원센터(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후 원 : 곡성군
11.8.		청소년성장박람회 평가회의 (예정)	

2) 유성구 -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청소년 성장과 교육 네트워크 연계

유성구는 2019년 3월 자치혁신본부를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과,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를 하나의 본부 소속으로 하여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였다. 이는 청소년 정책이 교육과 마을자치와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성구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1차년도 과업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단위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설명회를 통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유성구청, 유성구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청소년기관 및 시설, 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자 등을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실질적인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청소년 기관 및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협의체를 구분함으로써 중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계획하고 운영하였다.

청소년 기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로·진학 관련 사업 수요가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지역 청소년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학부모 맘카페와 아버지활동가 등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학부모도 청소년 성장지원의 중요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하기까지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플랫폼으로 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시작하였다.

표 Ⅳ-13 시범사업운영지역(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연번	영역	기관소속	직위
1	지자체	유성구 교육과학과	과장
2		유성구 마을자치과	과장
3		유성구의회	구의원
4	청소년참여기구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5		유성구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위원
6		청소년운영위원회 유별난아이들	위원
7	교육분야	교육청 혁신정책과	장학사
8		목원대학교	교수
9		대전진학지도협의회	대표
10		반석고등학교	교장
11		유성초등학교	교사
12		대전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위원
13	학부모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마을협동조합	대표
14		대세맘·도담도담 맘카페	대표
15		함지박	대표(아버지활동가)
16	청소년 기관·단체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관장·센터장
17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8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9		유성구유스호스텔	소장
20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21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원장
22	지역 민간단체	유성구 마을공동체 마을넷	대표
23		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	대표
24		노은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25		사회적기업페토	대표
26	복지·보호 분야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27		행복네트워크 아동청소년분과	분과장
28		유성구보건소	과장
29		CYS-net	위원
30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준비하는 마을 네트워크인 마중물(마을교육공동체)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와 유성구청소년기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구축해갔다. 또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은 기존의 CYS-Net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지역 내 학교를 포함한 기존에 연결이 어려웠던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공동의 목표 설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시작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1차년도 운영 모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유성구의 특색을 살린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을 기획·운영하였다. 매주 수요일 컨설팅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실무단(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정리하였다.

표 Ⅳ-14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회의일정 (차수)	추진 단계	회의안건	논의사항
5.24 (실무진 회의)	도입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한 담당자 준비회의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발굴 계획 수립 ·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자문위원 추천 및 초빙 계획 수립 - 담당자 역할 분담,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진, 자문진 구성

회의일정 (차수)	추진 단계	회의안건	논의사항
06.01. (청소년네트워크)		· 1388 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토의	·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에서 1388 청소년지원단의 역할 논의 ·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목표 수립을 위한 청소년 의견 수렴
06.08. (설명회1)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설명회(1) 및 업무협약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의 목표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 · 청소년 진로·진학, 학교밖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합 연계 협력 기틀 마련
06.12. (설명회2)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설명회(2) 및 학습모임 진행	·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시·구의회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 등 대상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요 주체들의 참여 독려 · 혁신교육지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의 연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학습 모임 진행
06.13. (설명회3)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설명회(3)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존의 지역사회 단위 협의체인 행복네트워크 아동청소년 분과 담당자들과 논의 - 유성구 청소년 복지 체계 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결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 모색
06.20. (1차 협의회)	전개	·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1차 협의회 개최	·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기관) 소개를 통한 기관(단체)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 교육청 담당 실무자의 참석을 통해 청소년 사업과 교육사업 연계 협력을 통한 기반 마련 ·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마을교육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06.27. 07.02 (실무진 분과회의)		· 1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평가 및 추후 일정 점검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행정지원, 지역사회 토론회 운영, 홍보, 기관 연계 방식 아이디어 논의
07.18. (2차)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대상 2차 회의	·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의미와 목표 설정 · 마을지역네트워크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 논의

회의일정 (차수)	추진 단계	회의안건	논의사항
07.24. 08.07. 08.10. (실무진 분과회의)		·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준비 회의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및 실무진 중심으로 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진 분과회의 진행
08.20. (토론회/ 3차)		·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토론회 및 3차 성장지원협의체 회의	· 유성구청 회의실에서 관내 청소년과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실시 1부에서는 '마을과 학교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청소년과 기관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 2부에서는 분야별(자치, 여가, 환경, 진로, 학교, 교통, 복지, 안전 8개 분야) 토의 및 토론을 실시 · 지역사회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제시된 토의·토론 자료를 바탕으로 3차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회의를 진행 지역사회 단위로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08.29. (전문가 자문회의)	마무리	·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 청소년 현장·학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기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결과와 지역사회 토론회 때 제시된 지역청소년 및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유성구에 적합한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목적, 접근방법, 대상, 내용 등)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기존의 지역사회 협의체 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청소년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협의체 운영 필요 -지속가능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대한 논의
09.17. (4차)		·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및 모델 구축(안) 마련	· 지역사회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및 모델 구축(안) 마련
10.02. (최종보고회 평가회의)		· 시범사업 운영 기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보고 및 추후 활동 논의	·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최종 경과보고 ·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모델(안) 발표 및 의견 수렴

3) 부천시 - 청소년 기관(재단) 중심 형태의 지역사회 연계

부천시 청소년 관련 인적·물적 자원은 2015년 11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2017년 소사청소년수련관 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과 함께 청소년자원을 둘러싼 부천시 공공 및 민간 청소년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기반과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부천시에서는 1차년도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플랫폼으로 삼아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간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부천시청과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다른 지역의 경우,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형성해가는 성격으로 시도하였다면, 부천시의 경우는 기존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이를 다른 영역과 연결 짓기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을 통한 연계가 아니라 기존 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공통의 목적의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작용하였다.

표 Ⅳ-15 시범사업운영지역(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연번	분 야	기관소속	기관장 (담당자)	실무자
1	지자체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팀장	주무관
2	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	장학사	장학사
3	청소년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실장	차장
4	청소년기관·시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차장
5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	부장
6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차장
7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일시형)	관장	소장

연번	분 야	기관소속	기관장 (담당자)	실무자
8		부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관장	과장
9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팀장
10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부장
11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	차장
12		소사청소년수련관	관장	부장
13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과장
14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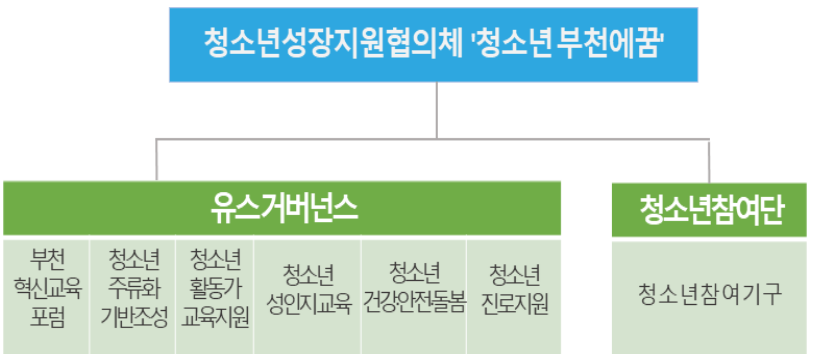


그림 Ⅳ-29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조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하기까지 추진경과는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분기별 1회(연 4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공유 및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되었다. 동시에 월 1회 청소년시설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회의 의제별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부천 네트워크 현황 참고) 회의를 통해 지역의 이슈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단을 주축으로 청소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차세대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 교육의회, 각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의제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시장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역사회 청소년,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담당자, 활동자, 마을교육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이슈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필요한 교육과 워크숍으로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사업으로 부천혁신교육포럼을 연 2회 진행하면서 부천교육의 현안을 제도권 안과 밖의 관점에서 토론하면서 부천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 돌봄을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도하여 청소년유관기관 연합 거리상담 '거리청소년지원사업'을 하반기 2회 진행하여 부천의 가출,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기관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1차년도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주로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청소년기관 중심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유지되어 온 것을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기존의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이들의 연계를 이어주는 작업을 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와 부천교육지원청의 초중등교육지원과는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협업함으로써 협의체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주류화의 초석으로 청소년 권리와 책임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2019년 10월 기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기관인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주도하여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 등은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 중에 있다.

표 Ⅳ-16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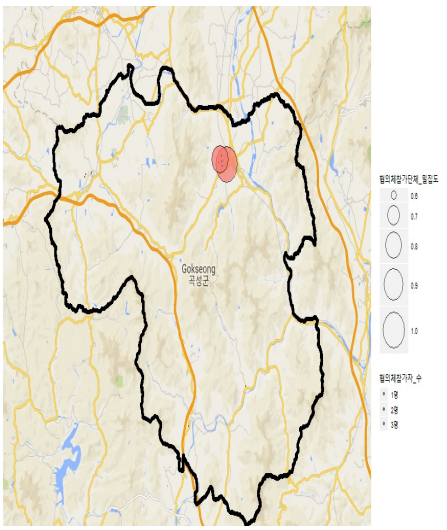
회의일정 (차수)	추진 단계	회의안건	논의사항
06.28. (1차 협의회)	도입	·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청소년기관 의견 조율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부천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및 모델 필요성에 대한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
07.09. (시설장회의)		· 기관 별 사업 공유 및 부천시 청소년 관련 현안 과제 논의	·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장 중심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 소개 및 진행사항에 대한 공유 및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시도
07.18. (중간관리자회의)		· 유스거버넌스 청소년 부천에꿈 진행사항 공유	· 지역사회협의회 청소년분과 워크샵 논의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일정 공유
08.01. (청소년 참여단 회의)		· 청소년참여단 시장과의 만남 간담회(08.07) 준비	· 부천시장과의 만남을 통한 간담회 때 청소년 관련 안건 준비 및 구성 · 하반기 청소년네트워크 연합활동 논의
		· 부천시 청소년네트워크파티 구상 및 세부계획 수립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발굴 및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파티 운영 계획 수립
08.07. (시설장 회의)	전개	· 기관별 사업 공유 및 부천시 청소년 관련 현안 과제 논의	· 청소년참여단과 부천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부천시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시설장 회의
08.09. 08.14. (실무진 회의)		·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세부계획 논의 및 구성	· 부천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마을 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킹 수립을 위한 기회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08.16. (청소년참여단회의)		·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실질 운영 방안 논의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현안 논의	· 부천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08.28. (부천시청소년네트워크파티)		· 부천시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시행	· 부천시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가, 마을 공동체 구성원 다수를 대상으로 교류의 장을 마련 ·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협의체 기능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청소년 중심의 협의체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
09.10. (분과 회의)		· 부천시청- 교육지원청-부천여성청소년재단 기반의 교육포럼 준비 기획	· 지역교육포럼(안) 진행계획 협의 · 부천시 청소년 교육문제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을 위한 노력 방안 제고
09.19. (분과 회의)		· 연합거리상담을 위한 준비회의	· 부천시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연합거리상담 프로그램 사업 준비
10월중 (최종 평가회의)	마무리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보고 및 추후 활동 논의	·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최종 경과보고

(4) 시범사업 운영 지역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밀집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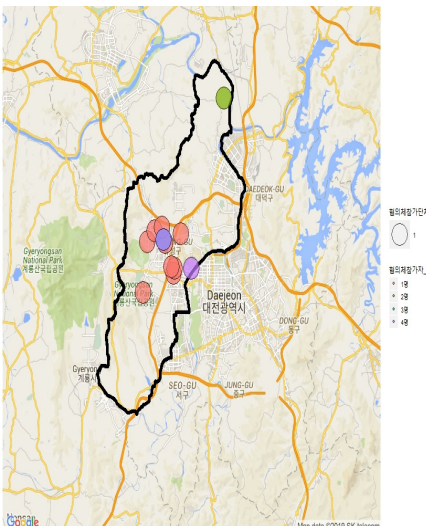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분포 뿐 아니라 시설의 속성별, 협의체 참여여부에 따른 시설의 분포 편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어떤 곳이 더 취약한지, 혹은 더 밀집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Ⅳ-30]은 세 개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한 위원의 소속기관 위치를 토대로 해당 지역 내 밀집한 정도를 시각화한 지도이다. 밀집도 값은 시설의 편향 정도를 추상화한 값으로서 1의 값을 가지는 곳이 지역 내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밀집도는 R의 aggregate methods를 이용하여 속성별 기관의 응집도를 구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곡성군의 경우,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다수의 청소년기관 및 시설이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 및 시설, 단체도 대체적으로 북동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성구도 장평동, 신성동, 원신흥동 부근을 둘러싼 중부 지역에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해당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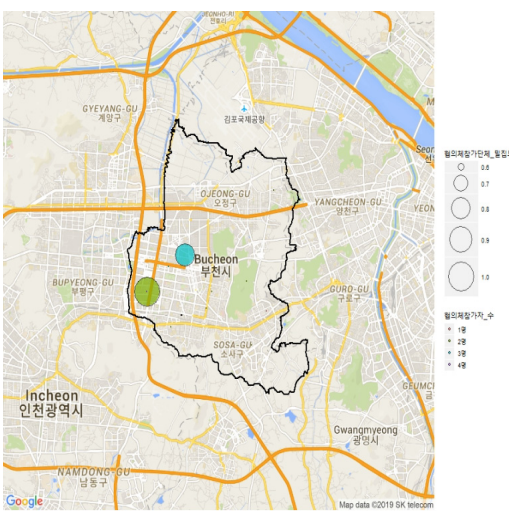
반면, 부천시의 경우 앞서 제시한 두 지역과는 다르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는 주로 청소년기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되는 두 개의 거점이 부천시청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 및 단체 분포를 통해 볼 때, 협의체 활동이 지속적 운영될 경우 협의체 기관 분포범위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특정 계층 청소년에 한정된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일반 다수청소년 다수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곡성군



유성구



부천시

그림 Ⅳ-30 시범사업 운영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밀집도

시범사업 운영 지역(곡성군, 유성구, 부천시)의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특성과 추진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7 시범사업운영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특성과 추진경과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특성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곡성군 (지자체 중심)	**[지역 내 청소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 공동의 목표 및 목적 합의 도출과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으로 연계 실시 ·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중심의 행정 추진력과 청소년기관,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 민간단체 중심의 실행력의 결합 · 군 단위 청소년 실태와 요구조사 이전에 청소년 진로·직업, 자립·활동참여 영역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을 위하여 1차년도에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성장지원의 구심점을 구축한 다음, 순차적 진행계획 구상	· 곡성군청-교육지원청-청소년유기관 연계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를 시작 → 교육지원청-지자체 연계 청소년 성장박람회 기획 추진 결정 → 실무코디네이터 선정 이후,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 → 청소년 유관기관,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및 단체 연계협력 → 청소년성장지원단으로 구조화 하여 역할 분담 → 청소년성장박람회 (2019.11.1.) 개최 → 성장박람회 및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1차년도 평가회의 예정
유성구 (청소년 기관 중심)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청소년 성장과 교육 네트워크 연계]** · 유성구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각 기관·단체 대표자 협의체와 실무자 협의체를 구분하여 구성 ·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진로·진학 관련 사업의 수요가 높음 ·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활성화 · 청소년 네트워크, 학부모 맘카페, 아버지활동가 등의 높은 참여로 인하여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청소년, 학부모) 중심의 성장지원협의체 구성	· 청소년수련관 중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준비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발굴 및 설명회 실시 → 업무협약 추진 등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 시행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한 기관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사업 계획 논의 → 지역사회 청소년 및 주민 대상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토론회 실시 → 청소년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시범사업운영 평가회의를 통한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및 모델(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계획 논의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특성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경과
부천시 (청소년 재단 중심)	**[청소년 기관(여성청소년재단) 중심의 강한 네트워크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 부천시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위한 중장기방향을 설정하여 유스거버넌스 5개 분과와 청소년참여단 운영을 계획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참여하는 기관이외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의제 추진을 위한 기획단 운영 · 부천시는 청소년 전담기관의 시설장 회의, 중간관리자 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분과별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논의되어왔던 의제들이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취합되면서 지역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협의체의 활성화 기반 마련	·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및 단체 발굴 및 사업 설명회 실시 → 청소년기관 및 단체 장 중심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사업 준비 마련 → 중간관리자 및 실무진 중심 실천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논의 → 청소년참여단 등 부천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 대상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의견 수렴 → 부천시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부천시청-교육지원청-청소년기관 및 단체-마을공동체-지역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 간 소통 및 네트워크 연계 기회 마련 → 지역교육포럼·거리청소년지원네트워크 지원 등 분과별 연계협력 지원 사업 운영 진행 → 청소년성장지원 평가회의를 거쳐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지속적인 운영 계획 논의

5. 시범사업 운영 지역 대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 운영 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최종 선정된 세 지역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에 따른 네트워크와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프로그램 협력 현황에 따른 기관 간 네트워크 현황을 알아보았다.

시범사업 운영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에 소속된 기관들의 연결망을 파악함으로써 기관 간의 교류 협력 과정에 대해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세 개 시범사업 운영 지역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회의 참석 현황 및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기관 및 단체 간 교류한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 한 이후, R의 igraph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기준으로 시행한 회의와 활동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지역 단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및 활동에 대해서 참여기관 담당자들이 기록한 문서를 토대로 연구진이 코딩하고 구조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사용한 네트워크 변수는 Coleman(1988)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에서 기관의 위치와 상호작용 정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Wasserman 과 Faust(1994)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를 두고 연구자가 재구조화를 거쳐 분석 과정에서 적용하였다.

먼저 시범운영지역의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형성된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 크기와 협의체 기관 간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범운영기간인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발굴부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평가회의까지 시간 흐름에

따른 협의체 기관 및 시설 간 연계 협력의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마다 회의 횟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작단계에서는 시범운영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의 공통의 목표와 과업을 설정하였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도 이끌어내면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정책과 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체 회의와 더불어 분과별 회의 청소년 네트워크 회의, 지역 토론회, 네트워크 파티 등 지역 특성에 따라서 협의체 목적에 맞는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표 Ⅳ-18〉은 시범운영사업기관 대상으로 협의체 소속 기관별 회의 참석 현황을 기록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시범운영사업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의 유형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Ⅳ-18 ○○지역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분석 - 시간 흐름 변화 코딩 (예시)

곡성군 기관명	회의참석 횟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역분과 1차	청소년분과 1차	지역 토론회
A	8	1	1	2	2	3	2	2	2
B	8	1	1	2	2	1	2	1	2
C	6	3	3	5	2	0	0	5	1
D	2	1	0	0	1	0	0	0	0

두 번째로 시범운영사업지역에서 운영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연계협력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협의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자원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협의체 간에 교환되는 자원 내용은 대부분 정보공유,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 자원교환, 서비스 교환, 정보 교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Boje & Whetten, 1981:378). 이를 통해 자원이 이동한 횟수, 접촉 빈도, 관계의 지속성 등을 통해 특성을 구조화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얼마나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내용적 요소로서 정보교환, 회의참여, 대상자의뢰, 인적·물적 자원교환, 프로그램 협력으로 범주화 하여 기관과의 연계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시범운영사업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기관 간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협력 등의 연계 형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시범운영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음 〈표 Ⅳ-19〉는 시범운영사업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 간 상호작용 대상과 유형에 따라 코딩한 도구로서 본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지원체가 형성된 과정에 따라 상호작용 교류 유형과 패턴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표 Ⅳ-19 ○○지역 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분석 - 상호작용 유형 코딩(예시)

○○지역 기관명	상호작용 기관 (IN)	기관 정보 공유	물적 자원 교류	인적 자원 교류	프로그램 협력	상호작용 기관 (OUT)	기관 정보 공유	물적 자원 교류	인적 자원 교류	프로그램 협력
A	B	1	1	2	2	E	2	2	2	3
B	D	1	1	2	2	G	2	1	2	1
C	A	3	3	5	2	A	0	5	1	0
D	C	1	0	0	1	C	0	0	0	0

1)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60]

다음은 시범운영사업 기간 동안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여부 바탕으로 기관 간 관계성을 시각화 한 자료이다. 기준 시점을 설정하여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횟수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영역과 특성을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협의체 회의 초반에는 곡성군청을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에 대한 설명회 및 시범운영사업 이해를 위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곡성읍과 옥과면에 있는 청소년기관 및 시설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참여하였고, 회의를 진행해가면서 해당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하면서 1차년도 성장지원협의체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19년도에 곡성 청소년 성장박람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주제는 진로에 맞춰서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 이후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지원단이 구축되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박람회 준비를 위한 기관별 역할 분배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성장지원체의 세 개 축인 곡성군청과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분과회의가 진행되었다. 협의체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의 목표인 마을과의 협력 방안이 강조되었고, 회의가 진행될수록 마을공동체에 속하는 기관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곡성군의 경우 곡성군청과 곡성교육지원청에 무게중심이 크게 작용하면서 영역별로 기관, 시설 및 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나타났다. 더불어 협의체 회의 초반에 공통의 목표설정이 정해지면서 분과별로 회의가 빈번하게 구성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한편, 효율적으로 목표 과업을 수행되는 장점을 갖는 반면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수 기관이 거점이 되어 많은 과업이 집중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60) 곡성군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결과 분석에서 사용된 기관별 범례도식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라색, 활동영역: 파란색, 상담복지영역: 초록색, 학교: 주황색, 마을공동체: 갈색, 돌봄영역: 빨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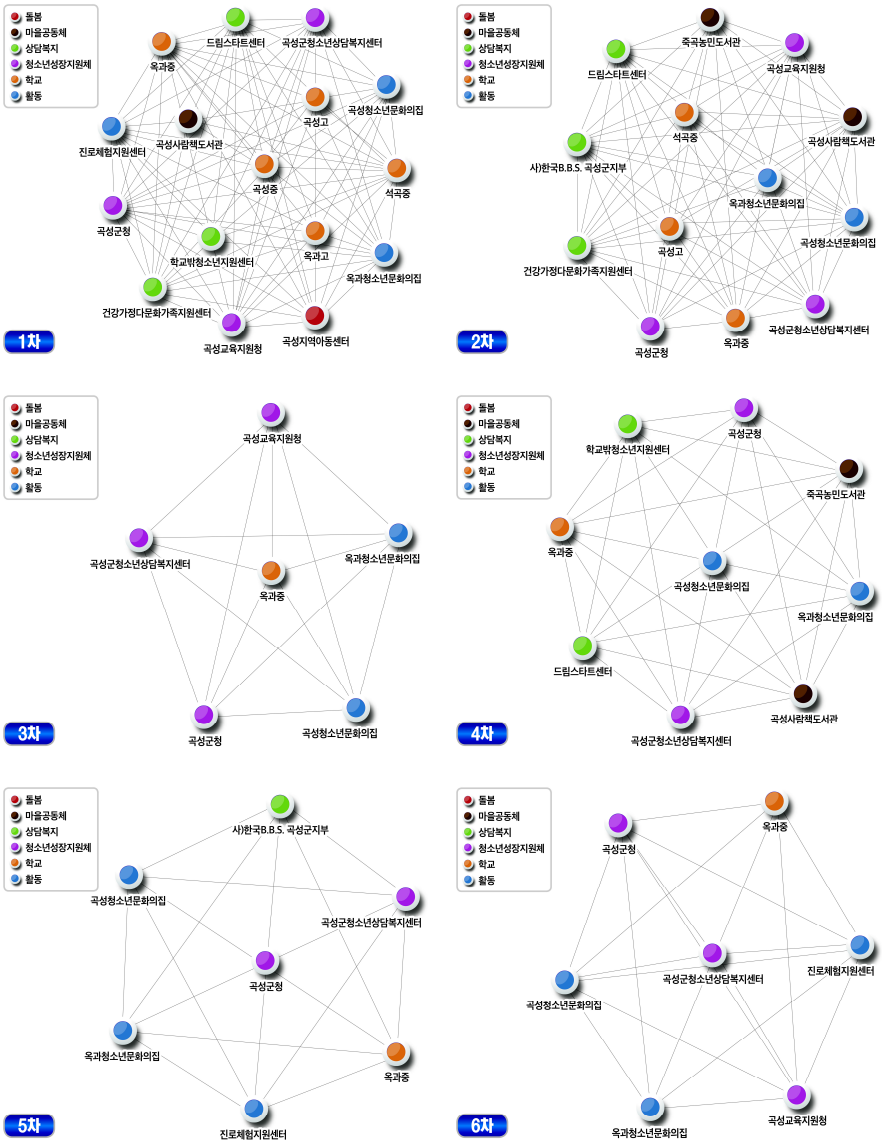


그림 Ⅳ-31 시간 흐름에 따른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을 시행한 횟수 및 유형에 따른 시각화 자료이다. 시범운영기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여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횟수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영역과 특성을 토대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알아보았다.

교류 형태에 따라 기관정보공유, 물적·인적 자원교류, 프로그램협력 등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연계방향성이나 접근성, 기관 간 상호접촉성의 수준, 네트워크 연결의 확장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61]. 기관과의 상호작용 횟수나 유형이 쌍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내향(IN)과 외향(OUT)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곡성군의 경우 내향 중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관은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른 기관들의 기관정보공유나 프로그램협력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곡성군청,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도 내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차년도 성장지원협의체 거점기관인 특성도 있지만 곡성군청과 협력 사업이 상당수 많이 진행 중에 있어 지역사회 인프라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했을 때 효과성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곡성군 내 1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 대상 사업이나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과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는 특성을 갖게 된다. 앞서 지리적 현황 분포를 통해 봤듯이 곡성군의 경우, 지역 내 기관 분포가 균등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작업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외향 연결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곡성군청과 교육지원청이 활발하게 다른

61) 네트워크 총기관수는 각 센터별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수의 합을 의미, 네트워크 총횟수는 이들과의 네트워크 빈도수의 합, 기관 당 네트워크 횟수 = 네트워크 총 횟수/ 네트워크 총 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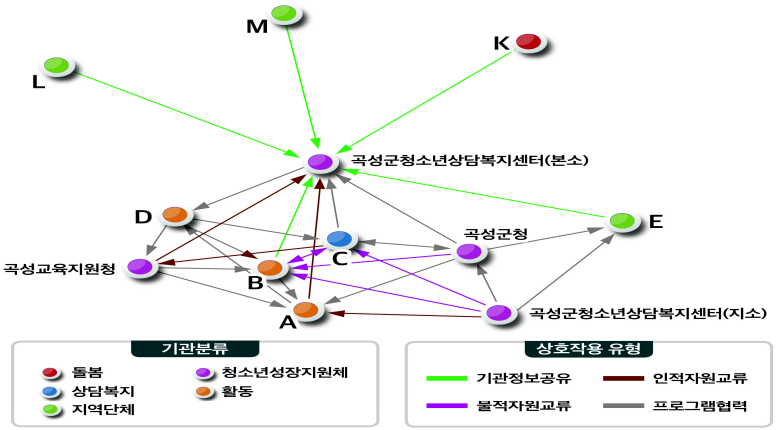


그림 Ⅳ-32 시범운영지역(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IN)[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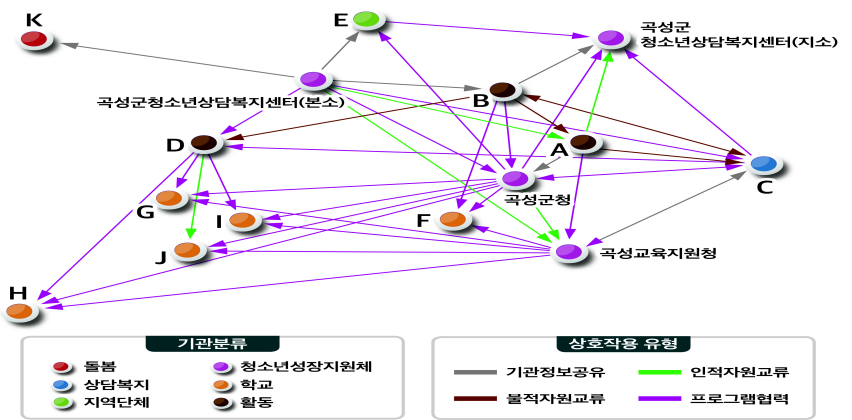


그림 Ⅳ-33 시범운영지역(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OUT)

62)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기관은 다음과 같다. A: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B:옥과청소년문화의집, C: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D:진로체험지원센터, E:사)한국B.B.S. F:옥과고, G:곡성중, H:석곡중, I:옥과중, J:곡성고, K:지역아동센터연합회, L:마을학교연합회, M:곡성사람책도서관

기관들과 연계협력을 요청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활동이 활발하게 작동됨에 따라 지역 내 학교가 상호작용 교류 주체로 다수 등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교와 교육지원청과의 관계상 위치가 근접하게 나타나는 것을 토대로 청소년 활동영역과 학교 간 상호작용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활동, 상담복지영역 등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영역의 상호작용이 영역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동시에 나타난다. 영역 내 상호교류는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영역 간 기관 및 단체 연계협력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영역 간 상호작용 교류를 이끌어내는 공통의 목표와 과업을 설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곡성군의 경우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의존하는 청소년 지원 사업은 향후에는 마을공동체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학교 중심으로 이동하여 중심성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이 요구된다.

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63)]

다음 [그림 Ⅳ-34]는 시범운영사업 기간 동안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여부를 바탕으로 기관 간 관계성을 시각화 한 자료이다. 기준 시점을 설정하여 기관 간의 교류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영역과 특성을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협의체 회의 초기에는 유성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에 대한 설명회 및 시범운영사업 이해를 위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63) 곡성군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결과 분석에서 사용된 기관별 범례 도식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유성구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연두색, 활동영역:노란색, 상담복지영역:주황색, 교육:하늘색, 돌봄영역:빨간색, 지역단체: 분홍색, 청소년기구:보라색, 보건소: 파란색

유성구 청소년수련관과 기존에 활동 교류 경험이 있는 관내 청소년기관 및 시설과 학교를 중심으로 참석하였고, 해당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하면서 1차년도 성장지원협의체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유성구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학교, 지자체, 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의 기관 주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회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각 기관 소개와 기능 등을 소개하고 상호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역사회 내 기관 및 시설, 단체 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성구의 특성상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협의체에 학부모 운영위원회, 아버지 활동가와 같이 학부모 중심의 지역 단체들이 상당수 참여하였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는 기관 담당자가 맡게 되면서 지역 단체와 교육영역의 기관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성구의 경우, 지역사회 범위도 상당히 넓고 기존에 지역사회 단위로 영역 간 협의체 모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시범운영사업 초반에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거점기관이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담당자 대상으로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해 소개하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 때, 유성구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초반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구심점을 확장하여 형성하기 보다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상호간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갔다.

유성구의 경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 소속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이 포함되어 간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단체가 점차 확장해서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청소년 기관 및 시설과 교육 관련한 기관 시설이 꾸준히 참여하면서 외연을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협의체 내 기관과 단체 위원 간의 신뢰가 구축됨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은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을 시행한 횟수 및 유형에 따른 시각화 자료이다. 시범운영기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여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횟수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영역과 특성을 토대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알아보았다. 기관정보공유, 물적·인적 자원교류, 프로그램협력 등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연계방향성이나 접근성, 기관 간 상호접촉성의 수준, 네트워크 연결의 확장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64]. 기관과의 상호작용 횟수나 유형이 쌍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내향(IN)과 외향(OUT)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유성구의 경우 내향 중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관은 유성구청소년수련관으로 다른 기관들로부터 인적교류를 빈번하게 요청받았다. 또한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도 내향성이 크게 나타났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거점기관으로서 청소년 활동 및 상담복지 기관, 마을교육공동체, 지역단체와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도 상담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유성구청,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다른 청소년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 역시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프로그램협력이나 인적자원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눈여겨 볼만한 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마을넷, 마을교육공동체인 마중물, 대세맘도담도담맘카페, 행복네트워크 등으로 대표하는 지역 단체들의 활발한 상호작용 움직임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였다. 지자체가 중심에서 운영되는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 단체와 청소년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진로·진학관련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64) 네트워크 총기관수는 각 센터별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수의 합을 의미, 네트워크 총횟수는 이들과의 네트워크 빈도수의 합, 기관 당 네트워크 횟수 = 네트워크 총 횟수/ 네트워크 총 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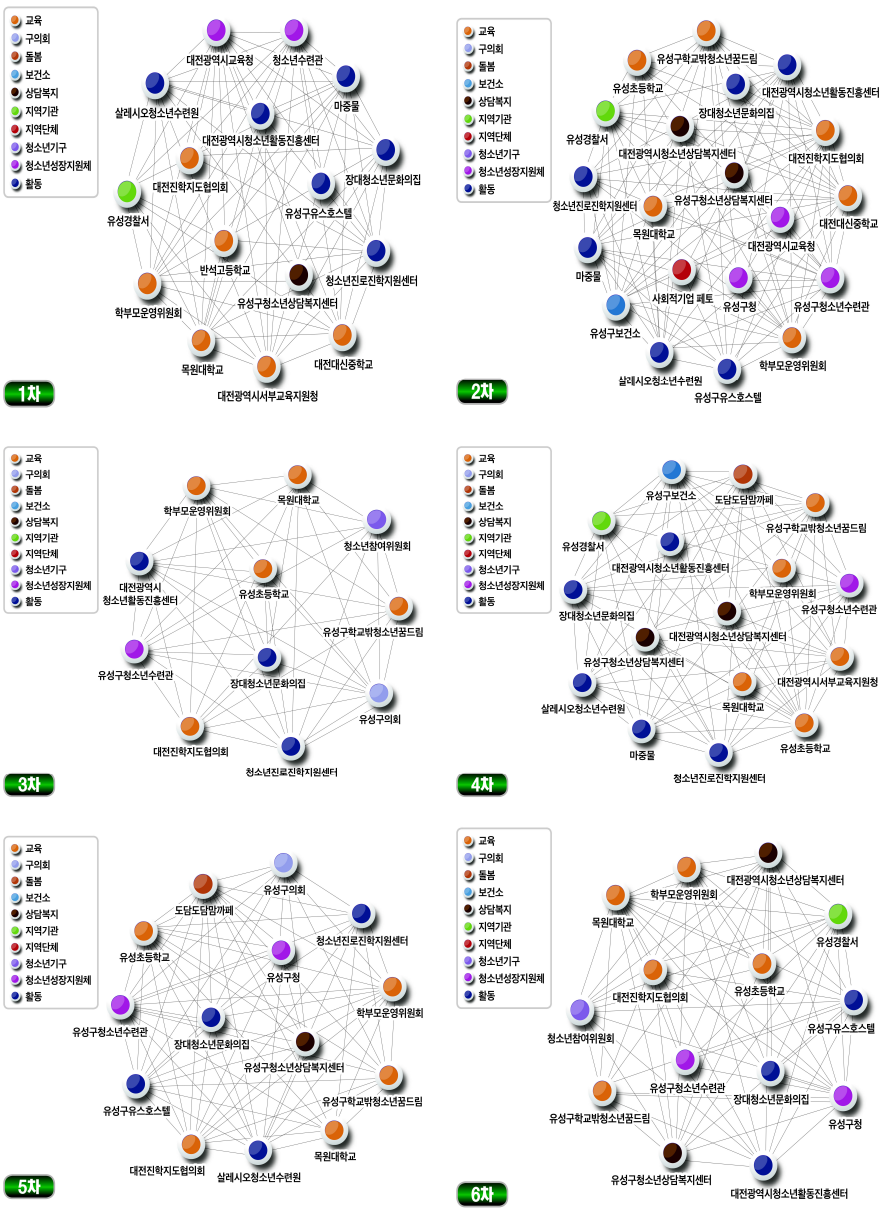


그림 Ⅳ-34 시간흐름에 따른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반면, 외향 연결성 측면을 보더라도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이 협의체 중앙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성구는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확장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는 더디지만 다양한 영역에 속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지역단체인 마중물과 마을넷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 영역 내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진학지도협의회, 교육청과의 연계를 맺을 수 있었다. 한편, 기존의 유성구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 중심 네트워크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교류를 시작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유성구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두 개의 축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시작단계에 위치한다. 현재로서는 유성구청과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의 활발한 연계 협력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와의 연계가 뚜렷하게 확장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상향식 체계로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구성되어갈 때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지속력이 길어지고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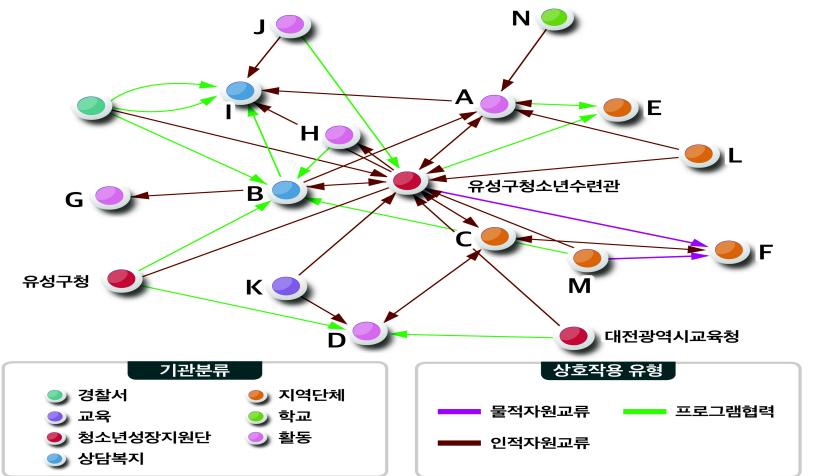


그림 Ⅳ-35 시범운영지역(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IN)[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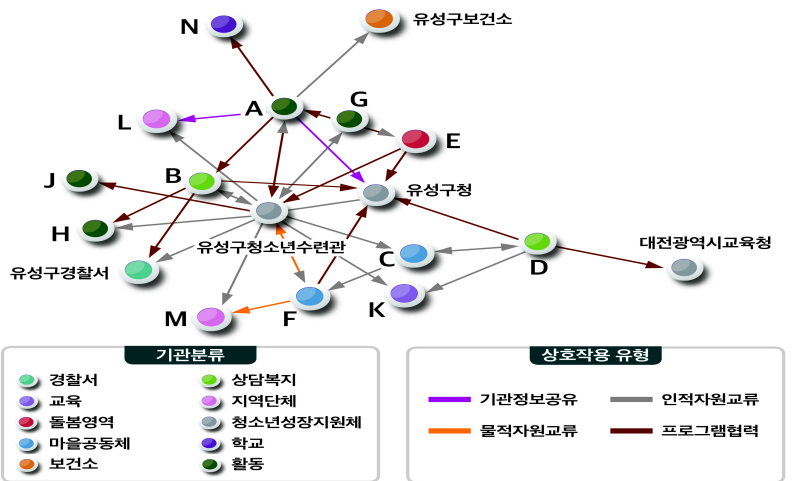


그림 Ⅳ-36 시범운영지역(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OUT)

65)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기관은 다음과 같다. A:장대문화의집, B:유성구상담복지센터, C:마중물(마을교육공동체), D:진로체험지원센터, E:행복네트워크(아동청소년분과) F:마을공동체 마을넷, G: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H:유성구유스호스텔, I: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J: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K:진로진학협의회, L:대세맘도담도담맘카페, M: 노은1동주민자치위원회, N:유성초

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66]

다음 [그림 Ⅳ-37]은 시범운영사업 기간 동안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여부를 바탕으로 기관 간 관계성을 시각화 한 자료이다. 기준 시점을 설정하여 기관 간의 교류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영역과 특성을 토대로 협력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부천시는 여성청소년재단이 존재함으로써 청소년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가 재단에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부천시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거점기관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지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주축으로 작용한 실무 운영진은 여성청소년재단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청소년기관 및 시설 중심의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1차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 초반에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에 대한 설명회 및 시범운영사업 이해를 위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차 회의 때는 다수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기관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축과 관련한 공통 목표설정과정까지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후 협의회 회의는 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속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1차년도 협의체 과업을 부천시청소년네트워크 파티로 설정하고, 광범위하게 활동중인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66) 부천시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결과 분석에서 사용된 기관별 범례 도식은 다음과 같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보라색, 교육지원청: 빨간색, 부천시청: 초록색, 활동영역: 노란색, 상담복지영역: 갈색

시도함으로써 교육지원청과는 교육포럼을 토대로 학교와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마을이 협력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안의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또한 부천시청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기관, 시설 및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 등을 매개로 협의체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부천시는 네트워크파티를 토대로 관내 지자체 담당자를 포함하여 관내 다수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담당자(기관장, 실무자)와 지역사회 청소년네트워크, 학교, 마을 단체 등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 내 주체를 중심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해갔다.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장과 실무진, 청소년네트워크가 각 분과를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된 점을 들 수 있다. 형식적으로 만든 협의체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움직여갔다. 그러나 한정된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영역 간 확장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천시의 경우 기존에 지역사회 단위로 청소년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 간 상호작용 교류는 매우 활발하지만 이번 시범운영사업과 같이 특정한 목표를 토대로 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따라서 부천시는 본 시범운영사업 기간에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만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공통의 목표 설정과 지향을 설정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간다면 이후 영역 간의 연계·협력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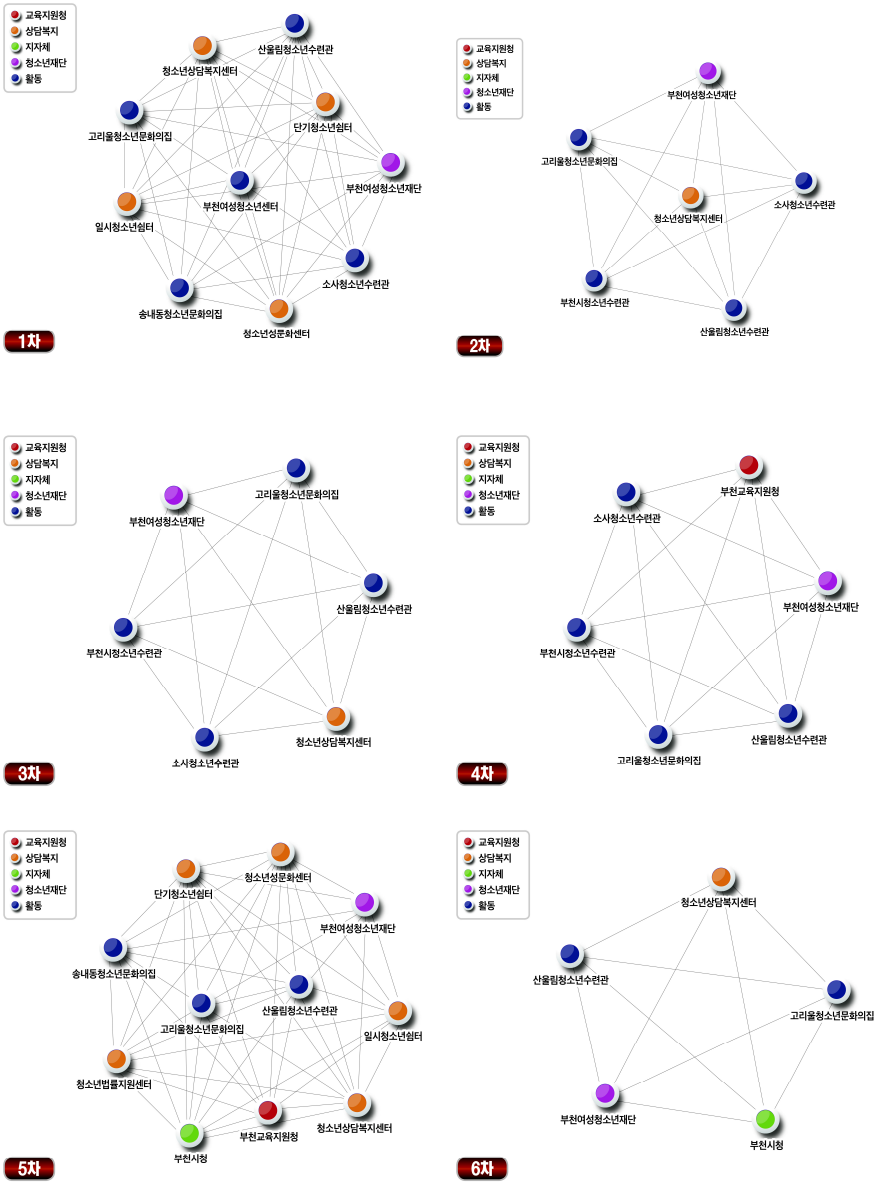


그림 Ⅳ-37 시간흐름에 따른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참여 변화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관 간 상호작용을 시행한 횟수 및 유형에 따른 시각화 자료이다. 시범운영기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횟수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이 속한 영역과 특성을 토대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알아보았다. 기관정보공유, 인적·물적 자원교류, 프로그램협력 등의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연계방향성이나 접근성, 기관 간 상호접촉성의 수준, 네트워크 연결의 확장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67]. 기관과의 상호작용 횟수나 유형이 쌍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여 내향(IN)과 외향(OUT)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부천시의 경우 내향 중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관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나타났다.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기관이 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영역과의 접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내향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거점기관으로서 부천시청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주로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의 허브역할로서 다수 기관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 1차년도와 같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다른 영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영역 간 활동을 확장해 간다면 시너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 본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의 경우 진로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카페 등 지역사회 단위로 진행할 수 있는 다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타 기관에서 프로그램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67) 네트워크 총기관수는 각 센터별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기관수의 합을 의미, 네트워크 총 횟수는 이들과의 네트워크 빈도수의 합, 기관 당 네트워크 횟수 = 네트워크 총 횟수/네트워크 총 기관 수

한편, 산울림 청소년수련관과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청소년 활동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영역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시청소년쉼터와의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경우 지역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과의 연결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외향 연결성 측면을 보면, 상당히 많은 청소년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이 특정한 형태의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많은 상호작용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활동영역과 상담복지영역 간에는 영역을 넘나들면서 상당한 숫자의 프로그램 협력과 기관정보공유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향 연결 지점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사청소년수련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상호작용 지도에 등장한 것을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부천시청과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내향과 외향 연결지점에서 모두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다양한 영역 주체를 대상으로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영역간 기관 정보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 정책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의 경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축이 완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타 영역과의 관계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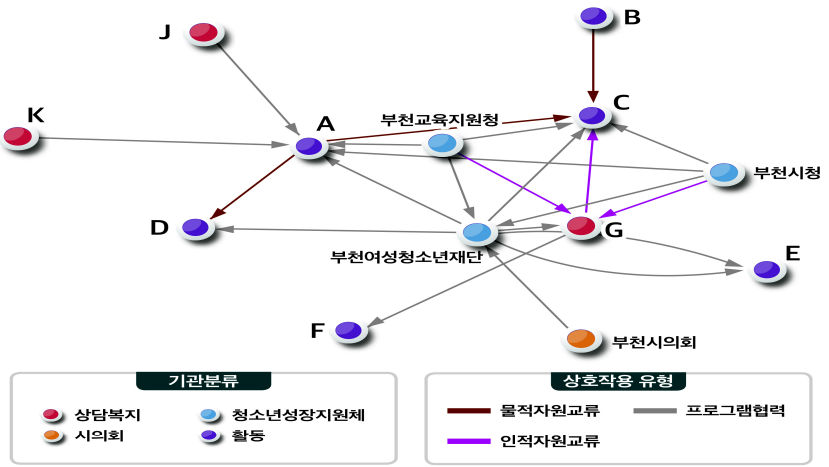


그림 Ⅳ-38 시범운영지역(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IN)[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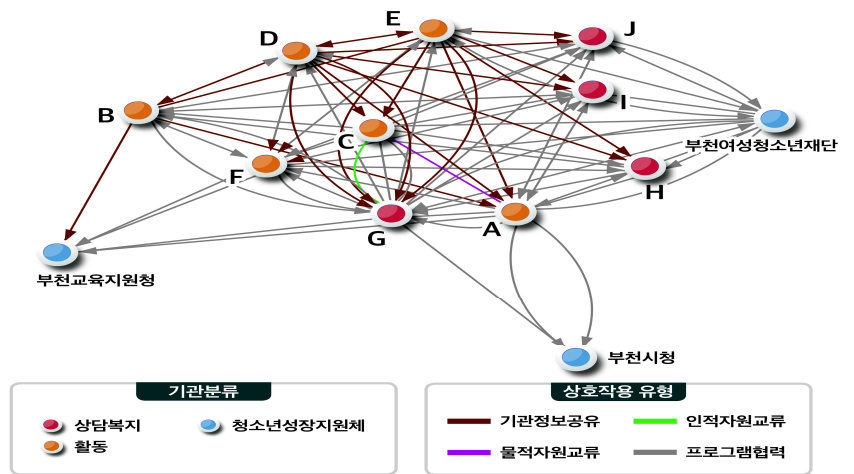


그림 Ⅳ-39 시범운영지역(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OUT)

68) 부천시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상호작용 기관은 다음과 같다. A: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B:부천시청소년수련관, C:부천여성청소년센터, D:산울림수련관, E:소사청소년수련관 F:송내동문화의집, G: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H:청소년성문화센터, I:청소년법률지원센터, J:일시청소년쉼터, K: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 시범사업 운영지역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례

1) 곡성군 사례- [청소년 유출 방지를 위한 농·산·어촌·소도시]

(1) 청소년원탁토론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을 이끌었고,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 대상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원탁토론회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3차 정기협의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자치 분과회의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청소년성장박람회가 성인들 중심으로 준비되는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지역사회 공동체(비영리법인, 마을학교연합회, 사람책) 와의 연계 협력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단법인 B.B.S(Big Brothers and Sisters, 이하 B.B.S)뿐 아니라 마을학교연합회와 함께 '청소년성장박람회' 운영 진행과정을 협력하였다. 예컨대, 그동안 BBS에서 기존에 운영 해오던 청소년 가요제를 청소년 어울 마당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청소년성장박람회의 구호를 '청소년의 성장을 마을과 함께'로 설정하여, 협의체에 소속된 마을학교연합회와 기획 단계부터 함께 논의를 통해 청소년성장박람회 부스를 공동운영 하였다. 아울러 진로직업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라는 것을 고려하여 '곡성사람책 도서관'의 사람책 선생님들의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다양한 지역 시민이 청소년성장박람회에 운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산재해 있던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활동, 보호, 기관들을 연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청소년기관-학교-마을교육공동체 간의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청소년성장박람회는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고, 곡성군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과 학교 등이 다수 참여하고 기획 운영을 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위원들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화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였다. 또한 여러 번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담당실무자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실제적인 업무의 실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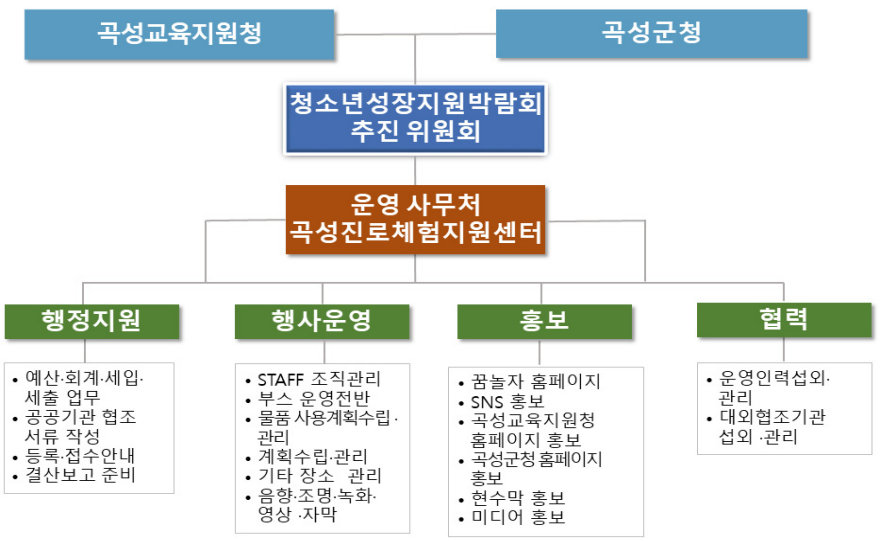


그림 Ⅳ-40 청소년 성장박람회 조직도

2) 유성구 사례 -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교육중심 광역도시]

(1) 학교-청소년기관-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진로 교육 사례

유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인 마중물과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학교에 제공하는 진로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한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유성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등이 함께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협력은 타 기관과의 연계도 이끌어냈다.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는 학의뜰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진로마을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8명의 진로마을교사를 배출하였으며, 수료한 마을 교사들은 마을과 학교에서 청소년진로교육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유성구마을교육공동체 마중물은 유성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는 마을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학교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혁신교육과 진로교육, 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교육과 학교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그림 Ⅳ-4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진로교육분과 활동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협력 운영 사례

기존의 대전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해당 관련 기관장 중심의 협의회를 통해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8개 기관과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주축으로 기관장 회의와 팀장급 회의, 실무자 회의 등 업무와 역할에 따라 다층위적으로 분과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Ⅳ-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협의회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유성구에 소속되어있는 관내 대학교(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목원대학교 등)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교과학습(영어, 수학) 보충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1:1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또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부터 다양한 물적 자원의 지원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다[69].

69) 청소년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부터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복누리재단으로부터 여성용품 지원, 유성구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지원, 성심당으로부터 간식(빵)을 지원받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지역 내에 마을공동체인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로컬푸드교육센터 '품'으로부터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인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검사, 학습코칭,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1:1 진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

(3)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방향, 지원내용,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청소년지도자, 교사, 마을활동가, 학부모 등이 참가하였고 유성구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지자체, 학계 전문가, 청소년이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성장지원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기획,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인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가 유성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역을 키워드로 선정하였고, 해당 분야(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지자체 담당자 등이 분과 영역별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성구 내 청소년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지점과 앞으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편, 전문가들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들이 각 입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각층의 활동가, 전문가가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과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표 Ⅳ-20 유성구 청소년 관련 현안 이슈를 위한 토론 결과

분야	내 용
자치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자율 동아리 확대 - 학교 자치활동 활성화 -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치활동 기회 마련 -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인권 자치활동 교육 - 자치활동에 대한 홍보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교육 거버넌스 구성 - 동단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 아이 돌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구축 - 초등학교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시설 공유

분야	내 용
여가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교내 청소년 공간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건립 - 시설 지원 확대와 관심 유도 - 야간 자율학습 폐지 - 문화시설 체험 기회 확대(청소년 대폭 할인) - 여가시간 활용 교육 - 예술 체험 경험 제공 - 청소년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부모, 교사 교육 - 청소년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창구 마련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마을 커뮤니티 센터와 청소년 시설 협력을 통한 장소공유 -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 - 지자체(구청) 예산 확보 -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정기회의 실시 -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교육청 협의
환경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청소년수련시설 등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확대 - 안전한 쉼터, 놀이터 마련(공간혁신) - 마을 공유 공간 조성 - 마을 유해환경 차단 및 제거 - 청소년들의 모임 활동을 지지하는 어른들의 문화 조성 -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 - 마을 공동체 활동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마을 교사 연계 - 유휴 공간 나눔 및 활용 - 지자체 행정적 지원 마련 - 주민 교육 실시 - 적극적인 홍보 - 학교와 주민간의 소통 기회 마련
진로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대전 지역의 자원 정보 제공 - 사람책 발굴 및 교육 - 마을공동체 설립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 - 학교 수업시간 중 외부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지속적인 만남(정기적 멘토 멘티 진행) - 마을 단위 체험처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재능기부 기회 마련 - 진로 체험 지원 사업처에 인센티브 제공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협의체와 학교 교사, 청소년기관, 동 단위 센터와의 협조
교통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Hop on-off Bus - 청소년시설과 연계된 버스 노선 확대 - 교통 통합권 제공(버스-지하철-마을버스) - 대중교통 소외 지역 전용 버스 지원 - 청소년 전용 버스 운영 -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대 - 타슈 연령제한 폐지(청소년 이용 가능하도록)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우버 마을 자가용 - 무료 자가용 택시 이용 - 마을 공동체 어플 활용 - Youth e-map 제작 및 활용

분야	내 용
학교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직업체험 - 아침식사, 간식, 급식 등 청소년 건강을 위한 서비스 - 귀가 차량 공유 및 안전도우미 - 청소년 지도자 및 지역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동아리 운영 - 청소년 공유 공간 제공 - 방과후 돌봄 지원 -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 기회 제공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교사, 부모, 마을 공동체의 정기적인 모임(거버넌스 구축) - 학교 모임에 적극적 참여 - 함께하는 교육,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실시 - 마을의 인력풀 구축 및 공유 - 학교 공간 개방
복지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 관리 -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119처럼) - 청소년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 - CYS-net 한계점 보완 - 자원봉사자 등 인적 인프라 구축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주기적인 잦은 만남 - 기관 연계 - 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 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홍보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 교육
안전	1. 마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안전 인식 제고(캠페인 등) - 상황별 안전 교육 기회 확대 -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대중교통 이용시 승하차 안전 알림 서비스 제공 - 안전에 대한 청소년정책 예산 확대
	2. 마을에서 지원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SNS 활용 및 홍보를 통한 안전 인식 확대를 위한 캠페인 - 학교와 청소년 기관의 안전교육 연계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기구 토론회 정기적 실시

(4) 민·관·학이 함께하는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운영 사례

유성구는 청소년인구가 많고 주로 핵가족 형태의 가정이 많은 특징이 있어 최근 지역사회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청소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과 관내의 3개 학교와 유성구 산하의 유성구노인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 관내 마을공동체인 학마을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하고 소통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림 Ⅳ-43 업무협약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또한 유성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역 청소년 대상의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또는 수련시설 소속 청소년들과 유성구 노인복지관·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공감 동아리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노인층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기회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Ⅳ-21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동아리 운영 현황

동아리명	경로당(기관)	추진내용	참여인원
스마트(성덕중학교)	유성구노인복지관	○ 스마트폰 사진·영상 배우기	6회/86명
시와 그림(하기중학교)	송림3단지 경로당	○ 캘리그라피로 시와 그림 그리기	5회/162명
C.O.C(유성여자고등학교)	유성구노인복지관	○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만화 자서전 만들기	4회/50명
동행(장대청소년문화의집)	사랑나무요양원	○ 말벗, 안마 봉사활동	2회/17명
드림까치(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동 푸르지오 경로당	○ 명절 어르신 가정방문 및 경로당 놀이활동(보드게임, 음식만들기 등) 활동	8회/180명
픽토그램 동아리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어르신 개별모집	○ 픽토그램 시니어 컬러링북(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모사업 선정)	4회/77명



스마트폰 사진·영상 동아리 '스마트'



캘리그라피 동아리 '시와 그림'



만화 자서전 동아리 'C.O.C'



말벗, 안마활동 동아리 '동행'



놀이활동 동아리 '드림까치'



시니어 컬러링북 동아리 '픽토그램 동아리'

그림 Ⅳ-44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동아리 운영현황

더불어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토대로 유성구 관내 마을공동체와도 협력하면서 확장하였다.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르신 세대공감'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Ⅳ-45 활동프로그램 연계 사례 - 드림까치

3) 부천시 -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청소년재단이 공존하는 수도권 도시]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존의 청소년기관 중심 네트워크 및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의제와 청소년 지원체계 중심의 유스 거버넌스(의제별 분과활동) 및 청소년주류화를 위한 의제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1) 유스거버넌스 청소년 부천에꿈 '청소년참여단' 부천시장과의 대화

부천시장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알리고 건의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청소년활동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참여기

구인 16기 차세대위원, 각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교육의회, 참여예산위원회, 시장, 담당공무원, 청소년참여기구 실무자 등이 참석하였다.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과 시장의 간담회 정례화 추진(위촉의 의무화), 정책제안에 대한 회신의 의무화, 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및 홍보 강화, 청소년을 위한 카드형 지역화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사업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청소년 단체 기관 주축의 성인 중심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 청소년이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 이슈 현안에 대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성인들과 소통함으로써 일시적인 청소년만의 체험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공론화하여 풀어가고자 하였다.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청소년의 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과 지역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Ⅳ-46 청소년참여단 시장과의 대화

(2) 유스거버넌스 청소년 부천에꿈 '네트워크 파티'

청소년 주류화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시작은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이루어졌다. 부천시의 청소년 정책방향, 각 시설 및 단체에서의 역할, 청소년 활동가로서의 태도 및 자세 등을 부천시 청소년활동가 스스로 함께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각 분야에서 청소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활동가들의 연대와 협력망 구축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주류화를 주제로 한 강연, 원탁토론, 교류의 시간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제시한 사항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부천시 차세대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 교육의회, 각 기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의제를 정책화 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단을 추진하였고,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청소년 권리와 책임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팀을 구성하였고, 조례 제정팀의 활동을 구체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주도하고,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 부천시 아동청소년과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한 '학교를 넘어 마을로' 부천혁신교육포럼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과 부천시청과의 협력이 외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포함됨으로써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그림 Ⅳ-47 부천시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

(3) 지역사회 비형식교육포럼-거리청소년지원네트워크 지역교육포럼

지역교육포럼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참여 대상은 마을공동체, 교사, 지역 활동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삶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인원들이 모여 학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적 실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교육포럼은 청소년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사회 공간이 학교이며,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배움과 실천을 이끌어 가는데 촉진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활동 사례로 거리청소년지원사업(아웃리치)-청소년유관기관 연합 거리상담 진행을 들 수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기관인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별사탕), 부천시단기청소년쉼터(모퉁이),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노랑), 부천일시청소년쉼터(별사탕),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청소년기관이 연계·협력하여 가출,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거리상담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등 다양한 상태의 청소년을 거리상담(아웃리치) 특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합함으로써 각 기관이 고유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각 기관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4) 부천혁신교육포럼 '학교를 넘어 마을로'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소속된 부천시교육지원청은 부천시청, 부천여성청소년재단과 협력하여 혁신교육 3.0 시대와 마을과 함께 청소년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학교 단위 중심으로 활동하던 것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청소년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위해 부천혁신교육포럼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교사,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마을교육공동체 위원, 지자체 담당자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연계된 다양한 주체들이 포럼에 참석하여 부천시 교육의 실태를 공유하고 시민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포럼주제를 선정하였다. 포럼 진행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의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부천시청의 교육 사업에 대해 부천 시장이 발제하였으며, 패널로 교사와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표 Ⅳ-22 시범사업 운영지역 지역사회 연계 운영사례 및 시사점

지역	운영사례	시사점
곡성군	① 청소년 주도 원탁토론회 개최 ② 마을학교연합회와의 연계 협력 ③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 기관, 마을단체 와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장박람회 준비	**[타 지역으로의 청소년 유출 방지를 위한 농산어촌 소도시]** ·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테마를 선정하여 청소년성장박람회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를 연계하는 과정을 주목해볼 수 있음 - 청소년네트워크, 마을학교 연합회를 통한 마을공동체와의 연계,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기관-학교

지역	운영사례	시사점
		- 마을 단체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지역인프라가 부족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성장지원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유성구	① 학교, 청소년수련관,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교육혁신교육을 위한 지역토론회 실시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 다자기관 관 업무 협약 및 연계 지원 ③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토론회 실시 ④ 청소년·어르신 세대 공감 사업 협력	**[청소년 인구가 많은 교육중심 광역도시]** · 청소년인구가 많은 특성을 잘 살려 청소년 교육, 활동, 돌봄 등 전반적인 영역을 다룸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청소년기관과 학교 간 간극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
부천시	① '청소년참여단' 시장과의 대화 실시 ② 유스거버넌스 청소년 부천에꿈 '네트워크 파티' ③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한 부천혁신교육포럼 '학교를 넘어 마을로' 실시 ④ 지역사회 비형식교육포럼-거리청소년지원네트워크 위한 연계협력 ⑤ 청소년 조례추진	**[기존 지역단체 네트워크와 청소년재단이 공존하는 수도권 도시]** · 기존 청소년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용하여 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새로운 기관·단체 발굴 보다는 기존 활동 주체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 ·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기관이 소속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으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른 섹터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여 공통된 목표와 목적을 합의해 가기 어려운 한계를 보임

7. 시범사업 운영지역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1)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곡성군은 곡성군청, 곡성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이 협력하여 구성한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본 추진체계에서도 이를 기본 축으로 삼아 구성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구체적 과업 수행을 통해 지역자원과 연계 하였다.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의 공동 목적을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곡성군청, 곡성군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활동가, 민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림 Ⅳ-48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

곡성군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1차년도는 청소년성장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성장지원박람회 추진단으로 시작하였다. 곡성군 내 총 12개 기관, 25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다. 민관학을 연계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토대로 한 마을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 성장박람회 준비를 위한 연계·협력을 이끌어냈다.

소규모의 군 단위 지역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추진력과 의지가 실질적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1차년도 초기 시작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성장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 하는 기관으로서 1차년도에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플랫폼이 되어 중심역할을 하였다.

곡성군의 경우 마을단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간 거리가 가깝고 기존의 강한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기관 주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한 이후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기관이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청소년기관의 실무 담당자와 코디네이터가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주민으로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력이 높고, 전문적인 연계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 또한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에 있어 큰 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곡성군의 경우, 청소년 인구가 매우 적고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 또한 청소년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목표인 청소년의 진로직업과 관련된 성장지원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49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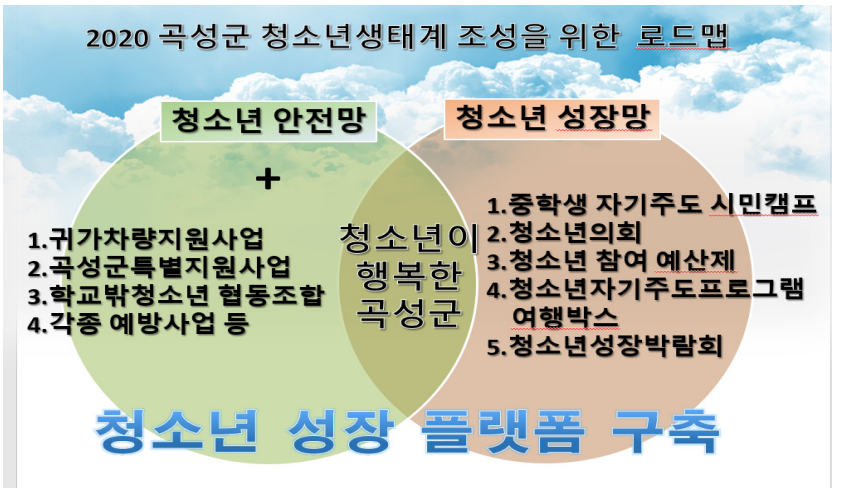


그림 Ⅳ-50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모델

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9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와 청소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한 간담회를 통해서 유성구 청소년 성장지원 영역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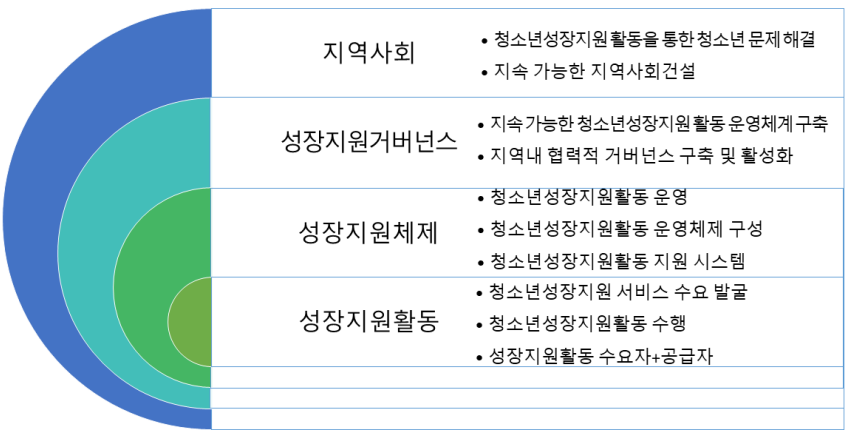


그림 Ⅳ-51 청소년 성장지원 영역과 과제[70)]

지역사회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해 성장지원 활동(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수요 발굴, 청소년 성장지원 활동 수행, 성장지원 활동 수요자와 공급자), 성장지원 체제(청소년 성장지원 활동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 활동 운영체제 구성, 청소년 성장지원 활동 지원 시스템), 성장지원 거버넌스(지속가능한 청소년 성장지원 활동 운영체계 구축,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역사회(청소년 성장지원 활동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 영역과 과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70)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19). 2019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그림 Ⅳ-52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체계 구성 방향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는 지역 내 청소년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 체계일 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은 청소년 '안전'과 '지원'을 결합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다. CYS-Net의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을 Community Youth System Network로 통합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존의 '청소년안전망'의 안전 기능과 '청소년지원망'의 지원 기능을 확대 통합하는 것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유성구청과 교육지원청을 기반으로 교육과 청소년 기관,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영역 전반에 걸친 성장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플랫폼 역할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성구 청소년의 수요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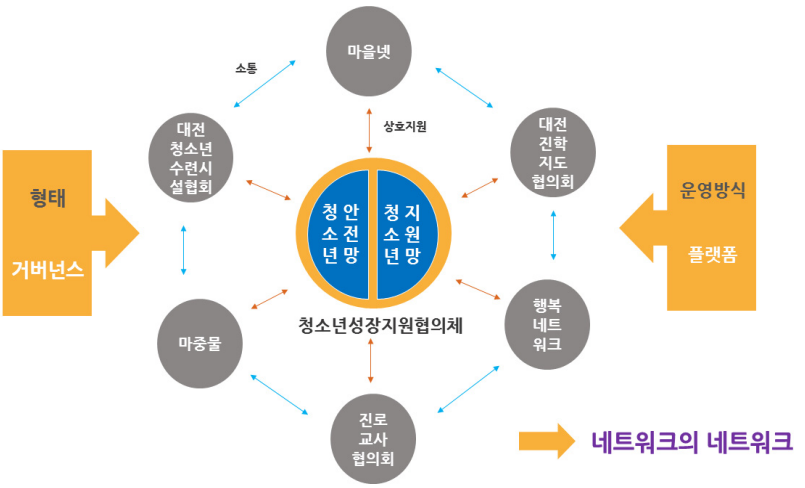


그림 Ⅳ-53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모델(안)

유성구는 청소년 인구가 많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가 풍부한 특성을 반영하여 유성구의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는 개별 기관이 아닌 네트워크를 단위로 운영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유성구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새로운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한다. 이 때 형성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되어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는 반드시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 학부모, 기관 및 시설담당자, 지자체, 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면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정보나 소식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두 번째는 학습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제시한다. 현재 유성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준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인 '마중물'을 중심으로 유성구청

소년수련관과 협력하여 학습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청소년 관련한 이슈 현안에 따른 학습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해줄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성구 또한 지역사회 단위로 상당히 많은 협의체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공통되는 주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로서 성장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유성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유성구(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실효성을 갖고 지역 전체에서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련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성장지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운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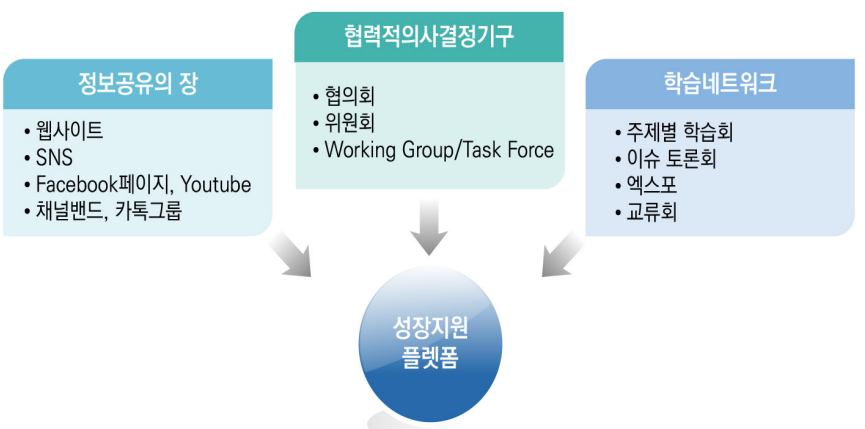


그림 Ⅳ-54 유성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플랫폼의 3가지 형태

3)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체계

부천시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9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전략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지역 의제를 반영한 청소년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기획할 당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 시설, 청소년지도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청소년 의제 중심으로 확장을 모색하였다. 또한 의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망과 행정조직과의 결합을 통해 시정의 한 축이 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유스거버넌스 청소년 부천에꿈'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Ⅳ-55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부천에서는 청소년 주류화를 위한 성장지원 추진기반 조성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공통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단과 참여기구 실무자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부천에서는 기존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을 토대로 청소년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활동가와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여성청소년재단 간에 지속적 교류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추구하였다.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당초 계획 시 유스거버넌스 5개 분과와 청소년참여단 운영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결합하여 유스거버넌스 6개 분과와 청소년참여단으로 체계를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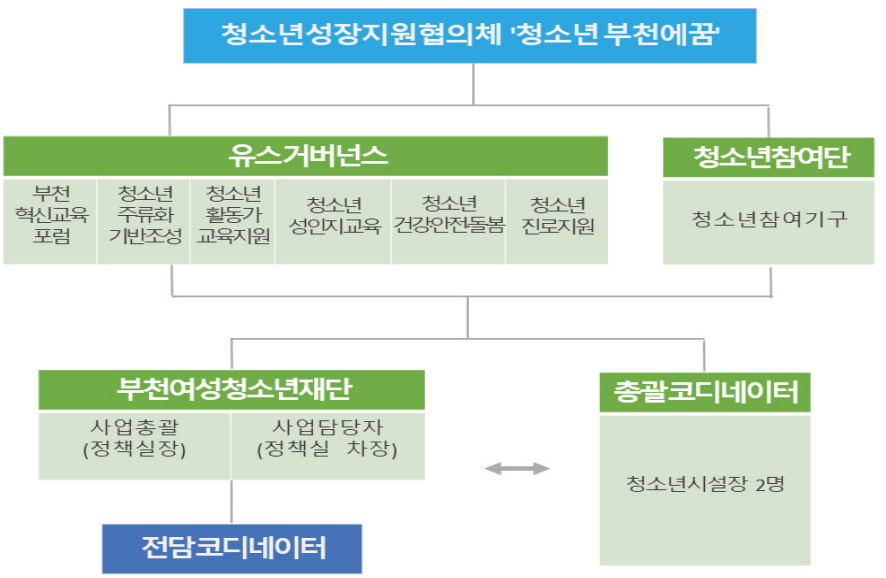


그림 Ⅳ-56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체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 체계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단 정책기획실에서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행정 등 실무를 추진하고 청소년시설장을 총괄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협력을 갖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파티 이후 도출된 의제해결을 위해 성장지원협의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의제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획·구성·운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부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타 영역간의 연계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부천시 및 부천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을 통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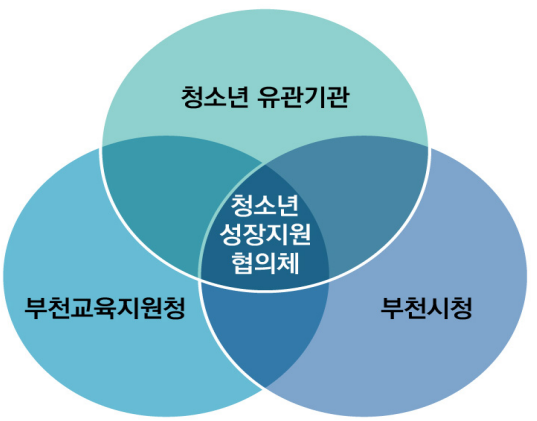


그림 Ⅳ-57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도

8. 소결 및 시사점

곡성군은 1차년도 곡성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중심으로 진행한 협의체 운영방식에서 보다 확장하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주도로 협의체 운영방식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등이 주도하였을 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에 대한 정당성과 행정적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곡성의 1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담당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관장과 실무자 중심, 이슈 현안 중심의 다양한 분과가 중층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중심 육성운영위원회, 실무중심 실행위원회, 청소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사업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존의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와 기관을 연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곡성군에서는 기존 청소년기관 중심의 민간 자원 활용을 기반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곡성군청과 곡성교육지원청의 연계를 바탕으로 민·관·학 연계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는 지리정보분석(GIS)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지역 기반 인프라가 풍족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 체계를 구축한 곡성군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곡성에서 시도하고 있는 곡성 지역사회청소년성장지원 연계 협력 모델로 구성된 미래교육협력센터(군청, 교육지원청, 청소년기관)가 청소년성장플랫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민간 단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신뢰 체계를 기반한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성구는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준비하는 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1차년도의 경우, 지역사회의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부터 구성까지 또한 연계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의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협의체 운영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법률로 보장될 수 있거나 혹은 지역사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된 운영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협력하는 것인 만큼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들이 해당 협의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이 협의체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범사업 운영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협의체 운영과정에서는 협의체 운영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천시는 청소년유관기관네트워크 푸른모임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의 교류가 활발하였지만 청소년 전담기관의 확대, 재단출범 등 지역의 청소년 정책 환경변화로 네트워크의 새로운 개편을 기대하며 2017년 종료한 바 있다. 이후, 2017년~2018년 재단에서 청소년의제개발 워크숍을 추진하여 청소년 의제를 공유하였고, 지역의 청소년활동가 교육, 자발적 자조모임 등 새로운 버전의 교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청소년 네트워크 파티에서 나온 지역 청소년활동가들의 요구처럼 청소년에 대한 고민, 현안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청소년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청소년 의제들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체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지리정보체계(GIS)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단위로 상당히 많은 기관과 지역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과 네트워크 담당자와의 설득과 협력을 꾀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진행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 존재해서 청소년 기관 및 시설간의 연계 협력 체계는 마련되었지만,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와의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보여지듯이 다수의 기관이 존재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연계 활동을 구축한 연결망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크게 확장되지 못하였다. 이는 부천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공통 목표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각 기관이나 단체의 다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과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와 청소년 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정례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관 및 시설과 초·중등학교들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부천시 1차년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현재 진행형으로 협의체 구성원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각 기관과 시설 주체들과의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 의제를 찾고 학교와 마을의 영역이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경험과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천시청과 교육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 수행이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을 위한 공통의 목표 마련을 위한 선행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5장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결과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결과

V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71)]

1.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 간의 상호 연계된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처 사업 간 분절적 구조를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구'내에서 자원들 간의 혹은 기존의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통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에 따라 자원 인프라 상황이 상당히 다양한 상태에서 관련 분야 종사자나, 전문가, 학계, 정책 담당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개념적 논의부터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운영 주체와 방식,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의 형태와 필요요소 등 다양한 의견을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이 자료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1) 전문가의견조사 진행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과 이윤주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하였고, 이 장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조사방법 및 절차

전문가의견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는 반구조화 질문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차는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조사지 구성을 위해 문헌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지 내용의 전체 틀과 세부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이후 1차로 구성된 조사지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완성된 형태의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사전 조사대상자는 실제 전문가 의견조사대상자들과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사전 조사에서는 조사지의 전체 구성과 각 세부문항들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이후 제안된 의견과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사지를 완성하였다.

서면조사 방식은 사전에 조사 참여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E-mail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진이 직접 서면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룹별 면접조사 시간은 약 2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V-1 조사방법 및 절차

구분	내용
참여자 표집과정	시범사업운영지역 협의체 위원 중 사업 담당자의 추천 정책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개별접촉 및 추천
그룹별 참여자	A그룹: 시범사업운영지역 협의체 위원 중 5명씩 표집 B그룹: 공무원, C그룹: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학계
의견조사 기간	2019년 7월 말 ~ 8월 말
의견조사 방식	1차: 서면의견조사, 2차: FGI
FGI시간	그룹별 2시간 내외
면접조사 녹취 및 기록	참여자의 사전 동의 후, 녹취 및 전사
조사원	연구진

3) 조사대상

전문가의견조사는 총 3개의 그룹별로 나누어 표집을 진행하였다. 먼저 A그룹의 경우 이 연구의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자로부터 협의체 구성원 중 각 5명을 추천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 참여의 난색을 보이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추천을 받아 섭외를 진행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 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실무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관내 교사 및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A그룹의 경우 1차 서면조사에 총 15명이 참여하였으며, 면접조사에는 11명이 참여하였다.

표 Ⅴ-2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참여자 구성(A그룹)

조사대상	성별	기관	분야	참여	
				서면조사	면접조사
A1	남	○○교육지원청	공무원	●	
A2	남	○○군청	공무원	●	
A3	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	●	●
A4	남	○○청소년문화의집	현장전문가	●	●
A5	여	○○마을학교	현장전문가	●	●
A6	남	○○교육청	공무원	●	
A7	남	○○청소년수련관	현장전문가	●	●
A8	여	○○청소년수련관	현장전문가	●	●
A9	남	○○대학교	학계전문가	●	●
A10	여	○○○마을단체	현장전문가	●	●
A11	여	○○청소년수련관	현장전문가	●	●
A12	남	○○청소년수련관	현장전문가	●	●
A13	남	○○청소년문화의집	현장전문가	●	●
A14	여	○○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	●	●
A15	남	○○일시청소년쉼터	현장전문가	●	

한편 B그룹은 중앙부처 공무원(2명), 지자체 공무원(3명), 교육(지원)청 담당자(1명) 등 6명이 참여하였다. B그룹은 그룹별 공통질문 이 외에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청소년 성장 지원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안들과 의견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C그룹은 교사(1명),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담당자(3명),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1명), 학계전문가(4명) 등 9명이 참여였다. B그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현장과 관련 전문가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B그룹의 경우 1차 6명의 참여자 중 면접조사에는 3명이 참여하였고, C그룹은 1차 9명의 참여자 중 5명이 참여하였다.

표 V-3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자 구성(B, C 그룹)

조사대상	성별	기관	분야	참여	
				서면조사	면접조사
B1	여	○○부	공무원	●	
B2	여	○○부	공무원	●	
B3	여	○○구청	공무원	●	●
B4	여	○○시청	공무원	●	●
B5	남	○○구청	공무원	●	●
B6	여	○○교육청	공무원	●	
C1	남	○○중학교	교사	●	
C2	여	○○마을단체	현장전문가	●	
C3	여	○○청소년재단	현장전문가	●	●
C4	여	○○연구원	학계전문가	●	●
C5	여	○○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	●	●
C6	남	○○청소년센터	현장전문가	●	●
C7	남	○○대학교	학계전문가	●	
C8	남	○○대학교	학계전문가	●	
C9	남	○○연구원	학계전문가	●	●

4) 조사내용

전문가의견조사의 조사내용은 크게 4개의 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문항 및 상세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주제를 보면, 1영역 지역사회 네트워크, 2영역 청소년성장지원, 3영역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4영역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등으로 영역별 주제를 설정하여 구분하였다.

먼저 제1영역은 공통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1.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념과 범위, 1-2 연계협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과 사업/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각 상세 하위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영역은 공통질문으로 2-1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2-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연계 정도와 개선 방안으로 구성하였으며, 2-3~2-5는 각 그룹별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한편 제3영역의 공통질문은 3-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체, 3-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3-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3-5~3-7은 각 그룹별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고려사항 등에 관한 질문들이다. 마지막으로 제4영역은 공통 질문으로 4-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에 관한 질문과 4-2~4-4 각 그룹별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질문 구성 방식은 앞서 기술되어 있듯이 영역별 공통질문들과 그 외에 각 그룹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별 응답을 통해 동일 주제에 관해 시범사업 참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학계전문가 등 각 조사대상자 상황이나 관점에서의 요구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Ⅴ-4 조사 그룹별 질문 주제 영역

그룹/주제영역	지역사회 네트워크	청소년 성장지원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A그룹 시범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담당자 및 위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념 및 범위 · 지역사회 사업 중 연계협력이 필요한 정책/사업	청소년 성장지원 개념, 연계정도	협의체 운영, 참여주체, 운영방식 및 역할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지속가능 한 운영 방안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B그룹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 행정실무 전문가	공통질문	공통질문	공통질문	공통질문
		상동(단, 그룹별 질문에서는 중앙·지자체 차원에서의 필요사항)	상동(단, 중앙·지자체 차원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지원 방안)	상동(단, 중앙·지자체 연계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C그룹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공통질문	공통질문	공통질문	공통질문
		상동(단, 그룹별 질문에서는 전반적 필요사항)	상동(단, 전반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효과적 운영 및 역할)	상동(단,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한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표 Ⅴ-5 조사 그룹별 질문 구성 현황

주제영역	세부구성		그룹별 질문 구성		
			A그룹	B그룹	C그룹
1.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통	1-1		■	
		1-2		■	
2. 청소년 성장지원	공통	2-1		■	
		2-2		■	
	그룹별	2-3	■		
		2-4		■	
		2-5			■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공통	3-1		■	
		3-2		■	
		3-3		■	
		3-4		■	
	그룹별	3-5	■		
		3-6		■	
		3-7			■
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공통	4-1		■	
	그룹별	4-2	■		
		4-3		■	
		4-4			■

표 Ⅴ-6 조사 문항내용 및 상세질문

조사영역	세부구성		문항내용	상세질문
1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통	1-1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념과 범위	· 귀하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예: 시군구 단위/ 동 단위/ 마을 단위 등)
		1-2	연계·협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사업/프로그램 사례	· 현재 지역사회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청소년 성장 지원	공통	2-1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 귀하가 생각하는 청소년 성장지원의 개념 혹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연계 개선 방안	· 귀하는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나 사업(프로그램) 연계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사회에서 연계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연계 협력을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그룹별	2-3	(시범사업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 시범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4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2-5	현장·학계 전문가 관점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조사영역	세부구성		문항내용	상세질문
3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공통	3-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체(기관)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에 관해 기술해 주시고, 어떠한 주체(기관)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 귀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어떠한 주체(기관/조직/인력)가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청소년기관(시설), 지자체,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지역사회 전문가, 청소년 등)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	· 귀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리(방식)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예: 지역 환경을 고려한 방식/ 지자체 직영 혹은 적극적 개입/ 협력적 거버넌스/ 플랫폼 기능/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방식/ 기관장 모임 및 실무자 모임으로 이분화 혹은 주제 중심의 분과형 구조 등)
		3-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역할	· 귀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어떠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예: 지역의 이슈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및 단체 발굴 및 연계, 지자체-교육청-청소년기관 등 조직 연계, 각 주체 간 사업, 서비스 연계 등)
	그룹별	3-5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의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고려사항	· 해당 지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3-6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고려사항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3-7	현장·학계 전문가 관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고려사항	· 지역사회 특성(크기, 유형, 성격 등)에 따라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조사영역	세부구성		문항내용	상세질문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공통	4-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위해 필요한 요건과 성공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그룹별	4-2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	· 00군/구/시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포함) 구축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4-3	정책실무자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 중앙 및 지자체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포함) 구축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4-4	현장·학계 전문가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포함) 구축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전문가 서면조사 분석결과

1) 지역사회 네트워크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범위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과 관련된 이슈나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조정·협력하는 일체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각 주체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면한 지역사회 내 과제의 해결과정에서 처음부터 각 주체들이 공동으로 함께 기획하고 주체적인 참여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자원의 공유를 넘어서 책임과 성과의 공유**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기존은 출신지역이나 학교, 거주지 등과 같은 귀속적 특성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 측면이 강했다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각종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참여 주체들의 '혁신 네트워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권과 행정권이 있는 시군구 지자체 단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동 단위, 마을(읍면동) 단위, 혹은 도보 생활권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과제의 이슈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도 보다 유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표 Ⅴ-7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범위[72)]

조사영역	문항	내 용
1 지역사회 네트워크	1-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범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요이슈나 과제 개선 또는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 모든 자원이 연계, 협력하는 일체의 활동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연결·조정·협력하는 조직 및 행위 • 지역사회의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 공통의 대상에 대해 개인, 집단, 기관 등이 연계하여 함께 하는 연결망 • 민-민, 민-관, 민-학, 민-관-학 주체별로 유연하게 연결되는 소통체계 • 관계자(의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관련 종사자, 전문가 등)의 망 • 지역 주체들이 공동기획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 • 한 개인,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과정 ➡ **지역 내 과제, 민관학 협력체계, 연계·조정·협력, 자원 연계, 공동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 •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주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범위/시군구 단위 • 정책단위로는 시군구단위, 예산권 및 행정지원체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지만 향후에는 마을(읍면동 포함) 단위로 세분화 필요 • 청소년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일 경우 동 단위 등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 범위, 공공영역의 정책을 구성할 때는 광역 단위 네트워크도 고려 • 네트워크 성격에 따라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일상과 삶을 결합하기 위해 마을 단위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대상인구별, 생활권별, 문제영역별로 상황 이슈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성 • 행정소재지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 • 지역사회 청소년 인구의 밀집도를 고려해서 설정(대도시, 농어촌지역 등) • 네트워크는 다양한 위계를 토대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 가능 • 이슈나 전문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다층적 네트워크 필요 즉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나 관련 학부모, 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동단위나 마을단위,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나 전문가 네트워크는 구단위나 더 넓게 광역단위로 확장 • 사업의 실행 편의상 초기에는 행정단위 위주(대도시의 경우 동/마을단위)로 지역단위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실행과정에서 유연한 단위의 설정 고려 ➡ **시군구 단위, 동 단위, 마을, 생활권(도보가능), 다층위**

7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자료는 유사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보완 혹은 통합하였음(이하 자료 동일).

(2)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 사례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관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시설(기관)-지자체-교육(지원)청-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교육복지사업, 돌봄사업 등 지자체-교육(지원)청-마을 간의 네트워크 사업도 활발하다. 하지만 청소년시설(기관)의 경우 개별 시설 단위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유학기제, 마을공동체사업 등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연계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부분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시설(기관)들이 이들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 돌봄 정책 및 사업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다루었지만, 현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부처별 돌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중복성,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유사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 공간, 강사, 프로그램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돌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지역 혹은 마을 단위에서도 청소년 축제, 마을 행사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 시설(기관)에서 청소년 사업에 관한 연합행사도 일부 있으나 많은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행사내용과 참여자들의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낭비적 요소가 많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설(기관)종사자들의 네트워크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보다 긴밀한 연계 협력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Ⅴ-8 연계 협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조사영역	문항	내 용
1 지역사회 네트워크	1-2 연계·협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사업/프로그램 사례	**〈연계 협력이 필요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 청소년시설(기관)-지자체-교육(지원)청-마을 간 협력 네트워크** • 청소년(기관)시설·교육(지원)청·지자체·마을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필요 • 중간지원조직(미래교육협력센터)을 통해 군청과 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 추진 중이며, 청소년유관기관의 3자간 협력체계 필요 • 교육 청소년 사업(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진학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자기주도 자율 동아리 사업 등)이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 기반 추진 •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연계, 혁신교육지구와 같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공교육을 연결해서 정책협력사업 시행 **□ 지역사회 내 돌봄 정책 및 사업 간 연계 협력** • 서비스 영역이 겹치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의 협력 네트워크 필요 • 부처 간 분절적 운영되는 사업의 연계·협업 예)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온종일돌봄사업) 연계, •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연계 • 청소년자립지원(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과 주거지원, 여가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 등) **□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청소년센터(수련관) 간 사업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로 연계 협력 • 대부분의 청소년정책과 사업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 위기청소년(가출청소년, 범죄소년) 네트워크에서 성장지원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사업 간 연계 협력 추진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 필요 • 청소년축제나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 간 네트워크 필요 **□ 기타** • 청소년들의 자치공간과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네트워크 중요 •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2)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및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방안

(1)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의 제공 및 여건 조성과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에서 균형 있는 발달을 돕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요약된다.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과 주체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청소년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지원 방안도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성장 여건과 환경이 제공된다면 청소년 누구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긍정적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들 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고,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성장지원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와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개개인이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찾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 Ⅴ-9 청소년 성장지원의 의미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용
2 청소년 성장지원	2-1 청소년 성장지원 의 의미	•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나은 발달을 하여 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지원체계 • 청소년 성장지원은 시기별로 영역별로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청소년의 성장 경로에 따라 학습, 진로, 돌봄, 활동이 진행되도록 지역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청소년활동가들이 형성되는 지원체계 • 생애주기별 단계에 있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이를 통해 건강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직접 설계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해가는 것(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자치 기반 미래진로 및 삶의 태도 설계) •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형성, 사회관계능력 배양, 직업능력 형성, 민주시민교육 등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및 훈련활동. • 청소년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 • 청소년의 강점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교육,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사람사이 관계 네트워크를 잘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청소년이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으로, 지역과 국가 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체계 • 청소년이 자신의 고유성,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는 자신의 고유성 및 개별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개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해 바른 인성과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모든 청소년이 성별·연령·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시민으로서 건강하고·안전하고·올바르고·행복하게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 **건강한 민주시민, 인자정서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 미래역량 개발 맞춤형 성장, 안전한 환경 및 성장 여건 조성, 지원체계**

(2)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사업의 부진 요인과 개선 과제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으로 분리**된 것에 근거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그간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시설(기관)위주로 진행되었고, **관(官) 주도의 정책 사업에 익숙해져 있는 시설(기관)내 문화**도 일조한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경험과 연계 방식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공동체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절은 결과적으로 타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게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보니 설령 연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이를 엮어낼 수 있는 **네트워커가 부족**하고 **네트워커의 역량도 미흡**하다는 것을 부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부진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들로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협력은 단순히 개별 사업에 대한 홍보차원이 아니라 사업의 기획과 추진, 그리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 내 자원의 발굴과 자원 간 연계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우수사례의 발굴이 필요하고, 박람회, 사례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법령,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인력 양성, 예산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간 청소년시설의 공공성이 강조되지 못하였는데, 지역 안에서 **청소년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표 Ⅴ-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부진요인 및 개선과제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용
2 청소년 성장지원	2-2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연계 정도와 개선 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부진 요인〉**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제도적, 구조적 문제 • 연계협력 경험 부족으로 상호간의 신뢰와 공동체성 낮음 •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중복과 중앙정부 사업의 임의적 분리 • 연대하고 협력하여 추진된 사업보다는 주로 관 주도로 정책 사업 진행 • 지역사회 내 타 기관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간 연계 어려움 • 지역 내에서 연계협력을 위한 공식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만 대응 • 파편적이고 일시적인 연결만 존재하고 있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결 어려움 •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상호 정보공유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 청소년들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과 활동가들의 역량 부족 • 체계화·전문화된 자원 발굴이 아닌 인맥만을 활용한 연계 추구 • 부처별 사업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 •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의 어려움. • 학교 연결이 미흡하여 학교밖에 할애되는 비중치가 높음.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지자체-교육청), 연계협력 경험 부족 타 기관 정보부족, 제도와 시스템 미흡, 네트워커 역량부족,**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지역사회 지원정책이 유사한 기능 담당하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고, 지자체장, 교육장의 의지 • 기관, 단체,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협의체 필요 • 법령 및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한 연계 협력에 관한 근거 마련 • 성과 공유를 통한 경쟁관계에서 상호 연계협력 관계로 전환 • 광범위하게 기관 및 단체들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하려는 적극성이 필요함. • 지역사회네트워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박람회, 사례공유회 등) • 기관(시설)별 특화사업 차별화 합의 필요 • 다양한 민·관 연계자원 정보자료 일원화 필요 •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강화 / 네트워커 양성과정 운영 • 네트워크 회의에 대한 지자체 조례 안에서 근무시간 인정 등의 지원안 마련 • 협력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범부처협의회 등 거버넌스를 이끌어 갈 기구 마련 •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육정책상 연결되는 협력체계를 통한 논의구조 마련 ➡ **지자체-교육(지원)청 담당자 간 유기적 협력, 협의체 구축 조례 제정, 성과 공유, 우수사례 확산, 자원정보 공유, 학교 연계**

(3)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앞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부진요인과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시범사업기관, 공무원,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부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부진요인의 개선을 위한 과제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청소년 성장지원'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라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지자체 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자원의 발굴과 발굴된 자원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자원 간 연계 및 조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킹 역량이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과 추진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전담공무원제 도입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수많은 자원들이 있다. 그러나 개별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부 연합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나 자원 간 신뢰의 부족으로 심층적인 단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보완을 위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립이 요구된다.

셋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인력, 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아직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 간 연계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킹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표 V-1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내용
2 청소년 성장지원	2-3~5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제를 통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의 안정적 운영 •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기관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 성장지원체계 구축(운영안정화를 기준)이 필요하며, 시간, 공간 및 자원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협의체 구성과 이를 위한 지원하는 포럼, 워킹그룹, 전시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연계기제 제공 등 • 청소년지원협의체의 상설화 및 발전방안 마련 • 지자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조례 제정 • 협의체의 구조화(청소년성장혁신지구 지정 및 조례 등을 통해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 등) • 국비 지원 매칭 운영이 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 • 민관협의체를 이끌어갈 중앙 및 지자체 단위의 담당 부서 설정 • 네트워크에서 나온 의견을 직접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 네트워크 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 내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리스트 공유 • 성장지원서비스 공급자 발굴 및 정보제공 • 수요자-공급자 연계 메커니즘 개발 • 연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 • 지자체 교육부서와 청소년부서가 통합 • 민간 역할을 키우고 지자체는 지원(정책 연구 및 기획, 조정)조직으로 기능. • 학교안팎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시스템 운영(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육관계자와 지자체 청소년 관련 담당자 통합근무, 공동기획-실행-평가시스템 등, 지역사회 협의체 정례화 및 업무계획 연동을 통한 실행 중심 논의구조 마련) •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평가지표로 반영 • 학령기 학교완결형을 벗어나 청소년의 전 생애를 두고 연계되는 정책 구상 • 예산의 포괄적인 지원과 사업 내용의 자율성 보장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협의체 구성 및 성장지원체계 구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과 안정적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3)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1)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및 참여 주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과 참여 주체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협의체 운영 주체는 크게 지자체 운영과 청소년 유관기관 운영 등으로 대별된다. 먼저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던 **지자체 운영**을 지지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범위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기관(시설)에서 담당하기에는 어려움도 많고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관기관의 운영**이다. 청소년 유관기관은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의 문제와 필요사항 등을 즉시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고, 청소년 전문 인력과 활동 예산이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과 수요자의 접근성과 공급자 간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고, 지역 내 다양한 협력망과 행정조직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협의체 운영에 대한 책무성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기관)**, 기존 **청소년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맺고 확산**, 현재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모임이나 협의회와 연계** 등의 소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에 관한 의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모든 자원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각 주체를 유형화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지자체, 교육(지원)청]**, **공공[학교, 청소년유관기관, 지역아동센터, 경찰서, 도서관, 평생교육 기관 등]**, **민간[시민단체, 청소년, 지역사회 전문가, 의료·상담기관, 마을교육공동체, 협동조합, 각종 지역협의회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추진되는 것이다.

표 V-1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 및 참여 주체

조사영역	문항내용	답변
3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3~2(공통)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및 참여 주체	〈지자체 운영〉 • 사업의 범위,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청소년기관보다는 지자체 운영 • 지자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지역사회 중심의 협의체인 만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 • 지자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관련 부서 등과 연계 운영 〈청소년 유관기관 운영〉 • 청소년기관이 지역의 아젠다를 즉시 반영할 수 있기에 적절함. •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예산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 • 청소년성장지원 수요자의 접근성과 공급자에 대한 연계가 가능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협의체'이니 만큼 공공성을 지닌 청소년유관기관 운영 〈기타〉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중간지원 조직)에 청소년성장지원팀을 두고 운영 • 다양한 협력망과 행정조직과의 소통이 원활한, 협의체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의식, 책무성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기관) • 기존 청소년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맺고 확산 • 지자체의 청소년담당과와 청소년관련 지자체 법인 또는 민간 • 현재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모임이나 협의회와 연계 •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자발적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 〈참여주체〉 • 시도-시도교육청(지원조직)/시군구-교육지원청-학교-시민단체-지역사회 전문가(실천조직)로 양분 필요, 필수 구성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빌딩 • 청소년기관.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각종단체(청소년유관단체들, 이장단,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단체) 학부모, 청소년, 교육청, 지자체, 청소년기관, 지역아동센터,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민관산학 모든 자원 포함 • 네트워크는 우선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 • 큰 네트워크보다 분야별로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든 후 통합네트워크 구축 •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원의 참여가 필수 • 청소년시설(청소년 포함)과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 등은 핵심주체로 고려하되, 지역NPO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등이 또 다른 주체로 고려 ➡ **지역 내 모든 자원, 행정, 공공, 민간 영역으로 구분**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 및 역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집권적인 조직보다는 분권적인 조직, 한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민관산학 모든 주체가 수평적 협업구조로 운영되는 **협력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책무성과 권한이 보장되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자 중심의 협의체가 아니라 **관리자/실무자 네트워크로 층위를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자 네트워크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상시적 실무자 모임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이슈에 따른 **주제 중심의 분과형 네트워크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를 찾고, 이슈별로 필요하고, 관심 있는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실제적인 논의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열린 운영 방식 혹은 플랫폼**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급한 주제나 중요도가 다를 수 있고,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 현황이 다르기에 지역에 따라 유연하고, 가변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은 첫째, 청소년 성장과 관련하여 **지역의 이슈와 과제를 파악하고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의체는 지역의 수요를 분석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발굴된 지역의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킹** 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존재하는 기존의 여러 **조직, 자원, 네트워크 혹은 유사 사업 간 관계를 정리하고 협력 및 조정**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을 파악하여, 협력이나 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실행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청소년 성장 지원과 관련된 지역 내 대표되는 세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표 Ⅴ-1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 방식 및 역할

조사영역	문항내용	답변
3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3-3~4(공통)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 운영 방식과 역할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운영방식〉** • 청소년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협력 거버넌스 • 행정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청소년관련 중간지원조직이 운영기관으로 활동 • 중앙집권적인 조직보다는 분권적인 조직구조, 유연한 구조가 접합 • 한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수평적 협업구조로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교육기관-학교-시민단체(마을교육 운영 주체)로 연결됨이 바람직함. • 관리자 중심 위원회 및 실무자 중심 등 2~3단계 층위(실무자 간 상시 접촉) • 기관장과 실무자의 관점 및 요구가 다르기에 프로젝트(정책실험)가 필요 • 협의체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권한 부여 • 주제 중심으로 분과형 네트워크 구조로 가야지 실제적인 논의구조가 형성됨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 필수 • 시도 차원과 마을단위에서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 **➡ 협력적 거버넌스, 기관장-실무자 네트워크 분과형 방식, 주제 중심의 분과형 방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 지자체-교육청-청소년기관 등 조직 연계가 선행되고 정례적인 논의구조 기반 마련 • 지역의 이슈 분석, 자원 현황 분석 및 발굴/자원연계 및 상호신뢰 확보 • 청소년 성장 사업의 실행중심의 유연하고 임시적인 실행중심 플랫폼 •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및 토론, 지자체 및 교육청, 복지/지역사회 분야와의 만남 유도, 종합적 추진 전략 수립 • 지역 환경과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분석, 청소년들을 어떤 미래상(목적과 비전)으로 성장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 내 합의 도출 • 협의체는 수요를 조사, 이야기의 장을 마련, 의견 수렴, 방향 제시 역할 • 협의체 내 네트워크는 필요에 따라 해소, 새로 구성되는 등 가변적일 필요 • 유사 협의체 간의 역할 분배 및 관계정리, 중복배제 등도 협의조정 **➡ 지역이슈의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및 단체 발굴 및 연계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 유관 기관 연계, 사업 협력 및 조정**

(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시 고려사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먼저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과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고,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만남과 소통을 통한 상호 간 신뢰와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이 있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분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만남과 연계 그리고 협력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체가 실제적인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있어 우선 지자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 관련 기관(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 대상 연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음으로 넷째, **지역사회 내 기존 협의체와의 관계 설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협의체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와의 역할 분담이나 사업 조정, 협력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각 주제 간 신뢰 및 공동체 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환경 및 특성 반영**이 요구된다. 우선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하고, 지역의 규모, 인프라 현황 등 다양한 변수가 협의체 구성의 고려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표 Ⅴ-14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시 고려사항

조사영역	문항내용	답변
3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3-5~7 "청소년성장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시 고려사항	• 지자체와 청소년시설과의 관계 설정,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명시적 정의 필요 • 6차 청소년정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청소년성장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임을 선언적으로 지속적 노출 필요/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및 인식 제고 필요 • 청소년 중심의 사업운영과 지속적 만남을 통한 자역 자원 간 신뢰 및 이해도 제고 •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공유와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 •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실무자, 청소년 등 협의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해와 합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소통 필요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된 만남과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의 진정한 독립성과 공동체성이 상정 • 지자체에 협의체 설립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한 명분 필요. 이를 위해 예산 지원(국고 매칭) 및 운영 인력 확보(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필요 • 다양한 사람과 시설들을 품어주고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협의체 필요 • 이슈에 대한 발굴과 실질적인 반영을 위해 지자체의 동의 필요 • 우선 필요한 기관들이 모이고 이후 필요성을 느끼는 기관이 합류하는 방식 • 공동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과 가치와 비전을 찾는 주체들 간의 소통 선행 • 관주도의 사업이기 보다, 민관 협동과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일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 시 각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 필요 •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공통의제 개발하고 지역화 하는 노력 필요 • 협의체 구성이나 사업 운영 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전문성 확보 필요 • 지역의 규모나 특성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도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청소년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체들의 다양성으로 충분이 네트워크가 추진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는 자원의 불충분으로 인해 통합적인 구조가 실질적인 협력 가능 • 대도시의 경우 교통이나 이동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생활권 범위 내 몇 개의 지자체를 연계, 농촌지역의 경우 지자체 단위로 운영 • 서울경기 지역은 청소년 및 학부모-지역사회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가능, 농어촌 지역에서 시설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가능성 큼 **□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 대한 인식 제고** **□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와 상호 간 이해 제고** **□ 지자체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확보(네트워킹 역량 제고)** **□ 기존 협의체(네트워크)와의 관계 설정 및 조정** **□ 지역적 환경 및 인프라 등 특성 반영**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1)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이며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과 추진방향이 서로 조금씩 다른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공통되는 관심 주제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추구하는 가치의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참여 주체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다. 협의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발적 참여이다. 또한 참여 주체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 주체 간의 정기적 만남과 소통을 통해 가치와 목표의 공유가 필요하고, 정보, 인적·물적 자원 등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이다. 관 주도의 위계적 구조나 어떤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형태가 아닌 각 주체가 수평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부여와 책임**이다. 협의체 내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더라도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된다. 이를 위해 조례 안에 협의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참여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다. 협의체 운영 주체는 민·관 중 누가 운영하더라도 각각이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협력 거버넌스를 위해 분명한 것은 민·관 간에 수평적 구조 속에서 민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요구 된다.

표 Ⅴ-15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

조사영역	문항내용	답변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4-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요건 및 성공요인	• 지역 사회의 공통된 목표 설정, 거버넌스의 자발적 참여 • 모두의 관심사를 포함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 설정 •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의 사회상(지역주민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와 발전상 포함)과 비전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공유 • 지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실행 합의 •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는 사회상과 비전이 지역사회 학교의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 청소년 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함. •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방향설정/참여주체 간의 신뢰관계 구축. • 거버넌스 성공요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목표의 공유', '주체간의 신뢰'. • 어느 기관도 주종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수평적 구조 확립 • 청소년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민·관·학의 자율적이며 자발적인 실천을 통한 소통과 협력 • 충분한 시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노력,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 • 협력적 거버넌스는 서로를 이해하는 워크숍 등의 만남의 장 마련 • 사람과 기관을 직접 만남으로서 현재 상황과 환경에 대한 파악 •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정성, 상호 존중과 희생 •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운영 당위성, 공공책임성, 운영투명성, 윤리성, 행정력. 조직력, 실행력 • 지자체 지원(예산, 행정력) 및 유관기관장들의 의지 등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담당할 기구 선정 및 해당 기구에 권한 부여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지속을 위해 일정부분의 권한과 책임 필요 • 사업 중심 체계보다는 연계 중심 체계, 결과 중심체계보다는 과정 중심 체계 • 지자체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 추진체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 민간이 먼저 주도하고 정책 및 사업 제안하고 관(官)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 • 지역구성원을 설득시키는 핵심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자원의 소진을 막을 수 있는 장치 필요 **□ 지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의 공유** **□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참여 주체 간의 신뢰관계 구축** **□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의사결과에 관한 권한 부여와 책임** **□ 민간이 주도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⑵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자체별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자체별 지역적 환경, 청소년 실태 및 이슈 발굴과 분석,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관련 목적과 비전의 설정 등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앙차원의 법령 제·개정,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청소년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지역단위별로 지역의 형편과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중앙단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 유관 기관 간**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청소년의 성장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세 주체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요구된다. 앞서 여러 번 제시되었지만,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사업의 고도화에 많은 제한점이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경우, 청소년 분야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킹 역량 등 보다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정책이기에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 지원 자원 간의 파트너십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전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추진과 성과에 대한 공유까지 행정기관, 공공 및 민간 자원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 간의 정기적 만남과 주제별 하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표 V-16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조사영역	문항내용	답변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4-2~4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	• 지자체의 중심(핵심) 정책으로 청소년성장지원 체계 구현 •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 • 지역 환경 및 청소년분석, 지역 청소년의 미래상(목적과 비전)에 대한 계획 수립, 인재양성, 지역 구성원간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 • 협의체 추진영역과 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수행 평가 • 중앙차원의 법령 마련 및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최소 조례 또는 법령 제정 고려 필요.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에 반영 • 학교,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변화에 초점 맞춰 진행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 필요 • 지자체 청소년의 대부분을 품고 있는 조직인 교육부(교육청)와의 소통 • 학교장과의 간담회 및 학생회와의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촉진 요소 마련 •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지자체(지역사회)에서 책임 질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책임 이양 • 교육부, 여성가족부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소통내지는 일원화 • 전담인력의 추가 배치 및 협의체 담당자의 소진 예방 • 지자체 전담부서와 협의체 운영주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협의체 운영모델 제시) • 지역사회 연계·협력 기관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전체 사업의 협동적 구조화. 네트워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 영역을 만들어서 성과 공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해 연계 사업 • 다양한 분과회의 및 소규모 회의 등을 통해 '안건' 발굴,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협의체의 목적과 업무를 명확하게 정리 • 연령별, 단계별, 시기별로 고려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지가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간에도 연계 체계 구축 **□ 지자체별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중앙차원의 법령 제·개정 및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 간의 파트너십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결과[73)]

전문가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지역의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서면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점 논의 사항들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주요 면접 내용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주체, 협의체의 운영방식 및 역할,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1)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

서면조사 결과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를 시군구 행정단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다. 예산권과 행정권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동 단위, 마을 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를 보다 세분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개진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를 기준으로 하되, 이 구축이 잘 되면 이것은 동 단위, 구 단위로 넘어와서 전체가 구축되는 구조라고 생각돼서 저는 아직까지도 대체로 구 단위, 동 단위 까지는 오지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단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 못한 도보이동 가능 범위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공무원 B3)**

73) 이 장의 앞부분 조사개요 부분에 면접조사 참여자와 면접조사 절차와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개요를 기술하였음.

"초등학교 생활권 정도.. 초등학교 학군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지역의 동에 하나 있는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거리 안에서 문제가 해결 되어야지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 것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체가 구성되면 그게 이상적인 성장 지원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거거든요."(학계전문가, A9)

한편 **지역적 상황과 인프라 현황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대도시에는 인프라가 많이 있기에 동이나 마을단위에서도 가능하지만,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읍이나 군청소재지 외에는 적합한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다 넓은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시군구 중심의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이나 법령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아이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범위는 너무 다르고, 저는 그것이 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농어촌에 가면 행정단위 마을단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학령인구도 너무 없구요,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에게 서비스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그나마 읍으로 나가거나 군으로 나가는 거죠, 군청소재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다니는 영역을 구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학계전문가 C9)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사회를 구분하더라도 시군구 경계에 살고 있는 경우 오히려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시설이 더 가까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구축되더라도 청소년을 중심에 둔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000시가 00군과 양옆에 있다든지 00시와 인접해 있을 때, 시군구 내의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1.2km를 가야하는데, 다른 시군의 자원이 200m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생활권이라면 그걸 이용하는 것이 맞는거고, 시군구 내 생활권이라고 하면 멀어도 1.2km에 있는 걸 이용하는 게 맞아요."(학계전문가 C4)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예산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 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정책이나 사업을 행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행정 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정 구역 경계를 뛰어 넘는 지원망이 필요**함을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가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혹은 규모에 따라 마을 단위, 지역(생활권)단위, 광역단위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저는 사실 행정구역이 정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정해졌는데, 최근에는 고정된 경계를 넘어서 행정구역이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범주가 서울시 전체로 뻗어있는 것이라는 측면이죠. 하지만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행정구역이 늦게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의 변화 보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의 주제가 현재 지역사회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의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공무원, B5)

"장기적으로는 동단위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미래상을 중심으로 본다면 동 단위를 중심으로 계속 구상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현재로는 구 단위가 맞습니다. 자치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구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단위이고...돈은 구청에서 내려가고.. 그럼 구의 역할과 동의 역할은 다르게 갈 것이고, 이게 동마다 다 다를 거예요. 결국 다층적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거죠."(학계전문가, A9)

한편, 청소년들에게 근접 거리에 있는 학교를 중요한 네트워크의 축으로 활용하

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학교가 지역 내 공공시설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학교의 문턱을 좀 더 낮추어 학교의 유휴공간과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도보 내지 버스 한 두 코스 정도에 있는 범위에 다 학교들이 있다 보니, 그런 네트워크가 훨씬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있을 것이다...학생들의 사고는 굉장히 글로벌하지만 행동 자체는 그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조금만 멀어도 안 가려고 해요."(현정전문가, C5)

"학교 시설 자체도 이제 공유시설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금 더 개선된 진일보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 벽을 조금 더 허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공무원, B4)

"저도 학교의 새로운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이전에는 잘 가르치기만 했으면 됐다면, 이제는 마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학교에 있다고 보거든요...."(현정전문가, C6)

[주요 내용 요약]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초기에는 시군구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동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음. 하지만,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한 접근도 고려하여, 향후에는 동단위, 마을단위, 생활권 단위 등 보다 작은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광역단위도 포함하는 다층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에 관해 행정구역에 너무 치중하기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부분의 청소년 생활권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학교 혹은 학군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 설정이 필요함.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무에 관한 중요성도 제기됨.

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 주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서면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협의체의 운영 주체에 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협의체의 운영주체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가 직영 혹은 청소년유관기관이나 다른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협의체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협의체 구축 초기에는 지자체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실행 동력이 있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운영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지자체 평가 항목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의 주도권을 지자체에서 갖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게 하는 힘은 지자체가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지자체 평가까지 연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가 요소에서 제외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이후 정책 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청소년 단체 현장에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고 동력을 금방 상실하거든요. 지자체를 기준 축으로 삼아서 성장지원 협의체 내 중앙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현장전문가, C3)

"저도 경험상 지자체가 일단은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플랫폼 기능을 하면서 건강하게 굴러가면 시설이나 기관에서 뚫지 못하는 것들이 부서 간에 연결하고 각자의 공동성과로 가져가게 되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연결이 되고, 이 커뮤니티가 가동이 많이 되더라구요."(공무원, B4)

한편,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관기관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 혹은 자생적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는 것도 제안되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행정 중심의 강제성이 되면 피로감만 쌓이게 되고, 지속적 만남과 협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지역사회 내 몇몇 협의체의 경우 1년에 정기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할 뿐 실효성 있는 협의체나 네트워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 혹은 협의체 내 하위 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 성장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 목표와 미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 성장지원 운영주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미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운영의 컨셉을 마을의 교육력을 살리는 기관이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주민들을 초대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지역의 기존의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양한 시설들도 초대하고 연결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형태가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로서 실질적인 운영은 청소년시설에서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현장전문가, C6)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인프라에 따라 청소년성장지원 운영주체가 반드시 지자체일 필요는 없다. 해당 지역이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를 이끌어갈 역량이 있고,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면, 충분히 다른 주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각 지역에서 마을단위 민간 네트워크나 협의회 등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청소년 기관에서도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예산, 인력, 제도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한 개인 혹은 개별 기관의 노력으로 확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제한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주도 혹은 적극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여러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위에 제시된 두 가지 방식 이 외에 또 다른 형태는 **재단이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의 주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일 기관에서의 네트워크나 협의체를 구축할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거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면, 운영에 많은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재단이나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지자체와 일정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제한점도 상존한다.

"단체장과 의회가 마음만 맞으면 재단 세워 운영하는 겁니다...재단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재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과 완전히 별도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이 사실 가장 급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련관과 같은 단일 기관에서는 권한이 없죠...그런데 재단으로 가게 되면 예산, 사업 등에서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게 되거든요..."(학계전문가, A9)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 분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는 통제 중심이예요...그들이 불안해서 마을 공동체에 직접 집행을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요."(현장전문가, A3)

[주요 내용 요약]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주체가 나누어짐. 첫째, 지자체 직영 혹은 위탁운영, 둘째, 자생적 민간기관이나 네트워크에서 운영, 셋째, 재단이나 중간지원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임.

각 형태의 장단점이 있음. 예컨대 민간에서 운영되면, 활동성이 있지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에 추진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직영은 사업의 추진력과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료적 운영이 되기 쉬움. 한편 재단이나 중간지원조직은 위 두 가지 형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만 지자체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는데 제한점이 있음.

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방식

협의체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 내 **청소년성장과 관련된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이슈와 관련된 자원들을 발굴하여 네트워킹**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이슈나 과제별 자원들로 구성된 **분과형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협의체는 지역 내의 다른 복합 이슈와 관련하여 청소년분과가 해당 협의체의 한 세부 하위분과에 불과했다면, 이 협의체는 청소년성장지원을 중심으로 모든 세부 하위분과들이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들은 대부분 어떤 협의체의 분과 형태나 아동청소년분과의 어떤 형태로만 존재하거든요. 청소년으로만 어떤 협의체로 조정되어있는 것은 없어요...그런 의미에서 이 협의체는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지역에 다양한 방식의 협의체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존재할 때 더 건강하게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현장전문가, A7)

또 다른 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협의체 운영 주체의 상황에 맞게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협의체에게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되, **협의체 운영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협의체의 자생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복지사업의 처음 시작 때에도 고민한 문제인데, 협의체 구조가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느 지역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지역에 자율성을 좀 준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좀 틀이 생길 수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공무원, B3)

마지막으로 **협의체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은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이 마련된 곳에서는 학교와 지역(마을) 간의 연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유관기관은 아직 지자체나 특히 교육(지원)청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관련하여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이들 **참여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방식**이 요구된다.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관계는 물론 협의체 내 참여 주체들 간에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교학점제로 이런 고교활동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과후 활동이지만 교육과정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계획회의 때 많이 논의를 하구요. 아까 이야기한 학교 공간을 한 교실이라도 개방해서 정규교육과정에 타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다른 체험을 돌릴 수 있는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을 마을교육과 연계하는 고민들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공무원 B4)

[주요 내용 요약]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방식은 첫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된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 자원 발굴을 통한 네트워킹 역할이 필요하며 이들 자원들을 협의체 내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둘째, 지역의 특성 및 현황 분석과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역량개발을 위해 협의체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요구됨. 셋째,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관계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 방안에 관해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관련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 각 지자체에도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 **"공무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짊어지라고 하면 어떤 누구도 그것들을 수용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조례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죠. 조례가 재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현장전문가 A3)**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법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 해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전국에서 절반 이상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예산을 나눠서 운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협력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학계전문가, C9)**

둘째, **지역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축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는 중앙단위에서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 네 다양한 자원들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 및 추진 과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책이 계속 도식을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표준화 시켜서 적용하라고 하면 적용이 잘 안될 거 같아요. 매번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그 정책을 시행한 결과나 평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몇 개 했는지 이런 것만 묻고 있어요. 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도구로서 MOU는 몇 개나 시행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MOU 도장 찍는 데 바쁘지, 실제 지역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을 하고, 청소년 성장을 위해 의미 있는 것들을 지역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자 라는 것은 상당히 자발적인 에너지를 기초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행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를 거친 계획이라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전문가, C6)

셋째,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 혁신교육지구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교육(지원)청-마을 간에 연계 협력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성장혁신지구'에서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기존 혁신교육지구의 연계망을 포함하여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된 핵심 참여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협의체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는 것이다.

"00시가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고 있고, 현재 교육지원청과 같이 근무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협의체보다도 통합근무 체제가 좋다고 생각해요...첫 기획 단계부터 함께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고...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정례적인 협의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00이 협업교육지원센터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것이 지역교육청과 공동출자 방식의....교육청 기부가 아니고 지원청 기부도 아닌...시 쪽에 기울어져 있는 교육지원체제거든요. 이게 힘의 논리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을 더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조금 더 수평적인 구조에서 논의하자...그런데 그 논의 구조에 마을이 직접 전문 인력으로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해서 네 주체가 공동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구요."(공무원, B4)

넷째,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 내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지원)청도 지역사회협력전담 장학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고, 협의체 역시 지역을 잘 알고, 네트워킹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역량이 있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전담인력은 기존 담당 업무에 지역사회 연계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 보다는 해당 업무를 전담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상당히 많은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공무원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장지원전담공무원(가칭)이 배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합니다. 물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도 지역 코디네이터를 둔 곳이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 년에 몇 번 형식적으로 회의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 없어요."(공무원, B3)

다섯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중앙에 청소년정책위원회(제10조)와 지방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의 설치(제11조)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육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육성위원회에서 협의체의 의사가 결의되거나 주요안건으로 다루어져 추진될 수 있도록 육성위원회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육성은 청소년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을 위해 중앙에서도 정책위원회 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 자체를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안 되고 있으니까....그걸 살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저는 이 협의체와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현장전문가 A7)

"청소년 기본법 제4조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이 다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교육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 보다 청소년육성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법률적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법리적 검토를 중앙에서 하셔야겠지만....그 정도로 청소년육성에 연계된 우선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을 연계 해 놓았으면...."(현장전문가 A3)

마지막으로 **협의체에 의사결정권 및 권한부여**가 되어야 한다. 협의체가 청소년 성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논의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보다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법·조례의 제·개정,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체제 구축, 협의체와 육성위원회의 연동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언가 협력이나 네트워크 체계가 유지되려면, 정책 간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돼요...그러다보니 안정적이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 중 하나는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어요."(학계 전문가, C9)

[주요 내용 요약]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첫째,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함. 둘째, 지역의 현안과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지역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킹에 관한 역량 있는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다섯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협의체와의 연계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Ⅵ 결론 및 정책 제언[74)]

1. 결론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자원과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의 중요 요소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서비스 간 내용의 중첩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부처 간 사업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사업 간 연계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사례로는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흥시와 노원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앞의 두 곳은 청소년기관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시흥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 사례로

74) 이 장의 1절은 최인재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절의 정책과제는 최인재 선임연구위원과 이윤주 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그리고 노원구청은 민(民)주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례라 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단 내 산하 청소년시설들과 마을교육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직업현장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기관으로 호혜성과 상호의존성, 느슨한 연계를 원칙으로 지역사회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개관 당시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사업 수행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노원구의 경우 관(官)주도의 네트워크가 아닌 오래전부터 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이다. 또한 민(民)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지속성과 운동성이 있다. 또한 관의 지원과 관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주도 네트워크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시흥시의 경우, 시흥시청소년수련관과 매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지역 연계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시청, 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흥시의 경우 현재 청소년시설들을 재단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서 재단 형태 운영의 단점도 있으나, 향후 시청-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재단이 서로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및 핀란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간략하게 각 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 사례의 경우 필라델피아 시의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활용한 교육복지사업의 성격인 PROJECT U-TURN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사업은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민관 참여 주체가 공동의 비전과 목적 하에 '성과공유시스템'을 통해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사례의 경우 지역사회 성장지원 대상을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지역별로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청소년성장지원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과 관련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싱가포르는 총 인구 564만 명의 작은 다인종 도시국가이다. 특징적인 점은 교육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한 정부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위기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 국가이다. 즉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장 받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의 권리가 강조되며, 사회 참여활동이나 시민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및 청소년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부천시, 곡성군 및 유성구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시범사업 담당자, 협의체 위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성장지원협의체 운영주체, 협의체 운영방식 및 역할, 청소년성장지원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성장에 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협의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지자체-교육(지원)청-협의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담인력의 배치와 조례 제정, 전문 인력 양성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지원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음 [그림 Ⅵ-1]과 같이 1차년도 추진체계 개념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1차년도 개념도의 핵심은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주체, 운영 주체 그리고 운영 방식 등과 관련된다.[75]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핵심 구성 영역은 크게 행정, 공공, 민간 세 영역의 축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분야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해당되는데, 지자체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협력전담장학사"가 배치되어 행정영역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담당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공 영역은 대표적으로 학교와 청소년유관기관 등이 해당되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서, 보건소,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공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영역에는 시민단체(NPO), 청소년, 지역사회전문가, 마을활동가, 기업체, 의료·상담기관, 마을(교육)공동체, 협동조합, 각종 지역협의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기존의 많은 협의회나 네트워크들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각 구성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기관은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직영할 수도 있고, 청소년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역량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발한 곳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주체가 운영하든 중요한 것은 협의체 중심에 청소년성장지원이라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하며, 행정, 공공, 민간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75) 현재 3개 시범지역에서는 지역 내 행정, 공공, 민간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역단위 청소년성장지원 과제들에 관해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먼저 각 주체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된 토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자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 다른 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전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안에서는 물론 향후 구성될 협의체 내 하위 네트워크에서도 각 네트워크에서 추구하는 공통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각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정 그리고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도 일정정도 위임[76]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체 내 의사소통 구조가 관주도의 위계적 구조가 아닌 전체 협의체나 하위 네트워크 주체들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Ⅵ-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1차년도 개념도)

76) 지자체 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되어 있는데, 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내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의결 내용들이 청소년육성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2. 정책제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발굴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범위 및 내용을 검토하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장방문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상반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필요한 정책과제의 기초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의 구체적 사안들에 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추진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각 협의체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 하였다. 아울러 정부부처, 지자체 공무원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논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책과제와 세부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림 Ⅵ-2 정책과제 발굴 과정 및 절차

이상의 연구 수행과정을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3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다음 [그림 Ⅵ-3]과 같이 1년차 정책과제로 4개의 정책과제와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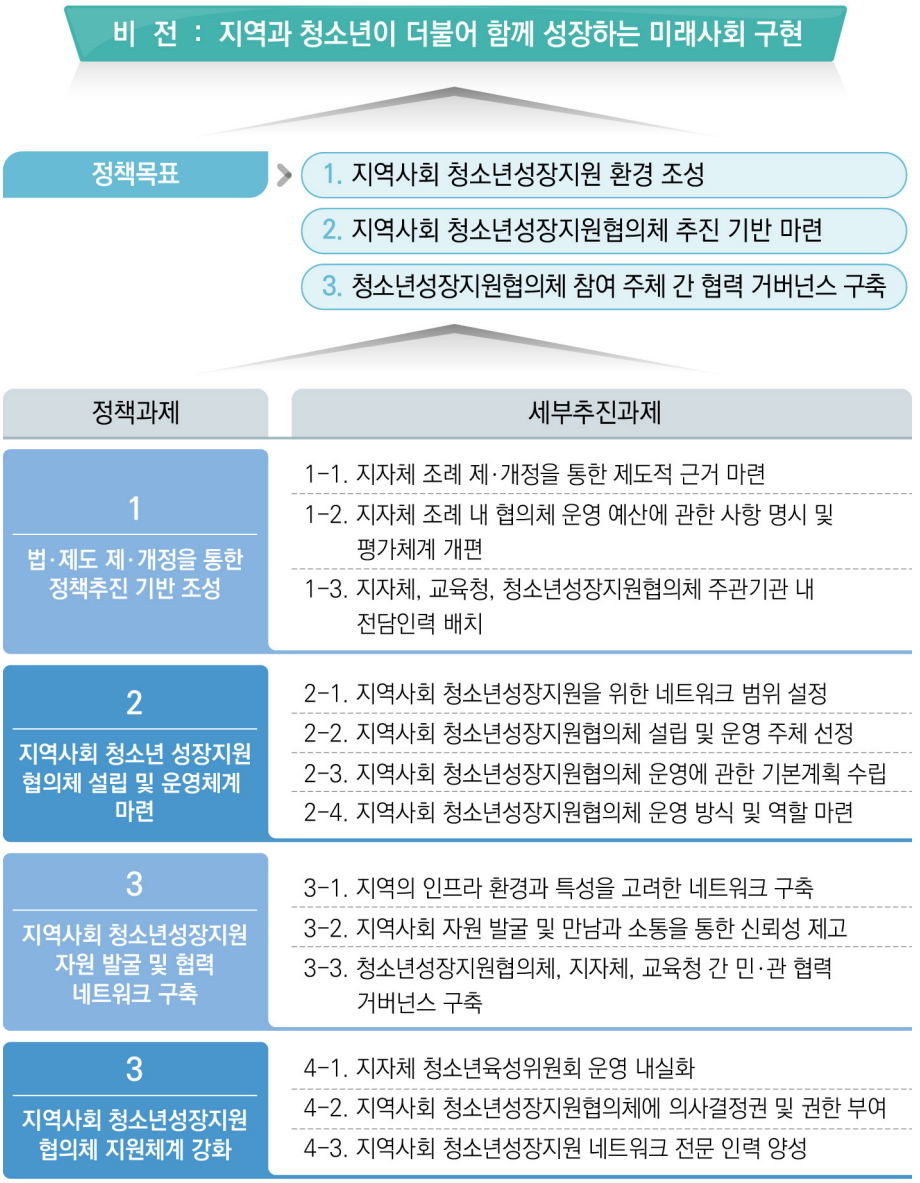


그림 Ⅵ-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1 법·제도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조사나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보면,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성장 전반에 대한 규정은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있으나,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법 제26조에 근거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와 관련된 기구로서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전반을 다루는 관련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지역의 여러 자원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법적 근거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 다른 축으로는 영역 별로 지역사회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정책과제에 대한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을 토대로 정책과제 1 '법·제도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1-1.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1-2. '지자체 조례 내 협의체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명시 및 평가체계 개편', 1-3.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관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에 관해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추진과제: 1-1.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현재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청소년 정책 및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내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내 환경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에 지자체의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사회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표 Ⅵ-1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법률 및 자치법규 구조

영역구분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상위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청소년기본법」
지자체 자치법규	「00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지역사회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회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7](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을 참고해 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운영은 각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운영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설립추진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기준을 토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협의체로서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7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물론 여기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영역도 다루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78]를 통해 볼 때 돌봄 분과에서는 주로 아동과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호안전 분과에서는 위기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정책 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다수 청소년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장 전반을 논의하기에는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성장 전반에 관한 지원 보장을 다루는 법률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Ⅵ-2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79]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신설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안)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지역사회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자원하고,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 **전문가** 등 **지역자원**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둔다.**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안)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에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와는 별도로 '지역사회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이에 따른 운영방식 등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8)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는 건강분과, 고용경제분과, 교육문화분과, 돌봄분과, 보호안전분과, 총괄분과, 환경분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다(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http://www.snwelfare.net/group.html?Table=ins_bbs40&s=4, 2019년 10월 19일 인출.)

79)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28&efYd=20190612#0000.2019.9.24. 인출

또 다른 대안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위원의 구성 등 조례 일부를 개정(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협의체 내 의사결정이 협의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행정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Ⅵ-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현행 「00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00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00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00군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Ⅵ-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00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 「00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군 기획실장, 미래혁신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및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7.7.17.) **또한 위원회 내에는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청소년 포함)이 5분의 1이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청소년성장지원전담기관장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군 기획실장, 미래혁신과장, 행정과장, **청소년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및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과 청소년지도사, **협의체 위원(청소년 포함)** 등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세부추진과제: 1-2. 지자체 조례 내 협의체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명시 및 평가 체계 개편

현재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관련 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복지 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이나 교육 활동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일반 다수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 수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 사업이 상당수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청소년성장지원에 관한 재정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기관에서도 일반 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될 때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조례에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예산 지원 사항을 명기하는 방법이나 별도로 '청소년성장지원기금(안)'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경우, 협의체 회의와 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도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협의체 회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금 형태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 받는 방안이다. 기금의 경우, 정부 예산에 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특성상 적합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한편,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평가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평가 시 지역사회 연계·협력 관련 지표의 강화가 필요하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중앙정부·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지자체 대상 시상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 등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부추진과제: 1-3.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관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관기관 내에 청소년성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배치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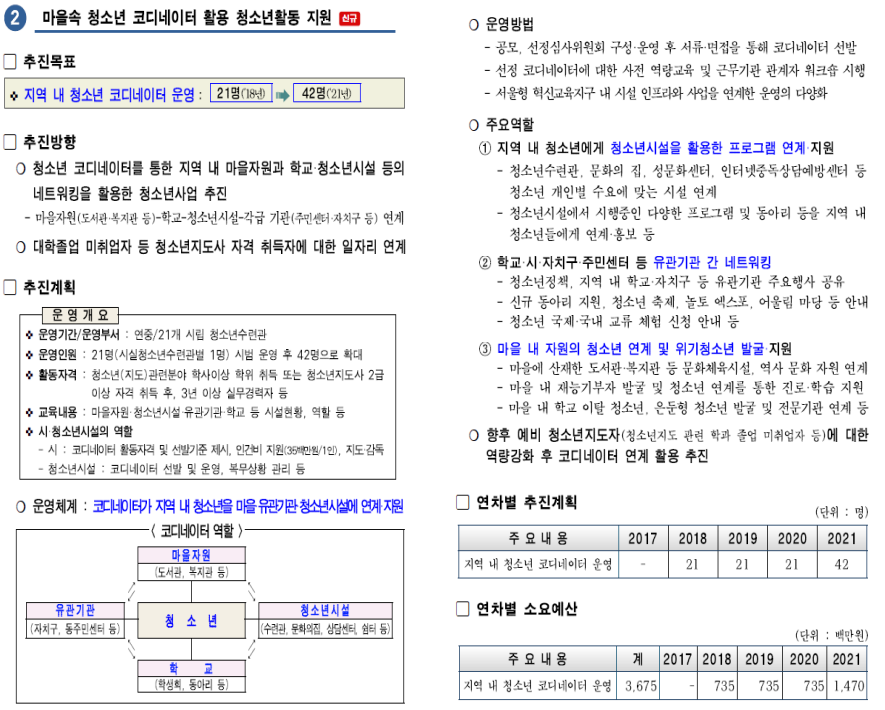
전담인력 배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언급한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서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중장기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계획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
> 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여성가족부, 지자체)
> ○ 점차 늘어나고 전문화되어 가는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조직 설치 확대
> ※ 사례: 서울시 청소년정책담당관, 송파구 청소년정책과
> ○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로 청소년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수행**
> ※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또는 일정기간(2년)이상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전문 직위 등) 하는 공무원 등
> 출처: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pp.78~79.

서울시의 경우 청소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2017~2021)에 근거하여 각 시립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배치하였다. 이들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연계하는 역할로써 청소년 성장지원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단체·기관 간 협력 사업을 준비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자원을 파악하고,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추진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은 물론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삼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자원의 발굴과 공유, 청소년성장 관련 이슈 및 과제의 발굴, 사업의 기획과 추진 및 성과 공유 등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제안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2017).「청소년희망도시 서울」기본계획, 86-87.

그림 Ⅵ-4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용 예시(서울시)

정책과제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체계 마련

▣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조사나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보면,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지역사회 내에 여러 협의체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으나, 청소년 영역은 해당 협의체의 한 하위분과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혹은 대형 사업 내의 몇몇 프로그램의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을 뿐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중심에 두고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 구조는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설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설립과 지역사회 내 자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몇몇 지역에서는 자생적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지역활동가들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해당지역 관(官)의 의지와 잘 갖추어진 지원체제가 해당 네트워크 지속성의 근간이 되었다. 또 다른 성공요인은 지역의 네트워크 운영방식과 체계를 발전적으로 확립해 나갔고,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각 하위 네트워크의 명확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책과제 2(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체계 마련)에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2-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네트워크 범위 설정' 2-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설립 및 운영 주체 선정' 2-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 및 역할 마련'에 관해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추진과제: 2-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범위 설정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동 단위(마을, 생활권[80]), 시군구 단위, 광역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설정하여 시군구 당 각 1개씩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예산권과 행정권이 있는 지자체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사회 내 기존의 네트워크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지역이나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출처: 서울특별시 (2019).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백서

그림 Ⅵ-5 서울의 생활권 구분

80) 생활권이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대권역(권역생활권)과 통근·통학·쇼핑·여가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권역(지역생활권)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5개의 권역생활권과 3~5개 내외의 행정동을 포함하는 인구 10만 내외의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 된다(서울특별시, 2019).

그러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인 동 단위, 마을 단위 혹은 생활권(지역생활권) 단위로 세분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마을)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학군 단위로 구분하려는 지역도 있다. 이 경우 학군이 행정동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학생들의 생활반경이 학군단위로 움직이고 교육관련 주체들도 학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이와 같은 논의도 제기된다. 2003년 교육복지사업이 시작될 때도 2~3개 정도의 동에 있는 몇 개의 초중학교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지역의 학군을 중심으로 구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 생활지역은 마을 혹은 지역(근린)생활권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때론 지역생활권을 벗어난 권역생활권이나 타 지역을 넘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혹은 특정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 작은 마을 단위부터 광역단위와 같은 보다 넓은 개념의 네트워크 단위의 범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를 동 단위, 시군구 단위 등의 행정 단위로 구분하거나 마을이나 생활권 단위로 구분하여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에서 바로 인접한 곳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도 해당 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는 다양한 구분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범위 설정 단계에서 먼저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상황과 입장이 충분히 분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방식으로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범위가 설정되더라도 인접한 지역 간에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부추진과제: 2-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 주체 선정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운영 주체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많은 의견이 나온 대표적인 운영 주체는 지자체, 청소년유관기관,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이다. 그 외에도 재단이나 협의체 운영에 책무성과 의지가 있고 네트워크 역량이 있는 민간기관, 기존의 지역 내 협의체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지자체 직영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개별 기관이 지역사회 내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도 낮다는 것이다. 즉 예산권과 행정권이 있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과 행정지원으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영운영의 경우 협의체의 운동성이 약화되고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청소년유관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내 청소년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 해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이미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 예산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직영과 달리 개별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행·재정적 제약이 많다.

다음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고 몇몇 지역은 이미 상당히 활성화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교육과정과 관련되기에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사업이고 교육지원예산(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도 높다. 하지만 자유학기제 등 '교육'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성장지원'과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상 제시한 개별 기관이나 시설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협의체 운영주체로 주목할 곳은 재단이다. 최근 경기도의 경우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년시설들을 재단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단의 경우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재단 산하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고, 예산과 규모가 뒷받침되기에 지역 내 협력 사업을 대단위로 전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성남시의 경우 앞서 성남시 사례에서 제시하였듯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규모 청바지 프로젝트(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 사업지원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458개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해 설립된 성남형 교육지원단[81]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 및 직업체험 일터 발굴은 물론 교육청, 학교와의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재단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나 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법·제도를 통한 시스템과 지역 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편, 지자체 출연 재단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맡아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재단은 없으나 민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 곳은 민간에서도 위탁받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간 네트워크도 없는 곳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직영하면서 지역의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운영 주체를 맡기 보다는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최선의 운영 주체를 찾아야 할 것이고, 어떤 운영 주체이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81) 혁신교육 중간지원조직인 '성남형 교육지원단'은 현재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에 있으며, 3-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간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세부추진과제: 2-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앞서 세부추진과제로 제시된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 설정, 협의체 설립 및 운영주체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면, 다음으로 고려 할 것은 운영주체로 선정된 곳이 주관이 되어 협의체 차원에서 앞으로 설립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해당 지역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과 환경은 어떠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 현황과 실태 그리고 청소년성장을 위한 이슈나 과제는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은 향후 해당 협의체 사업 추진 방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역의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계획 수립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때론 지역의 여러 자원들이 함께 토의하는 공론의 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올해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협의체 내 각 주체 간의 숙의(熟議)하는 과정은 물론 지역 자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지역사회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토론의 결과를 문서화하여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공통된 목적과 비전을 협의체 각 주체들과 함께 수립하고, 추진과제와 실천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기본계획에 담아 사업 수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나갈 수 있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부추진과제: 2-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 및 역할 마련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방식과 역할을 마련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과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동안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협의체 운영방식과 역할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체 참여 주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 방식이다. 즉 특정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민관산학 모든 주체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업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협의체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 주체 간 신뢰 역시 쌓여갈 수 있다. 둘째, 관리자와 실무자 네트워크를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네트워크 외에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한 상시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주제 중심의 분과형 네트워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 청소년 성장과 관련된 이슈나 과제는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 내 각 주체들의 관심과 설립 목적에 맞도록 주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열린 운영 방식 혹은 플랫폼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연하고, 가변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은 첫째, 청소년성장과 관련하여 지역의 이슈와 과제를 파악하고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협의체는 해당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과 네트워킹 그리고 자원 간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 내 여러 자원, 네트워크, 유사 사업 간 관계를 정리하고 협력 및 조정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을 파악하여, 협력이나 조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과제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장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협의체의 성과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지역 내에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자원도 있고,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자원들도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청소년성장과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마을에 있는 시장 상인이나 시설관리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소 지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작은 공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관련 민간자원들이 함께 하였고, 청소년이 기획하는 지역행사나 축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이전의 1~2번 정책과제들이 법이나 행정 혹은 외형적 틀에 기초한 내용들이라 한다면 정책과제 3번의 경우 협의체의 내적인 부분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하며, 협의체 또한 열린 구조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굴된 자원들 간의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책과제 3번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3-1.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성 제고', 3-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교육(지원)청 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3-3. '지역의 인프라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해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추진과제: 3-1. 지역의 인프라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환경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방법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앞서 2-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역 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지리적 특징이나 인구, 지역의 규모, 인프라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청소년의 실태나 현안과 이슈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도시에 위치한 지역과 농산어촌에 위치한 지역은 인프라 환경의 차이가 크다. 또한 같은 농산어촌이라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자립도가 서로 다르고, 기업체나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주택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도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한 지역 내에서 협의체 구축이 가능한 곳이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 인근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내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82] 혹은 모임 등이 있다. 지역에 따라 특정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이미 활성화된 곳도 있고, 특정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들이 형성된 곳도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지역 내 기존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정·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의체의 정체성과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협의체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82) **지역사회 내 관련조직의 예:** 청소년육성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긴급대응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법대, 약사회, 의사회, pc 문화협회, 학원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꿈드림지역협의체, 쉼터협의회, 그룹홈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해병대, 학교폭력예방 민간 및 종교기관 관계자협의회, 비행예방대책협의회, 학생안전관리협의회, 참교육연대, 비인가대안학교연합회, 1388청소년지원단, 개인택시연합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여성아동안전연대, 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청소년참여기구, 사회복지사협의회, 마을주민자치위원회, 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세부추진과제: 3-2.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성 제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을 초대하고, 만나고, 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 어떤 자원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관심분야는 무엇이고 또한 청소년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만남과 소통을 통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과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먼저 사업 발주기관인 연구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관한 이해와 방향에 대해 워크숍을 2회 진행하였다. 각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협의체 구성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만남과 소통의 과정[83]을 거쳤다. 예컨대 곡성지역의 경우 협의체 구성과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내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지자체장, 군의원, 교육장과의 대화를 통해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 원탁토론회를 통해 대형 네트워크 사업(청소년성장박람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였다.

곡성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대화　　곡성 청소년성장지원 원탁토론회



* 출처: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공.

그림 Ⅵ-6 곡성군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83) 시범사업기관에서의 자세한 사업과정과 내용은 4장에 제시되어 있다.

유성구의 경우도 협의체 정기회의, 학습모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지역연계사업,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초대하여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세미나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토론회



* 출처: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제공.

그림 Ⅵ-7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부천시 역시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 중간관리자 회의, 청소년참여단 회의, 지자체 장과의 만남, 교육포럼, 지역사회 네트워크파티(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자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기회를 가졌다.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회의 부천 청소년성장지원 토론회



* 출처: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제공

그림 Ⅵ-8 부천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활동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협의체 참여 주체의 자발성과 지역 내 자원들의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다양한 통로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세부추진과제: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교육청 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의 운영 주체나 참여 주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협의체, 지자체,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 그림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협의체에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주체는 민간-공공-행정 영역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 세 주체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거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사업 수행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또한 설립된 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 협력관계 구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기획과 운영 및 성과 공유에 있어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 3자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 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남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에 총 5개의 청소년수련관과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 1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성남형 교육지원단'이 재단 산하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남형 교육지원단은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학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재단 내 사무국과 같은 재단 산하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성남형 교육지원단에 있어 재단 내 청소년시설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연계 교육이나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곡성군에서도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곡성의 경우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나아가 도시민들도 곡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에서 2019년 3월

곡성군미래교육협력센터[84]를 설립하였다. 센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농촌유학프로그램 운영, 학생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징적인 점은 센터에는 곡성군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청소년시설에서 파견된 8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협업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성남시와 곡성군의 사례는 지자체-교육(지원)청-재단 혹은 청소년기관 간 연계 협력 사례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중점을 둔 것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설립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향후 세 주체 간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민·관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의체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남형 교육비전 및 목표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전경



* 출처: 성남형 교육비전 및 목표(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2016)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전경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10777(검색일 2019년 10월 21일).

그림 Ⅵ-9 지자체-교육(지원)청-청소년유관기관 협력사례

84)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10777(검색일 2019년 10월 21일 인출, 전경사진 포함).

정책과제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원체제 강화

▣ 제안배경 및 정책방향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과 운영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내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이름의 협의체, 조합, 위원회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되는 곳이나 예산 지원 등의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조직이 중도에 와해되거나 명목상 존재하는 것들도 많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위한 지원체제의 마련은 협의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역할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협의체 주체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기관을 거점 플랫폼으로 하여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내의 각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내 자체 역량 뿐 아니라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책과제 4 '지역사회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원체제 강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4-1.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4-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의사결정권 및 권한 부여' 4-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해 세부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추진과제: 4-1.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청소년기본법」에는 중앙차원의 청소년정책위원회(제10조)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제11조)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이 위원회를 통한 성과 도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실정이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하 기본계획)'에서도 세부추진 과제로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설치확대를 추진하고 있다('17. 6월 기준 168개 지자체→'22년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로 설치 확대). 또한 위원회 운영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연계할 것을 제시하였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기본계획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와 그 하위과제인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일환이다. 청소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자원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위원회의 수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운영이다. 이를 위해 앞서 세부추진과제 1-1.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원회 위원으로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협의체 의결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적극 반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협의체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동시에 위원회 내실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추진과제: 4-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의사결정권 및 권한 부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예산에 대한 심의·검토 기능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안한 지자체 지방청소년육성운영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협의체의 역할 강화와 권한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도적 보완을 통한 외부적 권한 부여 방법이 있다.

한편, 협의체 의결사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내 구성 주체로서 지자체의 청소년전담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지역사회협력담당 장학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행정적인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참여 주체의 역량을 높여감으로써 협의체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다.

표 Ⅵ-5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00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00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추가: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의결사항**

세부추진과제: 4-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 인력의 경우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소통과 연계 협력에 관한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 향후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발전과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협의체 내 위원들 뿐 아니라 지자체 전담공무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마을활동가, 시민단체, 학부모 등 지역의 관련자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협의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에 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 등에 명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연수과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Ⅵ-6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연수 과정(예시)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연수
(사업 명)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모집인원)** 지역별 30명 내외 **(대 상)**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위원, 전담인력 및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자 **(주요연수내용)** ○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 및 중요성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역량 ○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과정 등에 관한 이해 **(기대효과)** 지역사회 청소년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역량 제고

표 Ⅵ-7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과제 추진 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법령 제·개정	추진시기 단기	추진시기 중장기	주무부처
1 법·제도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1-1.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지자체, 행안부 여성가족부
	1-2. 조례 내 협의체 구성·운영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명시	●		●	지자체, 행안부 여성가족부
	1-3.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관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	●		지자체, 행안부 여성가족부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설립 및 운영체계 마련	2-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범위 설정		●		지자체
	2-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 주체 선정	●	●		지자체
	2-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지자체
	2-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 및 역할 마련		●		지자체
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1.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성 제고		●		지자체, 교육청
	3-2.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교육청 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교육청
	3-3. 지역의 인프라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
4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지원체계 강화	4-1.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	●		지자체 여성가족부
	4-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의사결정권 및 권한 부여	●	●		지자체
	4-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	●		●	지자체, 행안부 여성가족부

☑ 국정과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경영목표와의 관련성

1. 국정과제 : 53. 아동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 성장 · 지원 혁신 지역'지정 운영
   4-4-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지자체 청소년 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확산,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4-3-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연구원 경영목표 : Ⅰ-1-① 융합 및 중장기 연구추진 체제 강화
   Ⅰ-1-② 정책현안 신속 대응 연구체제 강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 문헌]

강민정, 안선영, 박동국 (2018).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 서울: 맘에 드림.

강지원, 이세미 (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p 63.

강창현 (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보, 36**(2), 313-332.

경기도 (2018). **경기도기본통계.**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2016). **2016 성남형교육 길라잡이.** 성남: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2017 진로체험매뉴얼.**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2018년 진로체험지원센터 길라잡이(연구자료 2018-6).**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제2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 자료 중 노원구 사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18).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서울: 테크빌교육(주).

김기수 (2018). 경기도 혁신교육 현황 및 방향.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김용련, 이동배, 서정원 (2016). **세종시 교육혁신지구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공동체연구센터.

김준기, 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행정논총, 44**(1), 91-126.

김정주, 김혁진 (2017). **부천시 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p206.

김훈호, 이호준 (2018).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교육적 효과 분석: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연구 36**(5).

류기형, 류영미, 박병현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1-31.

류방란, 김경애, 이은미, 김은혜 (2012). **성과관리 매뉴얼 : 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반기완, 이상화, 양승부 (2016).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행복 마을지표 개발연구(원미동을 중심으로).** 부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박미은 (2002).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1,** 63~91.

박주호, 송지훈, 유기웅, 이지영 (2016).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및 프로그램 원형(prototype) 개발.** 서울: 교육복지정책연구소.

박치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0**(4), 353-376.

백병부, 최보미 (2018). **혁신교육지구 시즌II 평가: 3차년도 공통지표.**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보건복지부 (2018).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보건복지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 **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부천여성청소년센터(2017).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안전지도.**

부천시 자치행정과 (2019). **부천시 광명동 소식 제3호.**

서순탁, 민보경 (2005).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분당-죽전 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25-44.

서용선, 김용련, 임경수, 홍섭근, 최갑규, 최탁 (2015). **마을교육공동체 개념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서울특별시 (2019).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백서.**

서울특별시 (2017).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86-8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전 자치구 확대.** 보도자료(2019. 01. 1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2019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

서혜미, 민소영 (2012).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연구-강남구 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2), 89-108.

성남시청소년재단 (2018). 성남시청소년재단 정책지원팀 중점사업 방향 내부검토 자료.

손지현, 류기형 (2012). 종사자의 개인적 참여동기가 네트워킹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3), 295-325.

송민경, 김주현, 이현주 (2010).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의 발달단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01-229.

송혜승, 이명훈 (2017).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 한국지방**행정학보, 14**(3), 193~212.

시흥시 (2017). **2017 시흥시 사회조사 보고서.**

시흥시 내부자료 (2018). **2018 시흥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신현석 (2010). 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교육행정연구, 29**(4), 99-124.

양병찬, 김지선, 부은희, 서정화, 윤은주 (2016). **노원교육복지 네트워크의 실천과**

주체 형성.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2019). 청소년기관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자료(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리플렛.**

유란희 (2018).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과 효과에 대한 연구: 남양주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147-172.

유성구청소년수련관 (2019). **2019 유성구 청소년성장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은재호, 이광희(편) (2009). **국가 거버넌스 연구**. 서울: 법문사.

이광호 (2008).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선진화 방안 연구: 2000년대 이후 일본, 영국, 핀란드의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 10**(2), 39-62.

이석희, 김상지 (2008). 지역인적자원개발 통합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99-417.

이주헌, 박치성 (2010).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1-35.

이준영 (2007).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이론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34.

이혜숙, 이영주 (2018).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2018-PR-18). 서울: 서울연구원.

조윤정, 김위정, 이근영, 권순정, 김용남 (2018).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수탁 2018-04),**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윤정, 김현주, 이권수 (2017). **학습생태계 확장을 위한 마을교육과정의 개념과 실천방안**(현안보고 2017-11)**.**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윤정, 이병곤, 김경미, 목정연 (2016).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시흥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최윤진(1998).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 **한국청소년연구, 27,** 125-145.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12).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방향 및 전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연구자료 CRM 2018-212).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한동우 (2013). 지역기반의 복지공급체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285-311.

함철호 (2015).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13-343.

희망제작소 (201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시흥: 시흥시청

[외국 문헌]

Agranoff, R. (2004). Leveraging networks: A guide for public managers working across organizations. In John M. Kamenskky and Thomas J. Burlin(Eds.). Collaboration: *Using networks and partnerships,* 61-102.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Agranoff, R., & McGire, M. (2001) Big Question in Public Network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3).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Finer, S. E. (1999). *The History of Government I - Ancient Monarchies and Empi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06). *Youth Work & Youth*

Policy in Finland - Fact Sheet.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06). *Finland National Youth Act(72/2006).*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12). *Youth Work Youth Policy in Finland.* 내부자료(미간행).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17). *National Youth Work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17-2019.*

Klijin, E. H., Koppenjan, J., & Termeer, K. (1995). Managing networks in the public sector: A theoretical study of management strategies in policy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73*(3), 437-454.

Kooiman, J. (1994).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tions.* London: Sage.

Laurence E. Lynn Jr. Carolyn J. Heinrich,, & Carolyn J. Hill. (2002). *Improving Governance: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1.

McGuire, M. (2003). *Is it Reality So Strange? A Critical Look at the Network Management is Different from Hierarchical Man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7th National Public Management Research Conference, Washington, D.C.

Nancy., & Pierre (2004). *Governance and Multi-stakeholder Process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4.

Provan, K. G., & Kenis, P. (2008).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29-252.

Provan, K. G., & Milward, H. B. (1995). A preliminary theory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effectiveness: A comparative study of

four community mental health system. *Administration Science Quarterly, 40.* 1-33.

Prusak, L., & Cohen, D. (2001). *How to Invest in Social Capital. Harvard Business Review,* Jun. 86-93.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nsom, J. Griffis, H., Eder, J. Byrnes, V. French, B. Balfanz, R. Maclver, D., & Robin, D. (2014). *A promise worth keeping: Advancing the High school graduation rate in Philadelphia.* Philadelphia, PA: Project U-Turn.

Rhodes, R. A. W.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6,* 652-667.

Salamon, L. M. (2002). *The tools of government :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Salberg, P. (2016).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이은진 역).** 푸른숲(원저 2011 출간).

Shergold, P. (2008). Governing through collaboration. In Janine O'Flynn and John Wanna(Eds.).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13-24, ANU E Press.

Verschelden, G. Coussée, F. Van de Walle, Tineke., & Williamson, H. (2009). *The History of Youth Work in Europe: Relevance for today's youth work policy.*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Wasserman, S., & Faust, K.(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春日井敏之·桜谷真理子·竹中哲夫·藤本文朗編 (2016), ひきこもる子ども若者の思いと支援, 三学出版

斎藤環 (2000), 社会的ひきこもり：終わらない思春期 PHP新書.

竹中哲夫 (2016), 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のミッションと展望, かもがわ出版.
内閣府 (2011), 平成25年度版, 子ども·若者白書.
内閣府 (2013), 平成25年度版, 子ども·若者白書.
内閣府 (2017), 平成29年度版, 子ども·若者白書.
内閣府 (2018), 平成30年度版, 子ども·若者白書.
内閣府子ども若者子育て施策総合推進室 ひきこもり支援者読本

[사이트]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 전경.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10777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공공안전부(Ministry of Home Affairs).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Juvenile-Delinquent -Juveniles-Arrested.aspx에서 2019년 7월 1일 인출
교육부보도자료 (2017. 12. 28.). 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964&lev=0&searchType=S&statusYN=C&page=17&s=moe&m=0503&opTy pe=에서 2019년 5월 16일 인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043에서 2019년 5월 14일 인출
네이버지도.
https://v4.map.naver.com/?query=%EB%B6%80%EC%B2%9C%EC%8B%9C 2019.10.9. 인출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우 홈페이지.
http://www.nowonyouthcenter.org/contents/sub01/?sMenu=04&st=sub01에서 2019년 8월 26일 인출
동양뉴스통신 (2019.1.13.)
http://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326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WT.ac=search에서 2019년 5월 22일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4&efYd=20190619#0000. 에서 2019년 9월 24일 인출
(사)청소년과 나란히 홈페이지.
http://naranhi.net/education/275에서 2019년 8월 29일 인출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Probation-New -Orders.aspx에서 2019년 7월 1일 인출
상상이룸센터 블로그.
https://www.sangsangirum.net/entry/%EC%82%AC%EC%97%85%EC%86%8C%EA%B0%9C?category=534141에서 2019년 8월 26일 인출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9. 01. 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도약을 위한 협약식 개최.
http://enews.sen.go.kr/news/view.do?bbsSn=159757&step1=3&step2=1에서 3월 16일 인출
성남통계.
http://stat.seongnam.go.kr/sn_stat/sub11.asp에서 2019년 8월 31일 인출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http://www.snwelfare.net/group.html?Table=ins_bbs40&s=4에서 2019년 10월 19일 인출.
소라에.
http://www.sorae.okinawa/?p=1048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소라에.
http://www.sorae.okinawa/wp-content/uploads/soraemap4/25845-CAYSN_OKINAWA/html5 html#page=15에서 2019년 8월 7일 인출
소라에.
http://www.sorae.okinawa/?p=907에서 6월 24일 인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http://www.shyc2007.com/youth_policy/program_01_01.do에서 2019년 8월 31일 인출
시흥통계 (2019). 인구현황.
http://www.siheung.go.kr/administration/gboard/%EC%9D%B8%EA%B5%AC%ED%98%84%ED%99%A에서 2019년 9월 2일 인출
시흥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eduinfo.siheung.go.kr/new/03_educity/esd_new.jsp에서 2019년 9월 1일 인출
아산시 홈페이지.
https://www.asan.go.kr/main/cms/?no=41에서 2019년 7월 30일 인출
아산시 통계.
https://www.asan.go.kr/stat/node/?menu=040101에서 2019년 8월 30일 인출
아시아투데이,(2017. 12. 26.)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26010013093에서 7월 21일 인출
유성구청 홈페이지.
http://www.yuseong.go.kr/?page_id=11586에서 2019년 10월 20일 인출.
중앙일보(20218.12.6). 서울 서초구·중구 재정자립도 1위...노원구 최하위. https://news.joins.com/article/23237672.에서 2019년 8월 29일 인출
충남넷 미디어,
https://www.chungnam.net:8100에서 2019년 7월 9일 인출
통계청.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12&tblId=DT_D_BB&dbUser=NSI_IN_612 2019년 8월 31일 인출.
통계청.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694&tblId=DT_69401_B000025&dbUser=NSI_IN_694)에서 7월 24일 인출
Data Gov SG.
https://data.gov.sg/에서 2019년 7월 20일 인출
Hatena Blog.
https://hamatoriumlab.hatenadiary.org/에서 2019년 6월 26일 인출
Medical Note 홈페이지.
https://medicalnote.jp/doctors/150714-000001-XVXTOP에서 2019년 6월 13일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https://minedu.fi/en/national-youth-centres에서 2019년 5월 16일 인출
MSF(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NCPR/About-Us에서 2019년 7월 15일 인출
MSF(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msf.gov.sg/NYGR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MSF(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NCPR에서 2019 7월 15일 인출
MSF(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NYGR/Our-Programmes에서 2019년 6월 20일 인출
MSF(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policies/Children-and-Youth/Pages/Integrated-Service-Providers-(ISP)-for-MSF-funded-Youth-At-Risk-Programmes.aspx에서 2019년 7월 28일 인출
NHK NEWS WEB.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527/k10011931001000.html에서 2019년 6월 15일 인출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https://minedu.fi/documents/1410845/4274093 /VANUPO+EN+2017+final.pdf/7d135bb5-7824-422c-b51f-c9d9fa4f6877/VANUPO +EN+2017+final.pdf.pdf에서 2019년 5월 19일 인출
Population sg.
https://www.population.sg/population-trends/demographics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Project U-Turn.
http://www.projectuturn.net.에서 2019년 4월 13일 인출
Pyninc.
https://www.pyninc.org/about에서 2019년 4월 13일 인출
WIKITREE(2019.1.31.). 시흥시, 2018 청소년정책 평가 여성가족부 최우수기관 선정.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01257.

2019. 9.2. 검색. uth.gov/shared-resources/project-u-turn에서 2019년 4월 13일 인출

WIKITREE(2019.03.12.). 곡성군,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미래교육협력센터 출범.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10777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Yle(2018.10.29.). 많은 수의 핀란드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을 경험.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4043에서 2019년 5월 14일 인출

Yle(2017.04.19.). 삶에 만족하는 핀란드 청소년들. http://yle.fi/uutiset/osasto/news/pisa_study_finnish_youth__especially_boys__content_with_life/9571764에서 2019년 5월14일 인출

Youth.gov: Project U-Turn https://youth.gov/shared-resources/project-u-turn에서 2019년 4월 13일 인출

Youthpolicy.org. http://www.youthpolicy.org/pdfs/factsheets/singapore.pdf에서 2019년 5월 1일 인출

内閣府.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6honpen/b1_04_02.html에서 2019년 6월 16일 인출

内閣府. https://www8.cao.go.jp/youth/kenkyu/hikikomori/pdf/kosshi.pdf에서 2019년 6월 18일 인출

内閣府.

https://www8.cao.go.jp/youth/whitepaper/h29gaiyou/s3.html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内閣府.

https://www8.cao.go.jp/youth/kenkyu/h19-2/html/4_2_7.html에서 2019년 6월 26일 인출

総務省統計局.

http://www.stat.go.jp/data/shugyou/2017/index.html에서 2019년 6월 15일 인출

総務省統計局.

http://www.stat.go.jp/data/roudou/sokuhou/nen/dt/index.html에서 2019년 6월 30일 인출

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p/a_menu/shotou/futoukou/03070701/002.pdf에서 2019년 6월 15일 인출

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p/b_menu/houdou/30/10/__icsFiles/afieldfile/2018/10/25/1410392_1.pdf에서 2019년 6월 15일 인출

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p/b_menu/houdou/30/10/__icsFiles/afieldfile/2018/10/25/1410392_2.pdf에서 2019년 6월 15일 인출

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p/b_menu/boshu/detail/1414266.htm에서 2019년 6월 24일 인출

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koubo/icsFiles/afieldfile/2019/03/12/1414269_01_1.pdf에서 2019년 6월 24일 인출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84842.pdf에서 2019년 6월 16일 인출
日本財団 THE NIPPON FOUNDATION
https:/www.nippon-foundation.or.jp/app/uploads/2019/01/new_inf_201811212_01.pdf에서 2019년 6월 15일 인출
京都市情報館.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095938.html에서 2019년 8월 8일 인출
ぐんまスマイルライフ.
https://smilelife.pref.gunma.jp/pc/pdf/support_guide.pdf에서 2019년 7월 12일 인출
明治安田総合研究所.
https://www.myilw.co.jp/publication/myilw/pdf/myilw_no75_feature_3.pdf(横浜市都市経営調査, 広域行政課 調査季報 横浜政策力 Vol. 162 (2008. 3)에서 2019년 7월 12일 인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olicy implementation systems for youth support using local community networks with a view to ensure efficient interconnections among resources, policies,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to support the healthy growth of youth. The key findings and outcome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reviewed literature on the concept of the local community network,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ocal community networks, cooperative governance, and youth growth. The authors also analyzed the central government's youth growth support projects using local community networks and examined potential interconnections among the projects. This was followed by analysis of local and international cases where different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in the community were networked.

Pilot projects were operated as a way to buil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s for youth support in the community. Three pilot projects were chosen based on the size of the subject areas,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projects,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potential cooperation with municipalities. An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aim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the managers and members of the Youth Growth Support Council, municipal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and working-level professionals on measures to buil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s for youth support in the community. For the survey, both written and in-person interviews were conducted.

Our findings are as follows: In Korea, the Seongnam Youth Foundation took the initiative in build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eongnam Educational Support Group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youth facilities run by the foundation and community education networks. Asan City was an example of cooper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municipality where the Asan Smart Youth Center played a central role. Nowon District in Seoul was an example of private-led networking initiated by spontaneous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 example of cooperation between the municipality and the education office centering on the community education groups was found in Siheung City. Many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se domestic cases, which was followed by case studies in the USA, Japan, Singapore, and Finland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the necessity of community youth growth support councils and considerations for their operation.

The pilot projects were intended to identify community resources, organize councils, and build cooperative systems between municipalities and education offices. The projects also involved a range

of cooperative activities within the community. The authors presented policy tasks based on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found from these pilot projects.

Lastly, with a goal of building policy implementation systems for youth growth support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oncrete policy measures, the authors consulted expert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community network, the player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growth support council, the council's roles and operations, and methods to build systems to support youth growth. The experts shared the common view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council to take the overall responsibility for youth growth in the community and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the municipality, the education office, and the council. They also suggested assigning exclusive staff, enacting municipal ordinances, foste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substantializing the operation of local youth growth committees.

Based on these findings and outcomes, the authors presented the policy vision of "a future society where communities grow with youths," three policy goals, four policy tasks, and 13 detailed tasks.

Keywords: Community network, youth growth support, cooperative governance, youth growth support council.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 / 김경준·김정숙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I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김희진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헌·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헌·유민상(자체번호 19-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헌·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 탁 과 제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류정희·이상정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헌·김형주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헌·하형석·이용해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험(12.16)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42-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연구보고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3330
9 791156 542421
ISBN 979-11-5654-242-1 93330